

국립국어원 2012-01-03

발 간 등 록 번 호

11-1371028-000376-01

2012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2

- 연구책임자: 강 정 희(한남대학교)
연 구 원: 김 지 속(영남대학교)
- 조사 주제: 오징어 잡이에서 덕장까지
- 조사 지역: 동해 근해(울릉도)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2012년도 민족생활어 조사”에 관하여 귀 원과 체결한 연구용역 계약
에 의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12년 9월 28일

연구책임자: 강정희(한남대학교)

연 구 기 관: 한남대학교

연구책임자: 강정희

연 구 원: 김지숙

제 1 부

사업 개요

제1장 연구 개요	3
1. 조사 개요	3
1.1. 소멸 위기의 어촌 생활어_3	
1.2. 조사의 목적과 필요성_4	
1.3. 조사 방법_5	
1.3.1. 조사의 의의	1.3.2. 조사 과정의 특징
1.3.3. 조사 시 고려 사항	
2. 조사 지침	7
2.1. 현장 조사 지침_8	
2.1.1. 일반 원칙	2.1.2. 조사 지점 선정 기준
2.1.3. 제보자 선정 기준	
2.2. 전사 지침_10	
2.3. 올림말 선정 지침_12	
2.3.1. 일반 원칙	2.3.2. 세부기준
2.4. 뜻풀이 지침_15	
2.4.1. 기본 원칙	2.4.2. 뜻풀이 형식
2.4.3. 뜻풀이 용어	
제2장 연구 추진 과정	16
1. 조사 계획	16
2. 조사 보고	18
2.1. 제보자_18	
2.2. 조사 기간 및 방법_21	
2.3. 조사 장소_22	
2.4. 조사 내용_24	

2.5. 조사 결과물_24

제 2 부

연구 내용

제3장 생애 구술 27

1. 울릉도의 오징어 잡이 27

- 1.1. 울릉도의 미세기와 바람 이야기_27
- 1.2. 오징배와 낚시 도구 이야기_39
- 1.3. 울릉도의 오징어 이야기_78

제4장 조사된 어휘 94

1. 오징어 잡이에서 덕장까지란? 94

- 1.1. 오징어 잡이_94
- 1.2. 덕장_95

2. 관용표현 96

- 2.1. 어로 생활과 관련한 표현_96
 - 2.1.1. 어업 행위
 - 2.1.2. 기타 생활 관련한 표현
- 2.2. 오징어의 상태와 맛에 관련한 표현_101
 - 2.2.1. 오징어 표현
 - 2.2.2. 어류의 맛과 상태에 관한 표현

3. 행위자 104

- 3.1. 어부_104
 - 3.1.1. 위치에 따른 명칭
 - 3.1.2. 역할에 따른 명칭
- 3.2. 해녀•해남_107
 - 3.2.1. 역할에 따른 명칭

4. 장소 110

- 4.1. 바다_110
 - 4.1.1. 거리에 따른 명칭
 - 4.1.2. 깊이에 따른 명칭
 - 4.1.3. 날씨와 시기에 대한 표현
- 4.2. 육지_116
 - 4.2.1. 장소에 따른 명칭

5. 도구 118

- 5.1. 운송 도구_118

5.1.1. 배 종류의 명칭	
5.1.2. 배의 부분 명칭	
5.2. 착용 도구_133	
5.2.1. 옷	5.2.2. 모자
5.2.3. 신	5.2.4. 기타류
5.3. 채집 도구_136	
5.3.1. 낚시	
5.4. 덕걸이 도구_143	
5.4.1. 덕	
6. 오징어의 명칭	147
6.1. 울릉도에서 사용되는 오징어의 명칭_147	
6.1.1. 크기에 따른 명칭	6.1.2. 상태에 따른 명칭
6.1.3. 시기에 따른 명칭	6.1.4. 암수에 따른 명칭
6.1.5. 기타 명칭	6.1.6. 오징어 묶고 세는 단위
7. 어로 행위	153
7.1. 어로 활동_153	
7.1.1. 오징어 잡이	7.1.2. 덕걸이 행위
8. 음식	161
8.1. 음식 재료와 음식명_161	
8.1.1. 재료	8.1.2. 음식명
9. 민속	168
9.1. 제의_168	
9.1.1. 고사 및 속설	9.1.2. 노래

제 3 부

연구 결과

제5장 마무리	175
참고 문헌	183
부 록	185
찾 아 보 기	247

제 1 부

사 업 개 요

제 1 장 연구 개요

제 2 장 연구 추진 과정

제 1 장 연구 개요

1. 조사 개요

1.1. 소멸 위기의 어촌 생활어

본 조사는 2010년부터 한반도 남쪽 전 해안에 분포되어있는 어촌을 대상으로 한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사업의 제3차 년도에 해당하는 조사이다. 3차 년도인 2012년의 조사는 1차 ~ 2차 년도인 2010년과 2011년도에 실시한 해안 어촌 생활어를 기초로 한 섬 중심의 어촌 생활어이다.

최근 우리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생태주의 언어학은 언어와 자연생태계의 상호 관련성에 대해서 연구하는 신생학문이다. 생태주의 언어학자들은 언어가 소멸하는 것과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종들이 멸종하는 현상을 같은 차원에서 보고 있다. 현대 사회의 산업화로 인한 생태계 오염과 파괴로 인한 많은 생물종들의 멸종은 해당 생물종들과 관련된 어휘, 표현법들의 소멸이 바로 언어와 생태계의 상호 관련성을 말해준다.

인간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 적응하며 다양하고 역동적인 생활 모형을 창조하며 살아간다. 이러한 인간 활동의 매개체는 바로 언어이다. 언어를 통해 축적된 문화를 전수하며, 또 언어를 이용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것이다. 또한 시대, 문화가 변해가면서 언어가 또 다른 모습을 띄기도 한다. 새로운 언어가 생기고, 사용하던 언어가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기도 한다. 언어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소멸하는 것이다. 특히 언어의 소멸은 언어생태학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그것은 언어의 소멸은 곧 그 언어를 사용하던 지역, 인간들의 정신문화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화 인류 언어학자 데이비드 크리스털의 “문화란 주로 말과 글이라는 언어로 전달되고 있고 이 언어의 죽음으로 인해 언어 전달이 무너지면 지식 상속에 심각한 손실이 일어나고 이는 다시 개별 문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말은 사라져 가고 있는 언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이러한 지형적인 특징은 바다라는 환경에 적응하여 그와 관련된 여러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지역이 많음을 나타낸다. 또한 그것을 담고 있는 언어가 다양함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처럼 어촌 지역의 생활 문화를 담고 있는 말을 어촌 생활어라 한다. 여기에는 어촌 지역의 환경, 전통사회, 경제, 문화 활동과 연계

된 어휘, 표현이 들어 있고, 또한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수많은 문법적인 요소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해양 생태계의 변화와 어촌 사회의 급격한 도시화와 이로 인한 경제 형태의 변화는 이와 관련된 어촌 생활어에도 커다란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그 결과 전통 어촌 생활 문화를 담고 있는 언어는 소멸되었거나 소멸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새로운 언어 - 표준어의 세력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어촌 생활어 소멸과 확산 속도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 앞에서 본 조사 사업의 시대적 요청은 당연한 것이다. 더구나 어촌 생활어에 대한 수집, 조사는 그동안 정부기관이나 국어학자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어촌 생활어에 대한 조사, 정리는 현재 절실히 필요한 작업이다. 현장 조사를 통한 어촌 생활의 기초 어휘와 기층문화와 관련된 어휘, 어법 등에 대한 문서화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여기서 문서화란 데이비드 크리스털의 말처럼 사용 가능한 모든 매체를 동원하여 언어의 다양한 모습을 영구적으로 그려 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1.2. 조사의 목적과 필요성

본 사업의 목적은 한반도 남쪽의 해안 지역에 분포된 섬 중심의 어촌을 대상으로 하여 바다와 관련된 기초 어휘와 소멸 위기의 기층 생활어를 조사, 문서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국 해안 지역을 조사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바다와 관련된 기초 어휘와 어촌 사회·경제·문화 활동과 연계된 기층 생활어를 조사한다. 이러한 조사 작업은 해당 어촌 지역의 정체성을 살피고 그들의 삶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기초 작업이 될 것이다.

문화는 그 지역의 토속적인 언어와 기층 생활어의 결정체이다. 그러나 최근 어촌 사회의 급속한 도시화의 속도와 함께 해당 지역의 토속 언어와 기층 생활어가 점점 소멸해가고 있다. 또한 섬과의 해양 교통이 발달함에 따라서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사람들의 언어, 문화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야기되고 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 기관이나 학자들에 의해서 수행되어왔던 지역어 조사는 대부분 농촌 생활 중심이었다. 이러한 조사 지역의 편중성은 곧 해안 지역-어촌 생활에 대한 본격적인 언어학적 조사 사업과 업적의 영세성에 대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조사 사업은 이와 같은 현실을 보완하기 위하여, 또한 최근 표준어의 간섭과 기계화로 인하여 소멸 위기에 놓인 어촌의 전통사회·경제·문화 활동과 연계된 기층 생활어를 조사하여 이를 문서화(documentation)하여 민족문화의 정체성과 다양성을 확립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오늘날 어촌 사회의 급속한 도시화와 지구 온난화 현상에 따른 바다의 온도 상승은 해양 생태계의 변화를 야기하고 이는 또한 섬사람들의 생활 생태계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어촌 사회의 환경, 생태계의 변화와 파피는 어촌 생활과 문화의 변화, 소멸을 의미한

다. 이는 나아가 그것을 담고 있는 언어의 소멸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소멸 위기의 개체들에 대한 기록과 보호는 현시점에서 필수적이며 시급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소멸 위기의 언어를 조사하고 이를 문서화(documentation)하는 일은 언어 유지의 필수 조건이다. 문서화는 언어 유산의 상징이 될 몇 가지 어휘만을 수집하는 식의 비교적 단순한 과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문서화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전 편찬이라는 전통적인 작업의 수준을 넘어서 구술 발화 등과 같은 담화 자료를 녹음기, 사진, 동영상 등 모든 매체를 동원하여 조사 대상을 하나의 언어 활동체로서 그려 내는 대규모의 사업을 말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한 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그 모습 그대로를 그려내는 것이다.

어촌 생활의 기초 어휘와 구술 발화 자료는 지금까지 각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국어의 어휘, 표현법의 발굴이 기대되며 나아가 국어 어휘장을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어휘 체계를 정리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이러한 일련의 작업은 어촌 지역에 관련된 국어문화 아카이브를 구축하게 하는 기초 작업이 될 것이다.

1.3. 조사 방법

어촌 생활의 기초 어휘와 소멸 위기의 기층 생활어 조사를 위해서 사용하는 조사 방법은 질문지에 의한 현장에서 직접 조사방법을 채택한다. 기초 어휘 조사는 공통 질문지를 가지고 조사를 하며, 개별 주제 조사는 연구원 각자의 간략 질문지를 이용한다. 질문지 조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설명하기 어려운 해당 어휘에 관해서는 사진을 병행하여 조사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해당 어휘 항목을 조사하고, 나아가 조사 어휘를 심층 밀착 조사하여 해당 어휘의 하위 항목의 어휘까지 수집한다. 질문지를 이용하여 효과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조사자의 조사 어휘 항목에 대한 문헌 조사를 통해서 조사 대상에 대한 이해는 기본이며, 조사 과정에서의 꼼꼼함과 성실함이 요구된다.

1.3.1. 조사의 의의

- 어촌 지역 기초 어휘와 소멸 위기의 기층 생활어에 관한 일련의 조사는 사라져 가고 있는 어휘의 보존 작업에 기초 작업이 될 것이다.
- 질문지를 통한 조사는 기본적인 어휘 항목이 정해져 있으므로 어촌 생활에 관련된 기초 생활 어휘를 수집하기에는 용이한 방법이다.
- 또한 이 조사 방법을 통해 여러 조사 지점의 해당 어휘를 비교 분석하는데 필요한 자료 수집에 용이하다. 해당 어휘가 지역별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것이다. 조사 후 해당 어휘의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어촌 지역의 생활 어휘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 질문지를 통한 해당 어휘의 조사 뿐 아니라 조사자의 심층 밀착 조사는 하위 항목의 어

휘를 수집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어휘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어촌 생활어의 어휘망 확충, 어휘 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해안 어촌과 섬사람들의 어촌 생활어의 실태를 비교 파악할 수 있다.

1.3.2. 조사 과정의 특징

- 조사 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지역에 대한 1차적 배경인 자연 환경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2차적 배경인 역사적인 조건과 외부 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경우에 조사 어휘에 대해 심층적으로 접근하여 다양한 확장 어휘를 수집할 수 있다.
- 조사를 수행하기 전에 기초어휘 항목에 대한 선정과 이와 관련된 질문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질문지를 통해 질문하기 어려운 어휘 항목에 대해서는 사진 자료를 준비하여 함께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질문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되어야 한다. 조사의 원활한 진행과 질 높은 어휘 수집을 위해서는 조사 어휘 범주, 어휘 항목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 수집 어휘가 대표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여러 제보자를 통한 조사가 필요하다.

1.3.3. 조사 시 고려 사항

- 조사 지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어촌 지역이라는 일반적인 요소 이외에 해당 지역만이 가지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수집할 수 있는 어휘의 양과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해당 조사 어휘가 가지는 특수성과 일반성의 양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 윤리적 차원을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인 개인, 집단의 행동과 말이 기본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설명을 위해서는 배경과 과정을 고려해야 하고, 이를 선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2. 조사 지침

기초 어휘 조사는 소멸해가는 어촌 생활 기초 어휘를 수집하기 위해 작성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해당 어휘를 조사하여야 한다. 어촌 생활 기초 어휘 조사를 위한 질문지는 어촌 생활에 관련된 행위자, 환경, 어획물, 어로도와 어로방법, 음식, 민속에 관련된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범주별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행위자
- 환경 : 시간(물때, 미세기, 하루), 날씨(바람, 비, 눈, 해·달·별, 기타), 공간(방위, 바다, 해안가, 지형)
- 어획물 : 물고기(부분 명칭, 종류, 상태), 조개류(부분 명칭, 종류, 상태), 게(부분 명칭, 종류) 해조류(종류, 상태), 기타(종류, 상태)
- 어로도와 어로행위 : 그물류(부분 명칭, 종류), 낚시류(부분 명칭, 종류), 배(부분 명칭, 종류), 어로 도구 기타, 어로 행위(조개류, 해조류, 그물류, 배, 기타)
- 음식 : 젓갈류, 기타
- 민속 : 제의(벉고사), 금기·속설·은어·노래

또한 소멸 위기의 기층 생활어 조사를 위해서 어촌의 집단별, 직업별, 영역별, 기층 생활어 중 조사 지역에 특수하게 나타나는 상황에 맞는 범주를 정해 조사한다. 간략 질문지를 작성하고 질문지를 근거로 해당 어휘를 조사하고, 나아가 하위 항목의 어휘를 수집한다.

조사는 직접 질문 조사 방식으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행위자(제보자)의 구술발화를 채록하여 이를 바탕으로 어휘를 추출해내고 어휘의 용례를 추출하기 위함이다. 질문지의 범주별 조사 항목에 맞추어 어촌 생활 기초 어휘와 기층 생활어를 조사한다. 또한 다양한 하위 항목의 어휘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조사 지역의 제보자와 일정 기간 숙식을 함께 하는 심층, 밀착 조사 방법을 채택한다. 조사자와 제보자 사이에 친밀감이 형성될 때 비로소 조사 어휘 외의 주변 생활어까지 조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자의 구술발화 자료를 근거로 하여 생활어 어휘, 의미, 용례, 행위, 사회·문화·생태·역사의 맥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 주제와 관련이 없는 개인 생애사는 가급적 채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질문지를 이용한 심층 밀착 조사를 통해 어촌 생활 기초 어휘와 기층 생활의 어휘장을 넓히고 어휘체계를 구축하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조사의 원칙으로 한다.

2.1. 현장 조사 지침

현장 조사를 위해서는 조사원들은 문헌 조사를 통하여 조사 대상 지역에 대한 지리, 역사적 배경에 대한 정보를 얻은 후 조사에 임하여 조사의 질을 높인다. 또한 기초 어휘를 먼저 조사한 후 개별 주제 조사를 진행하여 조사 가능한 기초 어휘의 확장 어휘, 어법을 보완 조사 한다. 기초 어휘 조사는 공통 질문지를 이용하며, 개별 주제 조사는 간략 질문지를 이용한다.

2.1.1. 일반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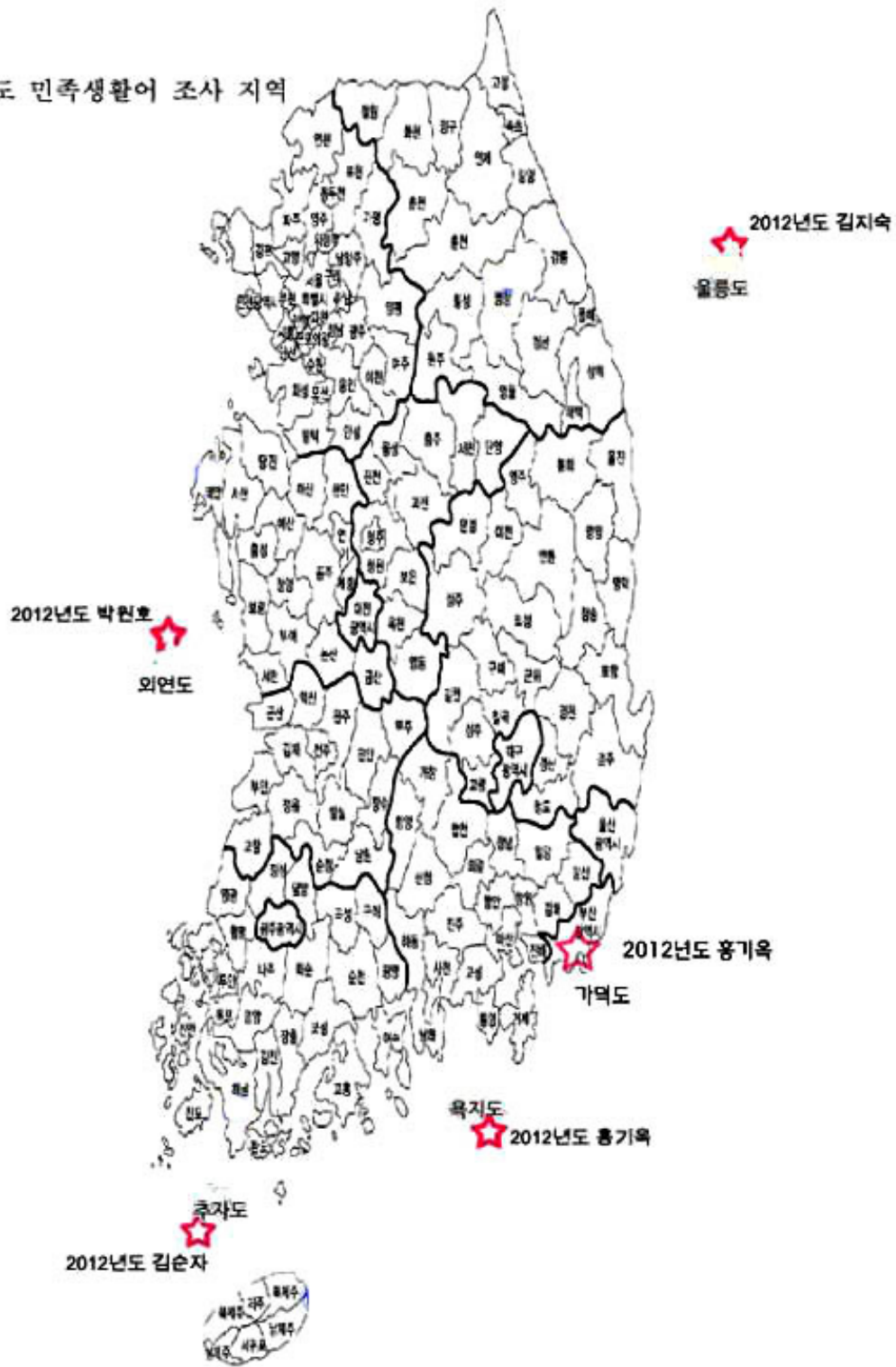
- 각 조사 지역에 해당하는 어촌 생활 기초 어휘와 문법형태소를 조사 대상으로 한다.
- 조사 현장에서 채록된 모든 어휘를 수집하여 해당 어휘가 전형적인 의미를 가질 때 올림말로 상정할 수 있다. 또한 이에 확장된 여러 어휘를 수집하여 관련 어휘 체계망 구축을 위한 기초를 마련한다.
- 어휘론적 변종만을 올림말로 선정하며 음운론적 변종은 올림말로 상정하지 않는다.
- 조사된 어휘 항목에 대해서 사전 편찬을 위한 정보가 기술되어야 한다. 또한 조사된 어휘 용례는 대표성과 일반성을 획득하기 위해 2개 이상 제공되어야 한다.
- 모든 사진 자료와 음성자료는 최종 어휘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조사 대상에 대한 어휘의 실물이 존재할 경우 모두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여 사진과 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 조사 대상에 대한 행위와 실물에 연관된 동영상을 촬영하여 영상 파일을 제출할 수 있다.
- 조사 대상자를 통해 관련 그림 자료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올림말 선별 기준에 의해서 올림말로 등록하지 못한 어휘도 조사 자료 정리 방식에 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어휘 목록은 국어원에서 검토, 올림말로 선정 가능한 어휘는 다시 조사자에게 보내 올림말로 선정할 수 있게 한다.

2.1.2. 조사 지점 선정 기준

- 조사 지역 선정의 기준은 한반도 남쪽의 동해, 서해, 남해, 제주도의 바다에 위치하고 있는 섬으로서 역사적으로 어촌생활을 해온 어촌 섬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동일 해안에 분포한 어촌들에 분포되어있는 어촌 생활어의 기초 어휘와 기층 생활어의 다양한 어휘와 어떤 상관성 및 시차성을 보여주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 다음은 2012년도 ‘소멸 위기의 어촌 생활어 조사’를 위하여 선정된 각 동해, 서해, 남해, 제주도 근해의 섬들이다.

☆ 2012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지역



2.1.3. 제보자 선정 기준

이 사업의 성격상 기존의 방언학에서 적용하여 왔던 제보자 선정 기준(NORMs)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어촌 생활어 조사의 제보자 선정은 조사 상황에 맞게 정하되 될 수 있는 대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보자는 조사 지역에서 3대 이상 거주한 50~60세 이상으로 어업에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는 지역 토박이로 한다.
- 70세 이상의 제보자는 되도록 학력이 낮은 사람을 선정하도록 하고, 50대와 60대의 경우는 중학교 정도 졸업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한다.
- 눈과 귀가 어둡지 않고 치아 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 구술 발화 자료의 채록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입담이 있는 사람이 제보자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2. 전사 지침

※ 어휘 수집을 위한 전사 지침을 따르되, 음운론적인 정밀 전사가 필요한 경우(구술전사 등) 국립국어원의 지역어 전사 지침을 참고할 수 있다.

○ 올림말(표제항) 및 용례

- ①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능한 한 어간을 밝혀 적는다.
- ② 유기음화, 경음화, ㄷ-구개음화, 유음화, 자음군단순화, 비음화 등과 같은 공시적인 음운규칙이나 음성규칙에 의한 음운변화나 음성변화는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국토폰 → 국토폰, 가치 → 값이, 노코 → 놓고, 실라 → 신라, 감만 → 값만,
 흑토폰 → 흑토폰

- ③ 일반적인 음운규칙이나 음성규칙에 의해서 예상되지 않는 음운변화 혹은 음성변화 또한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어휘들이 올림말로 선정될 경우 ‘발음 정보’에 명시한다.

예) 김빰 → 김빰, 양념간장 → 양념간장, 서울씨 → 서울서, 돈토폰 → 돈도

- ④ 단모음 ‘ㅣ’가 이중모음 [wi]로 실현되는 것도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 ⑤ 단모음 ‘ㅣ’가 이중모음 [we]나 [e]로 실현되는 경우 소리 나는 대로 전사하되 해당 어휘 뒤에 ()를 두어 표준어를 밝혀 준다.

예) 차뽈 → 참뽈(참외), 헤이 → 헤이(회의) 등

- ⑥ 이중모음 ‘ㅣ’가 예측가능한 음성환경에서 [e]나 [i]로 실현되는 경우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민주주이 → 민주주의

나에 → 나의

이사 → 이사(의사)

이자 → 이자(의자)

- ⑦ 이중모음 ‘-이’가 [-i]로 실현되는 경우에는 해당 어휘 뒤에 ()를 두어 표준어를 밝혀 준다.

예) 의사 → 으사(의사)

나으 → 나으(나의)

으자 → 으자(의자)

- ⑧ 자음 뒤에서 이중모음 ‘-에’가 [e]로 실현되는 경우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지혜 → 지혜

해성 → 해성

- ⑨ 단모음 ‘-에’나 ‘-이’가 [E]로 실현되는 경우 해당 어휘가 기원적으로 ‘-에’이면 ‘-에’, ‘-이’이면 ‘-이’로 전사한다.

예) 대떡[E-] → 대떡

- ⑩ 단모음 ‘-어’나 ‘-이’가 [ɐ]로 실현되는 경우 해당 어휘가 기원적으로 ‘-어’이면 ‘-어’, ‘-이’이면 ‘-이’로 전사한다.

- ⑪ 전설 모음 앞에서 ‘-ㅅ’이 구개음으로 실현되는 것은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샤람 → 사람

세수 → 세수 등

- ⑫ 음장은 별도의 기호를 두어 전사하지 않으며, 다만 올림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발음 정보’에 명시한다.

- ⑬ 체언 어간말 자음 ‘ㄷ, ㅌ, ㅈ, ㅊ’ 등이 곡용 패러다임에서 마찰음 ‘ㅅ’으로 실현된 경우에는 소리는 나는 대로 전사하고 해당 어휘 뒤에 ()를 두어 표준어를 밝혀둔다.

예) 바시 → 바티(발이)

저시 → 젓이(젓이)

꼬시 → 꽃이(꽃이)

- ⑭ 조음위치동화에 의한 음운론적 변이형들은 음운변화는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보듬기다>보둥기다, 안기다>앙기다, 암캐>앙캐 등

- ⑮ 변자음화에 의한 음운변화는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익꼬 → 있고, 묵꼬 → 묻고(埋) 등

- ⑯ 표준어에서 ㅅ-불규칙, ㅂ-불규칙 활용을 하는 어휘들이 정칙 활용을 하는 경우에는 소리 나는 대로 전사한다.

예) 이서서, 부서라, 지서라 등

추버서, 매버서, 짜버서 등

2.3. 올림말 선정 지침

2.3.1. 일반 원칙

- ① 모든 어휘론적 변종들은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② 단순 음운론적 변종은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음장, 장단, 비음화, 유음화, 경음화, 격음화, 자음군단순화, 위치동화, 활음화, ㄷ-구개음화(형태소 경계) 등의 음운규칙이 적용되어 기저형의 예측이 가능한 표면형은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③ 다음의 올림말 선정 세부기준을 참고하되, 필요시 협의 과정을 거친 후 올림말 선정의 예외를 결정한다.

2.3.2. 세부기준

- ① 움라우트 실현형 : 괴기, 핵교, 호랭이, 귀경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다만, 게재자음 제약에도 불구하고 움라우트가 실현된 경우에는 올림말로 선정할 수 있다.(매디(마디), 쇠리(소리), 개지다(가지다) 등).
- ② 어두경음화 실현형 : 걱정(걱정), 쏘주(소주), 까지, 깨구리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③ ㄱ-구개음화 실현형 : 질(길), 지둥(기둥) 등
 - ☞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④ ㅎ-구개음화 실현형 : 성(형), 소자(효자), 심(힘), 숭년(흥년) 등
 - ☞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⑤ 체언 어간말 자음군의 어간재구조화형 : 흑(흑), 닥(닭), 갑(값)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⑥ 체언 어간말 자음 ‘ㄷ’과 ‘ㄴ’의 음운론적 교체형 : 바대(바다), 가매(가마), 감재(감자), 봉에(봉어), 고등에(고등어), 잉에(잉어)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⑦ 치찰음화(혹은 구개모음화) 실현형 : 벼슬(벼실), 찌나물(쓴나물), 씨다(쓰다, 苦)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⑧ 모음 상승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ㄱ. ㅏ>ㅗ : 자두(자도), 삼촌(삼촌), 사둔(사돈), 가우리(가오리)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ㄴ. ㅓ>ㅡ : 그지(거지), 은니(언니), 그짓말(거짓말)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ㄷ. ㅞ>ㅣ : 기(蟹), 시상(세상), 히푸다(헤푸다) 등

- ㉞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⑨ 유음 아래서 ‘ㄴ’의 전설모음화 : 흐리다(流), 마리다(마르다), 고리다(고르다) 등
 ㉞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⑩ 순음 아래서 ‘ㄷ > ㄱ’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어휘 : 몰(馬), 팔(팔), 뵤다(뵤다) 등
 ㉞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⑪ 어두음절에서 ‘ㄷ > ㄴ’의 교체형 : 새다리(사다리), 채곡채곡(차곡차곡), 재갈(자갈) 등
 ㉞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⑫ 순음 아래서 ‘ㄴ > ㄱ’의 변화를 반영하는 교체형 : 봉어리(병어리), 볼(별), 보짐(버짐), 모루(머루) 등
 ㉞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⑬ 자음첨가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ㄱ. ㄹ-첨가 : 모가지 > 모감지, 호맹이 > 흙맹이 등
 ㉞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ㄴ. ㄴ-첨가 : 고치다 > 곤치다, 까치 > 깐치, 무치다 > 문치다, 나중 > 난중 등
 ㉞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ㄷ. ㄷ-첨가 : 고르다 > 골르다, 도르다 > 돌르다(속이다, 흠치다), 지리 > 질리(길이) 등
 ㉞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ㄹ. ㅇ-첨가 : 해구다 > 행구다, 바우다 > 방우다(배우다), 베이다 > 뺨이다(배우다)
 ㉞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⑭ 단순 모음 교체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ㄱ. ㅏ > ㅓ : 망 > 명(그물), 쇠망 > 쇠명, 살강 > 설경 등
 ㉞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ㄴ. ㅓ > ㅏ : 구석 > 구삭, 흘청 > 흘창, 베개청 > 베개창, 수령 > 수랑, 뚜경 > 뚜강 등
 ㉞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ㄷ. ㅣ > ㅐ : 비늘 > 베늘, 비누 > 베누, 함씨 > 함쎄(할머니), 개비 > 게베 등
 ㉞ 올림말로 선정한다.
- ㄹ. ㅓ > ㅕ : 고자리 > 괴자리, 도토리 > 뒤토리, 코 > 궤, 꼬랑 > 궤랑(도랑), 고 > 궤 등
 ㉞ 올림말로 선정한다.
- ㅁ. ㅕ > ㅐ : 궤기 > 게기, 궤비 > 게비(식물), 외우다 > 에우다, 뒤키다 > 메시다 등
 ㉞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ㅂ. ㅓ > ㅕ : 구저리 > 귀저리(구더기), 굴뚝 > 궤뚝, 꾸다 > 궤다, 추다 > 취다 등
 ㉞ 올림말로 선정한다.
- ㅅ. ㅐ > ㅓ : 꿩이 > 꿩이, 왜홀태 > 외홀태, 산토펙이 > 산토펙이, 꺾 > 궤 등
 ㉞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⑮ 단순 자음 교체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자음교체가 지역적 특성일 경우는 예외)
- ㄱ. ㅂ>ㄱ : 자봉침>자광침, 버마제비>거마제비, 덩석>덕석, 고부리다>고구리다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ㄴ. ㅂ>ㄴ : 진눈깨비>진눈깨미, 버버리>버머리, 땅개비>땅개미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ㄷ. ㄴ>ㅂ : 나막신>나박신, 대리미>대리비, 입감>입갑, 비점>비점(버짐)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ㄹ. ㄱ>ㅂ : 주걱>주벽, 웅구럭대기>웅구럽대기(미꾸라지)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 ㄴ. ㄱ>ㅇ : 닥성냥>당성냥, 복송씨>봉송씨, 꼭다리>꿍다리(꼬리), 물팍>물팡(무릎),
 어덕>어딩(언덕), 꼭사리>꿍사리(송사리), 등
 ☞ 부분적으로 수용한다.
- ㅂ. ㄱ>ㅎ : 아곱>아홉, 돛>뚫, 숙->송-(雄), 군지>훈지(그네)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⑯ 조음위치동화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안기다>양기다, 암캐>양캐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⑰ ‘ㄹ’ 삽입에 의한 어간 재구조화형 : 앓다>안즈다, 엮다>여끄다, 양기다>양그다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부분적 수용 가능)
- ⑱ ‘ㄷ’의 탈락 여부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여수~여시, 가슬~가실, 잇다(이서라~
 잇꼬), 붓다(부서라~붓꼬) 등
 ☞ 체언인 경우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⑲ ‘ㅂ’의 탈락 여부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술~소풀~소불(부추), 장팡~장꼬방(장
 독대), 마름~말밤, 덩다, 춥다 등
 ☞ 체언인 경우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⑳ ‘ㄱ’의 탈락 여부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가새~가시개, 몰개~모래, 생강~새양,
 시렁~실경, 개암~깨금, 질구다~지루다(기르다)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 ㉑ 평음의 유기음화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차꼬(자꾸), 혼차(혼자), 펑풍(병풍), 팍나
 (밤낚), 폴세(벌써), 탐박질(달음박질), 몬차(먼저), 클씨(글세)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부분적 수용 가능)
- ㉒ 어간말 자음 ‘ㅈ, ㅊ, ㅌ’ 등의 어간재구조화(마찰음화) : 꽃(꽃), 웃(웃), 빗(빗)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부분적 수용 가능)
- ㉓ 용언의 어간재구조화형은 한글로 표기할 수 있을 경우 : 끓다(견다), 끓다(견다)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2.4. 뜻풀이 지침

2.4.1. 기본 원칙

- ① 순환적인 뜻풀이를 피해야 하며 뜻풀이에 표제어의 일부나 관련 어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예) 고리타분하다「형」 고리고 타분하다.
- ② 한 단어로 뜻풀이를 해서는 안 된다.
- ③ 뜻풀이는 뜻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줄여 뜻풀이한다.
- ④ 가능하면 문학작품이나 입말 자료 등에서 다양한 용례를 찾아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2.4.2. 뜻풀이 형식

- ① 정의항은 기본적으로 ‘종차+유개념’의 형식을 따른다. 이때 명사는 명사(형)로, 동사나 형용사는 각각 동사와 형용사로, 부사와 관형사는 각각 그에 맞는 용언의 활용형으로 뜻풀이한다.
예) 자배기01 #5 「명」 등글넓적하고 아가리가 넓게 벌어진 질그릇.

└>종차
└>유개념
- ② 올림말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한 경우 부가 뜻풀이를 정의항 다음에 제시한다. 이때 ‘짧은 정의+설명’ 형식으로 뜻풀이하고 ‘설명’ 부분은 반드시 종결어미 ‘-다’로 끝나는 형식으로 한다.
예) 간01 #5 「명」 「1」 음식물에 짠맛을 내는 물질. 소금, 간장, 된장 따위를 통틀어 이른다.
- ③ 생활어 및 직업어에서 조사된 모든 올림말은 뜻풀이를 한다.

2.4.3. 뜻풀이 용어

- ① 뜻풀이에 사용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표제어로 등재된 것이어야 한다.
☞ 단, 해당 표제어가 전문어인 경우에는 표제어가 아닌 단어를 뜻풀이에서 사용할 수 있다.
- ② 뜻을 정확하게 풀이할 수 있는 용어를 고르되, 가급적 쉬운 말을 사용하도록 한다.
- ③ 한자어와 고유어가 비슷한 빈도로 쓰이는 경우에는 고유어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원칙적으로 준말은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준말이 사용 빈도가 높거나 문맥상 준말이 더 자연스러운 경우는 준말을 사용할 수 있다.

제 2 장 연구 추진 과정

1. 조사 계획

민족생활어란 민족이라는 범주와 생활이란 의미, 언어란 방식이 결합된 말로 이해된다. 민족생활은 우리 민족이 오랜 세월을 걸쳐 형성한 문화에 기초한 생활방식을 말하며, 이러한 민족생활은 언어를 통해서 구체화된다. 그러므로 민족생활의 총체적인 모습을 살펴 보기 위해서는 생활 현장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그 실마리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어휘는 표상하는 사물 또는 개념에 따라 생성하고 소멸하는 특징을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에서 산업화·도시화로 전환이 거의 완성된 단계이다.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생활방식도 산업화·도시화에 적합하게 변화하였으며, 이러한 생활방식의 변화는 다시 사용하는 어휘의 변화로 이어졌다. 이런 까닭에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고수해온 전통적인 생활어는 소멸 위기를 맞게 되었으며, 현대 일반인은 민족생활에 대한 지식을 얻기가 점점 어렵게 되었다. 여기에 민족생활어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본 조사는 사회적인 변화 요인으로 인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생활어를 그 대상으로 했다. 1차년도에 시행된 조사에서는 ‘어업 생활어’와 ‘장인의 말’을 조사했고, 2차년도에서는 그 대상을 ‘모필(붓)’과 ‘김치’로 정해 모필과 김치의 제작 과정 속에 나타난 어휘를 조사했다. 또 3차년에는 ‘장 담그기’와 ‘떡’을 정해 우리의 전통 식생활에서 사용되는 어휘를 조사하였다. 1차년, 2차년, 3차년도의 조사를 통해 우리 생활과 관련된 어휘 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그래서 4차년도에서는 ‘소멸 위기의 어촌 생활어’라는 큰 범주 속에서, 아직은 우리 생활 속의 행위지만 이미 그 전통의 방법은 잊혀져 가고있는 ‘그물 손질부터 어판장까지’를 주제로 정해 어촌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기층생활어를 수집하였다. 5차년도인 2011년은 4차년의 주제와 관련 속에 있지만 강원도의 언어 특색도 담을 수 있는 주제로 ‘명태 잡이에서 덕장까지’를 조사하였다. 6차년도인 2012년도에는 울릉도를 조사할 계획이다. 즉 도서지역의 어촌생활어에 중점을 두어 울릉도의 어로 생활의 중심인 ‘오징어 잡이에서 덕장까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처럼 어촌생활어를 조사한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조사 지역에 차이를 둔 것은 동해안 지역의 다양한 언어 양상을 채록하고자 하는 목적에서였다. 그 결과 강원도와 경상북도, 내륙과 섬이라는 지역과 지형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생활상의 차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기층생활어를 반

영할 수 있었다. 이러한 조사로 인해 동해안 어촌 지역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어휘를 담을 수 있었는데 이는 경상도 지역과 강원도 지역의 언어를, 내륙과 도서지역의 언어를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예전부터 어촌이 발달했다. 그러나 어촌 사회의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어촌은 점차 추억 속의 어촌이 되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양 생태계의 변화로 인해 해수면의 상승, 어획량의 변동, 어종의 변화로 인해 울릉도 지역에서도 한류성 어종인 명태와 같은 어종뿐만 아니라 난류성 어종인 오징어의 어획량도 점차 감소되고 있다.¹⁾ 울릉도 어촌 주민의 대부분이 오징어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만큼 오징어는 울릉도 주민 생활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²⁾ 그래서 어촌 지역의 대부분 사람들은 오징어 잡이 또는 덕장 일에 종사하고 있었다. 근래 어로 기술의 발달, 어민 수 감소 등의 생활 환경 변화와 육지와는 다른 지형적인 차이로 인해 새로운 도구 사용과 어선의 변화가 야기되었다. 이처럼 빠른 기술 발달로 인해 과거 오징어 잡이에 사용된 도구와 방법이 사라져가고 있는데 이는 언어의 변화로까지 이어지므로 이에 대한 전반적인 기록이 필요하다.³⁾ 이는 울릉도의 어로 생활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오징어 잡이와 오징어 덕장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야 함을 말한다.

이 외에도 최근 인위적으로 가공하는 가공 방법의 변모도 어촌 생활 문화의 변화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어촌 사회의 환경, 생태계의 변화와 파괴는 어촌 생활과 문화의 변화, 소멸을 의미한다. 또 육지와 달리 울릉도에서 오징어는 눈, 창자를 이용해 ‘오징어창대기탕, 오징어창대기젓’과 같은 식품을 만들기도 하는데 대체적으로 20종류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식품은 울릉도의 대표적인 서민 식품의 하나이므로 이를 통해 어촌 기층생활어도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어획량 감소와 분포 구역의 축소, 어로 기술의 발달로 인해 오징어와 관련된 어촌 생활도 변화가 예견되고 있다. 또 이러한 어촌 생활문화의 변화는 언어의 변화로까지 이어져가고 있어 오징어 잡이와 관련된 어촌 생활어의 보존과 기록이 시급하다. 그래서 본 조사는 해양 생태계의 변화로 소멸해가는 동해안 지역의 어촌생활 문화를 채록하기 위해 ‘울릉도의 어로 생활, 오징어 잡이에서 덕장까지’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제까지 어촌 생활어에 대한 연구는 주로 민속학자, 수산학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들은 어류명과 해조류명 등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표준어로 설명하여

-
- 1) 과거에는 ‘춘태바리, 동태바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울릉도에서도 명태가 많이 잡혔다고 한다.
 - 2) 울릉도 주민은 ‘우리는 명이나물과 오징어로 먹고 산다’고 말을 했는데 이는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1998)의 ‘울릉도 방언의 문법(최동주)’에서 ‘옛날에 울릉도 뭐 옥수수, 감자 해 가지고는 묵고 살고 오징어로 인자 잡어야 그거로 내 가용에 썼다 말이지. 그때는 아무것도 없고 그저 마 오징어를 잡아야 우리는 산다 커는 그거빠꾸 없었어요. 울릉도는 그렇게 살았어요’를 통해서도 생계 유지에 주수단으로 오징어가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예를 들어, 최근 오징어는 채낚기와 같은 기계화된 시설로 잡고 있지만 과거의 경우 ‘간꼬, 사도’와 같은 도구를 사용해 오징어를 잡았는데 이러한 기록이 필요하다.

왔다. 그러나 민족생활은 그것을 영위하는 행위와 대응하는 언어가 함께 조사되었을 때만이 온전히 이해될 수 있다. 이런 까닭에 직접 이러한 어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이 사용하는 생활어를 조사하는 일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생활방식을 이해하는 데에 기여하리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 조사는 ‘오징어 잡이에서 덕장까지’를 기능적인 측면만이 아닌 다양한 각도에서 조사할 것이다. 이러한 조사로 인해 오징어를 잡는 과정에서부터 덕장에서 오징어를 건조하는 동안 이루어지는 어로 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어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조사에서는 울릉도를 중심으로 ‘정의, 어획물, 도구, 어로 행위, 어획물, 행위자, 장소’와 함께 ‘이와 관련된 관용적 표현’을 현장 조사할 계획이다. 오징어 잡이와 덕장 관련 조사는 울릉도에 위치한 북면, 서면, 울릉읍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동해안 북부 지역의 어촌 관련 어휘를 채록할 수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도서지역인 울릉도 지역의 방언형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것이다.

2. 조사 보고

2.1. 제보자

동해안 섬 중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유일한 곳인 울릉군을 선정해 생활어를 고찰하였다. 가능한 많은 어휘를 담기 위해 특정 행정구역만을 조사하지 않고 울릉군에 위치한 어촌 마을인 ‘울릉읍(도동, 저동, 사동), 서면(태하리), 북면(천부리)’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해안어를 수록했다. 이처럼 조사 지역은 모든 행정 구역을 대상으로 해 섬 전반에 걸친 언어 사용 실태를 담으려고 했다. 또 조사 일정은 섬이라는 지형적인 요소와 계절상의 조건을 고려해 그 순서를 ‘북면 ⇒ 서면 ⇒ 울릉읍’으로 정했다. 울릉도에서의 이러한 지역 구분 외에도 60대, 70대, 80대라는 세대별 연령 차이를 통해 보다 다양한 어휘와 그에 따른 변이형을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보자는 이주민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토착민을 중심으로 하되 그 이주 시기가 40년이 넘는 경우는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어부라는 하나의 직업군 안에서도 그 세대에 따라 또 자신의 역할에 따라 다양한 변이형이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기초생활어와 관련된 어휘와 함께 해당 지역의 방언형과 세대, 직종에 따른 언어도 찾아볼 수 있었다.

〈표 1〉 제보자 및 참고 사항

제보자	지역	기타
 이경우(87)	울릉군 북면 천부리	울릉도 북면 천부리 출생이고, 아버지는 경주 지역에서 있다가 울릉도 천부로 이주했다. 오징어잡이를 30년 했고, 독학으로 초등학교를 마쳤다.
 강원도(87)	울릉군 북면 천부리	경북 청도 태생이지만 울릉도에 온지 44년이 넘었다. 울릉도에서 오징어 잡이를 한 지 25년이 되었다.(국졸, 육군 병장)
 견학용(87)	울릉군 북면 천부리	울릉도 북면 천부리 태생(아버지는 경주 태생)으로 35년 동안 오징어바리를 했고, 60~70년대는 다른 사람의 배를 탔다. 그 뒤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하고 있다.(무학이나 서당을 다닌 적이 있음)
 임기학(81)	울릉군 북면 천부리	울릉도 북면 천부리 태생이고, 아버지도 이 지역에서 태어났다. 배를 타지는 않았지만 이 지역에서 상점을 하면서 노인회 회장을 맡고 있다.(국졸)
 정상권(86)	울릉군 북면 천부리	울릉도 북면 천부리 태생이고, 아버지도 울릉도 태생이다. 선대에서 물러받은 재산으로 20년 정도 선주를 하기도 했고 배도 타기도 했다.(국졸, 625 유공자임)
 정익선(70)	울릉군 북면 천부리	12살에 북한에서 부산으로 내려갔고 그 뒤 46년 전에 울릉도로 들어왔다. 울릉도에 와서 45년 동안 오징어배에서 어부로 일했다.(국졸)

제보자	지역	기타
 <p>박봉식(70)</p>	울릉군 서면 태하리	실제 나이는 71세이며, 울릉도 서면 태하리에서 태어났다. 증조부 때 울릉도에 들어왔으며(경북 영양 출생) 아버지도 이곳에서 태어났다. 선주를 20년 동안 했고, 오징어바리 선원을 3년, 오징어 건조를 10년 했다. 현재 울릉군 어촌계회장을 맡고 있다.(중 중퇴, 육군 제대)
 <p>김성호(66)</p>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	울릉도에서 7대째 살고 있다.(130년 정도) 울릉도 도동에서 살다가 울릉도 천부로 다시 현포에서 저동으로 옮겨 살았다. 오징어 채낚기와 선원을 3년, 선장을 5년, 선주는 30년 정도 해 총 50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현재 울릉도 수협조합장을 맡고 있다.(고졸이나 후에 대학을 진학했음. 육군 제대)
 <p>김문관(60)</p>	울릉군 울릉읍 도동	군위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 역시 군위 태생이다. 유아시절에 울릉도에 돈을 벌기 위해 들어온 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다시 군위로 가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마쳤다. 그 뒤 70년부터 지금까지 울릉도에서 42년 동안 살고 있다. 중학교 졸업 후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오징어 잡이를 하고 있다.(중졸)
 <p>김세운(56)</p>	울릉군 서면 태하리	울릉도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는 경북 울진군 태생인 아버지를 따라 들어왔다. 오징어 선주를 10년 했고, 선장과 선원을 35년 했다. 현재 태하리 어촌계장을 맡고 있다.(중졸, 육군 제대)
 <p>김형수(56)</p>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	아버지는 울릉도 태생이나 제보자는 강원도 동해에서 태어났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다시 아버지를 따라 울릉도로 들어왔고 현재 울릉도에 들어온 지 40년이 넘었다. 오징어배 선주를 25년, 선장을 29년 동안 했다.(고중퇴, 육군 제대)
 <p>강영길(56)</p>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아버지는 제주도에서 어업을 했고, 어머니는 제주 해녀 출신이다. 제주시 용담동에서 태어났고 초등학교 때 울릉도로 들어왔다가 강원도 고성에서 5년 정도 잠시 거주했다. 그 뒤 울릉도에 다시 들어왔고 현재 40년이 넘었다. 오징어 채낚기를 40년 했고, 머구릿배를 11년 정도 운영했다.(고중퇴, 방위)

2.2. 조사 기간 및 방법

2012년 1월 28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된 민족생활어 조사는 크게 문헌조사와 현장조사 두 가지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먼저 1월 1일부터 1월 12일까지 어촌생활어에 대한 참고문헌 조사 및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문헌에 기록된 조사 어휘를 항목별로 수집하고 목록화하여 질문지를 제작하였다. 본격적인 현지조사는 1월 13일부터 7월 5일까지 밀착조사를 통해 이루어졌고 그 후 보완조사를 통해 자료를 보강하였다.

〈표 2〉 조사 세부 추진 계획표(2012년 1월 28일 ~ 2012년 9월 28일)

연번	세 부 추 진 계 획(월, 일)	비고
1	문헌 조사(1. 1. ~ 1. 12.)	
2	밀착 조사(1. 13. ~ 7. 5.) 조사 지역- 울릉읍(도동, 저동, 사동), 서면(태하리), 북면(천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어휘 조사 ○ 구술생애 ○ 낚시의 종류, 부분 명칭 ○ 기타 어로 도구 ○ 어로 활동 과정 ○ 어획물 종류 ○ 어로 행위와 관련된 관용표현 ○ 동영상, 사진 촬영
3	중간 조사 결과 정리(2. 20. ~ 5. 20.)	
4	중간 보고(5. 29.)	
5	trs로 전사하기, 전사 수정, 엑셀 작업	
6	최종 보고(8. 22.)	
7	보고서 작성 및 멀티미디어 자료 정리(8. 23.~9. 10.)	○ 음성, 사진, 동영상 정리
8	보고서 작성 완료(9. 28.)	

조사 방법은 조사 대상자와 밀착하여 직접 조사하는 민속지적(ethnography) 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민속지적 조사 방법은 경험적이고 질적인 조사 방법론으로, 일정한 질문지를 만들어 질문지 안의 내용만을 조사하던 방법과는 달리 상황에 따라 조사자가 융통성을 발휘하여 조사하는 방식이다.

제보자가 어로 행위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조사자는 민속지적 조사 방법을 사용하여 준비한 질문지 항목은 물론 미처 준비하지 못한 질문지의 하위 항목을 조사하였다. 이와 더불어 어로 활동 과정에서 나오는 다양한 표현과 이와 관련된 관용표현도 조사하였다.

2.3. 조사 장소

동해안 어촌 생활 기초 어휘 조사는 대부분 어촌계 회관과 제보자의 집, 그리고 작업 공간인 바닷가에서 이루어졌다. 본 연구자는 좀더 효율적이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울릉군에서 12일 간 방을 구해 살았다(1차 조사: 1월 13~18일, 2차 조사: 7월 1일~5일). 12일간 진행된 본 조사에 연구자는 처음 조사에 참여한 제보자와 동시에 새로운 제보자를 같이 병행하는 방법을 취했다. 이러한 방법은 밀착조사와 함께 더 많은 수의 제보자를 통해 다양한 어휘를 채록하고자 하는 본 조사의 목적과도 부합한다. 그 결과 조사의 중심축이 되는 주제보자와 함께 확인조사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 조사마다 새로운, 더 많은 경험을 지닌, 말 주변이 좋은 보조제보자도 만날 수 있었다. 먼저 어휘조사를 한 후 채록한 어휘를 바탕으로 확인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모든 조사는 이루어졌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인해 동일한 제보자는 최소 2번 이상에서 8번까지의 만남을 가졌다. 이러한 조사로 주제보자와 같은 이들과는 친분을 쌓아 제보자의 집에 식사 초대, 사진 촬영, 주변 관광지 동반을 하기도 했다. 이는 밀착조사의 일환으로 제보자가 조사에 대해 가지는 부담을 없앨 뿐만 아니라 연구자의 일상을 공개함으로써 서로 간의 라포를 쌓는 역할을 했다. 또 이들의 작업 모습을 직접 보기 위해 수시로 어판장, 바닷가, 어촌계 사무실에 나가 이들과 이야기도 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러한 과정 중에 필요한 부분을 더 보완하기 위해 상시 조사를 겸했다.

아래는 조사 장소인 울릉도의 전경과 항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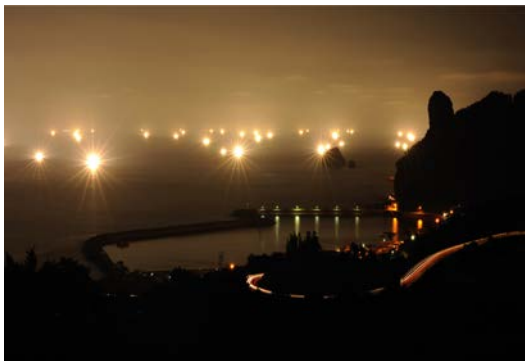
[사진 1] 울릉도 전경



[사진 2] 천부항



[사진 3] 저동항



[사진 4] 현포 어화



[사진 5] 저동 어판장



[사진 6] 천부리 덕장과 오징어동상



[사진 7] 사동 오징어 덕장



[사진 8] 조사 모습

2.4. 조사 내용

2012년도 민족생활어 조사에서는 ‘오징어 잡이에서 덕장까지’라는 큰 주제 속에 울릉도를 조사하였는데, 이러한 조사는 다음의 큰 범주를 바탕으로 조사되었다.

〈표 3〉 조사 내용 범주

오징어 잡이에서 덕장까지	
○ 행위자	○ 어로 활동 과정
○ 장소, 공간	○ 어획물 종류
○ 낚시의 종류, 부분 명칭	○ 어로 행위와 관련된 관용표현
○ 기타 어로 도구	

2.5. 조사 결과물

현지조사를 통해 수집한 조사 결과는 어휘 엑셀 자료, 음성 자료, 사진 자료, 동영상 자료로 구분하여 국어원에 제출하였다. 조사 어휘는 범주를 나누고, 해당 어휘의 올림말·해당 표준어·발음·품사·뜻풀이·실제 용례를 기록하였다. 음성 자료는 제보자가 실제 발화한 음성을 분절하여 저장하고, 조사 어휘에 해당하는 사진 자료도 가능한 모두 수집하였다. 제보자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와 작업에 관한 이야기는 동영상 자료로 정리하였다. ‘오징어 잡이에서 덕장까지’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 조사 결과 총 정리표

조사대상	조사내역 구분	조사어휘		음성자료		영상자료	
		총 어휘 수	미등재 어휘	구술/어휘전사	분절 음성	사진	동영상
오징어 잡이에서 덕장까지		579	433	15 / 15 ⁴⁾	*579	67	2

4) 조사한 파일의 총 시간은 18시간이고, 이 중 파일의 총 전사 시간은 15시간이다. 이 중 15개의 파일의 일부 내용은 구술 발화 내용으로도 사용되었다.

제 2 부

연 구 내 용

제 3 장 생애 구술

제 4 장 조사된 어휘

제 3 장 생애 구술

1. 울릉도의 오징어 잡이⁵⁾



[사진 9] 울릉도 오징어 잡이

1.1. 울릉도의 미세기와 바람 이야기

첫째, 미세기 이야기⁶⁾

@ 여름에도 오징어 잡으려요?

예. 여름에 언제부터 잡냐면 유월 칠월에 초등오징어라 해가지고. 작은 걸.

@ 아 초등오징어를?

예. 참 나는 걸 초등아입니까. 처음이 초물 뭐 초등. 참 나는 거 이기 여름에 나다가 울릉 오징어는 적어도 시월쯤. 시월 초부터. 가가 그것도 인자 십일월 초까지. 시월

5) @ 조사자이고, #은 제보자를 나타내는 것으로 #1, #2, #3, #4로 표현하는 것은 제보자가 다수임을 말한다. 생애 구술은 크게 ‘오징어 잡이 이야기’와 ‘턱장 이야기’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구분은 각 구술 발화의 제보자가 다름을 말하는 것이다.

6) #은 제보자 박봉식을 말한다.

말까지. 인자 구월 시월 말쯤 되면 시월 십일월쯤 중쯤 되겠다. 그러면 오징어 그때부터 잡아지는 기라. 지금 나는 오징어는 엄청 잡니다. 밤에 잡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거 뭐 커져야 되는데 요래 잘다가 저래 다 돼가는 거죠. 끝이.

@ 그면 아까 우리가 그 뗏줄 한다고 짚도 해야 되고 도마 그 다음에 자기 학교 준비 해야 되고요. 그 답에는 이제 뭐 그 하이튼 배 수리 하고 그 답에 그래서 간꼬 인제 탈 때 올 때부터 해가지고 단계별로 그러면 또.

그라고 그거 타다가 마치면은 한 철 작업하고 끝나뿌는 거죠.

@ 보통 작업하러 보통 어디까지 나가시는데요? 예전에는. 예를 들면 바다 깊이가 어떻게 라든지.

노를 저어가지고 그때는 한 시간 정도 저어가 나갔습니다. 한 시간 정도. 예. 간꼬를 가지고 태화에서 이까지 노를 저어 오면예. 주로 한 시간 반씩 이렇게. 그때는 연락이 별로 없으니까 노를 젓고 이까지 와가지고 장을 봐가 가는 기라. 낚시 도구를 사고 식량도 사가 가고 이래 있다가 에~ 거리가 태하에서 여까지 오십 메타 정도 되니까. 요즘 잡으면 삼십 사십 메타 밖에 자주 나갔다고. 노를 저어가 나갔는데. 그래 나갈 땐 그래 나가도 물이 밖으로 뺄 때는 오십 미리씩 넘게 가는 기라. 자꾸 울릉도 섬이 멀어지면은 안 되겠다. 따 돌리라. 인제 뗏 땡기라 이라거든. 들어가자 뗏 땡기자 이라거든. 들어가면 적어도 두 시간 저어야 올 때도 있는 기라. 때로는 한 시간 나. 나가가지고 물이 안으로 글 때는 들어올 때는. 들어올 땐 삼십 분밖에 안 들렀다 이럴 때도 있고 밖으로 내 끌 때는 한 시간 나가면은 시간당 두 시간 올 때도 있고 이럴 정도로.

@ 여기는 조류가 뭐. 조류가 뭐 어떤 게 있는데요? 조류가요.

조류가 뭐 주로 거 인자 동해에서 흐르는 조류에 따라 밖으로 빼낼 때도 있고 들어올 때도 있고 그래 많습시다.

@ 그러면 썰물. 고 담에는 들물 이렇게요?

예예. 썰물 들물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는 안 되고.

@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요?

인제 주로 울릉도는 인제 저 일본쪽으로 타고 이거 올라가지고 또 울릉도 쪽을 내려오고 이런 게 있거든요. 너러 오면 울릉도 쪽으로 고기가 죽 넘어 들어가면 울릉도 독도 근해에서 고기가 잡히다가 남으로 남하합니다. 그리고 그쪽을 따라가 반드시 **조**

류도 그쪽으로 흐르지요. 기계 있는 배들도 아이고 뭐고 몇 시간 나간다. 들어올 때는 여섯 시간 들어왔다 그럴 정도로 할 때가 많습니다.

@ 그러면 썰물 들물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고 뭐라고.

여기서는 **썰물 들물** 카는 거는 저 남해 쪽에서 많이 하는데 여기는 여기는 썰물 들물 나도 거 서해쪽으로 들어. 인자 우리 관광차로 가봤는데 거기는 내가 하루에 두 번씩 배가 마 모래사장에 히떡 자까져가 있지 않습니까. **낙시배** 가는 낙시 몇 시 돼가 간다. 이래 한 서너 시간 어떤 배 타고 가면 이 배 타고 간다 이라는 기라. 그면 이 배 언제 되노 열두시 되면 뜬다 이러거든. 뜬다가 바다에 물으니까 하루에 두 두 번씩 뜬다 하더라고. 고래가 우리도 그걸 봤는데 여기는 그렇게 조수가 간만 차가 안 심하니까 썰물이나 밀물이나.

@ 그런 말 자체를 아예 안 써요?

예. 여기는 안 쓰지요.

@ 그럼 물 들어왔다 물 나갔다 이래요?

물 들어왔다 나오는 게 없으니까.

@ 그러면 그런 뭐 그런 말 자체는 아예.

없지요. 없고 여기도 물이 보면예. 요즘도 한 사오십 센치 차 납니다. 많~이 심할 때 바위가 표가 나거든. 요래 짝 나면 봄글은 데는예. 요 밤에 찰랑찰랑하이 췌다가 아침에 일어나보면예. 여게 물 췌을 작에 하얗게 표가 납니다. 나고 요게 해초류같은 게 붙어 있는 게 짝 나고 사오십 센치. 바위가 물이 짝 빠졌을 때는 요 바위가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물이 뿔렸으면 요기 문해거든예. 고런 정도 차이가 요 정도 많이 심할 때 한 오십 센치 차이가 나고. 요런 거는 있는데 그러니까 밀물이다 썰물이다 이런 용어 자체가 통하진 않습니다.

@ 그럼 들물 날물.

들물 날물도 없죠 뭐.

@ 없고.

예.

@ 들어. 뭐 들어오는 건 있어도 뭐 쓰지는 않죠. 여거는. 옛날엔 안 쓰고. 그러면 그런 말은요? 하얀 한물 두물 이러잖아요. 서해안 이런 데는.

서해는 이렇데요.

@ 근데 이런 말도 아예.

없죠. 근데 여기는 **조금** 카는 말은 씁니다.

@ 아 조금이 있어요?

조금이 있는데 서해 조금하고 남해 서해 조금하고 이거 어떻게 다르냐 하면 여긴 음력입니다. 음력으로 초이레 스무사흘.

@ 음력 초이레 스무사흘.

고기 인자 **초조금**. 초이레는 초조금이고 스무사흘은 **대조금**이다. 대조금 요건데 항시 고기가 요때가 더 많이 납니다.

@ 언제가 나요? 언제가.

이때. 오늘 예를 들어가 초닷째. 초나흘 초나흘 날은 오징어를 백 **축** 잡았다. 예를 들어가 잡았으면 초이레날 가면은 백오 축에서 이백 축 잡는 기라. 그러면 여도 스무이틀 스무하리. 스무닷새는 백 축 잡았으면은 스무이틀 스무사흘 날 쪽에는 백오십 축 이백 축 항시 고기가 더 잡혔다고. 그러니까 안 가다가도 오늘 저녁에 조금이니까 한번 나가봐야지 이렇게 이렇게 많이 하고 인제 서해 쪽에 많이 가니까 조금인데 예 뭐 물때가 조금이 한 달에 열 번 넘게 있어. 여기 초조금이다 신물 치다 동물 치다 캐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복잡하게 그렇고 여기는 딱 초이레 스무사흘 요거 두 번밖에 없어요.

@ 예. 초이레는 초조금 스무사흘은 대조금 있고 그러면 그런 말 있어요? 뭐 조금이나 초조금날 고기 많이 난다 그런 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씩 아까 적게는 배 가까이 나고 통상 보이 그렇더라고.

@ 옛날에 그런 말을 어떻게 쓰셨는데요? 뭐.

그런 말은 지금 그때도 그대로다. 지금 조금 조금이라 카는 거. 조금 그대로죠.

@ 조금은 고기 많이 난다 이런 말.

예예. 예를 들면 고기 많이 안 낄. 안 낄 철에 오늘 가자 이러면 요새는 고기도 없는데 뭐하러 가노. 그래도 오늘 가보자. **오늘 조금이니까 한번 가보자.** 그제 이래 하고 인자 안 낄 때도 주로 안 가다가도 안 낄 안 가면 **고기 우예 될지 모르이 오늘 조금이니까 있을지 모르이 가보자.** 그러이 평소에 끝으면 없지만은 **조금이니까 있을지도 모르니까 어데 한번 가보자.** 그런.

@ 그래도 뭐 이렇게 조금은 고기 많이 난다 이렇게 쓰지는 않고.

예. 조금만 많이 난다고는 할 수. 조금은 늘 많이 나는 거는 낄 때도 조금이 많이 나는 거는 기정 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이니까. 아주 안 낄 땐 모르지만 대부분은 보면 뭐 우리도 오징어 몇 축씩 사가 말루고 하는데 하면 예를 들어 이십일일날 고기를 백 축 샀다. 그럼 이십이일날 또 백 축 샀다. 그럼 고기가 조금 헐어질 거 끝애도 좀 더 사고 싶어도 아는 사람 있으면 마 오늘 그만 사지 뭐. 그래 내일 조금인데 아무래도 내일에 더 많이 나면 안 훔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에는 확실히 많이 난다는 걸 통상 다 알고 있습니다.



[사진 10] 미세기

두 번째, 바람 이야기7)



[사진 11] 울릉도의 산과 바람

@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통 바람이나 이런 거는요?

바람은 여기는 뭐 이런 건 요즘은 기상대에서 원채 정확하게 기상을 아껴 주니까 시간 시간이 안 나옵니다. 여도 두 시간 만에. 여도 네 시간 만에 언제 무슨 바람이 불고 뭐가 **남서풍**이 얼마 얼마. 옛날에는 예 이기 없기 때문에 바다에가 사고도 더러 많이 났습니다. 사고가 나가지고 왁새 와. 이기 금방 나는 바람을 예. **돌풍** 아닙니까. 이기 왁새라 이릅니다. 왁새.

@ 그렇죠.

들.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 예예. 갑자기 확 부는 거.

왁새는. 예. 갑재 확 부는 거. **왁새**가 마 들어왔을 때는 엄청나게 크게 불어가 노 젓는 배는 아무리 젓어 봤자 들어올 수가 없어. 다부 바람이 밀려부니까. 이래가 사고 난 것도 적어도 한 오십 년 전에는 가끔 있었습니다. 명태글은 거 잡고 할 때는 있었는데. 가끔 있었는데.

@ 예전에는 명태도 잡았어요?

예예. 여기도 울릉도 명태 많이 났습니다. 지금은 안 난지가 그 몇 년 너머로 전혀 없어요. 그래 했는데.

7) #은 제보자 박봉식을 말한다.

@ 강원도도 명태 안 나죠. 요즘에는.

예. 그때는 울릉도 배들은 울릉도 **명태바리** 하고 저 강원도 거진이나 일로 명태바리 나갔습니다. 지금은 없잖아요.

@ 예 근데. 그렇죠.

그래 했는데 그래가 왁새가 불어가지고 간꼬가 문 들어오고 바다에서 막 죽고 이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 그렇죠.

그걸 왁새라 이라거든. 그래 배에서 요즘은 남서풍 이러지만은 아까 얘기하지만 주로 남서쪽에서 불고 오는 게 남서풍 아닙니까. 이게 **갈바람**이다 이래. 그것도 서쪽으로 많이 **땡기면 댜갈**. 남쪽에서 땡기면 **쳐진갈**. 그 답에 또 동쪽으로 더 땡기면 **동새**. 북쪽으로 올 때는 **북새**. 더 인제 완전 동쪽에서 북쪽으로 약간 땡기면 뭐 저 **인간풍**. 우리가 동새 부르는. 그 답에 동쪽에서 하면 동새에서 동쪽에서 남쪽으로 약간 방향이 불어오면 **을진**. 뭐 이래가 사람들 많이 하더라구요. 근데 요즘 매로 전부 **을진**이다 **동서**다 **쳐진갈**이다 아유 뭐 **된새**다 **셋바람**이다 **북청**이다 **청풍**이다 이런 걸 많이. 요새 **맞바람** 카는 거 안 있습니까. 이게 청풍으로 말하는데 주로 인자 그런 걸 그때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전부 기상으로가 **북서풍**이다 **북동풍**이다 전부 그런 용어를 쓰지. 이 용어는 다 들어가 뿔죠.

@ 아 이 용어는 참 재미있네요. 좀 있다가 이거 식사하시고 요 방향별로 해가지고 한번 좀 보여주세요. 우선 제가 한번 적었는데요 제가 제대로 몰라서 그렇구요. 그러면 보통 인제 바람 사실 이런데 오징어 잡이 할 때 좋은 바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로예. 북쪽에서 부는 바람이 **셋바람**이라 이라는데 **셋바람 불 때는 오징어가 적게 난다** 이랍니다. 거 인제 **갈바람**. **셋바람**은 좀 참고. 북쪽에서 부는 거 좀 **참잖아요**. 그래가 인제 **갈바람 불면은 다 같은데 올 저녁은 오징어 부는 데 올 저녁 셋날이다** 이러거든. **셋바람 부는데 셋날이 뭐 아유 내일 별로다** 이렇게 점을 칠 때도 있더라구요.

@ 예예. 어. 어. 그러면 셋바람 부는 날은 하이튼 오징어 적게 나고 나머지 바람은 괜찮아요.

잡은 아니. 날 날 평소에 날이라도 좀 적게 난다 이라지. 근데 야 올 저녁 많이 나더라도 애유 **오징어가 텃다**. 이 셋바람 부는데 **넌 아침에 적다**.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 그러면은 나머지 바람은 신경 안 써도 되고 이 셋바람만 신경 쓰면 되나요?

신경 안 쓰는 게 아니고 주로 북쪽에서 부는 바람은예. 십이월 일월 이월 삼월 요 때까지만 많이 부는 기라. 북쪽에서 부니까. 남서풍은예. 주로 사월 오월 유월달. 뭐 이 때부터 하는데 동쪽에서 남쪽을 불고 이런 거는 불어봤자 심하지를 안 하고 저 십일월 달 보통 보면 북서계절풍이니 북풍이니 안 하면 그걸 불면 파도도 씨. 씨고 춥고 이러니까 암만 그래도 그런 게 있는지 몰라도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

@ 북풍 빼고 나머지는 별로.

별로 신경을 안 쓰지.

@ 안 쓰네요. 예.

오징어 말르는 데는 아마 울릉도에는 그 이런 게 있어요. 섬이지 않습니까. 요렇게. 가상에서 얘깁니다. 우리 동네는 지금 남서풍 불면 고기가 잘~ 말라. 그런데 반대로 남서풍 불면 반대쪽은 안 마르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북서풍 불면 잘 마리는데 북서풍 불면 축축 처지는 자리가 있어. 지형에 따라.

@ 아 지형마다.

지형마다.

@ 섬이 동그라니까.

동그라니까. 그래서 그래.

@ 아 그 답에 뭐 그런 경우가 없어요? 아까 뭐 셋바람 불 때 작업하면 안 된다 이런 것처럼 아 요즘은 날씨가 뭐 어떻고 이러면은 작업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건 못해요. 공식적으로 인자 여 지금은 거의 몬 문지 몰라도 옛날에는 항상 인자 큰 바람. 공식적으로 오는 게 있어요. 들어본 일이 있는지 몰라도 바닷가에 가면 리아꾸도까라고 일본말로.

@ 리아꾸도까요?

예 거기 몇 월달인지 오래 돼가 모르겠어요. 거기 큰 바람인데 언제부터 아이구 리아꾸도까다. 그 답에 울릉도 지형적으로 여 손사공 죽었는 날이다. 이런 날이. 그때는

꼭 바람이 세계 불더라. 이래가.

@ 손사공 죽었는 날?

예.

@ 어~ 음. 그건 뭘 말인데요?

그게 인자 큰 바람이 부는데 항시 손사공 죽었 이 돌 때면 큰 바람이 부는 기라.

@ 아 손사공 죽었는 돌 되면요?

예 그기 작년에 요 손사공이 며칠날 죽었다. 그면 이기 수십 년 넘었는데 그런 얘
기 나오는데 인자는 뭐 원강 기상대걸 얘기 많이 하니까 인제 없어졌쥬. 그때는 십년
전만 해도 그런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 그럼 손사공 죽었는 날 리아까도까. 이게 이럴 때는 큰바람 부는 날이고.

예.

@ 이건 울릉도만 그런 거잖아요. 예.

울릉도만 그렇쥬. 리아꾸도까 이거는 전국적으로 오는지 모르쥬어요. 육지 가면
안 있쥬어요. 여기에는예. 옛날에는 오징어도 강원도 동해시에서 많이 낚습니다. 내가
작업을 하다가 많이 갔는데 울릉도 배로 가가지고 예~ 배가 거. 거기서 파도에 이뤘
는데 사람들 많이 죽고. 왜 그랬냐 하면은 파도가 잔~잔한 기라. 각재 불과 몇 시간
안 돼가 오징어매로 뱃걸음도 안 빠르고 마 바람이 터져뿌는 기라. 울릉도 가가 작업.
작업을 다 하고 올 때도 잔잔하고 그런데. 중간에 딱 만나거든. 요즘은 기상대가 딱 정
확하게 안 해줍니까. 내일 기상은 어떻고 아무리 잔잔해도 안 가거든요. 태풍 전야 얘
기 안 듣습니까. 태풍 전야.

@ 고요하쥬.

자야. 잔잔합니다. 그래도 태풍주의보가 내리면 꼼짝 마라거든. 요즘은 그때는 태풍
전에 조용하니까 아 조용할 때 가야 되쥬다. 몇 시간 안 나가면 태풍 와.

@ 진짜 태풍 전야는 조용해요?

예. 진짜 그 때문에 보통 태풍 전야 안 그렇습니까. 조용합니다. 그때는 기상 누가 말해주는 사람 없고 내가 파도 잔잔한데 울릉도 가겠습니다 하면 가라 캐뿌거든. 그래 가라 카문은 그래 딱 돼뿌고 이라문 사고가 나고 이랬는데 요즘은 사고는 별로 없지요. 배 사고 하다가 저거 배같은 데 가가예. 사고 난 배들 많습니다. 사람 한 이십 명씩 이래 가지고 백 톤씩 이래가지고 기상을 안 가르쳐 주는데. 지금은에 내일 어떻게 이러면 이 무선국에서 자 몇 톤 이상 배 전부 어디까지 피란 오너라. 다 불러 들리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그래 인자 바닷가에 있는 사람 옛날에 과부 많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애깁니다.

@ 시간에 인제 그때 뜨는 별이. 예예예. 이 말 참 재미있어요. 그러면은 아. 요거 요거 방향 있잖아요. 그거. 이거 한번 해주시죠. 요 산간에선 오는 것도 있고 막 있잖아요.

내가 잘은 모르겠는데. 이기.

@ 옛날부터.

여기서로 우리가. 여기는.

@ 예. 그냥 편안하게.

청풍입니다. 서쪽에서 오는 바람이 청풍. 그 담에 서쪽에서 약간 남쪽으로 요래 하는 건 요거는 요거는 갈바람인데 댕갈이라.

@ 예예. 댕갈.

요래 요래 쓰는 거.

@ 괜찮아요. 아무 데나 쓰시고 제가 정리하면 돼요.

댕갈바람. 여기서 이렇게 오는 바람은 갈바람.

@ 아~ 음~

여기서 남쪽으로 많이 땡기가 오는 거는 처진갈. 남쪽으로 처진 갈바람.

@ 그니까 이렇게 해주셔야 알지 아니면 저 모르겠더라고요.

그 답에 인제 남쪽에서. 이렇게 하지. 동쪽에서 하는 건 동새. 동새. 요게.

@ 을진바람.

을진. 여는 그 답에 여는 을진. 남쪽은 여가 처진갈 되겠다. 여가 처진갈.

@ 예예. 아 남쪽 안 하고 처진갈.

예. 처진갈. 남쪽을 처진갈. 요서 요쪽이 이래 되고 그 답에 이기 갈바람 이쯤 될 끼라. 갈바람 그 답에 이거 그렇고.

@ 고기가 댕갈바람.

댕갈바람. 요는 청풍. 그답에 여기서 북쪽 땡기면 여거는 북청바람. 북청바람 여는 여도 아까 된새. 된새 셋바람이라고요. 된새 여기는 또 셋바람.

@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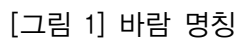
여는 동새제. 여여 잘 모르겠네. 이쪽은 우리는 요쪽에 살았으니까. 요거는 셋바람 이 있고 남새가 있고 요 주위에는.

@ 동쪽하고 북쪽 사이는.

네 북쪽은 셋바람이 불고 고 답에 동새가 있고. 요기는 잘. 고거는.

@ 예. 지형마다 그럴 수 있어요.

지형마다. 저동이나 어디 아시는 데 가서 물으세요.



1.2. 오징어배와 낚시 도구 이야기⁸⁾



[사진 12] 오징어배와 뱃사람



[사진 13] 사동 덕장

첫 번째, 뱃사람의 배 이름 이야기

@ 그러면은 오징어 잡을 때는 주로 이제 뭐 배는 어떤 배 타셨어요?

#1 배는 인자 그 **목선**인데 주로 그때 인제 큰 거 이래 요즘 나오는 **기켓배** 이거 말고 그때는 목선인데 거기 내 어딘지 몰라도 육지말 뒤편 뒤편 부르는 지 몰라도 여간꼬라 부르더라고. 통상 육지 가면 바닷가에 가면 간꼬 **간꼬** 이런 얘기 나오는지 몰라도.

8) #1은 제보자 박봉식을, #3은 제보자 김세운을 말한다.

@ 예예. 이쪽 지역에서는 저도 어제 간꼬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1 그래 그걸 주로 간꼬라가 잡고. 우리 어릴 때 인자 간꼬 말고 그 일본 해방 좀 해방 지금 한 칠십 년 가까이 안 됩니까.

@ 예예. 그렇죠.

#1 그때 일본 사람들이 쓰다 가고 남은 배 그기 인제 요즘 **발동기 기관선**이라. 이런 거 몇 척 있는 걸 제외하고는 거의 다 간꼬지요. 그러니까 간꼬로가 요즘은 다 잡고 요즘은 이 보른 배 전부 배들이 인자 저 이 전기로가 마 이래 안 했습니까. 그때는 예 젤 첨에 할 때는 간수라고 해서 그 육지글은 데 가면 두부 만드는데 간수라고 이런 뭉티기. 이런 거 여놓고 간수라고 불 여 드가는데 **간수등**이라고 해가 고 요래 하른 요기 인제 올라가 고 불끝이 고 가스로 해가 계속 불이 붙는 기 있어요. 요런 걸 가다가 석유로가 인제 휘발유로가 또 **휘발유등**이라 그것도 나오고 그 담에 인자 **석유등** 휘발유등 이기 나오다가 고 담에 인제 첨에 다마를 인제 적게 썼는데 갈수록 인제 오징어는 인자 불이 밝아야 된다 이래가 전에 한 십 년 전엔 이거보다 더 많이 불을 썼는 기라.

@ 아. 옛날에 오히려 예예.

#1 더 썼는데 이라다가 보니까 질서가 없는 기라. 그래서 담에 한국어선협회 어딘지 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래간 안 된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데서 다마도 돌릴라 이라이 기계를 올리야 될 거 아니야 회전을. 올리야 되고 기름도 그하고 이라이 이거는 몇 톤에는 얼마 몇 톤에서는 얼마 불 제한을 하자. 이래가 정해가 많이 뜯어냈어요. 무작정 마 하니까 적은배가 마 짜지도록 마. 우리가 이걸 아주 밝는 걸 마 짜지도록 밝게 한다 이러는기라. 짜지도록 밝게 해가 이래 하니까 석유 방울 안 나고 기름 한 방울 안 나는데 계속 그래 이거 연료비글은 거 뭐 기계도 또 십 년 쓸 걸 오년밖에 못 쓰제. 그 담에 다마도 촉광이 예를 들어 이게 예. 백에 백으로 쓰면 저게예. 백 시간을 써야 된다 카른은 저게 백에 백이 아니고 다마는 백에 백인데도 용량이 마 백에 천으로 쓰는 기야. 열 배 이상 더 쓰니까 열 시간 써야 될 걸 다섯 시간 만에 저거도 나가 뿌는 기야. 다마도 그럴 때 한 게 그게 몇 천원이 아니고 몇 만 원씩 했습니다. 그때. 그래가 아마 이기 어든 게 정해졌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그러면 예전에 간꼬 그 배 때도 다마 이런 거.

#1 없었죠. 간꼬 전기 기계가 원동기를 돌려줘야 다마가 있으니까. 그때는 **휘발유등** **석유등** 이런 기 있었고.

@ 아~ 그랬.

#1 그 중에는 인자 옛날에 지금 혹시 농촌글은 데 가보며 **호야불**이라고 해가 이래 이래 있지요?

@ 예예. 호야불 있쥬.

#1 있지. 호야불 요래 들고 유리 들고 불 붙이가 하는 거 이거 심지 올리고 이런 거. 고걸로가 잡다가 나중에 휘발유등 석유등 이게 나와.

@ 그럼 옛날에 간꼬라는 배는 이게 노 저어가지고 가는 거쥬?

#1 예예.

@ 그러면.

#1 서이가 노를 젓는데 젤 끝에 있는 사람은 **선장**이랴. 도모 있고. 그 가운데가 **한장**. 가운데 한장. 이물에 또 한 사람 있는데 요거를 맞차가 저 가다가 바람이 좋으면 돛을 달고 이래가 했습니다.

@ 그럼 옛날에는 배에 세 명 탔어요?

#1 세 명 타도 고 담에 쪼끔 고 중에서 큰 건 앞에 뺏줄글은 요새 뭐 물에 가든 물풍기라고 낙하산같은 거 이런 거 이기 저 비행기에도 첨에는 떨어져가 낙하산풍을 이런 거 해가 바다에 조류를예. 강물만큼 흐릅니다. 여기 놔노면 두 시간 있으면 저쪽까지 떠내려갑니다. 그랬듯이 조류가 가듯이 물을 안고 있으니까 인자 그 배가 밀리는 속도를 맞차주는 거지. 예전에는 닻이라고 해가지고 돌 묶어가지고 이래가 한 백 발씩 오십 발씩 이래 내놓고 그거 따라가 흘러 가는 기라. 그래가 했는데 인자 바람 뭐 바람에 따라가 인자 하고. 바람을 돛을가 조정하고. 바람이 없을 때는 계속 노로가 가쥬.

@ 그러면 보통 탈 때는 선장 타고요. 그 담에는 노 젓는 사람은.

#1 노 젓는 사람은 일단 앞을 때 선장이 있고 한장이 있고 이물이 있는데 이물에 젤 앞에 타는 사람을 저는 그게 어든 용언지 몰라도 **보신**이라고 이라더라고. 보신이라 이라는데. 그 분들은 다 배를 많이 타신 인자 거 이물 한장 사람은 뭐 잘 몰래도 되고 이 도모에 선장 하는 사람은 뭐를 하냐면 노는 힘 있게 안 저어져도 방향은 키로가 안 합니까. 그 노를 저으면서 방향을 자기가 하는. 어든 쪽을 가고 싶다는. 여기서 앞에

사람들이 힘 있게 젖으면 되고 뒤에 사람 젖으면서 방향 조정 그리고 그래서.

@ 그러면은 어쨌든간 선장 타고 보신 타고 그 답에.

#1 예. 한장에.

@ 한장에는.

#1 한장은 가운데니까 도풍 세울 때도 돛대 세울 때도 **한장에 있는 사람. 그 답에 도풍 묶어 주는 사람도.**

@ 그면 그 사람. 그 사람도 한장이라 불러요?

#1 그거 한장 역할을. 그래 나는 보통 간꼬에 배칸 하나 주소 이라거든. 그러면 나는 힘이 좀 있다던지 이라든 땃 땡기는 게 그기 백 발씩 여놓고 돌 묶아가 이래 땃을 저놈을 꺼집도록 이래 묶습니다. 그래놓고 하든 나는 이물에 타라. 또 한 칸 주면 묶어놓은 한장 우리 우리 배에 탈래. 한장 타고. 뭐 그래가.

@ 아 그러면 특별하게 부르는 사람을 한장 이물 이리진 않는데.

#1 한장 그기 아니고 그거는 인제 한장이라 카는 거는 배에 대한 놓는 거지.

@ 예예. 그렇죠.

#1 타는 사람은 배 타는 사람. 한장 있는데 니 탈래 이래서 있는 거지 그 직위가 한장이 아니야.

@ 그러면은 뭐 보신 선장.

#1 보신 카는 거는 인자 이물에 타는 사람을 보신이라 하더라고.

@ 그면 보신 선장 말고 그 타는 사람을 보통 뭐라고 하는데요? 그 그냥 배에도 탈 때 사람들 부르는 명칭이 몇 가지 있잖아요. 그 선원들 부르는 거.

#1 선원들 부르는 기 작은 거는 그거 보통 세 사람밖에 안 타거든. 그런 게 있을 기 있습니까. 선장 있고 보신 있고 한장 있고 그 답에 인자 앞쪽에 또 칸이 요래 큰 데는 쌍판 처음 타는 사람들 스무살 미만짜리. 그때는 뭐 이래 집에서 뭐 반농반어라고 해가지고 야 오징어 많이 난다 고기 많이 난다 니 잡으러 가자 이러면 그기 인자 그 앞

쪽에 한 칸 주는 거 그거는 인자 견습생 비슷하지.

@ 그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1 그런 사람을 그걸 뭐라고 안 하고 그 이거는 아마 일본말이지 싶어. 오끼야라 이 러더라고. 오끼야.

@ 그런 사람을.

#1 칸을.

@ 칸을 오끼야.

#1 이거 일본말이 아니겠는교. 잘은.

@ 일본말이죠.

#1 맞제. 오끼야에 그 니 우리 배 오끼야에 따라 다녀 볼래.

@ 아~ 아주 초보들은.

#1 예예.

@ 그러면 작은 배는 세 명 타고 큰 배는 몇 명 타는데요?

#1 큰 배는 고 네 명 이상 탄 배는 없습니다. 고 간꼬는.

@ 그러면은 보신 선장.

#1 예.

@ 나머지 사람은 그냥 선원이라고.

#1 선원인데 이제 한장 카는 사람하고 오끼야도 있고 그 이외에 풍선은 양쪽에서 노 젓는 게 있어요. 선장은 하난데 가운데서 이쪽을 한 사람 또 칸을 갈라가 하는데 그거 는 한. 제가 하나밖에 못 봤습니다. 요 풍선은. 맹 한 가지는 한 가진데.

@ 그럼 요쪽에서 노 젓는 사람 요쪽에서 노 젓는 사람 달리 부르진 않구요?

#1 예.

@ 그냥

#1 왼쪽 오른쪽이니까 지금 이게 기관선 이거도 보면예. 우리가 선장이 잘. 지금은 그
에 뭐 하든 조상기라든지 이런 걸로 하는데 옛날에는 전부 수동으로가 손으로가 돌리
는 거 있지요?

@ 예. 그렇죠.

#1 그러면 이기 이래 되는 거야. 인자 **윈도모 오른도모**.

@ 그렇죠.

#1 인자 선장이 오른도모 타고 **도모끈티기**라 캐가 또 항시 오징어 잡을 때 저 뒤쪽으
로 해놓으면 물이 뒤쪽으로 가는 거야. 줄바리 이렇게 되지. 이래 되면 그 그쪽이 오징
어가 더 잘 잡히더라고. 그러니까 저 앞쪽에서 선수 쪽으로 보다 선미 쪽으로 뒤쪽으
로 하니까 인제 뒤쪽에도 오른쪽에 타는 사람은 그 윈도모 **오른도모끄티**. 왼쪽에 타는
사람은 **윈도모끄티** 선장은 옆에 타는 사람은 윈도모 이런 방법을.

@ 그것도 사실은 어쨌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은 아닌데.

#1 아니고 그 칸으로.

@ 그냥 배에.

#1 칸.

@ 구분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네요.

#1 예예.

@ 그러면은 뭐 이렇게 식사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럼 보통은 뭐 그러면은 뭐 큰 배
라도 네 명 타고 작은 배는 보통 세 명 탄다 이렇게 하잖아요?

#1 예예.

@ 그래도 풍은 보통 뭐. 풍을 하나 답니까 아니면은.

#1 풍은 두날 달아요. **풍**을 왜 두날 다냐면 한장에 하는 풍이. **큰풍**이 하나 있고 그 답에 오끼야 카는 **이물** 쪽에 안 있습니까?

@ 예예예.

#1 고 이물에 인제 **이물칸**에도 **적은풍**. 아주 삼분지 일. 우리가 와 옛날 영화같은 데 본다던지 하면 **풍선**이 **돛**이 몇 개 안 됩니까. 이거는 한장에 있는 돛은 큰 포. 돛. 돛 이고 이물에 작은 거는 고거 한 사분지 일이라든지 요래 되면 **적은도풍**을. 고것도 하나 고것도 이물에 하나. 이야에 있는 게 아니고 이물에 있는 사람이 고걸 해가지고.

@ 그러니까. 한장에 배에 가운데 하나 달고 그 답 이물 배 앞에 선미에 이제.

#1 선수에.

@ 저저 선수에 하나.

#1 **선수**에 하나 달고 고거는 고정을 시켜놓고 바람을 안쪽을. 우리가 잘 모리는데 요거는 뭐 **아도줄**이라고 이라더라고. 그래 땡겼다 났다. 바람에 씨게 오는데 딱 거머쥐고 있으면 바람을 너무 많이 안아뿌면은 배가 넘어지잖아.

@ 넘어지죠. 예예.

#1 그러니까 그걸 바람을 풀어 주는 기라. 딱 마이 안고 있는데 바람이 새까맣게 바람이 씨게 오면은 이걸 **아도**를 삭 놔둬야 바람이 지대로 안고 있는 거보다 더 이상의 바람을 옆으로 흘려 부도록 그래 해주는 기. 그거는 인자 한장에 있는 배는 한장에다 딱 꿰어놓으면 그거는 딱 선장이 거 뉘지고 다 조락을 하는 거라. 그 줄을. 바람이 많이 오면 늦잖다가 늦차도 바람을 흘려 줘뿌려야 되거든. 그래 고 작게 오면 딱 땡겨가고 하는데 이물에는 **적은도풍**이 되다보니 많이 받아도 그런 지장은 없으니까 고 고정 시켜놓고. 예.

@ 그러면 아도줄이 이제 풍 조절하는 줄이죠?

#1 그렇죠. 예예.

@ 그리고 보통 우리 왜 오징어배 하는 게 아까 간꼬가 첨이잖아요. 간꼬 다음에 요즘은 에프알피 이런 거 쓰는데 간꼬 다음에 뭐 하셨어요?

#1 간꼬 다음에는 인자 주로 지금 사는데 **목선** 아까 내가 그거 **삼나무 수기** 이런 거 안 있습니까? 그거로가 우리가 한 내가 스물셋 할 때 배를 지었으니까 지금부터 한 사십년 오십년 전에. 사십년 전이가. 울릉도 배 짓는 게 유행이 됐습니다. 그게 인자 웬만한 형편이 괜찮은 분들은 전부 다 그걸 우리나라에 선박용. 옛날에는 아주 저속. 지금도 육지글은 데 가면예. 어장 같은 데 가봤죠. 어장 영도 같은 데 가는데 보면 영도 차로 안 가고 거 남포동에서 배가 한번 건너봤습니까?

@ 아뇨.

#1 텅탕텅탕이랍니다. 회전이. 한 마디로 엔진 같으면 회전이 팔백이다 천이다 이천이다 이래 놓는데 예를 들어 이거는 텅탕텅탕 그거는 보통 야끼다마 갑니다. 야끼다마는 뭐냐 카면 일본말인데 이 우에 그 이래 꼽는 기 그걸 얹게. 열로 줘야. 열로 다마 얹게 시킨다는 거 열 주는 데 그거 우리가 보니까 그래가 회전이 아주 적은 걸 하다가 한 오십년 되면 배 지을 때는 그게 삭 없어지고 국산으로 말하면 저 진주에 있을 때 우리도 거 기계를 사러 갔는데. 대동공업. 지금 대동중공업이지. 거기서 나오고 그 답에 지금 대우에서 나오는 거 저 인천에서 나옵니다. 대우중공업이라고. 그때는 한 기라. 그 답에 에 지금 그 이 배는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지리로 나오는데 마산에서 나와서 일본에 얹마 거 기술 돼가 나온 게 있어. 새로 그때 마이 해가 인제 그때 배들은 극히 없고 그걸 다 해가지고 이게 **에프알피** 나온 게 불과 십여년 전으로부터 이게 에프알피 인제 붙이. 이거 이거는 보니까 이십년 삼십년 돼도 배가 안 상하는 기라. 빼꾸멍 뚫버져도 에프알피 칠해가 발라뿌면 금방 새 거고. 뒤에 더 한 마디로 말해가 유지비가 덜 드는 기지. 그래 경제성은 있고 이라니까 전부 이쪽으로 목선을 바다에 띄워놓으면 썩으면 또 갈아여야 되고 이거는 그런 게 없고 한번 재아놓으면 십년이라도 관리만 잘하고 이십년이라도 관리만 잘하면 고대로 새 거 하지. 그래서 이쪽으로 한 번.

@ 그러면 에프알피 전에는 간꼬 말고 그 담 배는 이름.

#1 목선 이름은 발동기 카는 게. 발동기라 카는 거는.

@ 엔진 달았는 거죠?

#1 엔진 달았는 걸 **발동기**라 하는 기라. 그기지.

@ 그럼 풍은 없는 건가요?

#1 풍은 다 있죠. 다 풍은 공식적으로.

@ 아~

#1 목선도 인제는 지금 목선 저 **간꼬** 카는 데 배에 간꼬는 인제 잘 안 하고 지금 발동기 그거 할 때는 전부 인제 이 저 낙하산 그걸 이거가 거 풍을. **돛**매로 물 밑에도 돛매로 이래가 여가 아까 **도풍** 땡기듯이 바닷물을 안고 흐르는 쪽을 그래 따라가미 그래 잡았는 기. 지금은 인자 그래 되고. 그때는 또 요 밑에 있는 요런 배가 만약에 수동으로 다 했습니다. 사람 손으로가. 싸도라 해가지고 우리 고기를 줄 하다가 그 담에 손으로가 돌리고 하다가 그때는 적어도 이거 밑에 이래 있는 배가 열 몇이씩 이래 잡았습니다.

@ 그니까 발동기를 손으로. 사도로.

#1 아이 그거는 원동기는 기계로가 하고 잡아 올리는 거는 지금은 **조상기**입니다.

@ 예예. 조상기.

#1 이 조상기도 **자동조상기**입니다. 자동으로 키만 딱 내려노면 밤 새도록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옛날에는 수동을가 **로라**이라지예. 로라라 카는 거는 우리가 뭘니까? 잘 돌아가도록 하는게 로라의 동태 아닙니까. 손으로 로라로 해가.

@ 그게 사도라는 거죠?

#1 아이 **사도**는 손을가 이래 주고받고 하다가 이래 늘.

@ 사도 담에 가면 로라.

#1 사도 다음에는 인자.

@ 로라가 생긴 거죠.

#1 로라를 예. 로라로가 인자 그 하다 로라도 자기 손으로가 이래 물레 매로 옛날에 그 할머니들 이래 하듯이 길쌈 하다가 또 내라 내라 세 바쿠 돌렸다가 두 바쿠 돌리고 이래 늘었다 올랐다.

@ 오징어를.

#1 유도하는 기지.

@ 할 때 그니까 사도로 옛날에 땡겼다 이랬다.

#1 참에 사도로가 하다가 나중에는 로라로가 하다가 그 답에.

@ 그 답에 조상기로.

#1 조상기. 그래 로라로가 할 때는 전부 사람이 하나가 하나밖에 안 탔거든요. 그니까 그 배에 열 명도 넘게 탔는 기라. 하다가 인제는 자동조상기로 하다가 로라가 필요 없잖아요.

@ 그렇죠.

#1 그래 그때는 사람을 싹 다 내라고 그때 그래는 우리가 흔히 그때 바닷가에 가면은 술 마이 마시고 농띠. 바다에 마 농띠 치고 이런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지요?

@ 뱃놈.

#1 아니 조직이라 이랍니다.

@ 아 조직이라 그래요. 옛날에도 조직.

#1 조직. 완전 조직이라 이라는데 그때는 배 타는 게 없어도 조직이나 말기나 칸을 채우기 때문에 타라 이라는데 인제는 그 사람도 없고. 요는 지금엔 사람 둘 아이면 셋밖에 안 탑니다. 셋밖에 안 타니까 골리가 타는 기라. **배칸** 하나 줄랑교 없. 없다. 저 거 술 한 잔 먹고 저거 뭐 오늘 물에 가자. 술바람 잘래면 없. 없다 이래 되는 기라. 딱 둘 셋. 한 마디로 말해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것도 일본말이지 싶은데 키두루 마이. 확실한 거 잘하는 거 이것만 골리가 타니까 자동조상기가 딱 맞차노면 되는데. 이것도 이제 물바리. 올라가고 내려가고 씨게 가든 로라같은 거 흐틀래면은 인제 그거 갈래주고 고기 올라오면 상자에 찾고 담고 이거밖에 안 하는 거예요.

@ 술바람 이라는 거 술 먹고 인제 뭐.

#1 술바람. 가야 되는데 술이 채가 못 가고.

@ 아 허튼 짓.

#1 허튼 짓 그 답에 뭐 가자 이러면은 아 내 오늘 볼일이고. 니 알아보면 볼일 있다 이러면 이게 인자 술이 많이 하다 보니까 제대로 가고 싶을 때 못 가거든. 그래 그런 사람들은 아예 이 자동조상기가 생기면. **배칸 뱃자리**. 뱃자리 얻지를 못 하는 거라.

@ 그러면 사도 할 때는 그때는 사람 몇 명 타는데요?

#1 사도 할 때는 그케 그러니까 많이 타는 사람 열 몇 명 타죠.

@ 아 그때도요?

#1 예.

@ 그니까 오히려 목선 이렇게 간꼬할 때보다 사람들이 많이 탔네요.

#1 많이 탔죠.

@ 이때는요. 예. 그 답에 보통 인제 출항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요. 출항할 때 오징어배 같은 거는 준비할 게 있나요?

#1 준비할 거 옛날에 사도 할 때는 자기가 사도 사야 되고 사도 카는 건 그림으로 우에 뒀냐 하면 이런 그림으로 우에 그리는데. 이런 방법으로.

@ 여기 그려주세요.

#1 죄송합니다.

@ 아 괜찮아요. 여기 뭐 막 그리셔도 돼요.

#1 사기로가 첨에는 뒀는데 여기 인자 납으로가 이래 돼가 갈고재이가 이래 뒀어.

@ 옷 배리신다.

#1 이래 뒀는데 여기서 **경침** 안 습니까. 고기 잡는 경침. 이래 이래 내려왔어. 여기에는 구멍이 뚫어져가 여 이제 **원줄**이라 해가 이게 한 이. 이 삼십 메다 이래 돼가 납으로 요래 되어있고. **납**을가 요 철사로 요래 했는데 여 오징어가 잡는 낚시가 하나씩만 달았어예. 여기 우리 말로 한 개 달았는데 나중에 가다가는 여기 여기 한 개가 중간에

더 달았습니다. 조금이 발전이 돼가. 여기 여 우에 하다가도 여기 인제 나중에 요기 사도로가 해가 사기로가 만들었는 거 했는데 거보다도 몇 년 발전돼가 뭐 했냐면 **전기사도** 카는 기 나왔는 기야. 전기사도 이거는 이 안에 밧데리가 들어가가지고 이 다마가 인제 이 자체가 전부 불이 다 들어오는 기라. 불이 들어오고 그 답에 이 낚시도예. 인제 야광을 해가지고 지금도 거의 야광입니다. 그럼 이 낚시가 야광이고 불은 이 고기는 야행성이기 때문에 불빛이 밝으면은 마이 오거든. 그러니까 요도 인제 불로 저 야광을가 했고 여기도 전기 있고. 그래.

@ 예 계장님 요게 원줄이구요.

#1 예 요게 원줄.

@ 원줄. 원줄이고 그 답 요건 뭐라 하는데요.

#1 사도.

@ 요게 사도라고요?

#1 첨엔 사도 그 답에 요기다가 전깃불 들어왔을 때는 여 전기사도. 고런 사도가 일차고.

@ 예 그 답에 전기사도.

#1 그 답에 몇 년 전에 발달하니까 전기사도. 그 답 여기도 첨에는 그냥 나무에다가 납닥을 가지고 했는 이기 낚신데 오징어 잡는 낚신데. 나중에 요거도 야광. 전기사도에 야광. 그 답에 첨에는 한 개만 달아가 썼는데 나중에는 두 개씩 달아가.

@ 예. 그럼 요 부분은 그냥 뭐라고 하는데요.

#1 고 부분은예. 고 부분은 이거는 **용끼도**이라던가.

@ 용끼도요?

#1 예. 네 개 썼다 이 말이지.

@ 용끼도가 네 개 말로.

#1 네 개 말로 거 인제 한 개. 예. 그렇지 싶습니다. 나중에 태화 가도 다시 물어봅시

다. 맞지 싶습니다.

@ 요거는.

#1 요 부분은 철사로가 그냥 화. 요건 철사. 철사가 요게 요렇게 되면 오징어가 물어
도 안 움직이. 안 움. 대주고 또 올 잡고 있으면 낚시가 물 속에서 엉킬 수가 안 있습
니까. 그러니까 요 정도 간격으로 벌리가 논 게 있습니다. 한 발 정도. 요 정 아무래
요 정도 그래 돼가. 요걸 놓으면예. 요놈을 손으로가 딱 잡고 사도를 딱 잡고 걸머 쥐
고 한몫에 고기가 많이 물 때는 네 마리 다 물 때도 있어. 그래가 이쪽에 여기서 이
쪽 낚시 밑에 거 거머쥐고 우에 꺼 거머쥐고 두 개 거머쥐고 똑 꺼꿀재비 이거는 이빨
이 없기 때문에 그냥 꺼꿀재비 놔뒀으면 들어지거든. 그래놓고 또 물에 여가 얹는 기라.
그러니까 고거 끊기지 마라고 요 간격으로 줄가 넓이가 아마도 한 오십 센치 정도 안
되. 한 사십 센치.

@ 아 요게 센치.

#1 요 넓이는 약 사십에서 오십. 예. 고 정도 넓이로. 예.

@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뭐 이 첨에는 하이튼 뭐 사도로 하다가 그 담 로라 조상기 이러
게 됐구요.

#1 예예.

@ 그러니까 뭐 드시면서요. 맨 첨에 우리가 출항하기 전부터 준비할 거 예를 들면 미까부터 있잖
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1 미까. 미끼. 예.

@ 예. 그거부터 해서 그 담 배를 어떻게 해야 되고 도구는 뭘 가져 가야 되고 이런 거부터 해서
나중에 다 해가지고 하선하는 작업까지. 바다에서 이제 우리가 바다에서 어떻게 해서 잡고 이렇게
까지 한번 단계별로 한번.

#1 단계별로는 출항하기 전에 준비를 뭐 해야 되노. 배 칠하고 뭐 이런 거 뭐 선주가
다 해야 되고 선원이 해야 될 거는 저녁에 밥 가가고 이런 건 공식적으로 해가는데.
장비로서는 그때는 갑바가 잘 없었습니다. 비싸고.

@ 그렇죠.

#1 못 사고 없으니까 그게예. **도마**라 이러더라고. 요즘 말하면 저 갈대 안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저 셋집 다 지어. 초가집. 초가집 우에 하나면 비가 오면 이래 속에 엮어 가지고 이 떨어지듯이 도마는 이런. 도마라 이러더라고. 작업. 도마를 쇠로가 엮어가 갈갈은 거 엮어가. 앞을 곁에 나오고 줄기는 이래가 이 앞에다가칩니다. 여기까지. 딱 쳐놓으면 거 도마거치 놓은 게 간꼬에 다 해놓으면 여 허리까지는 우에는 두툼하게 입고 여까지 딱 내놓으면 내 줄치봐고 이러면 까물어 내 여기 올라오지 않습니까.

@ 네 네 네.

#1 올라오면 손으로가 여 이 앞에 내가 식탁에 있듯이 올라오면 이렇게 인자 걸쳐놓으면 물이 하마 빗물이 알로 쳐마에 떨어지듯이 그 안으로가 이 밑에는 얹는 기라. 그 장비가 필히 있어야 되고.

@ 아. 그게 인제 요즘 말하면 갑바 대신에.

#1 갑바. 갑바 대신이지.

@ 요즘 말하면 도고. 도마. 도마.

#1 도마 도마.

@ 그럼 위에는 뭐라 하는데요? 위에는.

#1 우에는 그저 우에는 물. 비만 안 오면 별로 할 게 없으니까 비 올 때는 옛날에는 맞았죠. 도마 그거를예. 샷갓매로 이래가 쓰는 사람도 있고 보릿짚. **밀짚모자**같은 거 안 있습니까. 그런 가와 쓰는 것도 있고 디기 오면예. 도마를 이래 해가 목에다 이래 걸어가지고 이 어깨 걸치는 기라. 우리 간혹 보면 영화같은 데 보면 뭐 옛날 사람들 이래 이게 있죠?

@ 맞아 맞아요.

#1 있죠? 그런 식으로 행색. 디게 오면은 비를 오면은 비를 피해야 되니까 소나기 온다. 그면 도마를가 어깨에다가 걸쳐가지고 그게 대충은 비를 피하는 그런 도구로 쓰기도 하고.

@ 그러면은 위에는 솜우아끼 이런 건 안 입었어요?

#1 일단 바다에서 안 춤도록 해가 가니까 뭐 비 안 올 때는 관계 없. 비 올 때는 다 젖어야 되니까 특별한 갑바는 뭐.

@ 그런 건 없고.

#1 예. 없고 나중에 인자 뒤에 하니까 배도 인제 도풍글은 만날 이기 얇은 배 이름가 내도록 바람 하고 까무래 치고 이래 하니까 **도풍배**라고 좀 두꺼운 배가 하고. 그런 거 가 인제 갑바 비슷한 대용으로 해가지고 쓰고 이랬는데 고 고래 얼마 있다가 인자 갑바가 나오니까.

@ 그럼 뭐 모자나 귀마개나 장갑 이런 것도.

#1 특별히 없지요. 장갑같은 거 목장갑 뭐 비싸게 주고 사야 되고. 그 담 목장갑 별로 썼지도 우리 기억을 가도 내 오징어를 우리가 이삼년 배를 지아가지고 울릉도 **도모꼬티** 내가 내가 탔는데 그때는 갑바가 있고 그 담 장갑같은 것도 썼다가 마다가 하니까 그래 하고.

@ 옛날 거를 생각해서 이래 얘기 해주시면.

#1 그래 하니까 특별하게 뭐 갑바 입기 전엔 도마 그거밖에. 그거밖에 없지요. 도마 있고 요즘은 전복 하지만 그때는 오징어 **학꼬**. 이제 낚시같은 거 영는 것도 여기 아까. 요거를 풀로 가지고 전부 풀어가 마무리 할 때는 자기 통에다 함을 도구함이 고기 학꼬. 오징어 학꼬 카는 데 있어. 거기서 자기 낚 자기가 영고 갈 때도 고걸 집에서 자기가 준비해가 딱 가고. 고런 형식.

@ 아 인제 자기 오징어 통.

#1 **원통** 이거는 **시울**이라 이랍니다. 시울.

@ 아 시울이라 그래요?

#1 시울이라 이런 시울이라는 거 뭐냐 하며 요즘 경침을가 안 하고 이런 거 봤는지 모르겠어요. 이기 옛날에 안에 줄이 있는데 요거 창창창창 감아 내려오고 이런 거 바닷가 가다가 봤습니까? 고거 고기 시울이라.

@ 근데 경침이라는 것도 사실은 줄 이거.

#1 지금 나오는 인제 원줄이 전부 로라에 쓰는 경침 안 있습니까. 옛날에 전부 시울이라 이랬어요. 시울이 그거 아주 조금 굵은 줄이 요 들어갔고. 줄을 자꾸 여기다가 적어놓고 이래 이러면 땡잖아요. 땡는데 고 길에다 못 땡어라고 땡땡땡 감아가 묶는 기 시울이라. 고래 묶는 기 있습니다.

@ 그러면은 이제 예전에 사용하던 원줄에 재료가 경침인 거죠?

#1 원줄이 재료가 경침이 아니지. 전부 인제 원줄은 요즘 저 그냥 그 지금은 나이롱이 나오는데 그때는 나이롱 말고 일반 꺼는 거 목줄 안 있습니까. 거기다가 인제 또 맹 가는 목줄로가 감아 감았는데 그게 시울이라. 그게 없고 시울은 언제부터 나왔냐면 인제 거 저저 경침은 언제부터 나왔냐면 로라 나오고부터 나왔어요. 그 전에 하이튼 전부 시울로가 다 했습니다.

@ 그러면 그 전에는 시울을 사용하다가 이제 그 담엔 경침을 사용한 된 거죠.

#1 이거 사용할 때 전부 시울이지. 와그러냐면 경침을 사용하면 손이 아파가지고 장갑같은 거 안 찌고는 못 하는 기라.

@ 그러면 요 이름이 원줄인데.

#1 원줄인데 그게 시울이라.

@ 예전에는 시울로 사용하고.

#1 원줄은. 원줄이라 카는 거는 여기 것이 되믄 변데 아주 밑에 장비가 이런 낚시같은 거 안 달래는 원 까닭을 원줄이라 안 합니까. 그게 시울이라 인제.

@ 시울인데 그 담에는 경침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1 시울이 없어지고 경침을 이관할 땐 경침이 없고 나중에 로라가 나오고부터는 인제 그거는 목줄 아십니까. 목줄 하는 거하고 경침하고 있으면은 바다에 드가면 고기가 경침이 고기 더 잘 타고 **목줄**이 아무래도 줄이 바다에 들어가면 보일 꺼 아십니까. 고기들 눈에. 경침은 투명하기 때문에 고기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러이 전부 이 시울이 없어지고 그때부터 이 전부 로라처럼 하는 거 보면 전부 경침입니다.

@ 그땐 목줄이 감아 놓은 게 시올이고 그 땀에 인제 투명줄 그거 나이롱줄이죠. 경침은요.

#1 경침은 완전 이 고기 잡는 그거 아닙니까. 고기 잡는 낚시에 들어가는 예.

@ 나이롱줄 아닌가요?

#1 그거는 나이롱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화학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나이롱 뭐 손 대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만은 일단 고기 잡는 낚시 경침 안 있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데 그제 인제 몇 호 몇 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징어 잡는 배는 낚시가 물래면은 그 뭐 십호를 쓴다. 그런데 이기 지금 로라에는 이제 한 삼십 개씩 이제 달랬는 기라. 죽죽죽죽 이렇게 달아가 널어가 한 삼십 개 되니까 요거는 십호를 쓰면 원줄은 이십호를 쓴다. 가상에서 애깁니다. 이십오호를 쓴다던지 이제 한 개짜리가 달려있고 요기는 이걸 계속 받치줘야 돼. 무게가 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래가 되는 거죠.

@ 어쨌든 경침이라는 거 요즘 뭐 나오는 줄 있잖아요. 그 낚시줄 그걸 감아 놓은 걸 경침이라는 거죠?

#1 안 감았지. 그거는 그냥 감지는 안 하고 그냥.

@ 그냥 줄을.

#1 줄을 경침이라 그러지.

@ 아 경침이라 그런다. 그러면 아까 자기 학교 준비해야 되구요. 선주는 이제 배 수리 좀 해야 되고.

#1 수리 해야 되고.

@ 그렇게 하고 그 땀에 이제 도마라는 옷같은 거 옛날에.

#1 예. 그거는 필수로 있어야 돼요.

@ 옛날에 우리가 간고 타고 배 나갈 때 그렇게 준비하고 밥통. 밥통은 뭐라 했는데요?

#1 밥통은 그냥 밥통이라 이리는데 주로 뭘까 했냐 하면 오동나무로가 짜가지고도 하는 데도 있고 대로 가지고 왕대로 안 있습니까. 그거가 짚는 것도 있고 그 땀 물에 가기 전에 뭘 만들어야 되나 하며 **땀줄**. 옛날에는 요즘 로프같은 거 이런 거 안 나오니까네 짚을 사다 울릉도 태화동 카는 데 많이 있었었습니다. 짚을 사다 선원들이 새끼 파가 새끼 파가 안 되는 기라. 지금 아마 울릉도 거기 지금 어데 자료가 어데 있을

데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걸 저쪽에 위쪽에 가가 양쪽에서 돌려주는 기라. 돌리줘가 새끼 세 가닥이를 한 가닥으로 뭉치는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세 가닥이 자꾸 돌래가. 지금도 저 인제 로프글은 데 만드는 회사에 가면예. 이런 거 세 가다이가 이런 로프 굵기 로프가 하나 되고 이런 거 세 가닥이 이런 거 세 가다이가 들어가면 또 이런 게 되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 인제 이걸 뱃사람들이 사전에 새끼를 며칠 동안 파가지고 땃줄을 만드는 기라. 만들어가 거기 인제 필시 그것도 하나만 만들어놓는 게 아니고 하루에 몇 번씩 땡기는 거라. 여기에다가 오징어 낚는데 여다가 해놓으면 서너 시간 뒤에 저기 걸러가 가뿌는 기라. 밤 새도록 하면 저 흘러가면 울릉도도 들어오기 힘들 정도가 돼이 여까지 올라가면 또 땃을 뽑아가 또 여기다가 또 옮기놔야 돼. 몇 번을 해놔노니까 옛날가 짚을가 해놓으니까 한번 해놓으면 일 년을 못 쓰거든. 그래 또 일 년을 하고 또 요기로 스페아로 해놓는 것도 있고 그 담에 없으면은 다 땃놓은 거 선원들이 짚을 구해가 해놓고 그렇지.

@ 그거는 뭘에 쓰려고 그렇게 하는데요? 짚은요?

#1 짚은 그래 인자 **땃줄** 하는 데 쓰였지.

@ 아 땃줄을.

#1 땃줄 적어도 한 백 발 정도씩 이래가 땡겼거든. 그니까 그게 필수적으로 땃줄 놔놔야 되고 옛날에 또 멀리 안 가니까 멀리 갈 때도 고기가 연안에 들었다 이라면 땃줄 놔가지고 낚았다 그러고. 밤 새도록 한번만 놔놓으면 그 자리에 땃줄 놔놓고 날 썰 때까지 거서 하고 아침에 땡겨 올리고.

@ 아 오징어도요?

#1 예. 오징어도 아주 가까운 데도. 여 오징어 아주 가까울 때는 최근에는 그런 게 없는데요 우리 마을에는 태화마을 바닷가에 그래 가면은예. 오징어 사가. 오징어 잡으올리면 뽕뽕 소리가 납니다. 봤어예?

@ 어제 오다보니까 불 켜졌잖아요. 오징어 배는요. 배는 좀 봤어요.

#1 배는 봤지예. 고게 아주 가 쪽에 있어요. 수심으로 말하면 삼사십 메다 되는 데까지도 낚는데 고래 하면 뽕뽕 소리하고 사람 소리도 다 들리고 할 정도로 가까운데 서도 잡는 기라. 지금은 인자 멀리 가도 잡고.

@ 멀리 가죠.

#1 왜 그러냐면 배가 장비가 좋고 이렇고 고기가 자꾸 안에 몬 들어오도록 밖에다 이래 되니까. 인자 거기 그래 나갔는데 지금은 인자 가까운 텡니다. 여름 되면은 고기잡이가 적어도 일곱여덟 시간씩 때론 이래 나가거든.

@ 그러면은 우선은 오모까지 도로까지로.

#3 아도줄, 아도. 아도줄 조절하는 거.

#1 용천줄 아도줄 이거.

@ 이게 용천줄이죠?

#1 예. 큰 거. 높은 데서 올라가는. 그래 거기 용천줄 아니고.

@ 그러면요?

#1 여기서 이래 이걸 올릴라면 **도르레** 때로 이래 있거든.

#3 그 젤 높은 거 있네.

#1 젤 위에다 올라가 요걸 딱 매는 기라. 요거는 고정을 딱 시켜놓으면 아도줄이라고 요거를 선장이 딱 거머쥐고 있는 기라. 아까 내가 얘기했죠. 배가 인자 바람이 많이 온다. 바람이 많이 오면 이대로 배 안에 놓으면 그냥 넘어가뿌거든. 그래 바람이 마이 올 때는 요걸 늦차뿌는 기라. 그래 바람을 흘리뿌는 기라. 그래가 요거로가 조절하고. **작은풍** 요거는 그냥 놔두는 기라. 적으니까 많은 영향을 안 받거든. 그래 요건 늦찼다가 땡겼다가 딱 적당하게.

#3 용천줄 요요.

@ 용천줄은 줄은 어데 있는데요?

#1 줄은 요기서로부터 올리가 왜 옛날에 학교 깃봉 올릴 때 기다란 거 올리는 거 안 있나. 그 올리가 여기서 해놓고 이까지 올라가면 인제 밑에서 다 올라갔으면 여기서다 걸어가 묶아뿌는 기라. 그럼 요거는 고정을 해놓고 요 인자 요거로가 하는데 바람이 심하게 불 때는 요까지 안 올라가고 요만침 **반풍**만 다는 데가 있어요. 반만 올라가도 바람이 씨기 때문에 되거든. 그래 반만 올라가고 묶아가지고 요거까 땡겼다 밀었다 하는 때도 있고.

@ 그러면 요거는 용천이고.

#1 예

@ 예. 용천이고.

#1 고거는 아도줄.

#3 아도. 아디줄.

#1 아도. 아도.

@ 아도줄이고. 그 담에 요거는요? 우리가 이제 요 뒤에서 요거.

#1 고거는 여는 간꼬에는 없어. 고거는예.

#3 없는데.

@ 아 원래.

#3 조기. 조거는 무슨. 무슨 줄.

#1 저거는 도모. **도모통**인데.

@ 간꼬에는 원래 없고. 요거 노는 아니에요? 요게?

#1 아이 그거 노는 어디서 하나 하면 요기 인자 그림이 이만칩 나옵니다. 요쪽을 나옵니다. 여기서 요까지 나오는데 아까 **놀쫓** 카는 고기에 요게 나오는데 요게서 하고 노를 요기서가 인자 방향을 잡는 기라. 요쪽을 향시 고거는 앞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 그러면 요렇게 이제 되는 거고.

#1 예예. 그렇지.

@ 그 담에 요쪽 즈에 이제 노를.

#1 요게서로 한 **키** 잡고 그 담에 한장도 또 요게서 잡고. 이물에 꺼는 요쪽에 잡는 기라. 오른쪽 오른쪽 왼쪽.

@ 그럼 이기 노가 이제 되는 거고.

#3 이게 선장이라. 여 잡는 게 선장이라.

#1 요가 선장이고.

@ 그 답 요기가 또 이제.

#3 어 한 사람.

#1 한장. 한장. 요도 또 맨 한가지고 요쪽에는 **이물**에는 왼쪽에를 잡는 기라. 요거는. 노가 전부 오른쪽에 두 가락 있고 앞쪽에 거는 왼쪽에서 잡는 기지.

@ 그럼 여기도 노가 하나 있는 거.

#1 그렇지. 그래. 요 한 키. 요게 한 키는 오른쪽. 요게 한 사람은 왼쪽.

@ 노를 키라고도 하는 거예요?

#1 아니 키는 **도모**에서 노 젓는 사람. 이게 인제.

#3 키라고도 하지.

#1 키라고 하는 거는 인자.

#3 전체 키.

#1 이 사람들은 요 둘이 한장에하고 이물에 사람들은 힘대로 젓어만 주면 되고. 도모에 있는 사람 방향 조절하기를 이래 땡기기가. 어서주고 **아서라 어서라** 하는 거는. 물로 감아가 앞을 땡기면 배가 오른쪽으로 간다. 밀면 왼쪽으로 간다. 이런 방향에서 그 조정은 요게 선장이 다 하는 거지.

@ 어서라는 뭔데요?

#1 어서라는 인제.

#3 당기다.

#1 어서라는 어서라는 밀어라 아이가.

#3 밀어. 밀어.

#1 어서라라는 이래가 **놀이** 깊어서 여기 이래 돼가 있으면 **노**를 이쪽을 아까. **놀**손 카는 게 있죠. 이래가 사정없이 밀어 뿌는 기라. 밀어뿌면 배가.

#3 반대 방향으로.

#1 왼쪽으로 반대로 돌아가고. 또 땡기면 이래가 아서라는 이래 싹 땡기뿌면 또 배가 땡기이까네 배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거든. 이쪽을. 그래 그걸 조정하는 기 아까 키 역할을 하는 기지.

@ 배가 이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1 그렇지. 땡기는 게.

@ 둘 다.

#3 예. 예.

@ 반대 방향으로?

#3 지금 인자 **건조장**이 돌아가거든.

#1 지금 이제 돌아가잖은교.

#3 비가 와가.

@ 아 그렇네요. 그러면 우선은 요렇게 그 답에 요쪽에서 이 부분은 뭐라 하는데요. 배에 껍데기 가 에 요렇게 통으로 둘러 쌓여 있는 거.

#1 그거 **선채**지. 선채.

@ 선채라고 한다구요? 그 답에 이 바닥은요?

#3 가라.

#1 예. 가라. 그 바다에는.

#3 용골롤 보고 가라. 용골.

@ 옹골.

#1 요게 요렇게 안 돼가 있고 이 넓덕하게 이런 이런 판자가 밑에.

#3 포준어는 옹골이고 그 저저 인자 우리가 사투리로 그냥 가라.

#1 배. 가라.

#3 가라.

@ 옛날 간꼬는 이렇게 넓덕하게 돼가 있다는 거죠?

#3 간꼬도 있어요. 간꼬도 있어. 간꼬도.

#1 여도 있어요. 여도 있는데 여기 아까 요런 식으로 요게 인자.

#3 요거지 요거. 요게 가라라.

#1 요건데 요게 가라. 요만한 게 있으면 요기서 배가 요렇~게 요렇~게 나가 요렇게 올라 가는 기라. 요거는 인자 뭐고 하먼 다들 요기 인자 밑에 뒤에서 본 그림이라. 요게 요런 방법으로 돼가 있어. 왜 그러냐 하먼 요게 요렇게 돼가 있으면 요게 가라라. 가라 밑에 또 요렇게 **맬쪽한** 나무로가 **줄대**라.

#3 줄대.

#1 배를 올린다 했죠. 요게 **수레**라고 해가 요기 가라가 안 붙고 요 우에다가 요 두 개만 스키 타듯이 딱 올라오면 요거로 가지고 요것만 걸거쳐. 요 서지를 못해. 칠로 해가.

#3 통나무. 통나무로.

#1 여문 나무야. 그래가.

#3 배로가 나무.

@ 요게 가라. 요건 뭐죠?

#1 고 **줄대**. **수레**라고 해가.

#3 수레.

#1 줄대.

@ 졸대.

#1 수레라고도 하고 졸대라고도 하는데. 고기 어디서 붙나 하면 요계서부터 요기에 요 선. 요기 하는 게 요기서부터.

#3 바닥. 바닥.

#1 바닥에 요기서부터 붙는 기라. 배 끝에가 가라가 어떻게 생겼나면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그래가 요 가라 요서부터 해가 배가 안 걸거 채도록 요 밑에다가 다 붙는 기라. 요래 돼가 있는데. 그래 인제 배를 밑에 그래야 안 걸거채고 요 또 배도.

#3 통나무. 배를 올릴 때는 통나무를 중간 중간이 계속 놔줘야 되거든. 쪽 올리믄 이런 이런 식으로 배가 올라오면 이런 이기 땡겨올려야 돼. 이래.

@ 예예. 그렇죠.

#3 자꾸자꾸 놔줘야 돼. 이거로. 마 여러 개. 자기가 원하는 자리까지 통나무를 놔주기 위해서는 밑에 수레를 두 개. 양쪽에 놔둬야.

#1 그래 인자 가라가 몸 전체가 안 상하고 배 전체가 안 상하고 요거만큼 다 닳가가믄 또 요거만 갈아뿌면 되거든.

@ 요게 가라라고.

#1 요기 가라고 요건 졸대. 밑에.

@ 졸대는 이제 밑에 통나무를 놔둬서 쪽 하는 거고. 예예.

#1 그해가 그래가 인자 그거는 상하면 고건 또 빼고. 또 새로 해뿌면 되고.

@ 음. 그럼 이런 거는 뭐라고 특별히 하는 건 없구요?

#3 그기 **모야**.

#1 그기 **도모통**.

#3 모야 모야.

@ 모야?

#1 요고는 도모통이고.

#3 아니 옆에 나오도록. 여기 아까 이걸 말하는 거죠. 양 가에 나왔는 거?

@ 예예.

#1 아니 요거는 도모통이고.

#3 아니.

#1 요거는 모야 그 그거고.

#3 여는 양가에 이래 나온 거를 모야. 모야라 하잖아.

#1 모야라 하는데 그캐 도모통이고 도모가 그래 도모통이고 이름 별도로 있지. **치궁 땡이** 하고 다 들어가거든. 도모통에.

#3 아니 그런데 여 여 박사님은.

#1 모야가 아니고 모애.

#3 모애. 그래 뭐 모야나 **모애**나. 마.

#1 모야 치는 거는 줄 걸어가 모야 걸어라 카는 기고 요기 인자 모애라 카는 긴데 요거 부분적으로 했는 거는 모애고 요거는 이름이 도모통인데 요거만 돼가 있는 기 하고 넓이가 요런 거보다 배 넓습니다. 요렇게 넓는데 요기에 **치** 아까 **키** 안 있는교. 노 저을 때는 이게 키로가 하지만은 **도풍**을 달 때는 이 치라고 이거 키를 박아가 하는 기라. 금 가만 앞아가 키를 모애가 키 손잡이가 요래 있어가 요걸 왼쪽을 넘갔다가 오른 쪽을 또 넘갔다 하면 배 방향이 달라지거든. 요거는 다른 거보다 조금 넓. 배 넓어야 돼. 이거 **치구멍**이 따로 별도로 있거든. 도모통.

@ 요거는 치. 치 구멍.

#1 치구멍인데 도모통이시도. 이거 전체가.

@ 예. 그 답에.

#1 여. 여기 있는 부분만 도모통이야. 전체가.

@ 요 전체가 도모통.

#1 도모통. 요거는 모애. 모애고. 모애.

@ 요건 모애.

#1 예. 모애. 다 모애고.

@ 이거는 그러면 가라예요?

#1 그건 밑에 밑바닥에 있는 거 아까 이거 아닌교? 가라. 그 배 밑에 있는 거.

@ 이게 가라쥬?

#1 쥬 밑에 이기 있네. 이거. 이래~ 곡자로 곡으로 이렇게 돼가.

@ 그 답에 아까 왜 우리 있잖아요. 그거 그 뭐쥬? 놀쥬하고 그 답에 그거 있잖아요. 뭐 놀쥬 노
있 그 답에.

#1 네. 노있.

@ 그거는 노가 이렇게 있으면 고 답에 요 뒤에 튀어나온 거는 놀쥬이라고 하고.

#1 예. 놀쥬.

@ 그 답에 요부분에 이제 요기에 끼워서 하는 거.

#3 노딱개비.

@ 노딱개비.

#1 좋게 얘기하면 노딱개비고 번뇌히 얘기하면 그 저 놀십. 그 원래 통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 쓰시던 말로 하시면 돼요.

#1 어어.

@ 그 답에 이 밑부분은 이제 뭐라고요?

#1 고 윗부분은 **놀입**이고 저거는 꼭대기가 요래 있어. 놀손이고. 이거는 노우대. 노우대.

@ 이거는 노우대.

#3 하하.

@ 그 답에 노입.

#1 예.

두 번째, 오징어 낚시 도구 이야기⁹⁾

그때는 예 인제~ 옛날에는 저는 그 사도라는 거를 딱 한번. 사도로 오징어 잡는 거를 제가 초등학교 땀가. 부. 부친 따라가서 한번 딱 해봤어요.

@ 아~ 보셨구나.

그게 인제 **사도**라는 것은 **사기단자**를 가지고. 이게 원. **원줄**이고. 요 부분이 사기래 요. 요게 사기. 사기 아시죠? 사기라곤 알랑가. 사기.

@ 사기 알죠. 저희가 밥그릇 같이. 예예.

밥그릇. 요게 요게 낚이라요. **낚**이 이래 무게가 있으니까. 요렇게 해서 여기는 철. **철사**로 강철이라. 강철.

@ 예예. 강철.

아마 강철로 저거. 그래서 여기에다가 인자 낚시를 이렇게. 예? 솜씨가 없어갖고.

@ 아뇨 아뇨~ 잘 그리시는데요.

이렇게 한 세 개 네 개씩. 뭐.

9) #은 제보자 강영길을 말한다.

@ 이게 모양이 오징어 모양 비슷한가요? 그게요?

낚시가요?

@ 예.

요게~ 이진 낚시바늘이고 바늘인데. 과거에는 요게 요 자체가 뭐나면 그~ 이게 오동나무로 된 거도 있을 거고 오동나무에다 요렇게 해서 요 또 납이 달린 게 있고. 아니든 나무 전체로 된 게 있는데 요 자체를 인자 요 자체를 낚시가 이렇게 해서 뭐 요렇게 있으마 어? 이게 낚시면. 여기 둘러싼 유단이라는 천이 있어. 유단. 아시죠? 유단이라고.

@ 잘 모르죠.

비로도 말고~ 이. 이 우리는 유단이라 이랬는데 옛날 유단잠바도 알아주기도 했는데. 세모 비슷하게.

@ 아 예. 우선은 그렇게 적어놓으시면 제가 나중에 물어보죠. 뭐. 제가 찾을 수 있으니까.

유단 천을.

@ 천. 약간 두껍한 고런 천이라는 거죠. 광택도 좀 나고.

예예. 유단이라고. 우린 유단이라 그랬어. 유단 천으로 싸여있어. 싸서 파요. 그렇게. 인제 요런 식으로 여기도 똑같이 뭐뭐 하이튼.

@ 그니까 예전에는 이 사도로 가지고 하시는. 어쨌든 한번은 보셨잖아요. 이걸로 하고 어떻게 잡 나요?

인제 이. 이걸 가지고 물 속에다 넣어가지고 인제 흔들죠. 이걸.

@ 이렇게 앞 뒤.

흔들든 잡아당겨서 여길 잡고 인자 잡고 이~ 낚시줄 끝을 맨 밑 끝을 잡고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오징어가 벗겨지는 거죠. 오징어 낚시는 비늘이 없어요. 낚시비늘이 없기 때문에 걸려만 오지 내려갈 땐 그냥 벗겨져요. 그 원리가 인제 그래서 요기 요 부분을 잡고 이걸 쥐고 흔들다가 요 부분을 잡아서 올려서 요 낚시 맨 밑에 끝을 내서 이렇게 거꾸로. 거꾸로 세우면 오징어가 떨어지죠. 요렇게 잡는 인제 뭐.

@ 그럼 요기를 손으로 잡고 이렇게 올렸다 올리면 오시. 오징어가 붙기도 하고 그 담에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거 물 속에 넣어가지고 줄을 조정해서 이 원줄을 인자 내룰 거 아닙니까. 그래 이자 흔들다가 물었다 싶으면 걸렸다 싶으면 당겨 올려 가지고 요 부분을 손으로 잡고 이 부분을 손으로 잡고 이 낚시 맨 끝에 낚시를 들고 이렇게 쏘아. 쏘아내는 거죠. 걸린 걸 이렇게. 거꾸로 하면 낚시바늘 없기 때문에 걸려서 올라온 게 거꾸로 하면 요렇게 탁 떨어지잖아.

@ 그래도 물기는 물었을 거 아니에요. 애들이. 낚시 바늘은 없어도요. 맞죠. 오징어가 무는 거 아니에요?

와서 걸리는 거죠.

@ 그냥 걸리는 거예요?

이 오징어 낚시가 있으면 설명하기가 좋은데.

@ 나중에 한번 보여 주시구요 우선은 말로 한번 설명.

오징어 낚시가 요렇게 인제 이빨이 촘촘촘촘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 인제 되면 이 낚시 자체가 여러 갈래. 갈래로 되어있어요. 이렇게. 이 이중으로. 그러면 이 오징어는 **미끼**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낚시가 내려가면서 이렇게 회전을 해요. 흔들면. 그러면 요 사이에서 뭐가 생기냐면 기포가 생기겠죠. 흔들면. 그러면 오징어가 그게 먹인 줄 알고 덤비는 거라. 그래 와가지고 걸리는 거죠.

@ 음~ 눈속임으로 사실은. 근데 어쨌든 뽕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걸리는 거죠?

예. 요게 아주 날카로우니까. 그래서 요걸 사도라 그래. 사도. 사도 뭐 이래서 **고꾸라치기 사도치기** 하는 말이 요거는 사도치기고 사도. 사도. 사도치기라고 사도치기. 인제 잡는다는 말을 사도로 잡는다는 거를 사도치기. 인자 고꾸라 하는 거는. 요 낚시가 어떻게 생겼나면 내가 이게.

@ 고꾸라는 뒤에다 그려주세요. 잠깐만요. 아~ 설명을 잘해주셔서. 네.

떨리네. 예쁜 아가씨가 또.

@ 아뇨. 아뇨. 또 괜히 그런 말씀 하신다.

이걸 **낙시바늘**이라꼬 합니다.

@ 예예.

여길 이렇게. 이거는 납입니다. 납. 요거는 대나무.

@ 예. 대나무.

요거는 낙시바늘.

@ 예.

그러면 요기에다가 이렇게 줄을 연결시켜요. 그러면 저울식으로 가는데 요 납이니 까. 딱. 요기가 아니고 다시 그려야 되겠다. 위치가 틀려.

@ 그니까 요거는 고꾸라라는 거죠. 앞에 꺼는 이제 사도고. 사도로 잡는 건 사도치기. 고꾸라로 잡는 건 고꾸라치기.

고꾸라치기. 이 노래가 있었어. 거 다는 모르겠는데.

@ 어 노래 한번 해주시죠.

그 뭐 옛날에는 뭐. 갑자기 부르라니까.

@ 아니 그래도 생각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짧은 대목으로 찬바람이 몰아치는. 그니까 지금쯤 되겠죠. 찬바람이 몰아치는 웅 통개 앞바다. 인자 웅통개라는 것은 저 현포. 현포라는 겁니다. 봉통개 앞바다. 인자 찬바람이 몰아치는 웅통개 앞바다. 뭐 하이튼 그래서 뭐 **고꾸라치기~ 사도치기~ 한창 바쁘다** 하는 이런 노래를 저희들이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어른들이 부르던. 이 가사 구절은 다 모르겠는데 혹시 판 데 가서 이런 노래가 있었다든지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 어. 이거 좋은 거 같아요. 어. 재밌어요.

그런 노래가 있듯이 아개는 사도. 사도로 오징어 잡는 거 사도치기. 요거는 인제 이래서 이렇게 인자.

@ 고꾸라.

구멍을 뚫어서.

@ 이것도 다 간꼬 배 탈 때 이렇게 했던 거죠. 다.

예예. 이게 원줄이고. 여기에다가 인자 미끼를 요 자체는 또 대나무입니다. 대나무에
요기에다가 미끼를 요렇게 또 감아요.

@ 아~ 그러면 생선을요?

생선을. 오징어를 잡아서 요렇게 칼질로 요렇게 요리할 때처럼 하면 요렇게 오돌오
돌하게 해서.

@ 음~ 이게 미끼라는 거죠?

이게 실을 가지고. 실로 요렇게 창창 감는 겁니다. 요까지.

@ 아 요거는 인제 실로 인제 감는 거죠.

요게 인제 감는 줄을. 줄이죠. 줄은 주로 인제 옛날에 아주 가는 구리.

@ 구리로. 예예.

가는 구리. 선. 또는 줄로 하는.

@ 예예. 어~ 근데 오징어가 오징어를 먹어요?

예.

@ 어머~ 자기 동족인데. 그렇게.

요게 **고꾸라**입니다. 고꾸라.

@ 고꾸라. 예. 예.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해서 거 이 배에서 이게 인제 이것도 배에서 낚시. 낚싯대가
있어요. 이거는 대나무. 대나무 낚싯대. 주로 대나무 **낚싯대**란 거 옛날에는 지금 오징
어 **이깎대**라는 거. 이렇게 배에다가 설치. 배에서 이렇게 해서 이걸 가만 띄워놓고 이

게 오징어가 물면 이게 까딱까딱 이래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생겼냐면 시소 역할 처럼. 요거로 가지고 중심을 잡아줘서 요렇게 떼어놓으면 이것이 너울 따라서 요렇게 놀아요. 이게 오징어를 인자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잡는 게 고꾸라.

@ 예. 그면은 간포에서 요것도 잡고 이제 사도도 잡고. 근데 어떻게 보면 사도는 미끼. 미끼가 안 되는데. 이거는 미끼가 들어가니까.

사도는 미끼 대신에 아께 말하는 유단 천을 썼던 거 같아요.

@ 아 그러면 돈은 다~ 비슷하게 다 들겠네요.

그때는 낚시가~ 이거 할 땐 낚시가 그~ 이후에 낚는가. 옛날에 오징어 낚시도 **거일낚시**라고.

@ 거일낚시요?

이거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나왔는가? 하이튼 거일째 낚시라고. 요즘은 음파 이런 게 나오는데 이 **다마**도 크고 저 그런 게 있고 이게 인제 사. 사도. 도꾸란데 또 돔 보라는 게 있어. **돔보**.

@ 돔보요? 어~ 돔보는 또.

돔보는 요거와 똑같은데.

@ 네.

뭐 글은 맞는지 몰라도 돔보라는 거는.

@ 예.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같은데 요기다가 요 사기가 아니고 요기다가 전지약을 넣가지고.

@ 어~

요거와 같은데 인제 요렇게 하면 이거는 뭐 이렇게 모양새가 같. 같은데 여기다 전지약을 갈아. 전기약.

@ 그러면 돛보는 사도 나오고 나서 한참 뒤에 나왔겠네요.

좀 발전된 거.

@ 예예. 그렇네요. 그러면 맨처음에는 어쨌든 사도. 고 고꾸라가 이제 쓰였다가 그 답에 인제 거일 낚시가 나온 건가요?

거일낚시가.

@ 돛보가 먼저가요? 거일낚시가.

이 낚시는 뭐 그렇다 치고. 이 고꾸라. 소. 이 사도. 인제 사기로 만들었는 사도. 전 기약 넣는 게 돛보. 이렇게 발전돼. 그래 인제 오징어는 인제 그 저 저 그걸 보고 야광 성이라고 그런. 밤에 불 밝혀서 끌어모으니까. 인제 요즘도 이 **집어등**에서 켜요. 다. 물 속에다 집어 넣어서 키는데. 옛날에 이렇게서도 이거 답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다가 인자 **로라**라는 게 나와가지고 인자 사람이 인제 그 낚시를 한. 삼십 개씩 스물 몇 개씩 달아가지고 **물레**를 돌려. 물레. 물레 돌리는 인제 그 물레도 인제 그 옛날에는 인자 사. 물레 요런 것도 옛날에는 **사각물레**.

@ 아 사각물레를 돌리셨구요? 음. 그면 어쨌든 사도 고꾸라 나오고 돛보 나오고.

고꾸라 사도 돛보.

@ 아 고꾸라 먼저 나왔어요? 사도보다요?

아마 그럴 겁니다. 제 생각에는.

@ 아 고꾸라 먼저 사도 그 답에 돛보 그 답에 로라가 나와서 물레 인제 돌리는 거죠?

예. 인제 로라는 처음에는 그 어~ 이 이렇게 사각으로 돼서.

@ 음~ 로라가 저는 동그랗다고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구나. 네.

사각으로 돼서 여기다 구멍이 요렇게 뚫어져 있는데. 이것을 여기에다 인자 또 인자 손잡이가 있고. 낚시는 이렇게 감기는 거죠?

@ 예예예. 그면 네모나게 이렇게 감기는 거네요?

인제 이래서 손으로 돌리는데 이거는 인제 물레. 물레 사각물레.

@ 네 물레도 사각물레가 있고 또 무슨 물레가 있어요?

사각 있고.

@ 네. 사각.

팔각. **팔각**이가. **육각**이가 팔각이가.

@ 그거는. 그거는.

매나 똑같은데 각이 옛날에는 사각을 하다가 이게 힘이 들잖아요. 각이 적으니까. 이게 수동으로 사람 손으로. 이게 과거에는 사람 손으로 밤 새도록 이걸 돌렸어요. 그러니깐 힘이 드니까. 인제 또 이거 연구를 한 게 각을 많이 주면서 쉽게 돌릴 수 있다. 이래서 인제 팔각. 팔각으로 나왔죠.

@ 그거는 보통 뭐라고 해요? 이건 사각이고.

그 그 답 팔각. **팔각물레**. 팔각은 팔각물레.

@ 둥근물레는 없고 그냥 사각물레. 팔각물레. 요렇게.

네.

@ 예예. 그래서.

근데 팔각이면 거의 둥글게 나와요.

@ 그렇죠.

그래서 요걸 이~ 앞에다가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그림이 맞나. 이걸 요즘은 로라라 하는데 우리 배에서는 뭐 이래서 볼트. 스텐. 요거는 플라스틱. 예 요렇게 생겼. 정면을 이래 바로 보면 그면 이걸 이래 해서 여기다가 인자 나무로 댔는 인자 저저 **로라다**이라고 있어요. 오래 돼서 어떻게 그려야 되지?

@ 기억나시는 만큼만 그려주세요.

여. 간단하게 요런 식으로 뭐 생겼는데 여기에 인자 줄로 **뱃전**에다가 뱃전에다가 줄로 고정을 시켜요. 그면 요 낚시가 요기 와서 얹히겠죠. 요 낚시가 요렇게. 여기서 추.

@ 아 그러면은.

이래서 낚시가 일정한 방향으로 있으니까 손으로 내리고 손으로 감아올리고.

@ 그니까 요 손잡이를 요렇게 돌려서 그면 이 로라에서 자연스럽게 해서 요게 감긴다는 거죠. 이게 바다에서 인제.

요거는 인제 각도를 조정하게 할 수 있게 돼 있어.

@ 무슨 말인지 예예.

요것이 발전되어서 그 답에 인제. 각이 돼 있다면 여기다가 각을 더 넣으면 되겠죠.

@ 그렇죠. 맞아요. 예예.

이게 인제 생긴 거죠.

@ 예. 고게 인제 그냥 로라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로라.

@ 로라가 나오고 나서는 그 답에는.

요거를 뭐라냐면 로라다이.

@ 아. 로라다이. 예.

강원도 가면 또 방식하고 달라요. 또 거기는 한 단계가 더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 그 약간 지역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예예.

@ 사실 배도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 로라.

그거 인제 여기다가 기둥이 이렇게 있어요. 안 움직이게. 고정을 시켜놓고 이렇게 돌리는 거지. 밤 새도록. 그래 요렇게 하면서 늦게는 산작꾸라고 있어. 산작꾸.

@ 산작꾸.

고 담에는 산작꾸라 해가지고 이견 물레로 돌리는 거고 이거. 이걸 전부 똑같이 쓰다보니까 또 고기가 안 잡힌다고. 안 잡히니까 인자 산작꾸라 해가지고 인제 **낙시채**가 긴 거. 쉽게 말하자면 낙시채가 길~ 길다. 산작꾸는. 쉽게 말해. 한~ 이렇게~ 이거 줄로. 여기 인자 낙시로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 인자 계속 이음새로 이걸 이렇게.

@ 그럼 이런 게 몇 개 정도 달리는 거예요?

보통 첨에는 이게 좀 적게 달았는데 인제 사람들이 자꾸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자꾸 하나씩 하나씩 더 달다 보니까 보통 한 처음에는 한 열 개.

@ 한 이게 한 천구백칠십년대쯤 돼요?

첨에 첨엔 열 개 정도에서. 열 개 정. 열 개. 열 개에서 시작해서 그 담에는 약 스무개 정도까지. 이래. 산작꾸. 요거는 그냥 손으로 이렇게 흔들어서 또 잡아 땡겨서 하나씩 채고 인제 하는 산작꾸.

@ 그러면 물레 돌리는 거보다 이게 힘이 더 많이 들 거 같은데. 제 생각에는요. 안 그래요? 물레는 이렇게 죽~ 로라 가지고 돌리면 되는데 이거는 손으로 땡긴다면서요.

그래도 고기가 잘 잡히니까.

@ 아 그래도. 아~ 예예. 음.

그래서 인제 산작꾸, 로라 이렇게 오다가. 또 인자 이렇게 와서 그 담에는 또~ 내가 경험한 데. 거는 뭐 날라리 이런 거는 빼버리고. 날라리라는 거는 이 원리가 다 똑같은데 이 산작꾸라는 낙시를 여기에다 메워서 쓰는 걸 **날라리**라 그래. 날라리.

@ 아 산작꾸의~ 모양을 그냥 이제.

로라에.

@ 로라에 단 거.

감을 때는 날라리라 그런다. 쉽게 말하자면 이게 낙시가 조금 달라도 모양은 달라도 날라리 부분. 그 담에 생긴 게 자동. **자동 조상기**.

@ 예. 자동 조상기.

에~ 그거는 그림은 인자 여 배마다 많이 얹혀 있죠. 그제 인자 그제 들어온 겁니다. 도입. 그제 전부 메이드 인 자판입니다 그제. 국산. 국산은 저 한 번 맨들다가 실패를 하고 안 나와요. 전부 일본산입니다.

@ 그러면은 우선은 왜 침에 그러셨잖아요. 여기 보면 그~ 고꾸라가 먼저 나왔다 그랬잖아요. 고꾸라는 그면은 언제 정도에 쓰였는데요. 이게 한 연도가 언제 정도 돼.

그건 저가 기억하기 전로부터 나왔습니다.

@ 예. 그러면 한 기억하기 전부터 해서 이게 없어진 지가 언제 정도.

지금도 이것을 인제 어떤 경우에 지금은 쓰나면 지금은 낚시꾼들이나 어부들이 한치 낚시에서 사용합니다. **한치낚시** 할 때 이것으로 합니다.

@ 아~ 지금도 이제 한치 낚시 할 때는.

현재는 **한치**. 울릉도는 **조기**라 그러죠. 조기. **조기낚시**로 사용.

@ 예. 그러면은 이거 오징어에는 한. 뭐.

이거 미끼는. 미끼는 오징어 내지 에~ 생선살. 생선살 생선살을 떼서 하면 더 좀 잘 물어요.

@ 그면 이게 칠십 년대까지 쓰다가 없어졌다 이런 거는.

아직 있어요.

@ 오징어에는 그때 쓰이고 그 담에는 안 쓰였을 거 아니에요. 오징어에는.

오징어에는 지금은 자동 이게 막 나오니까 이걸 할 시간도 없고 안 하고 인자 한치 낚시로.

@ 그면 오징어에는 이게 한 뭐 육십년대까지 쓰이다가 없어졌다 이런 거는 잘 기억 안 나세요?

또 가끔씩 써요.

@ 아 그래요? 그러면은 사도는 언제 없어졌는데요? 사도는요.

그거 없어진 거 잘 모르겠어요. 뭐 이게 언제 없어졌다 그런 거는 과거에 이게 집에 한 개씩은 다 있었는데 지금은 뭐 전부 뭐 별로 관심도 없고 하니까 버려지고 아마 저 박물관에 가면 있는가 몰라도.

@ 그면은 사도는 없어진 지 꽤 오래 됐네요.

예?

@ 사도는 없어진 지 꽤 오래 됐네요.

예. 오래 됐죠.

@ 예. 그 다음에는 이 로라는 언제부터 생겼는데요?

로라는 지금도 써. 써요.

@ 아~ 현재도 쓰고요?

예. 쓰는데.

@ 나온 지는 얼마 됐어요? 로라는요?

예?

@ 로라가 나온 지가 얼마 됐어요?

로라는 저 오징어 배울 때부터 나왔어요.

@ 어 그러면 사십년 전부터 나왔네요.

예. 이것은 저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 따라가서 전업으로 다닌 게 아니고 오징어 잡는 데 가보고 싶어서 따라갔을 때 인제 요걸 봤고 고꾸라를 보고 인제 이걸 봤죠. 한번은 만져봤죠. 잡는 거도 보고. 갔는데 보고. 그 답에 이~ 로라가 나오고부터는 제가 오징어를 잡은 거죠. 로라 산작꾸.

@ 음~ 산작꾸도 이제 그 뒤에 나온 거고.

예. 이제 그 뒤에 다 나온 거죠.

@ 돔보 있잖아요. 돔보.

그것도 그 전에. 우리 어른들이 하신 거.

@ 요것도 이제 다 그 전에. 이제 오십년 전에 사용했던 거네요.

예. 그럴 겁니다. 한 사오십년. 사십년. 그렇지. 한 사. 사오십년쯤.

@ 날라리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이제 그 후에. 날라리나 이런 거는 제가 이게 좀 멀리서 오시고 한테 그 걸 상세히 좀 안 해도 될 거 같지만. 그렇게 우리는 오징어 잡는데 동원된 장비가 예로부터 쪽 이게 다거든. 자동 인자 조상기까지. 거 인자 잡는 방법의 변천은 이게 답니다.

@ 굉장히 그림도 그려주고 너무 좋아요. 우선은 그면은 날라리라는 게 저희 왜 보통 생각할 때 까불까불하는 사람이.

그렇죠. 바로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고기를 잡는다.

@ 이게 까불까불거린다 이게 이 말이겠죠. 그러면 지금 사실은 채낚기라는 거는 뭘 보고 채낚기라 그래요? 자동 조상기가 있는 거 보고 채낚기라 그래요?

채낚기는 원래는 학명상으로 채낚기가 과거에는 **일본조**라 그랬어요. 일본조.

@ 일본조.

일본조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어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니뿐조** 했는데 아마 니뿐조. 일본말이니까 아마 일본조가 맞는 말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채낚기라고 부르고 있죠. 채낚기라는 거.

@ 그러면 지금 자동 조상기가 달린거는 채낚기선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렇죠. 채낚기. 채낚기인데 그 연안은 보면 이제 **연안**이 있고 **근해**가 있으니까 인자 십오톤 미만. 이상 뭐 이래서 인자 연안에는 채낚기와 자망 통폐합해서 복합 어업이라

인자는 복합어업. 복합어업 속에 채납기와 인자 뭐 자망 이런 거 인자 복합적으로 엮어졌죠. 그래서 복합어업이라고 어~ 그 이 복합어업은 용어를 쓰지는 한 삼사년 정도 밖에 안 됐을 겁니다.

1.3. 울릉도의 오징어 이야기



[사진 14] 저동 어판장의 오징어 할복 과정

첫 번째 오징어 이야기¹⁰⁾

@ 아까 왜 계장님 저기 오징어도 보면 왜 초등오징어가 있고 뭐 된 오징어가 있고 이러셨잖아요.

예.

@ 오징어도 종류가 몇 가지 있죠?

한 가진데. 내 숟가락 먼저 났습니데이.

@ 예. 괜찮습니다.

오징어가 저 몇 년 사는지 그거는 들어서 알지예.

@ 아니 저 잘 몰라요. 오래 오래 살진 않죠?

오징어가 일 년 삽니다. 일 년 삽니다.

10) #은 제보자 박봉식을 말한다.

@ 예예.

초등오징어라 카는 지금 나는 거 보다 더 여름. 한 오월달쯤 돼가 바닷가 가보면요. 오징어 회 그래 파는데 요런 거 있습니다. 봤습니까.

@ 뭐 한지도.

한치는 겨울에 나는 게 한치거든. 한치보다 더 적은 거. 한치는 질이가 큰 거는 이렇습니다. 오징어가 다 돼가 여기 좀 있으면 한치가 아이 안 나네요. 한치가 한테. 오징어 요런 거 납니다. 요런 거. 자잘한 오징어. 요런 게 나는 **초등**. 참 나는 오징어. **초물**. 초등. 참 나는 거거든. 초등 오징어가 주로 오월 말에서 육월 초에 갑니다. 고런 게 나는데 고런 거기 초등이고 고래 나다가 방아 때 되면 고기 좀 주춤하더라고. 그래서 다시 나면 늘 그래도 적게 나다가 인제 시월한 시월달쯤 돼가 나쁜 **굵은오징어** 나는 거라. 굵은오징어 나쁜 거기 인자 십일월 중순 안 가고 거기 떨어져버려요. 떨어져뿌고 다시 십일월 중순부터 지금까지는 인자 십일월 중순 지내가 십일월 말 가까이 돼가 지금까지 나는 오징어는 자꾸 **잘아지는** 기라. 어제 예를 들어 일 키로가 나갔으면 한 사흘 있다가 잡으면 구백 그람. 또 고보다 적게. 전에 인제 이게 그때 십일월 중순쯤 돼가지고 보통 키로 오백 정도 나갔는데 지금 키로 정도밖에 안 나가거든에. 그마이 자꾸 줄어지는 거죠. 이거 이기.

@ 그러면 지금 나는 오징어는 이름은 뭐라 하는데요.

그거 인자 겨울에 도직기 카는 긴데 **도직기**. **동삼바리**. 이기 인자 도직기 카데요. 주로 **동삼오징어**데 도직기 카데. 보통 도직기 인자 뭐 다 됐다 이래 샀고. 지금도 도직기 다 됐다 이래 샀습니다. 그게 동삼바리. 겨울로 친다.

@ 예예. 그면은 여름이나 이럴 때는 그 무슨 바리라 하는데요 보통. 여름에는.

여름에는 뭐 무슨 바리 카는 거는 없데요.

@ 겨울에는 동삼바리.

겨울에 나쁜 동삼바리고 그담에 **초등바리**. 참 나는 거 초등바리.

@ 예예. 초등바리 이려고 그럼 굵은 오징어 할 때는.

굵은오징어 뭐 그냥 그때는 통상 날 때니까 뭐 그 보통 보면 이러거든. 많이 날 때

보면 **한직기**다 이래. **한물**이다 이러거든. 시월달에 오징어 뭐 울릉도는 한직기가 시월 달 아이가 이래 샀는데 한직기. 늘 침 한참 날 때를 이래서 아마 해서 하는 얘기겠죠.

@ 한참 날 때 한직기. 오징어도 보면 저희도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물오징어 갑오징어 오징어 종류 이런 거 있잖아요.

예예.

@ 그거는 여기서 쓰시나요?

물오징어는 건조를 안 하고 금방 잡아왔는 기 **물오징어**고 **갑오징어** 카는 거는 바닷가 가보면예. 오징어 이래 생기길 넓적하게 내 손매로 이래 생겼는데 배를 따보면 **오독~뼈**라고 뼈가 이래이래 들었는 거 봤습니까?

@ 예예.

거기 이 안에 굵으면 허연데 옛날에 그게 바닷가에 울릉도도 간혹 있었는데 거기 약글은 거 없을 때 손 이래 비키고 뭐 이래 상처난 데 그거로가 가루로가 굵어가 그거 갖고 치료를 하고 하는데 지금도 포항글은 데 육지에 가니까 갑오징어 그런 거 더러 나던데. 잘 더라고요.

@ 그럼 오도뼈가 약이 되는 거예요?

오독뼈. 그거 이름이 오독뼈라 이라데. 갑오징어 속에 있는 뼈를 속을 보면 껍디기는 단단하고 속도 굵으면 굵힙니다. 그래 해보면. 그걸 옛날에 약이 없을 때는 그걸 애들 손 비켰다던지 다치게. 다쳤다던지 하면 그런 걸로가 이래 가루를 뿌리가 이래 치료를 하더라.

@ 저도 듣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오독뼈가 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독뼈가 사용을 하대. 우리도 썼어요.

@ 물오징어 갑오징어 이거 말고는 오징어 종류가 없어요?

오징어 종류는 뭐 울릉도에서 있는 거는 그 이 외에 없습니다. 갑오징어 종류 주로 이름만 알지. 울릉도에선 나지는 안 하고.

@ 나질 안 하고.

예.

@ 그면은 왜 오징어도 보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왜 보면 가자미같은 거 보면 종류가 막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징어도 종류가.

다양하죠. 아무래도 그. 그거는 아무데도 가도예. 어업기술센터 있습니다. 육지 가도 있고예. 어업기술센터 가면예. 우리가 알기로 뭐 고래같은 거도 종류가 나지만 고래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요.

@ 예. 그렇죠.

오징어 종류도 여러 가진데.

@ 근데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연안에서 나는 거는 주로 이기 무슨 오징언지 몰라도 주로 한 가지 종류니까 주로 잡는 이 종류밖에 더 있습니까.

@ 주로 잡는 이 종류는 그냥 뭐라 부르십니까.

그 모르겠어. 그냥 오징어.

@ 그냥 오징어.

뭐 그걸 거게 대해가는.

@ 아까 그래도 예를 들면 아사이찌. 요이찌 이래서.

그거는 초저녁에 잡는 기. **아사이찌 요이찌**는 실제로는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 일본말.

일본말이고. 예. 우리가 당구칠 때 하든 아무거나 때리라 이라든 아까. 아까돌이라 이라 거든예. 그러면 야 요번에는 허연 거 한다 이러면 시루. 인자 아까 빨간 거하고 흰 거하고 같이 맞추는 거는 쉽고 전부 빨간 거 맞추면 고단자들이 조금 이백씩 이래 치는 아들이 그거만 치고 이라거든. 그런데 그거는 일본말로가 나온 거 아닙니까.

@ 예예. 그런데 뭐 실제로 쓰는 말이니까.

실제 예.

@ 저희는 일본말 이런 거 따지는 거보다요.

예.

@ 이 울릉도에서 실제로 쓰는 말이면.

실제로 쓰는 말이 인자.

@ 왜냐면 여기는 일본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인자 이러이 보통 뭐 육지 가면 아마 아사이찌 요이찌. 요즘은예 잘 모르지 싶어. 왜 모르냐면 주로 오징어는 옛날에는 자기네들이 잡아가 자기네들이 샅만 주고 가갈 때도 있었습니다. 울릉도로. 그래 자기 집에서 말래가 팔았어요. 그래 그거보다는 잡아서 수협에서 위판을 다 보니까 자루 넣어 와야 되는 기라. 예를 들어가예 아사이찌 잡으면 아사이찌 대로 담고 요이찌 잡으면 허여이 돼가 아침에 가면 그거 절반 값도 안 가는 기라.

@ 아 그 정도로 가격 차이가.

예 많이 납니다. 입찰 한창 보고 많이 하면예. 아사이찌 잘 해가 요거는 한 **축**에 삼만원 갔다. 요이찌 돼 간 거는 아예 이만원 만오천원도 안 삽니다. 그러니까 함부래 저온저장 저온실 거진 다 돼가 있다는데 그래 뭐 영도나 떨어지도록 해가 초저녁에 잡으면 무조건 무야 되는 기라. 그래야 아침에 가면 이 초저녁 잡은 거 새벽에 잡은 거 별표가 안 나도록 가야 아파 이배 진짜 선도 관리 잘했다. 그거 선도 아입니까. 선도 관리 잘했다. 그러면 항시 값을 더 쥐뽀는 기라. 그리고 한 번 더 주는 게 아니고 믿을 수 있는 거 메이커 안 그랍니까. 우리가 좋은 건 메이커죠. 저 배 고기는 무조건 메이커 아니까. 그 답 이렇습니다. 고기를 잡아오면 사람이 천천만천이라. 내가 오늘 이까를 백 축 잡았다. 스무 마리짜리 백 상자를 잡았으면 중자를 스무 상자 빼뽀는 기라. 그러면은 굵은 기 몇 상잡니까.

@ 뭐 모르겠는데요.

백상 자 잡아주고 스무 상자 빼면.

@ 아 스무 상자 빼면 팔십 예예.

팔십 남았죠. 팔십 남았는데 똑같은 바다에 잡았는데 그것도 인자 서바다 북바다 굶고 잘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바다에서 잡아서 한 선단이 같은 바다에 가거든. 같은 바다에 잡았는데 이 배는 가면은 아까는 스무 상자 딱 뺐는데 이 배에는 가면 잔기 사십 상자 빼고 굶은 기 육십 상자 밖에 안 돼.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뺐다 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굶은 기 굶겠어요 자겠어요. 굶은 거 아닙니까. 그래 이거는 저쪽 배 스무 꼬지 빼는 거는 삼만 원이라 이라면 사십 꼬지 빼는 데다가 삼만 오천 원 가 뿌는 기라. 삼만 오천 원 관이 나가는 기 아니고 다음에도 몇 번이나 그래오면 안 무도 그 배는 메이커 배 아니가. 늘 잘해오는 배 아니가. 믿어뿌는 기라. 그런데 늘 물건도 이런 거 속에 잔 거 이거 옆고 하면 저 배 아치. 나 저 배 내 오징어 샀다 완전 물묵데이. 옆지 마라. 오징어 말라 저런데 거 옆노. 이래 돼뿌는 겁니다. 그래 인자 그래.

@ 그것도 다 눈속임 하는 거 알죠.

그렇죠. 예예.

@ 알죠.

알모. 함부래 친한 사람들끼리 저거는 저거도 오징어 봐라. 오징어도 잘 보고 못 보는 사람 있습니다. 잘 보는 사람 그런 거 안 하거든. 저거 봐라 저 고기 몇 번 몇 번이지 싶으다 딱 글로 사는 기 팔십 프로라. 잘 안 속는다니까. 늘 많이 당해본 사람은. 저 배가 아니면 좀 잘해주면 다른 데 잘 해 온 고기 살 수 있는데 저거는 맨날 눈속임하고 이라니까 그럼 오징어 좀 나쁘다 선원들이 시발아 오징어 어찌고 저찌고 욱하고 이러면 그런 거 굳이 살 필요 없다는 거죠.

@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아사히찌 요이찌. 그 답에 우리가 초등오징어.

예. 도직기.

@ 예. 도직기. 이런 오징어 있고 그 답에 오징어도 왜 크기에 따라 부르는 거 있어요?

크기에 따라 부르는 거는 하매 선별해가 올 때 대자다 중자다 소자다 해가.

@ 그냥 대자 중자 소자밖에 없어요?

예예, 그 이후에는 없죠. 대 중 소 해가 오니까.

@ 대오징어 중오징어 소오징어 이렇게 말하진 않고.

그래 안 하고 그냥 상자에 할 때 대 중 소.

@ 그냥 소관 이렇게.

입찰볼 때. 그냥 경매볼 때. 대 백날. 아까 얘기할 때 대 백나면 백나고. 중이 삼십 나른 삼십 마리라. 삼십 마린데 중이 스무 상자다. 그면 스무 상자 세 났으면 서른 축 이라. 그럼 대는 백 상자 내났으니까 백 축이라. 소는 대중소라 켜으이 소는 사십 마리 씩 영는 기라. 대는 소는 다섯 상자 뽑았거든. 아주 중에도 못 들어갈 거 요런 거. 고 거는 해놓으면 고건 다섯 상자에 사십 마리씩 그건 열 축이라. 그러면 상자는 다섯 상자를 재났지만 경매사가 불러줄 때는 소 열 상. 열 축. 다섯 상자에 두 축 씩 하면 열 축. 스무 상자 중자를 대냈지만은 서른 축이거든. 그러니까 인제 불러줄 때. 대 백. 백 축. 중자 서른. 소자 열 개. 이렇게 부르지. 상자는 스무 개라도 서른 축이고 다섯 개라도 열 축이고 그래 경매 딱 불러줍니다. 입찰 해 열 때 이 배에는 우리 대자 해놓고 중자 여놓고 요래 재영거든. 대자 백날. 중자 서른나. 스무 상자 재가지고 서른 상자 이까 서른나. 소자는 다섯 상자 재가도 열나. 이래 딱 불러줘뿌는 기라. 담. 담기를 사 십 마리 담고 서른 마리 담고 스무 마리 담으니까.

@ 아~ 근데 그면 결국은 소자 조그만 거 이런 거 잡아가지고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조그만 게 잡았는 기 아니고 다 그냥 올라오는 대로 다 잡아가 분류할 때 대자는 대자대로 분류를 하고 중자는 중자대로 분류를 하고 중자에도 못 따라갈 꺼 소자에 하거든. 잘하는 배는 그렇고 못 해가 오는 배는 소자 하나도 없어. 맨 마지막에 빼뿌고 부. 중자 속에 놓갈라 너뿌는 기라.

@ 아 그러면은 오징어는 작은 게 맛이 좋나요. 아니면 큰 게 어떤가요. 소득에는 어떤 게 낫나요?

소득에는 큰 거 많이 잡으면 좋지만은 인자 우리가 이렇게합니다. 맛이 좋으냐 카는 건 용도에 따라 다르지요. 회글은 데 하면 큰 기 몬하다 합니다. 왜냐면 너무 크니까. **오징어회** 다른 데는 몰라도 오징어회 하면예. 굵은 거만 있을 때 가면 칼로 그냥 이래 안 썰고 이래 다시 오징어를 이래 포를 뜹니다. 도화대기 내듯이 이래 이래 해가지고 썰니다. 그거 뒤고 하면 뚜껑을 한번 얇게 이래 해가 한번 썰이면 얇기 자체도 두께별로 싸라질 수 있고. 뭇 말인지 알겠지예. 그런 방법을 해가 썰어줍니다. 연하라고. 그러니까 인자 회는 너무 큰 거보다 낫고 작은 게 좀 낫다 이런 거 있는데 우리는 그런 맛가지고 모릅니다. 우리는 다 먹기엔 달렸지요.

@ 그럼 여기에는 오징어로 만드는 음식은 어떤 게 있어요?

오징어로가 만드는 음식은 주로 오징어를 여기에 인제 오징어하고 저 삼겹살 같은 데 하는 **오삼불고기**라고 식당에 써놔는 거 잡사봤습니까.

@ 아니요. 저는 그거도 처음 봐가지고.

돼지고기예다 오징어를 섞어가 합니다. 그것도 아주 오징어를 그냥 생 굴 섞는 게 아니고 아주 물만 짭 빼가지고 고래 너무 마리면은 불고기하고 한데 섞으면 안 되잖아요. 물만 짭 빼가 영는 기 그것도 **오삼불고기**라고 그렇게 해가 나오는 게 있고. 그 이외에는 이제 **오징어로가 순대** 그건 아무데나도 안 있습니까.

@ 저희 강원도 이런 데 가가.

순대 하지예. 여기도 인제 팔월 보통 한 이십일쯤 돼가. 저 팔월사일이야. 팔월이십일이야. 팔월달에 오징어 축제 하는 데 항상 관광객들하고 오는데 그 인자 오징어 시식회같은 거 하는데 순대글은 거 합니다. 요 아래 일월 일일날도 그 인제 거 일일날 여 인제 풍어제 지내거든.

@ 아 일월 일일날요?

일일날. 예.

@ 그 언젠데요?

일월 일일날. 지나갔잖아.

@ 아 그 신년요. 구정이 아니라.

구정이 아니라. 일월 일일날 경매를 보면서 관광객도 오징어 순대글은 거. 시식회를 합니다. 그래 하고 육질을 많이 영는데 여기는 육질을 최근에 많이 합니다. 오징어 **흰창** 안 있습니까. 창자가 보면.

@ 흰창요?

오징어 속에 보면 **누린창** 있고 흰창 있습니다. 그 봤습니까?

@ 그 봤죠.

뒤에 함 보세요.

@ 누런 누런 내장간.

그거는 뭐고 하면예. 사람으로 말하면 간이라.

@ 누런 내장요.

누런 내장 간이고.

@ 어간.

거다 기름 짜고 안 합니까. 하고 흰창은예. 고걸 그냥 흰창만 해가지고 이래 호박
잎사구라든지 이런 거 썰고 거 이러 거 국 끓이고 이래가 많이 합니다. 이래가 콩나물
같은 거 썰고 **오징어내장탕** 내주세요~ 이라면은 고걸 가 국 끓여줍니다.

@ 내장탕 유명한 게 살코기도 아니고 이런 데 몸에 좋은가요?

몸에 좋은 게 아니라 어떻든 술. 나는 술을 못 무이 모른데 술 먹고 이런 사람들은
그 시원하이 뭐 속풀이 하는데 괜찮고 이라이 아이고 오늘 마 오징어내장탕 그것도.
그 담 복어탕 이런 거 안 잡사봤어요?

@ 복어는 먹어봤죠.

복어탕. 요새 복어도 많이 납니다. 아이고 복어탕 먹자 이라고.

@ 여기에 복어 보고 뽕피라 하더라구요.

복지라 이라쥬. 그것도 울릉도라. 육지에서 편하게 묵는 거는 주로 밀복입니다. 싸
고. 복지도 인자 참복이라 카는 건 생기기는 똑같이 생겼는데 이 옆에에 이렇게 구름
모양 매로 이래 버섯 매로 이래 이런 기 한쪽 면에 한 세 개 땡겨있어요. 이렇게 그게
참복이라고. 그거는 이런 거 한 열 배 정도 되거든.

@ 아 밀복보다는요?

몇 십 만원씩 옛날에 잘 갈 때 갔다 이러거든.

@ 그러면 오징어는 오징어내장탕. 뭐 오삼불고기. 그 답에 회.

예. 회.

@ 오징어회.

예.

@ 그 답에 오징어 판 거는 없어요?

그 답에 뭐 **피데기** 그냥 찌가 술안주같은 거 하고 옛날에 말랐는 거 많이 쓰는데
이제는 피데기 더 많이 나간다 이러거든. 피데기 술안주라든지 집에서 먹으면 끓여가
뭐 먹고 하는데 거기 인제 육지 가져가가 약간 배 있는 쪽에 칼질하고 해가 그 저게
석쇠 약간 굽어가지고 뭐 이래 고추장같은 데 발라가지고 이래가지고 먹고 이러는데.
울릉도서는 쥐도 회하고 뭐 오삼불고기하는 쪽으로 들어가고.

@ 그 답에 젓도 많이 안 담아요?

젓도 많이 담습니다.

@ 언제.

젓은 여기 사람들은 언제 젓을 담냐 하면 오징어가 인자 한참 중자 이런 거 마 한
마디로 말해가 개락을 낳을 때 고마 살 사람도 갓두만 반듯하게 안 가고 비가 오고 이
라든 처분 곤란이라. 오징어도 내가 삼백 축 말라야 하는 자리를 갖고 있는데 삼백 축
사고도 오징어 딱 찢는데 무리하게 살 필요 없는 게 그래야 많이 사노면 여름에는 막
씩고 이러니까 그때 오징어를 간을 하는 거지. 젓갈 담는 거. 그때만 담는 거지. 담는
데 실제로 젓갈은 싱싱하고 요새 꺼가 담을 때 더 낫겠지만은 옛날에 보이 그래 젓갈
담더라. 담아가지고 육지로 나가고 하는데 이제는 울릉도 오징어 있고 하는데 육지 나
가면 못 보고 젓갈 조금씩 담는 거 요즘 담는 게 낫지. 겨울에.

@ 오징어 내장 갖고도 젓 안 담아요?

오징어 내장가는 젓 안 담습니다.

@ 그럼 뭐로.

오징어 내장가지고는 **내장탕** 이런 거만 하고 누런창 간 카는 거 안 있습니까. 여기

에 가면예. 오징어 내장탕 해냈는데 누린창을가 해줍니까 이러면 그거까 씹 씹먹고 하는데 그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 그거가 내장탕 전문으로 하는데 그걸 해줄라 하면 해 줍니다. 예~ 몰라 안 왔다. 지금 갈라 한다. 그래. 오야 알았다. 어.

@ 그러면은 네. 우리가 이거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던 그런 음식은 아니고 이 최근에 다 개발된 거네요?

아니요. **순대**글은 거 이런 거는 다 옛날부터 했어요. 요즘은 큰 배 발동기가 있으이 그런데 옛날에 간꼬로가 할 때는예. 멀리는 안 잡고 제가 아까 뭐 가에도 물에도 더러 오징어 들려오는 소리 난다 그랬죠. 그래 초저녁에 잡으며 그걸 초저녁가 요이찌라 안 그랬습니까. 초저녁 잡아가 한 아홉시나 열시에 들어 와가지고 배 올려놔다가 새벽에도 닭 소리가 꼬꼬덕 나면 그때 또 나갑니다. 아사이찌 고래 나가는데 그때는 초저녁에 잡아노면 겨울에 지금 이때쯤 되면 춥고 이라잖아요. 잡아가 그 중에 작은 거 골래가 속에 살 떠 넣고 이래가 순대를 합니다. 그래 묵고 그런 요리는 옛날부터 들어봤죠.

@ 아 옛날부터. 그 뭐 불고기나 이런 것도.

불고기는 오삼불고기 이런 거는 인제 한. 한 이십년 전쯤.

@ 예. 그 답에 아까 왜 있잖아요. 우리가 바람 있잖아요. 청풍 처진갈. 요거를 방향을 잡는데.

고기 잡는 데도 요런 게 있습니다. 보통 요즘은예. 전부 저저 어탐이 있고 그런 거 안 쓰는데 옛날 어른들은예. 뭐 **셋별치기**라. 우리가 얘기할 때 옛날 어른들은예. 그 나 침판글은 거 없을 때도 여기서 강원도까지 갔다 왔다 하늘에 별 보고 갔다 왔다 했어예. 그래 오징어 잡는 배도 뭐 셋별치기라. 새벽에 뭐 **별치기**. 뭐 그 답에 달 뜰 때 분다던지 이런 거 한다. 셋별치기 뭐 퍼뜩 한 삼십 분 물고 한 무대 이럴 때 안 잡히더라 이러거든예. 그럴 때 그런 용도 있어요.

@ 그럼 새벽에 별 보고 잡으러 오는 거 뭐 이런 거.

별 보고 잡으러 오는 거 없고. 잡으러 갈 때는 요이찌 아사이찐데 주로 인제 한 모다가도 줄질을 하잖아요. 하는데 셋. 셋별. 이게 인제 우리가 견우 직녀 카는 거 만나는 거 안 있습니까. 그거 여거 조모수이다 이러는데 거 저 **조모수**이 별 뜰 때 그때 그런 거 올라올 때 산 우에 올라온다던지 이러면은 물 위에 뜬다던지 고때부터 하고 인자 달도 예를 들어가 뭐 음력으로 이십일 달은 초저녁 아홉시 돼가 뜨면 이십칠 팔일은 열한시나 열두시 돼가 뜨지 않습니다. 이래 뜨모 **달치기**라고 고래 뜰 때 한 사십분

잡힐 때가 있고 이래 뜰 때가 있어.

@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달치기는 달로 올라올 때.

올라올 때 뜨는 거. 셋별치기라든가 조모수이 이런 거는, 셋별치기 이런 거는 인제 별이 오라올 때. 큰 별이 올라올 때. 셋별이라 카든 그 아무 별이 아니고 뱃사람들이 통상 어든 쪽으로 올라오는 별이 있다. 고거 뜰 때 셋별치기라든지.

@ 그면 큰 별 올라올 때 이제 그 물고기를 잡는 거죠.

오징어를.

@ 아 오징어 잡는.

오징어 잡는 기 아니고 내 그 전에 잡는 데 안 몰다가. 고 별이 싹 올라오면은 고 때부터 삼십 분 물어뿌는 기라. 그래 별치기라.

@ 그러면 그때만 삼십 분 정도고.

예.

@ 이제 많이 잡히는 거죠. 요것도.

그 답에 저녁에도요. 해가 살 빠지지 않습니까. 해 싹 빠지자 마자 먹는 기라. **해치기**라고.

@ 해치기.

그 답에 해가 또 뜰 때도 아침에 늦게까지 잡을. 해가 싹 올라올 때 고때까지도 잡는 수가 있습니다. 해치기 갖고.

@ 그면 해가 뜨거나 지거나.

지거나 할 때.

@ 지거나 할 때 고때 잡는.

십 분 정도. 해 질 때는 그래가지고 끝까지 잡을 수가 있고 해가 뜰 때는 불과 십

분 정도. 해가 올라 와썬으니까 낮이거든.

@ 그면 조모수이뇨?

조모수이 카는 큰 별 이름인데. 그기 우리가 그 견우직녀 만난다 하는 그 그 별이 몇 개가 뭉쳐가 있는 그 별이라. 그런 그거 뜰 때가.

@ 그럼 조모수는 그냥 별 이름이고. 그냥 셋별치기.

셋별도 땡 **별치긴데** 우리는 몰라도 옛날에 어른들 그 별 뜰 때 큰 별이 뜬다든지 달이 뜬다든지 할 때 그래 고기가. 다른 고기도예. 다른 고기도 잡을 때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 음~ 그러면 셋별치기 달치기 해치기가 있고.

예예예.

@ 셋별치기 중에 조모수이라는 거는 이제 그냥 큰 별 이름이. 그러면 우리가 조모수이도 그때 고기 잡는다 이런 게 아니고 아 오늘 조모수이라더라.

예. 오늘이 아니고 그거는 저녁마다 한번씩 회전을 해가 오는데 어제 저녁엔 없다가도 오늘 곱이 어디 뜰 때 오는 기라.

@ 그면 조모수이라고 말할 때 어떨 때 보통 표현하는데요?

표현은 주로 이제 북두칠성 이래 있고 안 합니까. 그게 인제 그래 뜰 때를 그 시간을 두고 하는 기지.

@ 그면 시간을 조모수이다.

그렇지. 시간인데 고때 고 별이 뜨는 기라.

두 번째 오징어 손질하기¹¹⁾

@ 아뇨. 아까 얘기 안 했는데. 바람 얘기 잠깐 얘기하다가 헛불 얘기하고 이러다가 빠졌어요. 맞잡아요. 바다는 안 나갔잖아요. 바다 준비하다가 말았는데요.

바다 인자 그래 인자 뭐 나갈 때 **사도 챙기고** 전부다 **갑빠 챙기고** 인자 그 뭐 저항구. **항구** 인자 항구라 카기도 하고 **밥벤도 챙기고**. **학꼬** 챙기가지고 **배 인자 출혀하고** 그때는 머 어촌계에 출혀. 출항 신고수도 없고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고 그랬어요. 자율적으로. 그래서 인자 나가서 바다에 가서 고기 잡고. 고 담에 밤 새도록 잡아가주고 마이 잡으면 판매도 들어올 때도 있고 그러면 휘. 휘발유등이 인자 휘발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하고 인자 기름 사가지고 **휘발유가 등 쓰고**. **간수뿔** 이런 걸 가지고 인자 **바다에 나가가지고 조업하고** 거서 뭐 아까도 얘기하지만 **도마하고** 자기 인자 치부를 자기들끼리 전부다 개인별로 다 해가지고 **칸칸이 자기가 앉아가지고 고기를 잡고** 고기 잡을 때는 **풍기미를**. 아까 얘기했던 배 옆에 있는 풍기미를 인자 띠고 인자 조업을 하죠. 조업을 하고 저녁에 고 담에 아침 되면 들어오는 거죠.

@ 들어오면 이게 바로 뭐 어디로 이제 넘기는 돼요? 어떻게 넘기고 뭐.

그거는 넘기는 게 아니고 여는 생물을 파는 게 아니고 전부다 **건칩니다**. 그때 당시엔. 요즘에는 건조공장이 주민들이 제도가 있고 그랬지만 그때는 주민제도가 없었어. 거의 없고 전부다 말려 개인이 다 **말려요**.

@ 아~ 지금은 생물을 하지만 그때 무조건 건조로.

건조로 했지. 요즘도 뭐 다 건조로 하지만 전부다 그때는 개. 요즘에는 주민들이 공장을 지아가 했고 선주들 잡아 오거나 팔로 했지. 옛날에는 작업할 때는 전부다 개인이 선주한테 주고 그. 그 통 그 잡아 왔는 **고기를 그대로 거서로 세알리가지고** 이쪽에는 선주 꺼. 뭐 여기 자기 꺼 이래가지고 **딱 분리해가지고 할복을 해요**. 선주는 선주끼리 인자 선주가 받아가지고 할복을 해가 자기가 하고 고 담에 선원은 선원대로 인자 남는 거 할복을 해가 개인적으로 전~다 말랐어요.

@ 아 집에서.

손수로 개인적으로. 전부다 **태양건조고** 그때는 여기 **불건조장도** 없었고. 전부다 태양건조 했고. 말라가지고. 그래가 있으면은 장사꾼들이 와가 사가 가고 그랬어.

11) #은 제보자 김성호를 말한다.

@ 그러면 오징어는 할복하고 그 담에는 어떻게 하는데요.

예?

@ 덕장에 거는.

그렇지.

@ 그니까 할복 담에는 뭐했는데요.

고 담에 할복 다음엔 뭐 **꼬챙이** **이깃대에 끼어가지고 세척을 해서** 고 담에 인자 옛날걸으면 인자 이 요즘에는 차로가 운반하지만 전에는 **지게. 바지게**라고 있어. 바지게.

@ 바지게.

바지게. 바소구리. **바소구리**를 지게에 얹히는 걸 바지게. 거다가 이까를 그때는 인자 증꼬지라 이랬죠. **증꼬지라** 카는 거는 두 꼬지씩입니다.

@ 증꼬지요?

예. 증꼬지라. 꼬쟁이가 지금 현재 말하면 반 꼬지씩 길이가 요것만 해요. 두 꼬지씩을 쟁가가 인제 바지게에 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고걸 집에 가가 집에 지게에 받혀 놓고 스무 마리씩 큰 게 인제 요즘 이까대 거다가 **스무 마리씩 농가리는 거죠.** 큰 꼬쟁이다가. 즉 말하지만 요만한 꼬쟁이에 사십 마리 끼가가 집에 가서는 요걸 인제 분리틀 스무 마리씩 분리해가 **꼬쟁이** 다는 거죠. 고래가 탱기 치고 발 띠고 귀 뒤피고 배 디비고 귀 추고 고 담에 **꼬챙이 빼가지고** 인자 귀탕이 눌혀가 **훅고** 그래가 인자 말라가지고 **축을** 지아요.

@ 잠깐만 이거 다시 한번만요. 허허. 예. 어 그면 할복 이깃대 그 담에 끼우고요.

할복. 할복해서 이깃대 끼워서 거 세척을 해가지고 **덕장에 가서 말루는 거죠.**

@ 덕장에 하는데 지게 이까 싣는 거는.

바지게.

@ 바지게. 바소구리. 그 담에 이거를 증꼬지에.

증. 증꼬지.

@ 증꼬지. 꼬지가 이제.

그래서 인자 아줌마들은 인자 이 다라이. 다라이에다가 에~ 이고 가고. 담아서 이고 가고. 증꼬지를 인제 두 꼬지 담은 걸 증꼬지라 그래. 작은 꼬지에다 이까 담아가 집에 가서 인자 **큰꼬지** 하는 거죠. 분리 작업.

@ 그 담에 스무 마리씩 나누고.

예. 나눠요.

@ 그 담에 땡기 치고.

땡. 땡기 치고. **땡기 치고** 고 담에 **배 뒤피고**. **배 디끼고**. 고 담에 **어 귀 추고**.

@ 귀 추고. 어. 귀를 촌다는 게 뭔데요?

땡기 치고 고 담에 배 디끼고 **발 띠고**. 발이 이래 붙었잖아. 이래. 어? 그럼 발을 띠놔야 돼. 바람에 말릴라면. 하나 하나.

@ 귀를 먼저 떼고 고 담에 발 떼고.

음. 배. 땡기 치고 고 담에 배 디끼고 배 디끼면서 인자 발 띠고.

@ 아 그러면은 배를 디킨다는 거는 배를 뒤집는 거.

배가 **이까**를 끼놓으면 이렇잖아요. 그럼 이거 히떡 디비놔야 여도 마를 거 아니에요. 그 담에 인자 요랬는 걸 요랬는 걸 갖다가 인자 배 디끼고 난 후에는 배 디끼면서 발꺼정 다 띠요. 그 담에 이걸 요래 **재끼가지고 귀를 인자 짹~ 피야죠**. 귀를 제끼는 거죠. 귀를 **땡기놔야**. 귀가 딱 붙어있잖아요. 그래서 귀를 추고.

@ 귀 디추고 그 담에 귀를 다시 디배고.

배 띠고. 배 디끼고 귀 추고 고 담에 인자 어느 정도 말랐는 상태에서 떼가지고 고 담에 인자 **귀도 넓히고 배도 넓히고 인자 훑는 거요**. **훑어가지고 말라가 축을**. 지는 거요.

제 4 장 조사된 어휘

1. 오징어 잡이에서 덕장까지란?

울릉도 지역에서는 크게 두 주제로 나누어 조사하였는데 하나는 오징어 잡이와 관련된 생활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잡아온 오징어로 상품을 만드는 덕장에서 사용하는 어업¹²⁾ 관련 생활어이다.¹³⁾ 두 주제로 나누었지만 사실 이는 하나의 큰 주제인 ‘어촌 생활어’에 속한다.¹⁴⁾ 즉 ‘오징어 잡이에서 덕장까지’의 각 단계별로 사용되는 생활어를 그 조사 대상으로 한다. 조사를 위해 이를 대표할 수 있는 직업인 어부와 덕걸이 하는 사람을 그 대상으로 했다.

1.1. 오징어 잡이

어부와¹⁵⁾ 그물 손질을 돕는 부녀자뿐만 아니라 덕걸이 하는 사람의 경우 이들이 모두 이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이들이 하는 말이 일과도 관련되어 있어 동일한 대상에 대해 같은 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어부의 경우는 때로는 어판장의 일이나 낚시 도구 손질, 오징어를 덕에 거는 일을, 덕걸이 하는 사람의 경우는 상인과 관련된 일과 어부의 일을 함께 하고 있어 이들을 각각의 직업으로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어

12) 일반적으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어로활동을 어업(漁撈), 오락을 목적으로 하는 어로를 유어(遊魚)라 한다. 그러나 어업이라는 말은 경우에 따라서 가리키는 범위가 다소 다른데 본고에서는 어업을 어업 및 어업과 관련한 일을 하는 ‘어부, 어판장 상인, 덕걸이 하는 사람’ 등이 하는 어로 활동을 말한다.

13)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예전부터 어촌이 발달했다. 그러나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어촌은 점차 추억 속의 어촌이 되어가고 있다. 그 결과 이제는 어촌도 예전만큼 활성화되지도 않았는데다 예전의 방법으로 고기를 잡고 그물을 손질하는 것도 사라지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다.

14) 2012년도 민족생활어 조사에서는 ‘소멸 위기의 어촌 생활어’라는 큰 주제 속에 지역을 ‘1) 동해안, 2) 서해안, 3) 남해안, 4) 제주의 해안’으로 나눈 후 이는 다시 공통조사와 개별조사로 구분해 조사했다. 공통조사는 기초어휘조사를 말하는 것으로 각 지역의 생활근간이 되는 어휘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기초조사는 해당 지역의 전반적인 기층생활어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필요하지만 이것이 기초조사에 그친다면 소멸 위기의 생활어를 채록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은 기초어휘를 기반으로 한 확장 어휘를 추출할 수 있는 개별조사의 필요성을 말한다. 개별조사는 공통조사에서 쉽게 나타나지 않는 지역적 특수성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멸 위기의 생활어도 채록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필요하다.

15) 어업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직업이 어부와 해녀가 아닐까 한다. 이러한 까닭으로 인류학이나 민속학에서는 어부와 해녀에 관련한 어로 문화에 대한 연구가 이미 조사된 바 있다. 그렇지만 울릉도라는 지형적인 특수성으로 해녀의 경우는 제주도에서 온 사람이 많았는데 그래서 해녀를 ‘제주사람’으로 부르기도 하였는데 그래서 해녀를 대상으로 언어 조사는 하지 않았다. 이는 가능한 울릉도에서 이주한 지 오래된 사람을 통해 이 지역 언어와 문화를 채록하기 위함이다. 한편 인류학과 민속학에 이루어진 연구들이 언어학적인 측면에서의 이루어진 조사가 아니라는 점에 초점을 두어 이들이 사용하는 생활어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류를 잡고 어로 도구를 손질하고 낚시를 입수하고 오징어를 낚고 이렇게 잡은 오징어를 덕장에 거는 일련의 과정이 모두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본 조사에서는 이를 직업적으로 구분하는 것보다는 오징어 잡이와 관련된 단계 속에서 이들이 사용하는 생활어, 즉 각각의 단계에 따른 어로 생활로 구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주제를 ‘오징어 잡이에서 덕장까지’라고 하였다.

1.2. 덕장

2012년에는 오징어를 잡기 위한 준비 단계인 낚시 도구 손질부터 오징어를 다시 가공하는 덕장까지의 각 단계별로 사용되는 생활어를 그 조사 대상으로 한다. 즉 오징어를 중심으로 이들의 명칭과 어로 행위뿐만 아니라 가공 과정에 대한 생활어도 조사하고자 한다. 단순히 최종적으로 잡힌 오징어의 명칭을 아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 이 오징어를 잡고 가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어휘를 살펴보는 것이 그 목적이므로 ‘시기, 방법, 이용’과 관련된 ‘동삼오징어, 도직기, 겨울오징어, 낫이까, 낫오징어’와 ‘선망오징어’, ‘저장오징어’와 같은 어휘도 살펴보았다. 또 덕장에서는 ‘탱기 치기’, ‘축 짓기’, ‘짜к 짓기’와 같이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 나타났는데 이도 함께 제시해 다양한 언어 사용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직업적인 특성과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오징어 덕장에서 사용하는 표현과 언어의 특성도 살펴볼 수 있었다. 이처럼 동해안 어업과 관련된 어휘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이를 통해 어촌 생활어라는 하나의 큰 범주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조사는 ‘오징어 잡이에서 덕장까지’의 각 단계별로 사용되는 생활어를 그 조사 대상으로 했다. 조사를 위해 이를 대표할 수 있는 직업인 ‘어부’와 ‘덕걸이 하는 사람’을 그 대상으로 했고, 어업 관련 생활어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어촌 지역인 ‘울릉도’를 조사 지역으로 선정했다. 조사 지역인 울릉도는 섬이라는 성격상 해안어가, 일본과의 거리로 인해 일본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먼저, 어업과 어부의 개념과 어촌의 배경에 대해 살펴본 후 환경, 어획물, 어획 도구, 행위에 관한 어휘를 조사했다. 이처럼 어촌의 범주를 구분한 후 어로 행위 과정에 중점을 둔 이와 같은 조사는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일반적인 어촌의 모습을 담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¹⁶⁾ 이러한 실질적인 어휘 조사는 우리 민족과 역사를 같이 한 ‘어촌’에 대한 생활어를 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소멸 위기의 어촌 생활어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가질 것이다.

16) 바다에서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 일은 위험하고 고된 일이다. 어민들은 자식에게 위험하고 고된 일을 직업으로 물려주지 않으려고 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아 자식들 교육에 열정을 쏟아붓고 있었다. 어민들의 자녀들도 대를 이어 아버지가 한 위험한 바닷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부모들도 배를 타기보다는 공부해 사무직과 같은 직업을 갖기를 소망하고 있었다. 이러한 직업관은 어부와 해녀라는 직업을 소멸 위기로 몰고 있었다.

2. 관용표현

2.1. 어로 생활과 관련한 표현

2.1.1. 어업 행위

1) 우찌로도는 나무에 전복이 열린다

과거 울릉도에 전복이 많았던 시기를 나타낸 표현이다. 이 시기에는 밤이 되면 전복이 바닷가 부근에 심어있는 버드나무에 기어올라 나뭇가지에 주렁주렁 달려 있었는데 그래서 아이들도 쉽게 전복을 주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울릉도에서는 나무에 전복이 열린다는 말이 생겨났다고 한다.

⇒ 그 때 당시에는 울릉도를 일본말로 우찌로도라니까. 우찌로도라 이러는데. 여기서 {우찌로도는 나무에 전복이 열린다} 이랬어.

2) 갯 쫓았다, 만선 했다, 통배 탔다

출항을 해 그날 고기를 많이 잡으면 기를 쫓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다. 즉 많은 고기로 인해 기분이 좋아 배에 갯을 쫓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 말이 어부들에게는 듣기에 가장 좋은 말인데 이와 동일한 말로 ‘만선 했다’가 나타나고 있었다. 즉, 오징어를 한 배 가득 잡았음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다. 반면, ‘통배 탔다’는 오징어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 빈 배로 돌아왔다는 의미이다.

⇒ {갯 쫓았다}. 옛날에 만선. 만선기를 단다 이 뜻을 인제 갯 쫓았다. 많이 잡았다.

⇒ 그거는 인제 뭐 통배 탔다 하고. 못 잡았을 때는 통배 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 그대로 뭐 만선을 했었을 때는 오늘 뭐 {만선 했다} 이렇게 뭐.

⇒ 인제 뭐 {통배 탔다} 하고. 못 잡았을 때는 통배 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 그대로 뭐 만선을 했었을 때는 오늘 뭐 만선 했다 이렇게 뭐.

3) 불가사리가 깔고 있으면 탄 고기가 못 온다

불가사리의 강한 독성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그래서 불가사리가 있으면 다른 고기가 오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바닷가에서는 불가사리를 백해무익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었는데 이를 건져 감자밭의 거름으로 사용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고 한다.

⇒ {불가사리 이놈이 인자 깔고 있으면 탄 고기가 못 와}.

4) 섯바람 불면 고기가 안 잡힌다, 섯날 불면 작업 되겠다, 손사공 죽었는 날은 바람이 세계 분다

배가 바다로 가기 전에 어부들은 매일 새벽 하루 천기를 보는데 이때 북쪽에서 오는 바람인 섯바람이 불면 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바닷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바람이 섯바람인데 그래서 이 지역 외에도 경주, 영덕, 강릉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섯바람이 불면 비가 와 배가 전복될 수 있어 위험하다는 말과 섯바람이 불면 고기가 나지 않는다는 의미를 모두 담고 있다. 이는 ‘섯바람이 불면 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말과 관련지어 볼 수 있는 말이다. 배가 바다로 가기 전에 어부들은 매일 새벽 하루 천기를 보는데 이때 북쪽에서 오는 바람인 섯바람이 불면 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한편, ‘손사공 죽었는 날은 바람이 세계 분다’는 손사공이라는 사람이 죽은 날이 되면 바람이 세계 분다는 말로 예전부터 울릉도에 전해오는 말이다.

- ⇒ 다른 건 쓰는 거 없어요. 아 {야 이거 섯날 분다. 오늘 뭐 이 작업 되겠다} 이런 말은 쓰죠. 그런데 섯바람이 섯바람이라는 거는 북동이나 북서나 북쪽에서 오는 바람을 인제 섯바람이라고 거의 많이 하는데 {섯날 불면은 이게 작업이 되겠다} 아이 오늘 쉬자 하고 그런 용어는 많이 썼었. 썼었지. 다른 특별한 그거는 없어.
- ⇒ 주로예, 북쪽에서 부는 바람이 섯바람이라 이라는데 {섯바람 불 때는 오징어가 적게 난다} 이랍니다. 거 인제 갈바람. 섯바람은 좀 참고. 북쪽에서 부는 거 좀 참잖아요.
- ⇒ 주로 인자 보면은 섯바람은 고기. {섯바람은 고기가 나다가도 섯바람은 고기가 안 잡힙니다}.
- ⇒ 섯날이 불면 그 육지 쪽에 가도 그런데, {섯바람이 불면 고기가 잘 안 잡힌다} 그러거든.

5) 오늘 조금이니까 가보자, 조금 보러 간다, 조금 전 삼일 후 삼일 고기가 잘 잡힌다, 조금은 고기가 조금씩 난다

울릉도 지역은 서해쪽과 달리 물 조류가 심하지는 않아 ‘한물, 두물’과 같은 어형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조금, 초조금, 대조금’에 대한 큰 구분은 없었으나 이러한 어형은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 중 ‘조금’과 관계된 관용표현이다. 조금에 고기가 많이 있다는 의미로 고기잡이 하기에 적당한 시기를 말해주는 표현이다. 조금 전 삼일과 후 삼일 사이에는 예전부터 고기가 많이 나는 시기라고 한다. 그래서 조금의 덕으로 고기를 많이 잡으려 간다는 의미로 ‘오늘 조금이니까 가보자, 조금 보러 간다, 조금 전 삼일 후 삼일 고기가 잘 잡힌다, 조금은 고기가 조금씩 난다’가 사용되고 있었다.

- ⇒ 예예. 예를 들면 고기 많이 안 날. 안 날 철에 오늘 가자 이러면 요새는 고기도 없는데 뭐하러 가노. 그래도 오늘 가보자. {오늘 조금이니까 한번 가보자}. 그저 이래 하고 인자 안 날 때도 주로 안 가다가도 안 늘 안 가면 고기 우에 될지 모르이 {오늘 조금이니까 있을지 모르이 가보자}.
- ⇒ 이전부터 인제 {조금을 보러 간다}. 그래서 그 전에 안 잡히면 후 삼일. 그 담 삼일을 또 보는 거고.
- ⇒ 여기는 보름을. 아~ 보름이 아니고 여기가 아~ 조금이라 그런데요. 선조금 후조금 그러지. 그래서 {조금 전 삼일, 후 삼일 고 때는 고기가 있다면 가장 잘 잡힙니다}.

- ⇒ 예. 조금은 있어요. {조금은 인제 고기가 크기가 보면 조금 때 조금씩 난다} 이래가지고 조금은 마이 찾아도 여기는 물때가 없습니다. 저희는 뭐 저~ 강원도 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인천 경멸 지역도까지 우리도 다 다닌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남해 밑으로 내려가야 부산쪽으로 가야 인자 물때 찾고 하지. 부산 위로는 물때가 없습니다.

6) 바다 쪽에서 흰하게 일 때 왁새가 터진다

구름이 하늘 위에 깔리고 산 가까이에 있는 바다가 환하게 보이면 큰바람이 많이 분다는 의미이다. 즉 갑자기 어두운 바다가 환하면 큰 바람이 오니 조심하라는 말이다. 배가 출항하기에 좋지 않은 날씨를 말하는 것이다. 이 외에 ‘셋바람 불면 고기가 안 잡힌다, 셋날 불면 작업 되겠나, 손사공 죽었는 날은 바람이 세게 분다’와 같은 날씨와 관계된 표현도 찾아볼 수 있었다.

- ⇒ 미신같은 거는 뭐 다른 거는 없고 예 바다에서 일어나는 거는 예를 들어가지고 바다 조업을 나가든가 바다 밑이 흰~하고 갑작스럽게 시커먼 구름이 위에도. {바다 쪽에서도 약 한 뼘 정도로 흰하게 일 때는 바람이 왁새가 터진다}. / 바다 밑이. 이. 예를 들어 깜깜했다가 바다 밑이 갑작스리 팍 들리면서 확 터지면서 여는 굉장히 밝단 말이에요. {이 환하게 터졌을 때 써꺼먼 구름이 위로 많이 뿔 때는 왁새가 터진다}. 그때는 빨리 챙길 채비를 해가 들어오는 거죠.

7) 파도에 시부끼 들다, 연빈에 시부끼 들다

‘파도에 시부끼 들다’는 파도가 크게 넘실거리는 너울이 되면서 치는 것을 가리킨다. 다른 말로 ‘연빈에 시부끼 들다’라는 말도 사용되었는데 이 역시도 바닷가, 즉 연변에 너울이 치나는 의미이다. 이때 ‘시부끼’는 큰 파도, 너울을 달리 가리키는 말로 볼 수 있는데 일본어로 유추된다.

- ⇒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들어오면 그걸 보고 야야 부두에 파도 써더나 이렇게 안 하거든. {파도에 시부끼 들더나} 이러거든. 시부끼. 그러이 너울이 들더나 파도 치더나 하는 말을 인자 시부끼. 야야 그 연빈에. 그것도 부두가 아니고 야야 {연빈에 시부끼 들더나}.

8) 헛깨비불이 산에 보이면 날씨가 마이 나빠진다, 헛불이 있으면 이삼일 내로 큰바람이 분다

산에 실제로는 불이 난 것이 아닌데 불이 난 것처럼 보이는 것, 즉 ‘헛불’이 보이면 얼마 지나지 않아 날씨가 나빠진다는 말이다. 보통 바다에서 헛불을 본 2~3일 뒤에 큰바람이나 큰비가 온다고 한다.

- ⇒ {헛불. 헛깨비 불이 산에 막 보인단 말이에요. 산에 막 구부는 거요. 그럴 때는 이 날씨가 마이 나빠진다}. 똑 그러그 나쁜은 마 상당히 날씨가 이삼 일씩 나빠지고. 그럴 때는 빨리 들어와야 돼.
⇒ 예. {헛불이죠.그렇죠. 그러면은 이삼 일 내로 큰바람이 불겠다}.

2.1.2. 기타 생활 관련한 표현

1) 뱃놈 비 오면 부잣집 개보다 더 모하다, 배 타는 사람들이 비 오면 부잣집 개보다 모하다, (뱃놈) 가난한 집 개보다도 더 모하다

비가 오는 날 바다 한가운데 있는 뱃사람의 처량한 신세를 나타낸 표현이다. 비가 오면 개도 개집에 들어가지만 배 위의 선원은 비를 피할 곳조차 없어 내리는 비를 그대로 맞게 되는데 이때의 신세가 부잣집뿐만 아니라 가난한 집 개보다 못하다는 의미이다.

- ⇒ 부잣집 개가 아이고 {가난한 집 개보다도 더 모하다}.
- ⇒ {배 타는 사람들이 비 오면 전부 부잣집 개보다는 모하다}.
- ⇒ {뱃놈 비 오면 부잣집 개보다 더 모하다}.

2) 명이로가 명을 잇아가 나갔다

먹을 것이 없었던 울릉도의 겨울철 ‘명이’라는 나물로 명을 이어 나갔다는 의미이다. 이 말은 ‘명이’라는 나물의 어원, ‘명을 이어 나갔다’를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다.

- ⇒ 명이 왜 명이고 하면 울릉도 사람들이 그때 봄에 한창 보릿고개 뭐 아무것도 먹을 거 없을 때 그 {명이로가 명을 잇아가 나갔다}. 이래가 명이라. 그게 인자 산마늘인데. 그래가 요즘은 그래가 먹는 사람 별로 있습니까. 전부.

3) 총각 새침하게 면하다

갓 결혼한 남자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즉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제 총각을 면했다는 말을 ‘새침하게 면하다’라고 했다.

- ⇒ {총. 총각 새침하게 면했다} 카는 거는 인자 뭐 근근이 장개 간 지가 얼마 안 된다 이 말이지요 뭐.

4) 바닷가에 있는 사람 과부 많다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이 파도와 물결로 인한 사고, 즉 풍랑 사고로 많이 죽어 과부가 많다는 말이다. 특히 섬이라는 지형적인 특성으로 이러한 경향이 더 많이 나타났다.

- ⇒ 지금은에 내일 어떨다 이러면 이 무선국에서 자 몇 톤 이상 배 전부 어디까지 피란 오너라. 다 불러 들리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런 게 전혀 없었니까. 그래 인자 {바닷가에 있는 사람 옛날에 과부 많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얘깁니다.

5) 손사공 죽었는 날은 바람이 세게 분다

손사공이라는 사람이 죽은 날이 되면 바람이 세게 분다는 말이다. 그래서 이날은 작업을 나가지 않는데 울릉도에서 예전부터 전해오는 말이다.

⇒ 그 답에 울릉도 지형적으로 여 {손사공 죽었는 날이다. 이런 날이. 그때는 꼭 바람이 세 게 불더라}. 이래가.

6) 배를 처음 지았을 때 여자는 안 태운다, 배에다가 여자 한 사람 심지 마라, 새복에 여자가 지나가면 작업 안 나간다

뱃사람이 금기시 하는 일 중의 하나이다. ‘새복에 여자가 지나가면 작업 안 나간다’는 바다를 가기 전에 아침 일찍부터 여자를 보면 그 날 하루 재수가 없다는 말이다. 배를 처음 짓고 하는 의식을 ‘진수식’이라고 하는데 이때 배에 여자는 태우지 않는다는 의미는 ‘배를 처음 지았을 때 여자는 안 태운다’로 나타난다. 이 외에도 일상적인 어로 행위에서도 ‘배에다가 여자 한 사람 심지 마라’를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여자가 승선하는 것을 금기하고 있었다. 어로 행위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부정을 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 ⇒ 갈리는 사람들은 혹시 그런 기 옛날에는 그랬는지 몰라도 지금은 그거는 뭐 기계. {배를 처음 지았을 때 여자는 안 태운다던지} 이런 건 있데예. 처음 지아 가지고 배 진수식 안 합니까. 그 때 뭐 돼지 잡고 잔치 하고 그랬는데 그래 했을 때 처음에 할 때는 여자를 안 태웁니다. 좀 가.
- ⇒ 그래 뭐 그런 부정시키는 부분은 보면 {배에다가 인자 여자 한 사람은 심지 마라}. 그런데 이런 방송국은 와서 떼를 쓰고 그 뭐 한 번씩 태워달라고. 그래서 뭐 안 태워줄 수도 없고 뭐 그래서 고기가 안 잡히는지 나도 안 잡히더라고. 이 어촌계장하고부터는.
- ⇒ 그 뉘시를 들고 갈 때 {새복에 앞에 여자가 지나가버리니까 작업을 안 가버리더라고}.

7) 개략천지 빼갈이다

아주 많음을 ‘개략’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많음이 천지에 가득하다는 표현이다.

⇒ {개략천지. 빼갈이다}. 빼갈이는 무디기를 말하거든.

8) 강원도 강남옛 울릉도 호박옛

강원도 지역에 유명한 옛이 ‘강남옛’이라면 울릉도 지역에서 유명한 옛이 ‘호박옛’이라는 말이다. 이 말은 울릉도 지역에서 노랫말처럼 나타나기도 했다.

⇒ 그래 후박나무. 그래 있는데 그것도 일종에 선전 그거 뿐이지. 실지로는 호박옛 거기 옛날에 우리 어릴 때부터 이럴 때 옛쟁이 팔 때 {강원도 강남옛. 울릉도 호박옛}. 이런 게 나오거든.

이러한 표현에는 어부들이 고기잡이를 할 때의 조심스러운 마음 가짐과 동시에 풍어, 풍선을 기원하는 마음도 함께 담겨 있다. 즉 본인의 안녕과 함께 다량의 고기를 잡고자 하는 소박한 마음에서 나온 표현으로 볼 수 있다.

2.2. 오징어의 상태와 맛에 관련한 표현

2.2.1. 오징어 표현

1) 동지 지나면 오징어가 끝났다, 동지가 오징어 환갑이다, 동짓 팔죽 먹으면 오징어 환갑이다

난류성 어종인 오징어는 동지와 같이 추운 겨울에는 잡히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동지가 되면 오징어가 끝물 즉, 환갑이니 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봄부터 잡기 시작하는 오징어가 겨울이 되면 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동지가 지나면 오징어는 더 이상 나지 않아 볼 수 없다는 말이다. 지금은 다르지만 예전에는 환갑이 많은 나이를 가리켰는데 이에 빗대어 설명한 것이다. 오징어가 나지 않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오징어의 상태도 좋지 않은 시기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말들은 추운 날씨에 나온 난류성 어종인 오징어가 상품으로 가치가 없다는 말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 오징어는 동지 지나면, 동지가 오징어 환갑이라 그래. 환갑. {동지 지나면 거의 오징어가 끝났다} 하는데 금년에는 아직 절기가 남아서 그런지. 금년에는 구정이 앞당겨 있으니까.
- ⇒ 보통은 일월달 물 때 까지도 낚고 보통 보름달. 예. 원래 옛날에는 예~ 동짓달. {동짓 팔죽 먹으면 뭐 오징어 환갑이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가에 이 근해 이 나는 고기는 요즘처럼 바닷가 땡땡가에 땡땡가에 가는 잡는 고기를 글고기.
- ⇒ 오징어는 동지 지나면. {동지가 오징어 환갑이라} 그래. 환갑. 동지 지나면 거의 오징어가 끝났다 하는데 금년에는 아직 절기가 남아서 그런지. 금년에는 구정이 앞당겨 있으니까.

2) 오징어가 텃다

오징어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 빈 배로 돌아왔다는 것을 ‘오징어가 텃다’로 표현했다. 일반적으로 섯바람 불면 오징어가 적게 나니 작업을 하러 가도 많이 잡지 못한다는 말을 비유적으로 한 것이다. ‘섯바람 부는데 널 아침에 적다’도 같은 의미이다.

- ⇒ 잡은 아니. 날 날 평소에 날이라도 좀 적게 난다 이라지. 근데 야 올 저녁 많이 나더라도 예유 {오징어가 텃다}. 이 {섯바람 부는데 널 아침에 적다}.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2.2.2. 어류의 맛과 상태에 관한 표현

1) 문애 여름 잡으면 개도 안 먹는다, 여름문애는 개도 안 묵는다, (문어는) 여름에 잡으면 개도 안 묵는다

문어는 여름에 먹으면 맛이 없다는 말을 비유적으로 한 것이다. 그래서 여름문어는 동네 개도 먹지 않으니 먹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말들은 동해안 지역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표현으로 산란기 지난 문어가 기름이 빠져서 맛이 없다는 말이다. 한편 이 말을 통해 ‘여름문어’라는 말이 하나의 명칭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여름에 잡으면 인자 개도 안 묵는다 이 말이지}. 맛없다 말이지.
- ⇒ 어 {문애. 문애 여름 잡으면 개도 안 먹는다고}. / 예예. 맛이 없거든요.
- ⇒ {여름 문애는 개도 안 묵는다}.

2) 홀당가지 없는 개장사라

퐁치는 잡는 것은 힘든데 반해 파는 것은 쉽다는 의미이다. 어부는 그 수고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반면 파는 사람은 제 가격을 받고 판다는 말로 어부들의 노고에 대한 표현이다. 반면 파는 사람은 길가에 있는 주인 없는 개를 파는 것과 같이 이익도 쉽게 남길 수 있다는 말이다. 퐁치가 많이 나는 이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는 말이다.

- ⇒ 그래 이 사람들이 밤 새도록 잡어와 가지고 와서 판로가 없잖아. 이 사람들 그냥 줘요. 그 여 았아가 파는 사람. {홀당가지 없는 개장사라}. 지금까지 형태는 그래 왔다고. 개를~ 줄도 없이 그냥 불러가 판다 카는 게. 아면 뭐 그런 어떤 밀천도 안 들이고 개가 길거리에 있는 걸 판다. 이런 뜻이겠쥬.

3) 콩 먹으러 왔다

‘수치’라는 고기의 염통을 먹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이다. 그 생김새의 닮은 모습이 ‘콩’과 같다는 의미에서 나온 말이다.

- ⇒ 육지에 가면 싼데. 횡집에 가면 그거 하나씩 맛보는 재미로 그~ 일인당 한 마리씩 시켜가지고 고거 염통처럼. 뿔룩뿔룩한 거. 그거 맛볼라고. 그 그 {수치 고길 먹으러}. {콩 무러 왔다}. 염통하고 심장하고 같이 붙어있는 거. 빨간 거 하얀 거.

4) 찬절 날 때 먹은 고기가 젤 맛이 좋다

겨울철 또는 가을철에 먹는 고기가 제일 맛있다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찬절’은 주로 9월부터 11월까지 추워지기 시작하는 시기를 가리키는데 이때 나오는 고기가 맛이 제일 좋다는 말이다.

- ⇒ 가을게 돼서 맛있지. 가을 때. 언제든지 {찬절 날 때 찬절 날 때 먹은 고기라 젤 맛이 좋은 기라}.

어류의 좋은 맛을 위해 이를 권장하는 표현이 나타났다. 이러한 비유적 표현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우리 어른들의 지혜와 감각적인 언어 사용의 면을 엿볼 수 있었다. 앞서 살펴본 어로 생활 표현과 함께 정리해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5〉 오징어 잡이에서 덕장까지의 관용 표현

구분		관용 표현
날씨	천둥, 번개	천둥부터 먼저 오고 번개 온다(오는 순서를 말하는 표현)
	비	달무리 있으면 비가 온다
	바람	바다 쪽에서도 약 한 뼘 정도로 훤히케 일 때는 바람이 와새가 터진다 셋바람은 고기가 나다가도 (셋바람은) 고기가 안 잡힌다
	시기	찬절 날 때 고기는 제일 맛있다(여름 지나고 서늘한 바람이 불면서 추워지는 때인 9월부터 11월까지 나는 고기가 맛있다는 말)
	기타	햇불, 햇깨비불이 산에 막 보이면 그럴 때는 이 날씨가 마이 나빠진다
비방, 금기, 생활		강릉 최부자가 새치 껌데기 3년 씹 먹으니 집구석 말아 먹었다(고기 껌질이 그만큼 맛있다) 제사에는 ‘치’자 달린 고기 못 올린다 ¹⁷⁾ 불가사리가 깔고 있으면 판 고기가 못 온다 물에 저녁(물에 저녁) 묵나 ¹⁸⁾ 고기도 잘 생긴 것이 맛이 더 있다. 콩 먹으러 왔다(심장 먹으러 왔다. (수치)) 조금을 보러 간다(고기를 많이 잡는 시기)
어류	방어	여름방어도 맛이 없다(10~11월에 맛이 좋다) 방어는 가을방어여야 한다 ¹⁹⁾
	오징어	오징어는 버릴 게 없다 오징어는 새벽에 잡으면 맛이 좋다 오징어는 초저녁에 잡으면 맛이 없다(상했다) 오징어 잡을 때 굵새기 만나면 허탕이다.(오징어 철에 돌고래를 만나면 오징어가 없다)
	신평	신평는 설 아래 먹어야 한다. 구정 아래 먹어야 한다, 2월에 먹어야 좋다
	전어	전어를 구우면 집 나간 며느리 온다(구운 전어가 맛있다)
	문어	여름 문어는 먹도 안 먹었다 문어 여름에 잡으면 개도 안 먹는다 여름문어는 개가 줘도 안 먹었다
어업 행위	기타	비 오는 날 뱃놈은 있는 집 개보다 못하다(비를 맞고 있을 수밖에 없는 뱃사람의 처량한 신세를 표현한 말) 그 갑, 갑바 입고 또 장화 신고 설치니까 부잣집 개보다 모하다

17) ‘멸치, 칼치, 새치, 고래치’ 등의 고기는 못 쓴다는 말이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새치’를 ‘임연수’로 부르는 경우는 제사에 사용하기도 한다

18) 보통 뭐 저 인자 오후 뭐~ 세시 네시 다섯시 되는데 멀리 나가면 일찍 묵고 안 그러면 네시 다섯시, 거기 인자 물에, 물에 저녁이라 하죠. 예, 물에 저녁 묵나 카거든. 물에 저녁 묵나 카면은 인자 물에 인자 갈 때 밥을 묵나 이 말이라.

19) ‘가을 방어는 문 달아놓고 먹는다(영덕 정순예)’에서 볼 수 있듯이 방어에 대한 이야기는 동해안 전반에서 찾을 수 있었다.

3. 행위자

어부는 어로 활동을 하는 직업으로 이는 명태잡이, 꽁치잡이, 청어잡이, 오징어잡이, 대게잡이, 문어잡이 등을, 또 ‘선장’과 ‘영자, 막내이, 화장, 보신, 남바’을 모두 포괄하는 상위 범주이다. 한편 덕장에서 행위자를 나타내는 표현은 특별하게 나타나지 않고 ‘오징어건조하는사람’ 즉, ‘오징어녀는사람’으로만 나타났다. 반면 해녀에 대한 명칭은 일부에서 나타났는데 여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이러한 행위자는 이처럼 무엇을 잡느냐와 그 사람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에 따라 명칭이 분화되어 나타났는데 이를 살펴보기로 하자.

3.1. 어부



[사진 15] 하선하는 어부

어부는 배를 타고 물고기 잡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어부는 배 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선장, 화장, 영자, 보신’과 같이 분화되기도 했고, 고기를 잡을 때 있는 위치에 따라 ‘원도모, 오른도모’와 같이 명칭이 분화되기도 했다. 이 중 ‘뱃사람, 뱃놈’은 선원을 낮추어서 가리키는 말이다.

- ⇒ 이 {뱃사람은} 비 오고 하믄 그 바깥에 웅츠리고 이래 있는 모습이.
- ⇒ 쇠로가 전부 해냈는 거 있제. 저기 오징어 거는 자리. 여는 {오징어건조하는사람} 내 뿐이라. 전부 이래.
- ⇒ 옛날 우리 보통 {뱃놈} 그랬는데 보통 {배선원이라지}.

3.1.1. 위치에 따른 명칭

1) 오른도모, 원도모, 한장

일반적으로 ‘원도모, 오른도모, 한장’은 배 위에서의 배의 부분 명칭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이를 폭넓게 사용해 경우에 따라 어부 중에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지칭하기도 했다. 그래서 ‘오른도모, 원도모, 한장’으로도 사람을 지칭하기도 했는데 위치와 행위자의 명칭이 대응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배 부분 명칭과 동일한 형태로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 ⇒ 그러면 이기 이래 되는 거야. 인자 원도모 {오른도모}.
- ⇒ 그러니까 저 앞쪽에서 선수 쪽으로 보다 선미 쪽으로 뒤쪽으로 하니까 인제 뒤쪽에도 {오른쪽에 타는 사람은} 그 {원도모} {오른도모꼬티}. {왼쪽에 타는 사람은} {원도모꼬티} 선장은 옆에 타는 사람은 원도모 이런 방법을.
- ⇒ 그러면 이기 이래 되는 거야. 인자 {원도모} 오른도모.

3.1.2. 역할에 따른 명칭

1) 선장, 센쪼, 선주, 배임자, 선원, 본선원, 미나라이, 일반선원

어선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사람은 ‘선장’ 또는 ‘센쪼’로, 나머지 사람인 ‘영자, 막내이, 화장, 중간사람, 사공, 남바’ 등은 ‘선원’, ‘본선원’, ‘미나라이’, ‘일반선원’이라고 한다. 또 원배의 주인은 ‘선주’ 또는 ‘배임자’라고 한다.

- ⇒ 내가 직접 {선장이} 하늘 치받아 보고 천기 보고. 천기 보고 날이 나빠진다 날이 좋다 나쁘다 그런 거 판단해가.
- ⇒ 아 그럼. 일반 {선원들이죠}.
- ⇒ 예. 그래서 요즘 인자 아까도 이야기하다가 다른 데로 흘러 들어왔는데. 그 뱃자리에서 과거에는 배를 올리고 자기 그 마을에 그 좀 뱃자리 만들어가지고 그 인자 배가 아침에 자고 오면은 {선주가} 있고 선원이 있고.
- ⇒ 아~ 이기 선장 밑에는 {간판장이란} 게 있었고 그 담에 그 {본선원} 그라는 게 있었어요.
- ⇒ 그래 {남방은} {기관쪼에} 속해. 기관쪼. 그 담에 인자 선원을 갖다가 {미나라이}. 미나라이. 미나라이라 그랬던가. 미나라이라고 했었. 했었던.
- ⇒ 저가 그 당시에 남으 배에 인제 내 배를 갖고 한 게 아니고 남의 배에 인자 {기관장이라} 그랬어. 기관쪼. 일본말로 기관쪼. 그때는 선장을 {센쪼}. 기관장을 기관쪼. 그 다음에 인제 가판장을 어떻게. 가판. {보싱}. 보싱이라 그랬거든. 인자.

2) 기관장, 기관쪼, 간판장, 화장, 영자(어른), 막내(이), 보신, 남박, 조기장, 오키야, 아부라사시, 영양사

목선의 경우에는 ‘선장, 사공, 영자, 막내이, 중간사람, 화장, 낚사공’이 주로 승선해 5명에서 7명이 주로 탔다고 한다. 반면 기계배의 경우는 ‘선장, 낚사공, 영자, 막내이, 기관장’

이 주로 탔다고 한다. 또 멀리 나가는 원양선과 같은 큰 배의 경우 12~13명의 사람이 탔다고 한다. 이러한 선원들은 배 안에서 서열이 있는데 ‘선장>기관장>간판장>화장>영자>보신>막내’로 나타났다. 어부는 배 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선장, 선원(본선원)’으로 일차적으로 구분된 후 선원은 다시 ‘기관장, 간판장, 화장, 영자, 막내이’와 같이 구분되었다. 이 중 ‘선장, 기관장’ 등은 ‘센쫌, 기관쫌’로 말해지기도 했다. 한편, ‘선장’을 제외한 다른 사람은 모두 ‘선원’으로 총칭하고 있었지만 이는 이들이 하는 역할에 따라 구분되고 있음을 이러한 어휘로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배가 출항을 할 때는 몇 명의 사람이 같이 나가는데 이때 배에서 밥 짓는 일을 맡은 사람을 ‘화장’, 기관실을 책임지는 사람을 ‘기관장’, 배 위에서 일하는 사람 중 총책임자를 ‘간판장, 가판장’으로, 이들을 총책임하는 사람은 ‘선장’으로, 이들은 모두 ‘선원’이라고 한다. 즉 목선의 경우는 기관실을 책임지는 사람인 ‘기관장’이 없고, 기계배의 경우는 ‘기관장’이 타는 대신 ‘간판장’, ‘사공’이 타지 않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큰 배의 경우 12명 정도의 사람이 타는데 이때 ‘남박’ 또는 ‘조기장’으로 불리는 기관장의 일을 도와주는 조수를 ‘아부라사시’로, ‘막내’보다 더 어리고 초보인 사람을 ‘오끼야’로, ‘화장’을 장난삼아 ‘영양사’로 부르기도 했다. 한편 ‘막내’에서 알 수 있듯이, 나이의 많고 적음에 따라 명칭이 나누어지기도 했는데 배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영자, 좌상’으로,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은 ‘막내, 막내이’로 말해지고 있었다. 이를 통해 연령에 따라 명칭의 분화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즉 배 위에서도 나이가 많고 적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은 ‘좌상, 영자어른’이라는 명칭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최고 연령자를 존중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막내’의 경우 밥을 짓는 일을 하는 ‘화장’의 역할과 허드렛일을 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배 위에서 일하는 선원의 총책임자는 ‘간판장’으로, 배를 총책임하는 사람은 ‘선장’으로 말하는데 이들을 모두 포괄하여 ‘선원’이라고 한다.

- ⇒ 저가 그 당시에 남으 배에 인제 내 배를 갖고 한 게 아니고 남의 배에 인자 {기관장이라} 그랬어. {기관쫌}. 일본말로 기관쫌. 그때는 선장을 센쫌. 기관장을 기관쫌. 그 다음에 인제 {가판장을} 어떻게. 가판. 보싱. {보싱이라} 그랬거든. 인자.
- ⇒ 남박이라고 있었는데 {남박} 밑에 이제 또 기관실에 삼명이 냉동하고 기계가 연대가 되기 때문에 남박 밑에 그걸 참 일본말인데 {아부라사시라} 그랬는데.
- ⇒ 그 답 {보신}. {보신}. 저저. {풍조정하는사람} 보신이고.
- ⇒ 저가 그 당시에 남으 배에 인제 내 배를 갖고 한 게 아니고 남의 배에 인자 기관장이라 그랬어. 기관쫌. 일본말로 기관쫌. 그때는 선장을 {센쫌}. {기관장을} {기관쫌}. 그 다음에 인제 {가판장을} 어떻게. 가판. {보싱}. 보싱이라 그랬거든. 인자.
- ⇒ 그래 그 용어는 {남방이란} 말은 인자 그 지금으로 치면 {조기장이란} 말을. 아마 조기장을 칭하는 걸 걸 겁니다. 우리 우리 순수한 말로 하자면. 조기. 인자 조기장. 인자 그 기관장을 보조하는 사람. 제가 알기론 그 전에는 그렇게.
- ⇒ 젤 나이 어린애를 야 {막내야} 막내야 이렇게 부르.
- ⇒ 예. 고 답에 고 답에 배 전체에서 선원들 중에 {일반선원들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나이 젤 많으시는 분을 {영자라} 그래요. 영자.

- ⇒ 야 오징어 많이 난다 고기 많이 난다 니 잡으러 가자 이러면 거기 인자 그 앞쪽에 한 칸 주는 거 그거는 인자 견습생 비슷하지. 그런 사람을 그걸 뭐라고 안 하고 그 이거는 아마 일본말이지 싫어. {오끼야라} 이러더라고. 오끼야.
- ⇒ 아~ 취사부에 취사부에 {화장이라고} 있어요. 화장이라고 이름을 썼다가 그게 듣기가 안 좋다 이래가지고 우. 우리들은 장난 삼아 부를 때 {영양사라} 그랬어요. 예. 영양사.

3) 편지바리, 그물바리, 춘태바리, 동태바리, 초등바리, 가을바리, 동삼바리, 낮치기, 밤치기, 달치기, 셋별치기, 원양바리, 당일바리, 갯바리

어부는 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는 도구에 따라 ‘편지바리, 그물바리’로 표현하기도 했다. 어로 도구가 ‘산작꾸’인 경우에는 그 던지는 행위에 연유해 ‘편지바리’로, 그물인 경우는 ‘그물바리’로 표현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잡는 계절에 따라 ‘가을바리, 가실바리, 동삼바리, 춘태바리, 동태바리, 초등바리’로, 그 대상에 따라 ‘명태바리, 콩치바리, 이까바리’로 구분되었다. 이 중 ‘초등바리’는 가장 먼저 나오는 오징어, 즉 ‘초물’을 잡는 행위를 말한다. 한편 오징어의 경우는 낮에 잡는 행위는 ‘낮치기, 낮바리’로, 밤에 잡는 행위는 ‘셋별치기, 밤치기, 조모순이, 달치기’로 말하고 있었다. 이러한 어부들은 그 거리에 따라 ‘원양바리, 당일바리, 갯바리’로 구분되었는데, ‘원양바리’는 먼바다에서 작업하는 것을, ‘당일바리’는 5~6시간의 거리에서 작업하는 것을, ‘갯바리’는 1시간 거리에서 작업하는 것을 말한다.

- ⇒ 요거 인자 조금 있으면 {한치바리를} 해요. 그러면 그거는 그물로가 들면 그물로가. 막 이래 떠요.
- ⇒ 뭐 {이까바리}. 하이튼 있어. / 예. 오늘 오징어 얼마 잡았노 그라믄 백축 잡았다 이래 얘기하는 게 아이고. {이까빠리나} 잡았더라. 한 바리 잡았더라 이 말이거든.
- ⇒ 네. 그걸로 가지고 오징어를 잡았었고. 또 산작꾸를 가지고 거 {편지바리라고} 하는 게 있어.
- ⇒ 한치. 그래 한치를 여기서는 조기라 그래. 조기. 그것도 일종의 오징어지. 오징어고 가끔씩 갑오징어 큰~ 거. 그런 거는 가끔씩 잡히고. 잡히고. 뭐 그 외에는 인자 쓰는 용어로는 우리가 겨울에는 {동삼지기}. 동삼이니까 뭐. 초등에나 {초등바리}. 초등바리. 그 담에 가을에 나는 거는 추석 쇠고 나는 거는 {가을바리}. 그렇게 분류. 그래 그렇게 분류하고. 가장 맛이 있을 철에는 이제 지금 잡는 오징어가 가장 맛이 있다.
- ⇒ 예. 낮오징어. 예. 저~ {낮바리라} 안 하고 순 낮빠리. {낮치기} 오징어 주로 많이 이래 얘기한다. / 낮에 잡는다고.

3.2. 해녀·해남

해녀를 모두 포함하는 말로는 ‘해녀’가, 해남을 나타내는 말에는 ‘머구리, 해남’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위어는 다시 일에 대한 존대 유무에 따라 ‘보지기, 히바리, 오야지’와 ‘하다까’로 나타난다. 여기에 대해 살펴보자.



[사진 16] 머구리



[사진 17] 오징어너는사람

- ⇒ {머구리}. 머구리 하는 잠수기.
- ⇒ {해녀네}. / {해녀}.
- ⇒ {해녀분들이} 계셔도 그 분들이 연세가 다 드셨고. 그 분들이 하시는 일은 뭐 이래 앞에서 미역대에 미역 하시고 뭐 소라 몇 마리 잡고 뭐 그런 거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저희들이 쓰는 말로는 {보지기라} 그랬어요.

3.2.1. 역할에 따른 명칭

1) 제주사람, 보지기, 오야지, 히바리

해녀는 모두 통칭해 ‘제주사람’으로 나타났다. 해녀들을 몇 명씩 무리를 지어서 일하는데 그러다 보면 자물질을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나기 마련이다. 그래서 동해안 남부에서는 무리 중에 자물질을 잘하는 사람을 ‘상군’, ‘중군’, ‘하군’으로 구분한 바 있었는데 동해안 북부와 울릉도에서는 이러한 어휘를 찾아볼 수 없었다.²⁰⁾ 그러나 해녀에 대한 명칭 중 일본어와 비속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보지기’는 여성의 성기에 비유한 것인데 이와 비슷한 의미로 ‘히바리’가 사용되었다. 이 중 제주도 해녀는 ‘제주산, 제주해녀, 제주사람, 오야지’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 결과 해녀의 하위어 분화가 일어나지 않아 ‘보지기, 오야지, 히바리, 제주사람’과 같은 명칭만 찾아볼 수 있었다.

- ⇒ 옛날엔 지금은 해녀라 그러는데 옛날엔 보지기. {보지기}. 옛날엔 그랬잖어요. 보지기. 보지기. 그 몰래 그래. 해녀 우리 어릴 때 보지기. 요새 나와 해녀라 그러는데 우리 옛날 보지기.
- ⇒ {하다까} 하는 거 여자도 있고. 뭐뭐.

20) 2010년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에서는 제보자에 해녀가 포함된 반면 2011년과 2012년 조사에서는 해녀가 제보자로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점이 이와 같은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2) 하다가, 머구리, 해남, 다이버

남자 잠수부는 ‘해남, 머구리, 하다가’로 나타났다. 이 중 ‘머구리’는 요즘의 잠수부와 다르다는 의미로 ‘재래식머구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고, 주로 하는 일이 다이빙을 하는 것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다이버’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처럼 해녀, 해남에 대한 명칭이 어부에 비해 많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섬이라는 지형적인 특성과 함께 주된 어업이 ‘오징어’라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 {머구리}. 머구리 하는 잠수기. 또 그게 있어. 또 머구리하고 똑같아요.

행위자에 대한 어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 행위자의 명칭

구분		명칭
해녀	출신 지역에 따라	제주사람, 제주산, 오야지
	비하어	보지기, 히바리
해남		머구리, 다이버, 하다가
어부	하는 일에 따라	선장=센쪼 선원(기관장=기관쪼, 갑판장, 화장, 영자(어른), 좌상, 보신, 남박, 막내(이), 오끼야, 아부라사시, 조기장)
	배의 위치에 따라	한장, 윈도모, 오른도모
	기타	선장짓까리, 선원짓까리 / 배짓까리
	잡는 어종에 따라	콩치바리, 이까바리(한치바리, 조기바리), 명태바리
	어로 도구에 따라	편지바리, 그물바리
	잡는 계절에 따라	동삼바리, 가실바리, 춘태바리, 동태바리, 초등바리
	잡는 시기에 따라	낮치기=낮바리, 밤치기, 조무순이, 셋별치기, 별치기, 달치기
	육지와 거리에 따라	원양바리, 당일바리, 갯바리

4. 장소

4.1. 바다

바다를 가리키는 명칭은 거리에 따라, 또 깊이에 따라 분화되어 나타났다. 먼저 거리에 따른 명칭을 살펴본 후 깊이에 따른 명칭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또 장소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시기에 따른 내용도 함께 다루기로 하겠다.

4.1.1. 거리에 따른 명칭²¹⁾

1) 근해바다, 앞바다, 이쪽바다, 가새, 짚, 연안, 이바다, 먼바다, 저쪽바다, 저바다

해안과 바다와의 거리가 가까운 바다를 ‘앞바다’, ‘근해바다’, ‘가새’, ‘짚’, ‘연안’, ‘이바다’라고 했다. 바로 앞에 있는 바다, 이쪽에 있는 바다라는 의미에서 ‘앞바다’, ‘이바다’, ‘이쪽바다’로, 해안가에 위치한다는 의미에서 ‘가새, 짚’으로 표현했다. 한 제보자는 가까운 바다를 의미하는 ‘연안’을 먼 바다로 표현하기도 했는데 이는 오류로 판단된다. 한편 이와 반대되는 의미로 육지와 거리가 먼 곳을 ‘먼바다’, ‘저쪽바다’, ‘저바다’로 표현하고 있었다. 지시사 ‘이, 저’와 ‘바다’가 결합된 합성어로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진 18] 이바다



[사진 19] 먼바다

- ⇒ 그건 {먼바다} 그래. 먼바다. / 이 뭐 보통 한 너더 시간 이렇게 너더 시간씩 나가면은 야 오늘 조금 멀리 가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걸 뭐 굳이 뭐 {먼바다니} 뭐 어땜니 그런 표현을 쓰고 그런 거는 우리 당시에는 요.
- ⇒ 그런. 그런 말은 쓰지. 저쪽바다 {이쪽바다}. 그런 말.
- ⇒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쓰는 말은 여기서 바다 쪽에 보면 밤에 이렇게 오징어 잡는 배 보이죠. 아 저 배는 가에 있다. 뭐 {땡땡가에} 있네. 그거는 아주 가깝게 있다 말을 땡땡가에 있다.

21) 깊이에 따른 명칭은 질문 항목의 겹침으로 인해 기초 어휘조사 내용도 중복되는 내용이 있음을 밝혀 둔다.

- ⇒ 그냥 가에 {가에} 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좀 나간 거고. 쯔 어느 정도 떨어진 거는 저 {중바다쯔} 되겠다.
- ⇒ 어. {가새}. {잘에}. / {가새}.
- ⇒ 어. {앞바다}.
- ⇒ 근. 근해바다라 하지. {근해바다}. / {근해바다} 그냥 앞에.

2) 동새, 새쪽, 맞쪽, 새쪽, 동새, 동바다, 서바다, 서쪽, 남바다, 남쪽, 북바다

방위를 나타내는 표현에는 ‘동새, 동바다, 서바다, 서쪽, 남바다, 남쪽, 새쪽, 북바다’가 나타나고 있었다. 동향은 ‘동새, 동쪽, 동바다’로, 서향은 ‘서쪽, 서바다, 새쪽’으로, 남향은 ‘남쪽, 남바다’로, 북향은 ‘새쪽, 북쪽, 북바다’로 표현하고 있었고, 동서향은 ‘동서간’으로, 동남향은 ‘동남, 동남간’으로, 동북향은 ‘동북간, 동북’으로, 서남향은 ‘서남, 남서간’으로, 서북향은 ‘서북간’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 중 ‘새쪽’이라는 표현이 서쪽과 북쪽을 모두 나타내는 표현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이’라는 의미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어휘 중 ‘동바다, 서바다, 남바다, 북바다’는 방위를 나타내는 표현과 ‘바다’가 함께 결합되어 나타났다. 이 외에도 원양어선을 주로 타는 한 제보자는 ‘이스쪽, 웨스쪽, 사이스쪽, 노스쪽’이라는 외래어가 결합된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 ⇒ {동쪽이라} 하죠. {동새} 동새.
- ⇒ 서쪽? {서쪽은} 뭐. {산쪽이라든가}. 그러지 뭐.
- ⇒ 동서. {동서간}.
- ⇒ 팔십 남았쥬. 팔십 남았는데 똑같은 바다에 잡았는데 그것도 인자 서바다 {북바다} 굶고 잘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바다에서 잡아서 한 선단이 같은 바다에 가거든.
- ⇒ 새. 새. {새쪽에서} 부는 거를. 새쪽이라 하지요. 새쪽. 새쪽. 북. 새쪽이 서쪽이지.
- ⇒ 예. {서북간}.

3) 너울성파도, 너울파도, 큰파도, 적은파도, 너울(놀), 구무니, 거품

바다에 파도가 치는 것을 ‘너울 있다, 시부끼 들더나’로 표현했는데 이는 명칭에서도 그대로 ‘너울’, ‘시부끼’가 나타나고 있었다. ‘너울’은 큰 파도가 넘실대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이러한 상황을 ‘너울성파도, 너울파도’로 표현하기도 했다. 또 파도가 크게 이는 것은 ‘큰파도’로, 파도가 적게 이는 것은 ‘적은파도’로 나타났다. ‘너울’은 다른 말로 ‘놀’ 또는 ‘구무니’라고 하고 있었고 이러한 파도가 치는 것은 ‘올라가다, 치다, 높다, 때리다, 덮어씌우다’로 표현하고 있었다.

- ⇒ 뭐 너. {너울성파도다}. 여는 너울성파도가 있다 해도 그 사. 사용도 안 하고.
- ⇒ 아~ 이 참 {멀기} 큰 거 온다 이렇게 부르지 뭐.
- ⇒ {큰파도다}. 어. {적은파도}.
- ⇒ 요게 {너울파도}.
- ⇒ {궁님이가}. 궁님이가. / {구무니}.
- ⇒ 어 파도가 {때린다}. 파도가 {덮어씌운다}.

4) 축강, 물항장, 선착장, 이루꾸찌, 항구목, 항목, 축강목, 뱃자리

배가 들어오는 해안의 어귀를 가리키는 말로는 ‘항구’, ‘축강’이 있었다. 이때 ‘축강’은 ‘축+항’의 결합형으로 ‘항구’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와 유사한 의미로 ‘물항장, 이루꾸찌, 항구목, 항목, 축강목’도 나타났다. 한편 ‘뱃자리’는 배가 내리고 가는 곳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었다.

- ⇒ {축강}. / {축강이} 있잖아.
- ⇒ {항구가} 있잖아. 천부항구. 울릉군 북면 천부항 / {항구} 있잖아. 쪼매는 거 있어.
- ⇒ 그 옛날에는 이 섬 전체가 전체가 다 그 포구마다 동네마다 그~ 즉 말하자면 {뱃자리}. 뱃자리라 카는 말하면은 요즘은 인자 항구를 말하는 택이거든. 그러나 이 항. 뱃자리라 하는 거는 배를 올리는 자리란 말이야.



[사진 20] 천부 축항



[사진 21] 뱃자리

4.1.2. 깊이에 따른 명칭

먼저 바닷물에 대한 표현을 살펴본 후 깊이에 대한 명칭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바닷물, 갯물, 짠물, 맹물

바닷물을 의미하는 말로 ‘갯물’과 ‘짠물’이, 이와는 다른 대조적인 의미로는 ‘맹물’이 쓰이고 있었다. 이러한 말은 짜고 싱거움을 나타내는 ‘짜다, 짭다, 맹물이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중 ‘갯물’은 ‘짠물’을 의미하는데 ‘짠물’을 강조한 표현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 ⇒ {짠물} 뭐 이게 {바닷물이지}. 다 짭은데. 바닷물 그러지 뭐.
- ⇒ 그 인자 보통 우리가 인자 물로 까. {갯물이라} 그러지. 갯물.
- ⇒ 어 {맹물} 섞인 거를. / 어어. 이쪽 우리 묵는 물은 {맹물}.

2) 너린 바다꺄다, 소다, 좁다, 짚우다, 얹우다

바다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데 이 중 얕은 곳은 ‘얹우다’로 표현하고 있었고, 땅에 발이 닿지 않을 만큼 깊은 곳은 ‘짚우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 바다의 공간 중 넓은 곳은 ‘너리다, 너린 바다꺄다, 평평하다’로, 그 반대의 곳은 ‘소다, 좁다’로 나타났다.

- ⇒ {바다꺄다}. 바다. 바다꺄다. 이게 바다꺄다. 바다가 {너리기} 때문에.
- ⇒ 너린 너린 바다꺄다. 반대는 {소~다}.
- ⇒ 수심. 수심이 {깊으다}. 수심이 {얹우다}.

3) 썰물, 들물, 냇물(내물), 만물, 이숫물

일반적으로는 물이 흐르는 방향에 따라 ‘들물, 날물’로 구분되어 나타났다. 이 지역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없음을 말하면서 이를 ‘들물’과 ‘썰물’로 표현하고 있었다.²²⁾ 한편 ‘썰물’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는 북쪽과 동쪽 사이로 흐르는 물을, ‘이숫물’은 동쪽으로 흐르는 물을, ‘만물’은 남쪽과 동쪽 사이에서 흐르는 물을, ‘들물’은 서쪽으로 흐르는 물을 말하고 있었다. 이러한 명칭을 보면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명칭과도 관련이 깊음을 알 수 있다. 즉 ‘새’는 북쪽을 가리키는 말, ‘맞(만)’은 남쪽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러한 표현들을 방위뿐만 아니라 미세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들물, 만물’의 합성관계를 보면 ‘방위’에 ‘물’이 붙어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 중 ‘날물’, ‘들물’은 또한 ‘나다(出)’, ‘들다(入)’의 어간에 ‘물’이, ‘이숫물’은 ‘이스(트)’에 ‘물’이 결합한 합성어임을 알 수 있다.

- ⇒ 들물 {썰물이} 없으니까네 안 하지.
- ⇒ 물은 물은 저기제? {들물} {냇물} 아이가. 예 들물이니.
- ⇒ 아 그거는 저희들이 통상으로는 {썰물} 그란 건 북쪽으로 가는 거를 썰물이라 하고 남쪽으로 가는 물을. 남쪽으로 가는 물을 {만물이라} 하고 그 담에 저 동쪽으로 가는 물을 그걸 동쪽으로 가는 물을 우리들이 부르기는 거의 야 {이숫물 간다} 이렇게 얘기를 마이 했었는데.

4) 물이 뿔다, 마발물 간다, 이숫물 간다, 물이 뿔었다, 물이 간다

바다에서 육지로 물이 들어와 물의 양이 많아지는 것을 ‘물이 뿔다’로, 이와 반대되는 물을 ‘마발물 간다’, ‘이숫물 간다’로 표현하고 있었다. 또 서쪽으로 흘러가는 물을 ‘들물 채다’로 표현하고 있었다. 이러한 물의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물의 양이 많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하는데 이는 ‘물이 뿔었다, 물이 간다’로 나타내고 있었다.

- ⇒ 그 담에 서쪽으로 가는 물을 우리가 저희들이 우리 바다에서 통상으로 선장들하고 선원들이 쓰는 말을 야야 {들물 채었다} 이라거든. 들물이라 그래.
- ⇒ {세발물은} 세발물은 바로 그걸 북쪽으로 가는 거를 세발물. 세발물이라고. 네네. {새물이니} 세

22) 동해안 남부의 경주 지역에서는 ‘날물’ 외에도 ‘만물’이라는 표현도 나타났는데 이 의미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물’을 가리키고 있었다.

발. 세발물이나.

- ⇒ {물 불 혹은 그레 불. 뿌는} 수는 있지. 그것도 잘 없다. 여 올릉도는.
- ⇒ 이스물이라고 하기 전에 그 뭐 야 물이 뭐워 {마발물 간다} 뭐 바깥으로 빠진다 이런 말도 마 이 쓰지만 야 {이스물 많이 간다} 이렇게도 쓰고 이랬어.

4.1.3. 날씨와 시기에 대한 표현

1) 초등바리, 가을바리, 동삼바리, 낮치기, 밤치기, 달치기, 셋별치기, 조모시기, 해치기

잡는 계절에 따라 ‘가을바리, 동삼바리, 사꾸라지기’로, 그 시기에 따라 ‘초등바리, 낮치기, 밤치기, 달치기, 셋별치기, 조모시기, 해치기’로 구분되었다. 오징어는 보통 어느 때에 잡느냐에 따라 낚시를 놓는 물의 깊이가 다른데 낮에는 130m 이하에서, 저녁에는 120~130m에서, 저녁부터 새벽까지는 60~80m에서 잡을 수 있다. 이러한 때에 따라 그 행위에 따른 명칭도 달라졌는데 ‘낮치기, 밤치기, 달치기, 셋별치기, 조모시기, 해치기’로 나타났다. 이 중 ‘조모시기’는 새벽에 뜨는 별을 가리키는 말로, ‘셋별치기’와 동일한 의미이다. 이 외에도 낮에 오징어를 잡는 것은 ‘낮치기’로, 밤에 잡는 것은 ‘밤치기’로 나타났다. 이는 ‘해치기, 달치기’로 그 시기를 표현하기도 했다. 한편 오징어는 6월부터 2월까지, 9월부터 1월까지 잡힌다는 말을 했는데 이러한 계절에 따라 ‘초등바리, 가을바리, 동삼바리’로 나타났다. 이 중 ‘초등바리’는 가장 먼저 나오는 오징어, 즉 ‘초물’을 잡는 행위를 말한다.

한편,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어부들이 먹는 저녁을 ‘물애저녁(물에저녁)’이라고 했다. 이 말은 어부들이 바다에 가기 전에 먹는 이른 식사를 가리키는 말인데, 바다에 가기 전에 먹는 저녁이라면 ‘물에저녁’으로, 이른 저녁을 의미하면 ‘물애저녁’으로 볼 수 있다.

- ⇒ 한치. 그레 한치를 여기서는 조기라 그레. 조기. 그것도 일종의 오징어지. 오징어고 가끔씩 갑오징어 큰~ 거. 그런 거는 가끔씩 잡히고. 잡히고. 뭐 그 외에는 인자 쓰는 용어로는 우리가 겨울에는 {동삼지기}. 동삼이니까 뭐. 초등에나 {초등바리}. 초등바리. 그 담에 가을에 나는 거는 추석 쇠고 나는 거는 {가을바리}. 그렇게 분류. 그레 그렇게 분류하고. 가장 맛이 있을 철에는 이제 지금 잡는 오징어가 가장 맛이 있다.
- ⇒ 예. 낮오징어. 예. 저~ {낮바리라} 안 하고 순 {낮빠리}. {낮치기} 오징어 주로 많이 이래 얘기한다. / 낮에 잡는다고.
- ⇒ 한 바리도 안 잡다가도 날이 다 새가지고 {해치기야}.
- ⇒ 고기 잡는 데도 요런 게 있습니다. 보통 요즘은예. 전부 저거 어탐이 있고 그런 거 안 쓰는데 옛날 어른들은예. 뭐 {셋별치기라}.
- ⇒ {밤치기}는 밤에는 통상 잡는 기기 때문에.
- ⇒ 한치. 그레 한치를 여기서는 조기라 그레. 조기. 그것도 일종의 오징어지. 오징어고 가끔씩 갑오징어 큰~ 거. 그런 거는 가끔씩 잡히고. 잡히고. 뭐 그 외에는 인자 쓰는 용어로는 우리가 겨울에는 {동삼지기}. 동삼이니까 뭐. 초등에나 초등바리. 초등바리. 그 담에 가을에 나는 거는 추석 쇠고 나는 거는 가을바리. 그렇게 분류. 그레 그렇게 분류하고. 가장 맛이 있을 철에는 이제 지금 잡는 오징어가 가장 맛이 있다.

2) 조금, 셋바람 안 부는 날

바다가 파도도 없이 잔잔한 경우 이를 ‘날이 뻥하다, 호수 같다’로 표현하고 있었다. 어부들은 출항을 결정하기 전 천기를 보는데 이때 하늘의 상태뿐만 아니라 바다의 상태도 같이 살펴보고 있었다. 오징어 잡이를 하기 좋은 날을 제보자들은 ‘호수겉다, 조금, 셋바람 안 부는 날’이라고 표현했다. 이는 파도나 놀이 치지 않는 날 또는 바람이 약하게 부는 날을 말한다. 이 중 ‘셋바람 안 부는 날’은 셋바람, 즉 북풍이 불지 않는 날을 의미한다.²³⁾ 어촌 지역에서 가장 조심하는 바람이 ‘셋바람’인데 이러한 말 속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 ⇒ {조금}. / {조금은} 있지. 조금 있잖아. / {조금이란} 말 옛날에 조금 조금 소리 해다 여는 사용하도 안 하고 그거는 잘 안 써.
- ⇒ 이전부터 인제 {조금을 보러 간다}. 그래서 그 전에 안 잡히면 후 삼일. 그 담 삼일을 또 보는 거고.
- ⇒ 여기는 보름을. 아~ 보름이 아니고 여기가 아~ 조금이라 그런데요. 선조금 후조금 그러지. 그래서 {조금 전 삼일, 후 삼일} 고 때는 고기가 있다면 가장 잘 잡힙니다.
- ⇒ 주로 인자 보면은 셋바람은 고기. {셋바람은 고기가 나다가도 셋바람은 고기가 안 잡힙니다}.

장소를 표현하는 말을 거리에 따라, 장소에 따라 나누어 보면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 장소의 분류와 명칭

구분		어휘 항목				
바다	방위	동향	서향	남향	북향	
		동새, 동쪽, 이스쪽, 동, 동바다	서쪽, 웨스쪽, 서바다	남쪽, 사이스쪽, 남바다	새쪽, 북쪽, 노스, 북, 북바다	
		동서향	동남향	동북향	서남향	서북향
		동서간	동남, 동남간	동북간, 동북	서남, 남서간	서북간
	거리	근해바다, 앞바다, 이쪽바다, 가새, 잘에, 연안(축간 안쪽), 이바다				
		먼바다, 저쪽바다, 저바다				
	염도	바닷물, 갯물, 짠물				
		맹물				
	깊이, 넓이	너린 바다겉다, 소다, 좁다, 깊우다, 얕우다				
	파도	파도, 시부끼(시부께), 물보라, 너울성파도, 너울파도, 큰파도, 적은파도, 거품, 허연 거, 너울(놀), ²⁴⁾ 구무니, (파도가) 올라가다, 높다, 친다, 때린다, 덮어씌운다				
	날씨	바닷날이 뻥하다, 날이 뻥하다, 호수 같다 셋별치기, 달치기, 해치기				

23) 바람 명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2012)에서 자세히 정히했음을 밝힌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12년 민족생활어5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를 참고하기 바란다.

구분	어휘 항목
	조금, 셋바람이 안 부는 날 낮(130m 이하), 저녁(120~130m), 저녁~불 키기(60~80m) 6월~2월 / 9월~1월, 초매식(1월 1일) 조무시기(새벽에뜨는별), 셋별, 북두칠성, 셋별치기, 조모순이, 달치기, 해치기

4.2. 육지

4.2.1. 장소에 따른 명칭

1) 어판장, 판장

‘어판장’은 고기를 사고 파는 곳을 가리키는 말이다. 다른 말로 ‘판장’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어시장’은 큰 규모의 범위를 나타내고 ‘어판장’은 작은 규모의 단위를 나타낸다. 울릉도에서는 ‘저동항’이 가장 큰 항이고, 이어 ‘도동항, 천부항’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지역의 지형 특색으로 인해 시장이 없었는데 이를 대신해 어촌의 항구 앞에서 ‘어판장’과 ‘어시장’이 열렸다. 즉 새벽에는 ‘항’으로, 오전부터 오후는 ‘시장’으로 그 날 바다에서 잡은 어류나 해조류를 사고 팔았다. 주로 오전이나 오후에 잠깐 열렸다가 마친다. 이 외에도 위판을 하는 행위도 함께 이루어졌는데 1월 1일 새해 첫 위판을 ‘시매제’, ‘초매식’이라고 했다.

⇒ 음력으로 삼월 삼짇날. 울릉도에 여기 우리 동네에 해신제를 지내요. 해신제를 지내는데 해신제당이 두 군데가 있어. 해신당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그 당제를 지내고 오면은 유일하게 여 어판장 여기에서 일 년 어민들 뭐 풍어와 안전을 위해가지고 그 {어판장} 제를 저희들이 지내요.

2) 덕장

어판장에서 덕장으로 가져온 오징어를 건조하기 위해서는 몇 달의 시간과 여러 과정이 들어간다. 이 중 가장 처음의 과정에 속하는 ‘할복’과 ‘증꼬지에 끼기’는 모두 ‘어판장’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창자를 꺼낸 후 씻은 오징어는 운반 과정을 거쳐 ‘덕장’으로 가는데 이 후의 모든 과정은 여기에서 이루어진다. ‘덕장’이라는 말은 덕이 있는 장소라는 의미이다. 오징어를 건조하고 너는 일련의 과정은 주로 기온이 낮고 바람도 많이 불어 오징어가 상하지 않는 겨울에 주로 이루어진다.

24) 제보자는 ‘너울’은 잔잔한 것이고, ‘파도’는 크게 넘실대는 것을 가르킨다고 했다.



[사진 22] 도동항에 위치한 덕장

⇒ 해야 되제. {덕덕}. 인자. 이거 저 차에 거 리어카에 실어야 되제. {덕장에} 올리야 되제. 패아
널. 패아야 되제. 그 담에 탕기쳐야 되제. 그 담에 귀 디배야 되제. 발 띠야 되제. 귀 추야 되제.

육지 관련 명칭을 항구와 덕장에 따라 나누어 보면 다음의 <표 8>과 같다.

<표 8> 육지 관련 명칭

장소		어휘 항목
육지	항구	어판장, 어시장, 초매식, 시매제
	덕장	덕장 12월 중순에서 3월 초

5. 도구

5.1. 운송 도구

어촌의 대표적인 운송 수단은 ‘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는 어촌 생활의 변화와 같이 변천되어 왔는데 그 결과 다양한 종류와 모양의 배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계배의 등장으로 풍선의 모습을 찾기 어려운데 이러한 점에 초점을 두어 풍선의 명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풍선은 그 부분에 따라 사용되는 나무가 다양했다. 먼저, 이 지역에서 배는 ‘수기나무, 삼나무’로 만들었다. 잘 썩지 않고 튼튼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나무를 이용했다. 이 중 노는 그 형태에 따라 ‘조선노(놀)’과 ‘일본노(놀)’로 구분되는데 ‘일본노’와 ‘조선노’는 그 길이와 모양에서 차이가 있었다.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울릉도의 경우는 배는 어류를 잡는 데 사용하는 중요한 어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배는 고기잡이를 할 때 사용하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섬이라는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해 주민들의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대표적인 운송 수단이자 생계 수단이 ‘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는 어촌 생활의 변화와 같이 변천되어 왔는데 그 결과 다양한 종류와 모양의 배를 볼 수 있다.

- ⇒ 아 이 선배님이 계장님이 하시던 그~ 배는 근해. 근해 채낚기로서. 이 {어선} 규모는 대략 이십구톤 보통 삼십톤 정도 어 이런 그 근해조업을 하시는 배기 때문에 그건 {목선도} 있고 매나 {발동선이죠}. 발동선인데 목선도 있고 또 {에프알피선도} 있고.
- ⇒ 자연적으로 {어선들도} 인자 거 우리가 일본쪽에 참 부럽게 생각했던 저 우리도 저런 {배} 한번 타 볼 수 있을까 했는 에프알피선들. 요즘 우리나라 지금 전부 다 에프알피잖아요.



[사진 23] 오징어배

5.1.1. 배 종류의 명칭

어선은 잡는 어종에 따라 ‘오징어배, 명태배’로, 어떠한 일에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 ‘어

선, 잠수선, 머구리배, 낚시배, 연락선'로, 배의 재질, 즉 소재에 따라 '목선, 기궤배, 철선, 에프알피, 뗏목, 뗏마, 떼배'로, 그 특성에 따라 '냉동선, 발동기, 동력선, 그물배, 모다, 간꼬, 무동력선, 풍선, 통통배, 작은배, 택택이, 기관선, 도풍배'로 나타나기도 했다.

1) 목선, 간꼬, 무동력선, 풍선, 통통배, 오징어배, 작은배

오징어를 잡을 때 처음 사용한 풍선을 이 지역에서는 '간꼬' 또는 '목선'이라고 한다. 상부구조가 없고 돛대가 없거나 혹은 한 개가 설치된 나무로 만들어진 소형 선박을 말한다.

'간꼬'는 처음 오징어 잡이에 사용된 배로 나무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목선'이라고도 하고 '풍'을 달고 있다는 점에서 '풍선'이라고, '돛'을 달고 있다는 점에서 '돛단배'라고도 한다. 이 외에도 돛대가 달린 배로 동력이 아닌 바람을 이용해 움직이는 배라는 점에서 '무동력선'이라고도 하고, 오징어를 잡는데 사용한다는 점에서 '오징어배'라고도 하고, 그 크기가 작다는 의미에서 '작은배'라고도 한다. '간꼬'에는 두 개의 돛대가 있는데 이곳에 다는 풍을 '큰풍, 적은풍'이라고 했다. 이러한 배들은 고기만 잡는 것이 아니라 어획물도 팔고 주민들과 물자를 실어 나르는 배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배들은 그 길이에 따른 명칭 또는 돛대에 따른 명칭은 따로 존재하지 않았고 재료에 따라, 그 특징에 따라 분화되어 나타났다.

- ⇒ {잠수기}. / {잠수기} 하잖아. 여기 일월달부터 한다고.
- ⇒ {낚시배} 가는 낚시 몇 시 돼가 간다. 이래 한 서너 시간 어떤 배 타고 가면 이 배 타고 간다 이라는 기라.
- ⇒ 그때 일본 사람들이 쓰다 가고 남은 배 거기 인제 요즘 발동기 {기관선이라}. 이런 거 몇 척 있는 걸 제외하고는 거의 다 {간꼬지요}.
- ⇒ 그 모다라 하는 기 {뚝뚝선이라}. / 맞어 {모다}.
- ⇒ 자연적으로 {어선들도} 인자 거 우리가 일본쪽에 참 부럽게 생각했던 저 우리도 저런 배 한번 타볼 수 있을까 했는 {에프알피선들}. 요즘 우리나라 지금 전부다 에프알피잖아요.
- ⇒ 그래서 옛날 엔진도 {댕기자까}. {차택이} 뭐 뭐 이런 식으로. 뭐 {택택이} 하던가. 기계 소리가 택택택 난다 해서 그런 건지.
- ⇒ 여기 인자 오징어를 판장에서 전부다 할복하면 이기 다 떼내려와 물 씻으면 배수로 따라 자루에 다 담겨요. 그러면 {통통배가} 꼬집고 저기 한 일 마일 정도 꼬집고 나갑니다. 거서 터뜨려 버려요.
- ⇒ {간꼬가} 아니고 저거다. 도피 저 무슨 / 그래 {간꼬} 아이가.

2) 기궤배, 모다, 냉동선, 발동기, 동력선, 철선, 에프알피, 통통배, 택택이(착택이)

일반적인 동력선을 가리키는 말이다. '돛배'를 '무동력선'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응하는 표현이다. 즉 기계 장치에 의하여 움직이는 배를, 돛배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이다. 이 지역에서 기계, 엔진을 단 배를 '기궤배'라고 한다. 이러한 '기궤배'는 이 외에도 '택택이, 통통배'라고 하기도 하고 '모다', '발동기', '동력선'이라고 하기도 한다. 보통 예전에 사용한 목선에 엔진을 달아 사용하는데 이러한 엔진의 소리가 '택택' 또는 '통통'거린다는 의미에서 '택택이' 또는 '통통배'라고 한다. 또 엔진의 종류에 따라서도 '야끼다마, 택택이'로 부르기도 했는데 이를 배의 명칭

으로 말하기도 했다. 이 엔진은 농촌에서 경운기 엔진으로 많이 사용하는 양수기 엔진을 말한다. 목선과 달리 기계배는 배 안에 증기 기관을 장치하여 놓은 칸이 주로 배 중앙부에 위치하는데 이러한 선창 내부의 기기실 앞쪽에 있는 곳을 ‘기관실’이라 한다.

- ⇒ 배는 인자 그 {목선인데} 주로 그때 인제 큰 거 이래 요즘 나오는 {기렛배} 이거 말고 그때는 목선인데 거기 내 어딘지 몰라도 육지말 뭐라고 뭐라고 부르는 지 몰라도 여 {간꼬라} 부르더라고. 통상 육지 가면 바닷가에 가면 간꼬 간꼬 이런 얘기 나오는지 몰라도.
- ⇒ 그때 일본 사람들이 쓰다 가고 남은 배 거기 인제 요즘 {발동기} {기관선이라}. 이런 거 몇 척 있는 걸 제외하고는 거의 다 간꼬지요.
- ⇒ 지금은 배가 요렇게 다 요거 지금 작은데 저희들이 부린 배들은 이런 거 {작은 배가} 아니고 맹. 저 맹 바다에서 작업 나가면 한달씩 {냉동선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배들 하곤 비교가 안 되죠. {큰 배들을} 했지.
- ⇒ 간꼬는 무동력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무동력선이고} 그래서 지금 아마 {동력선을} 만들게 됐겠죠. 그래서 옛날 엔진도 댕기자까. 차택이 뭐 뭐 이런 식으로.
- ⇒ 그 모다라 하는 기 {뚝뚝선이라}. / 맞아 모다.
- ⇒ 지금은 거의가 예. 에프알피가 주종을 이루고 있지만 옛날에는 철선 아니면 목선이었어. {철선} 아니면 목선이었는데 그 당시에 저동 이 항구에 냉동선이 배 척수가 약 한 큰 배들이 사십 몇 척 됐었어. 그랬었는데 전부 큰 배가 다 없어지고 여 {작은배들만} 생존을 하게 됐는 거예요.
- ⇒ 그래서 옛날 엔진도 댕기자까. 차택이 뭐 뭐 이런 식으로. 뭐 {택택이} 하던가. 기계 소리가 택택택 난다 해서 그런 건지.

3) 잠수선, 뗏목, 뗏마, 떼배

잠수부, 즉 머구리들이 타고 다니는 배를 ‘잠수선’이라고 한다. 이 외에 해녀들이 작업을 위해 타는 배를 ‘뗏마’라고 하였다. 이러한 ‘뗏마’는 잠수부, 즉 머구리 또는 해녀들의 작업을 위해 실어주고 그 작업물을 다시 실어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다른 말로 ‘떼배, 뗏목’이라고도 한다. 흔히 전마선이라고 하는 ‘뗏마’는 8~10개의 오동나무를 통째로 잘라 만든 것으로 상부구조가 없고 돛대가 없거나 한 개가 설치된 소형 선박을 말한다.²⁵⁾

- ⇒ 인제~ {떼배라} 해가지고 옛날에는 아마 그거로 했겠죠. 어~ 떼배로 아마 했을 거 같고.
- ⇒ {뗏마도} 하고. 간꼬도 하고 그렇다.
- ⇒ 아 요거 {뗏목}.
- ⇒ 그래서 잠깐 한 이년 쉬었다가. 쉬었다가 내가 인자 그 담부터 {잠수선을} 타게 됐죠. 선장으로. 센쑤 선장으로 인자. 그래서 십일년 종사를 하다가 아~ 또 그걸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이 다리를 다쳐가지고.

25) 이원석(1990:24)에서는 잘 다듬은 통나무나 모가 진 각목을 5개 내지 8개를 옆구리에 구멍을 파내고 길다란 나무창을 좌우에서 서로 어긋 매겨 가면서 꿰뚫어 박아 연결한 배를 ‘뗏목’ 또는 ‘뗏목배’라고 한다고 했다.

4) 어선, 오징어배, 명태배, 그물배

배는 어망 또는 잡는 어종에 따라 분화되기도 하였는데, 그물을 이용해 주로 작업하는 어선을 ‘그물배’로, 명태를 주로 잡는 배는 ‘명태배’로, 오징어를 주로 잡는 배는 ‘오징어배’라고 한다. 이러한 배들을 모두 포괄해 ‘어선’이라고 칭하고 있었다.

- ⇒ 근데 뭐 이 짓. 짓거리나 이런 걸 하는 걸 잠수선도 {머구리배도} 마찬가지로 그거는 인제 선주하고 정하는 그 부합에 따라서 주는 거고 옛날에는 요즘은 뭐 프로수로 계산을 하니까 쉬운데 옛날에는 그 짓거리란 말이 와 나왔노 하면. 옛날에 막 열직. 열 점 놓자 스무 점 놓자 이래서 거기서 몇 개서 갓, 갓고 가는데 거 계산 방법은 나는 암만 생각해도 거 이해가 안 가. 좀.
- ⇒ 그 {오징어배}. / {오징어배라고} 하지 뭐.
- ⇒ {그물배}.

어선을 나타내는 표현을 잡는 어종, 사용하는 도구, 재료, 특성에 따라 나누어 보면 다음의 <표 9>와 같다.

<표 9> 어선 명칭

구분		종류
어선	잡는 어종에 따라	오징어배, 명태배
	하는 일에 따라	어선, 잠수선, 머구리배, 낚시배, 연락선
	재료에 따라	목선, 기껏배, 철선, 에프알피, 뗏목, 뗏마, 떼배 ²⁶⁾
	특성에 따라	냉동선, 발동기, 동력선, 그물배, 모다, 간꼬, 무동력선, 풍선, 통통배, 작은배, 택택이, 기관선, 도풍배

26) ‘떼배, 뗏마’의 경우는 떼서 사용한다는 점과 나무라는 점을 고려하면 특징과 재료에 따른 분화를 모두를 포괄하고 있지만 ‘뗏목’과의 관련성으로 인해 함께 다루었다.

<울릉도 배의 변천 과정>

1. 오징어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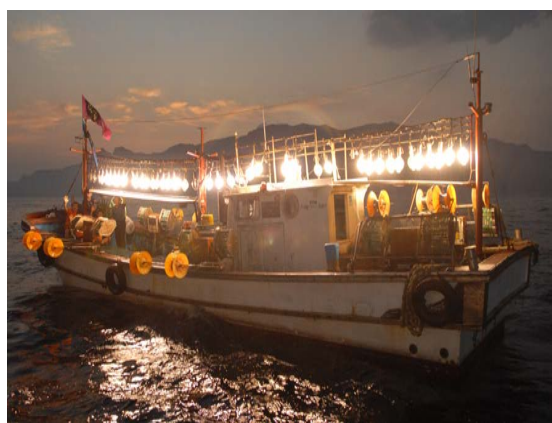
[사진 24] 간꼬(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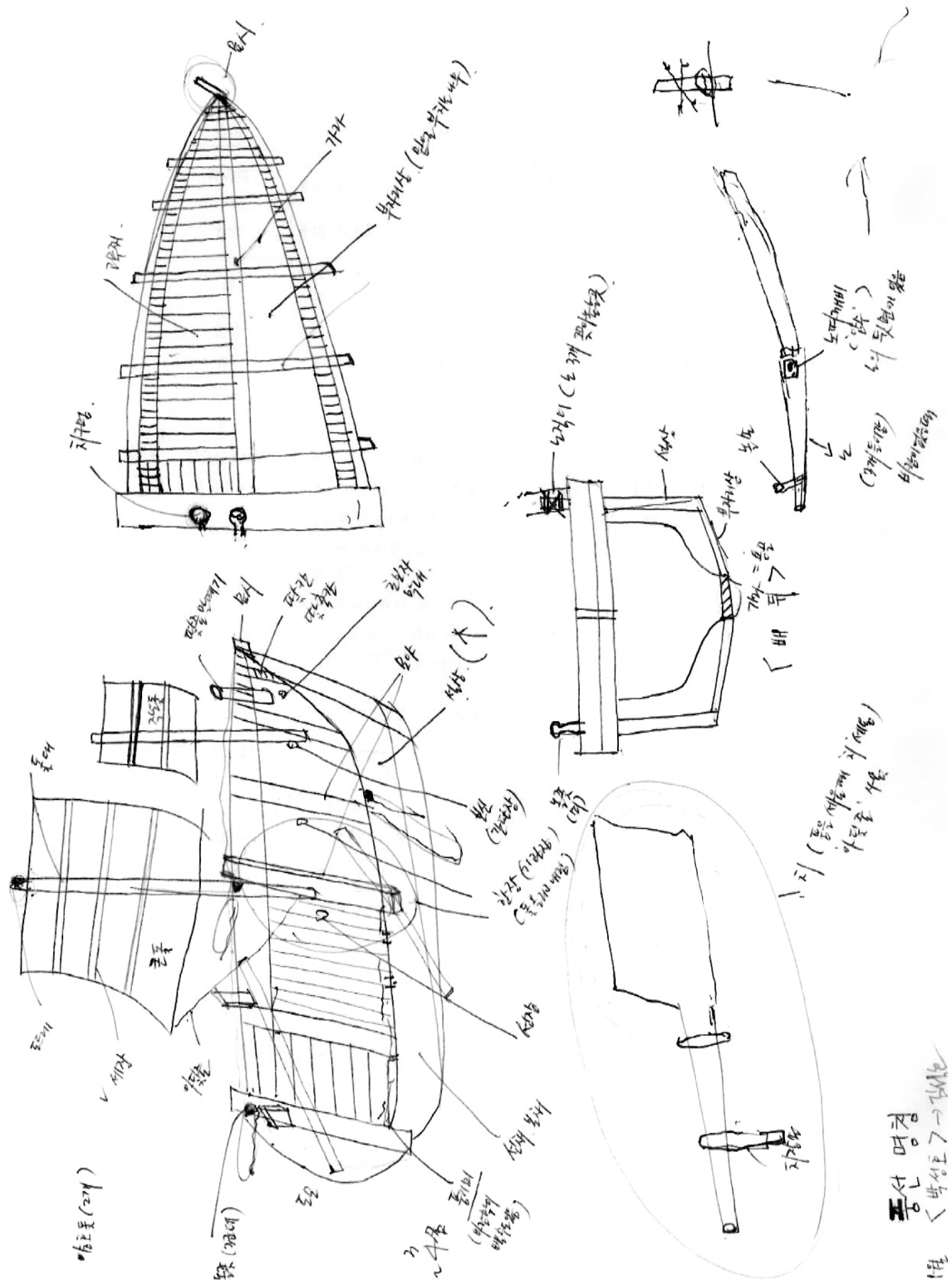
[사진 25] 간꼬(전면)



[사진 26] 동력선(목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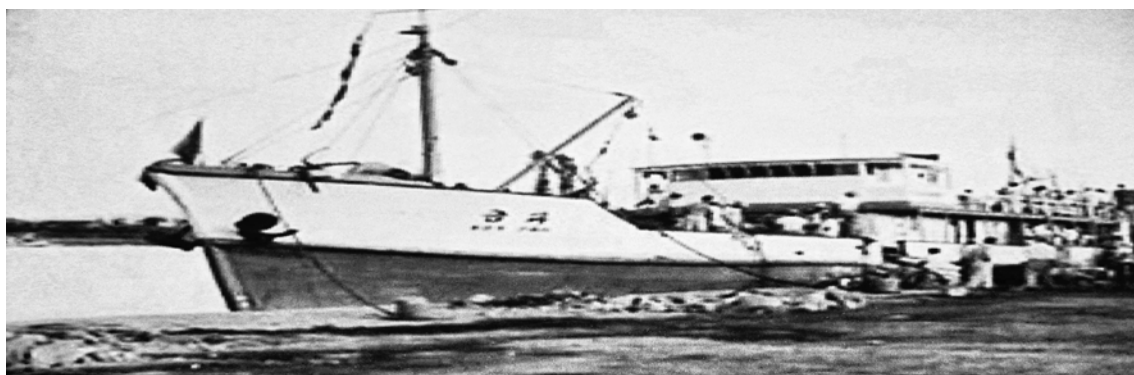


[사진 27] 에프알피



[그림 2] 제보자가 설명해 준 간꼬

2. 연락선²⁷⁾



[사진 28] 금파호(1960년)



[사진 29] 동해호(1963년)

27) 1882년 울릉도 개척령이 반포된 이래로 울릉도 주민에게는 정기적인 해상교통 수단으로 이용된 것으로 이 중 천양호, 영풍호, 대흥호, 금파호는 모두 목선이었다. 인구의 증가로 승객과 화물이 많아지자 정부의 지원을 받아 1963년부터 200톤급 동해호(東海號)가 취항하여 정기적으로 운항하였다. 1977년 5월에 선착장 준공과 더불어 808톤급 한일1호가 취항하였고, 1983년 9월 1일자로 2,035톤급 대야 카훼리호가 취항하였으며 1986년 6월 20일에는 한일 2호가 취항하였다. 지금은 속초·묵호~도동, 울진 후포~도동에 정기 취항하는 카타마란, 오션플라워가 있고 포항에서 출입항하는 2,394톤급(정원 815명) 썬플라워호가 정기적으로 운항하고 있다.



[사진 30] 한일호(1977년)



[사진 31] 카웨리호(1982년)



[사진 32] 선플라워호(1997년)

3. 기타 어선



[사진 33] 떼배



[사진 34] 뗏목1



[사진 35] 뗏목2



[사진 36] 뗏목3



[사진 37] 뗏목4

5.1.2. 배의 부분 명칭

1) 한장, 설상, 땃줄말때기, 묘시, 도모, 도모통, 치구멍, 고무찌, 가라, 용골, 부자리상, 도모까치, 도모, 오모까치, 이물, 모야(모애), 도모통, 줄때, 수레, 풍기미

배의 부분은 그 위치에 따라 가리키는 말이 다르다. 먼저, 배는 간단히 ‘배 뒤, 배 앞, 배 중앙, 배 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배 뒷부분은 ‘선미, 도모, 도모통’로 사용되었고, 배 앞부분은 뱃머리로 ‘꼬대기, 이물, 묘시, 선수’로 사용되었고, 배 가운데 부분은 ‘배 한장’으로, 밑부분은 배의 밑바닥을 가리키는데 ‘배밑, 배빨따리, 배발’이 나타났다. 이러한 명칭은 순우리말로 부르기도 했는데 그래서 ‘묘시’ 대신 ‘배앞, 꼬대기’를, ‘도모’ 대신에 ‘배 뒤’를, 배 바닥은 ‘배밑, 뱃발’로, ‘한장’은 ‘배안’으로 말하기도 했다. 한편 배 위 간판을 가리키는 말에는 ‘한장’이 나타나고 있었다.

또 배는 배 가운데 밑 바닥인 부분으로 배의 한 가운데를 가르는 세로로 된 긴 나무 기둥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라, 용골’로, 배 밑 좌우 가장자리에서 판을 댄 널판을 가리키는 말은 ‘내루, 삼’으로, 밑으로 부치는 나무로 가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부자리상’으로, 세로로 세워진 배의 갈비 부분은 ‘설상’으로 나타났다. 한편 배에 물이 못 올라가게 하기 위해 오목하게 된 부분을 가리키는 것은 ‘보건다이, 보겐다이’로, 도모의 오른쪽 활아지는 ‘오모까치’로, 도모의 왼쪽 활아지는 ‘도로까치’라고 한다.



[사진 38] 한장

- ⇒ 가는 거지. 옛날 오모까치 {도로까치} 그거 아니가.
- ⇒ 배질에 해 갈 때 {오모까치로} 가자. 도모까치로 가자 이래 한다고. 일본 사람 말이지 그래 말한다고.
- ⇒ 저거는 도모. {도모통인데}.
- ⇒ 아니 키는 {도모에서} 노 젓는 사람. 이게 인제.
- ⇒ {한장}. 한장. 요도 또 맨 한 가지고 요쪽에는 {이물에는} 왼쪽에를 잡는 기라. 요거는. 노가 전부 오른쪽에 두 가락 있고 앞쪽에 거는 왼쪽에서 잡는 기지.
- ⇒ 한장 있는 건. 가운데 있는 건 {한장모애}. 이물에 있는 {이물모애}. 도모에 있는 거는 도모통.
- ⇒ {땃줄말때기}.
- ⇒ 예 땃칸. {땃칸이라} {땃쪽칸이라고}. {땃을 인자 올려놓는 칸이라} 이거라.
- ⇒ {땃칸}. 땃칸이라 땃쪽칸이라고. 땃을 인자 올려놓는 칸이라 이거라.

- ⇒ 그래 그런 사람들은 아예 이 자동조상기가 생기면. {배칸} 뱃자리. {뱃자리} 얻지를 못 하는 거라.
- ⇒ 이 가에 요렇게 해서 요렇게 지금 현재 끄는 기 있어요. 요거는 선채 {본채고}. 요서 끄는 게 있어. 요걸 뭐라 하나면 풍기미.

2) 양호돛, 큰돛, 작은돛, 반풍, 큰풍, 작은풍, 용천, 용천줄

목선의 경우 바람을 받기 위해 설치한 돛이 있다. 이러한 돛을 달기 위하여 배 바닥에 세운 기둥을 ‘돛대’로, 돛에 다는 광목천은 ‘풍’이라고 하고 있었다. 이러한 ‘도풍’은 다시 그 크기에 따라 ‘큰돛’과 ‘작은돛’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렇게 두 개의 돛을 다는 것을 ‘양호돛’이라고 했다. 이러한 돛은 크기에 따라 ‘큰돛’과 ‘작은돛’으로 구분되었고 ‘풍’ 역시도 ‘큰풍’과 ‘작은풍’으로 구분되었다. 작은 크기의 풍인 ‘작은풍’은 배 앞에, 큰 크기의 풍인 ‘큰풍’은 배 중앙에 단다. 또 돛대를 세우는 도모의 양쪽에 있는 것으로 돛대를 세우는 받침대 역할을 하는 것을 ‘활아지’라고 하고,²⁸⁾ 용충줄이 달려있는 기둥은 ‘용천대’로, 돛풍은 ‘도풍’이라고 한다. 이 중 배 중심을 잡아주는 큰 나무, 즉 돛대를 끄는 곳을 ‘모야, 모에, 모애’라고 한다.



[사진 39] 큰돛, 큰풍

- ⇒ 그럼 요거는 고정을 해놓고 요 인자 요거로가 하는데 바람이 심하게 불 때는 요까지 안 올라가고 요만침 {반풍만} 다는 데가 있어요. 반만 올라가도 바람이 씨기 때문에 되거든. 그래 반만 올라가고 묶여가지고 요거까 땡겼다 밀었다 하는 때도 있고.
- ⇒ 그래가 요거로가 조절하고. 요 {작은풍} 요거는 그냥 놔두는기라. 적으니까 많은 영향을 안 받거든. 그래 요건 늦었다가 땡겼다가 딱 적당하게. / 고 이물에 인제 이물칸에도 {작은풍}. 아주 삼분지 일. 우리가 와 옛날 영화같은 데 본다던지 하면 풍선이 돛이 몇 개 안 됩니까.
- ⇒ 풍은 두 날 달아요. 풍을 왜 두 날 다냐면 한장에 하는 풍이. {큰풍이} 하나 있고 그 담에 오끼야 카는 이물 쪽에 안 있습니까?
- ⇒ 노 해가지고 {도풍} 달고 없어.

28) 경주 지역에서는 맨 위 뱃전 밖에 덧붙인 반달 모양의 반쪽 통나무 즉, 배 양 옆에 붙인 나무를 ‘하라지’ 또는 ‘활아지’라고 말하고 있었다. 이러한 ‘활아지’는 배의 양쪽으로 붙이는데 그래서 왼쪽에 붙이는 활아지는 ‘왼쪽활아지’ 또는 ‘도로가지’로, 오른쪽에 붙인 활아지는 ‘오른쪽하라지’, ‘오목가지’라고 한다.

3) 돛대, 아돛줄(아돛줄), 도드레, 돛, 심살, 힘살

풍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을 ‘돛대’라고 하고 바람에 따라 배를 조정하는 줄을 ‘아돛줄’ 또는 ‘아돛줄’이라고 한다. 돛대의 맨 윗부분을 ‘용충’이라고 하는데 이 용충에 묶여진 이 줄을 사공이 바람의 방향을 보고 잡아 돛대를 조절하는데 이때 용충 끝에 달린 기계를 ‘도드레’라고 한다. 돛을 세우는 대를 ‘돛대’라고 하고 이를 가로로 댄 나무를 ‘힘살, 심살’이라고 한다.



[사진 40] 돛과 돛줄

- ⇒ 맞는데 그 인자 여. 여기 타는 사람이 이 {돛대를} 요기 꽃고 {돛을} 올리는 사람이요. 즉 말하자면 요즘 말하면 기관장 택이라. 이게.
- ⇒ 아도줄. 아도. {아도줄} 조절하는 거. / 아도. {아도줄}. /우리가 잘 모르는데 요거는 뭐 {아도줄이라고} 이라더라고. 그래 땡겼다 났다. 바람에 씨게 오는데 딱 거머쥐고 있으면 바람을 너무 많이 안 아뿌면은 배가 넘어지잖아.
- ⇒ 두 개를 다 세우면 {양호돛이라} 이래. / {양호돛시라} 그래.
- ⇒ {용충줄} 아도줄 이거.
- ⇒ 여기서 이래 이걸 올릴라면 {도드레} 매로 이래 있거든.

4) 치장술, 창손, 치, 키

바람에 따라 배를 조정하는 나무로 된 키를 ‘치’라고 한다. 배 뒷편에 위치한 것으로 ‘키’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키를 밀고 당기는 창손을 쫓는 구멍은 ‘치장술, 치장손’으로, 키를 잡는 손잡이를 가리키는 것을 ‘창손, 창송’으로 나타냈다.

- ⇒ {치}. 요거는 치. 치고 노는 또 따른 틀립니다. 노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요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서 여서 또 이런. 이런 이기 인자 노거거든요.
- ⇒ {치구멍인데} 인제 요거는 갈라졌지. 약간. 갈라지면 요거는 치를 인자 요러면 요렇게 끼죠. 이 통 우에서로 이렇게 올라와야 여~어 구멍을 파가 딱 이걸 {치장손}. 치장손이라 하죠. 이 키를 이래 딱 붙어 있으면 여 구멍을 뚫어가지고 예? 여다가 이래 나오면은 {키를} 돌리거든. 그러면 이기 이래 돌아가.

5) 놀손, 놀, 놀구멍, 놀쫓, 노직이, 노썰, 노잎, 놀잎, 노우데, 노딱개비, 노따개비

물을 헤쳐 배를 나아가게 하는 기구를 ‘놀’이라고 한다. 나무로 만드는데 물 속에 들어가는 부분은 납작하고 손잡이 부분은 가늘게 만든다. 이러한 ‘노’는 이 지역에서는 ‘노’ 또는 ‘놀’로 말해진다. 주로 목선에서 사용했지만 엔진이 달린 기계배에서도 배에 이상이 있을 때 사용하기도 했다. ‘노’보다 ‘놀’의 형태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노’ 또는 ‘놀’이 결합된 배의 부분 명칭이 많았는데 ‘놀구멍, 놀쫓, 노직이, 노썰, 노잎, 노우데, 노딱개비’가 있었다. 먼저, ‘노썰, 노썰’은 노 즉 ‘놀’을 쫓는 구멍을 가리키는 말로 노를 박아 넣는 구멍을 말한다. 이곳에 노를 쫓은 후 젓어 배를 나아가게 만든다. ‘놀손’은 노를 잡는 부분을 가리키는 말로, ‘노직이’는 노를 젓기 위해 꽂아놓는 구멍으로 배에 세 군데에 위치하는 것을 배 안에 있는 세 개의 노를 꽂아두는 곳을 가리키는 말로, ‘놀쫓’은 노를 고정시키기 위해 배 바닥에 오목하게 나온 부분을 가리키는데 이 부분이 남성의 성기와 닮았다는 데에서 연유한 말이다. 이곳에 노를 고정시킨 후 밀거나 당겨 배를 움직인다. 이 중 ‘노따개비’는 다른 말로 ‘놀딱개비, 노썰’으로, ‘노잎’은 ‘놀잎’으로 말하기도 하였다.

한편 노는 그 모양과 재질에 따라 크게 ‘조선놀’과 ‘일본놀’로 구분된다. 먼저 ‘조선놀’은 ‘우리나라노’라고도 하는데 조선, 한국에서 만든 노를 가리키는 말이다. 일본노에 비해 노의 폭이 좁고 가늘다. 그래서 힘은 적게 들지만 속도가 느린 단점이 있다. 이때 ‘일본놀’은 힘은 많이 들지만 더 빨리 갈 수 있다고 한다.



[사진 41] 노딱개비, 노썰



[사진 42] 노우데



[사진 43] 놀손



[사진 44] 놀쫓, 놀쫓다이

- ⇒ 놀. 노딱개비. 딱. {딱개비}.
- ⇒ {조선놀} 쓰지. / {조선놀이}.
- ⇒ 그건 뭘 말인지 몰라. 그 담 요건 놀손. 조거는 인자 {놀딱개비}. / 요거를 {노딱개비}. 나쁘게 얘기하면 {놀쌌}이라는 게 요기 없어지는 거거든. 이거는 듣고만 참고만 하세요. 그렇더라 카는 거만 아세요. 요게 저게 꼽혀줘야 이게 짓거든. 간꼬에도 맹 똑같습니다.
- ⇒ 어서라라는 이래가 놀이 깊어서 여기 이래 돼가 있으면 노를 이쪽을 아까. {놀손} 카는 게 있죠. 이래가 사정없이 밀어 뿌는 기라. 밀어뿌면 배가.
- ⇒ 좋게 얘기하면 {노딱개비}고 번뇌히 얘기하면 그 저 {놀쌌}. 그 원래 통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 요거를 노딱개비. 나쁘게 얘기하면 {놀쌌}이라는 게 요기 없어지는 거거든. 이거는 듣고만 참고만 하세요. 그렇더라 카는 거만 아세요. 요게 저게 꼽혀줘야 이게 짓거든. 간꼬에도 맹 똑같습니다.
- ⇒ 요거는 인자 노 요게 들어갑니다. 요게. 이게 우리가 침 듣는 사람은 욱 글습니데이. 참고만 하세요. 요게 우리가 통상 뱃사람들 얘기하는 게 요게 {놀쫓이다} 이야기합니다. 놀쫓이고.

6) 간판, 선장집, 본채, 선채, 땃칸, 도모통, 땃죽칸

배 안의 여러 개의 공간으로 구분되어 지는데 이 공간들은 각자 그 기능과 성격을 지닌다. 배 안의 각각의 구역을 ‘땃칸, 선장집, 선채, 본채, 도모통, 땃죽칸’으로 나타냈다. 먼저, 선장이 머무르는 공간은 ‘선장집’으로, 간판장이 머무르는 공간은 ‘간판’으로, 선원들이 자거나 쉬는 공간은 ‘선채, 본채’라고 한다. 이 중 배나 그물을 고정하는 ‘땃’이 위치한 공간을 ‘땃죽칸’ 또는 ‘요끼와’로 나타냈는데, 이를 간단히 ‘땃칸’으로 말하기도 했다.

- ⇒ 아니요. {선장집에} 가보라 카든 동 {기관실} 보여주면 기관실에 가보라 카든 동 그런 소리 안 하겠는교. 여 그 뭐 땃 사람.
- ⇒ 그거 {선채지}. 선채.

7) 이깨스칸

배 안에는 생선을 보관하는 통이 있는데 이 중 산고기를 저장하는 공간을 ‘이깨스칸’이라 말한다. 반면 죽은 고기를 보관하는 곳을 특별히 나타나지 않았다. ‘이깨수칸’은 배 밑바닥에 고기를 저장하는 장소를 말한다. 살아있는 고기를 담은 칸이므로 낚시바리 배에만 이 공간이 있고 시망바리 배에는 없다.

- ⇒ {이깨스칸}. / {수죽관} 수죽관. 고. 이깨스 {이깨스칸} 캐도 된다. / 그래 {이깨스}.

배의 명칭을 배 안의 장소와 부분에 따라 나누어 보면 다음의 <표 10>과 같다.

〈표 10〉 배의 부분 명칭

구분		어휘 항목
배	부분 명칭	선채, 본채, 풍기미, 한장, 땃간, 설상, 땃줄말때기, 묘시, 도모, 도모통, 치구멍, 고무찌, 가라(=용골), 부자리상 도모까치, 오목까치, 땃측칸(=요끼와), 이물, 땃간, 모야(=모애), 줄때(=수레)
	키 명칭	치장술, 치, 키
	노 명칭	놀손, 노파깨비, 노(=놀), 치(=키), 놀쫓, 노직이, 노썸, 노잎, 노우데, 노딱깨비
	풍 명칭	양호돛, 큰돛, 작은돛, 돛대, 아돛줄(아돛줄), 도드레 반풍, 큰풍, 작은풍, 용천, 용천줄

풍선의 세부 명칭을 그 특징에 따라 나누어 보면 다음의 <표 11>과 같다.

〈표 11〉 울릉도 지역의 풍선 부분 명칭

구분	뜻풀이	비고
뱃발, 밑삼	배의 맨 밑바닥	
내루, 삼	배의 겉면을 가리키는 것	
한창, 배 안, 테끼	배 가운데, 즉 중간을 가리키는 것	
가라, 용골	배의 한 가운데를 가르는 세로로 된 긴 나무 기둥	
도모, 후미, 선미	배 끝, 배의 뒷부분을 가리키는 것	
부자리상	밑으로 부치는 나무로 가로로 되어 있는 부분	
설상	세로로 세워진 배의 갈비 부분을 가리키는 것	
묘시, 이물, 선수	배 앞, 배의 앞부분을 가리키는 것	
보갠다이, 보건다이	배에 물이 못 올라가게 하기 위해 오목하게 된 부분을 가리키는 것	
통	배의 바닥과 옆 부분을 둘러가면서 막은 나무를 가리키는 말, 겉면을 덮어 통을 만든다는 것	
아돛줄	활대에 달려있는 줄	
돛, 땃	배나 그물을 고정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	
땃줄, 땃줄	돛을 다는 줄	
땃줄말때기	돛줄을 매는 나무 기둥	
도로까지	왼쪽에 있는 활아지	
오모까지	오른쪽에 있는 활아지	
치, 키	배의 방향을 조정하는 것	
노, 놀 (일본놀, 조선놀)	배를 저어 나아가게 하는 것	

구분	뜻풀이	비고
노직이	노를 짓기 위해 꽂아놓는 구멍	노 3개를 꽂아두는 곳
놀손	노를 잡는 부분	
놀쫓	노를 조정하기 위해 꽂는 오목하게 나온 부분	3군데가 있다고 함
놀십, 놀썩	놀쫓을 맞추도록 노의 중간에 낸 구멍, 노를 박는 구멍임	
창손, 창송	키를 잡는 손잡이를 가리키는 것	
치창손	키를 밀고 당기는 창손을 꽂는 구멍	
도풍, 풍 (작은도풍, 큰도풍)	돛에 광목을 씌운 부분으로 돛 전체를 가리키는 것	
양호돛	2개의 돛을 가리키는 것 ²⁹⁾	
도르레	돛대 끝부분에 있는 것으로 돛을 움직이는 것을 가리키는 것	
심살, 힘살	돛을 세우는 대를 돛대라고 하고 이를 가로로 댄 것	
돛대	돛을 세우는 대를 것	
선채, 본채	배 위 공간 또는 배 전체를 가리키는 것	

5.2. 착용 도구

5.2.1. 옷

1) 도마

다른 지역에서는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기 위해서 옷을 잘 챙겨 입었는데 이 지역에서는 비를 피하거나 난방용으로 입는 옷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옷은 아니지만 ‘도마’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이는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한 착용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즉 지금의 우의, 갑바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 사람의 허리 위까지 초가집을 잇는 갈대로 만든 것을 입거나 또는 ‘간꼬’ 위에 이를 걸쳐놓아 바닷물에 몸이 젖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도마’는 ‘사태기’라는 나무로 주로 만들어졌는데 지금의 싸리빚자루의 재료와 유사하다.³⁰⁾

⇒ 거다가 거다가 옛날에 어른들 쓰는 저 갑바 말고 그 저 {도마}. 그 {사태기} 엮어가지고.

29) 강릉 지역에서는 ‘작은돛’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0) 동일한 시기이지만 강릉 지역에서 주로 입는 ‘숨바지’와 ‘숨우아끼’와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형적인 특색으로 숨을 구하기 힘든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로 말했다. 이 중 ‘숨우아끼’는 덧입는 옷이라는 의미에서 ‘덧저고리’라고, 또 겹에 입는 옷이라는 의미에서 ‘물저고리’라고도 했다. 물

3) 갑바(갑빠)

옷 위에 덧입는 것으로 방수용으로 된 것을 ‘갑빠’라고 하는데 이러한 ‘갑빠’는 ‘갑바’로도 발음되고 있었다. 이러한 ‘갑빠’는 최근에 나온 것으로 지금도 볼 수 있는데 그 이전에는 이를 대신해 ‘도마’를 착용했다고 한다.

- ⇒ {갑바} 입고 또 이래 장갑을 얹. 얹지 싶으다. 갑바 입고 이래가 밥 싸가 저 식사하고 인자 밤에 배가 고프면 밤에 밥 싸가 가라. 그래 갑바 입고 그래 오징어 잡고 그래 참. / 옷은 뭐 주로 인자 {갑빠}. 예. 갑빠. 이~ 이~ 그러니까 광목 천글은 데다가 그 코팅을 입혔는 기지.

5.2.2. 모자

1) 밀짚모자, 털모자

배에서 쓰는 모자를 가리키는 말에는 ‘털모자, 밀짚모자’가 있다. 이들은 모두 방한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가리고 있다. 이 중 빵모자의 형태를 지닌 것으로 속에 털이 있는 모자를 ‘털모자’라고 한다. 예전에는 비가 오면 머리에는 밀짚모자를, 몸에는 도마를 착용했다고 한다.

- ⇒ 삿갓매로 이래가 쓰는 사람도 있고 보릿짚. {밀짚모자글은} 거 안 있습니까. 그런 가와 쓰는 것도 있고 디기 오면예. 도마를 이래 해가 목에다 이래 걸어가지고 이 어깨 걸치는 기라. 우리 간혹 보면 영화글은 데 보면 뭐 옛날 사람들 이래 이게 있죠?
⇒ 모자는 뭐 자기 취향 맞춰가지고 겨울에는 {털모자} 쓰고. 여름에는 뭐 밀짚모자같은 거. 물을 인제 오징어 물을 안 맞기 때문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밀짚모자 마이 썼지.

5.2.3. 신

1) 장화, 설피, 설매

어부들은 추위에 대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또는 비나 눈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화’와 ‘설피’를 신었다. 장화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였지만 배 안에서 신는 신발이라는 점으로 인해 목이 길게 올라오는 유형을 주로 신었다. 장화가 방수용 도구라면 ‘설피’는 미끄럼 방지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설피’는 울릉도에서 겨울에 눈 위를 다니기 위해 만든 대나무 신발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 모습이 둥근 채반 모양을 지니고 있다. 이 지역은 비가 많이 오고 눈이 많이 내리는 지형적인 특징으로 예전부터 ‘애인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는 말이 전해 온다고 한다. 이 외에도 눈 위를 다니기 위해 신는 것으로 스키와 유사한 ‘설매’가 나타나고 있었다.



[사진 45] 설피



[사진 46] 설매

- ⇒ 저 위에 놔둬놓고 인자 뭐 차가 몬 다닐 때는 버스 타고 다니고 때문에 항시 장화를. 오징어 살 때도 {장화를} 신고 가야 되거든. 눈 올 때도 또 장화가 필요하고 하니까.
- ⇒ 대나무로 가지고 {설피를} 만들어. 그래 인자 그걸 신고. 신고 다니고.

5.2.4. 기타류

1) 항구, 밥통, 밥뺨또, 패철

배 안에서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나침반을 ‘패철’로, 또 배 안에서 밥을 먹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도구는 ‘화덕’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도시락을 ‘항구, 밥통, 밥뺨또’라고 했다. 이들은 모두 밥통을 가리키는 말인데 주로 군인들이 사용하던 밥통을 사용했다.

- ⇒ 이렇게 해서 {벤또를} 만들어서 그 담에 학교. 오징어 낚시 영는 {학교} 고기 있고. 그걸 있다가 가지고 땡길 때도 있고 배에 놔둘 때도 있고.
- ⇒ 항구. {밥통}. 항구. 인자. {밥벤또}. 밥벤또이라고. 항구. 그게 오동나무로서 인자 딱 짜가지고 밥통을 만들었는 거를. 밥벤또 이러는데. 그 담에 또 인제 좀 지나가는 {항구가} 나왔어요. 철로 만든 강철로 만든 항구.

2) 학교, 자기통, 오징어통, 오징어낚수통, 어구통

‘학교’는 오징어 낚시를 넣는 통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는 ‘자기통, 오징어통, 오징어낚수통, 어구통’이라고도 하였다. 각 선원이 지니는 자신의 도구통은 ‘자기통’으로 나타났는데 각종 장비를 넣는 통으로 모두 자신의 것을 지닌다고 한다.

- ⇒ 예. 낚시 담는 어구. {어구통이죠}. 학교. {학교라고} 이 오동나무로서 짜가지고 이래 웬만하게 짜가지골랑 한 세 칸 정도 만들어. 그래서 낚시를 거 전부다 오늘 저녁에 오다가 갯심 터졌다던가 이럴 때 다시 그 채비를 보관하는 장소죠.

3) 간수등, 호야불, 석유등, 와사등, 휘발유등, 전기등, 집어등

배 안에서 사용하는 등은 그 시대에 따라 ‘호야불 ⇒ 휘발유등 ⇒ 석유등 ⇒ 전기등’으로 발전하였다. 먼저, ‘호야불’은 예전에 배 안에서 처음 사용하던 남포등을 가리키는 말로, ‘석유등’은 최근까지 배 안에서 석유를 넣어 사용하던 등을 가리키는 말로, ‘간수등’은 예전에 배 안에서 처음 사용하던 초롱불을 가리키는 말로 나타났다. 한편 ‘와사등’은 석탄 가스를 도관에 흐르게 하여 불을 켜는 등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집어등’이 있는데 이는 오징어를 모으기 위해 사용하는 밝은 불을 가리키는 말로 나타났다. 야간에 오징어를 잡을 때에 어류를 모여들게 하려고 배에 켜는 등불이다.



[사진 47] 남포등



[사진 48] 집어등

- ⇒ 때는 간꼬 고 담에 뭐 와사등. 뭐 {휘발유등}. 이렇게 {간수등} 이런 등을 가지고. 인자 초. 요즘 말하면 {초롱불} 한 가지쥬. 이런 걸 써가지고 오징어를 잡았는데. 요~ 요기서 바로 앞에 한. 지금 말하면 한. 변방 이삼십 분씩 요래 나가요. 그 노 젓고 나가기 때문에.
- ⇒ 없었쥬. 간꼬 전기 기계가 원동기를 돌려줘야 다마가 있으니까. 그때는 휘발유등 {석유등} 이런 기 있었고.
- ⇒ 때는 간꼬 고 담에 뭐 {와사등}. 뭐 휘발유등. 이렇게 간수등 이런 등을 가지고. 인자 초. 요즘 말하면 초롱불 한 가지쥬. 이런 걸 써가지고 오징어를 잡았는데. 요~ 요기서 바로 앞에 한. 지금 말하면 한. 변방 이삼십 분씩 요래 나가요. 그 노 젓고 나가기 때문에.
- ⇒ 그래 인제 오징어는 인제 그 저 저 그걸 보고 야광성이라고 그런. 밤에 불 밝혀서 끌어모으니까. 인제 요즘도 이 {집어등에서} 켜요.
- ⇒ 그 중에는 인자 옛날에 지금 혹시 농촌 글은데 가보며 {호야불이라고} 해가 이래 이래 있지요?

5.3. 채집 도구

5.3.1. 낚시

낚시와 같은 말을 이 지역에서는 ‘낙수, 낚수’라고 한다. 이 중 이 지역에서는 ‘낚수’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선채’는 낚시를 낚는 대나무 대를 가리키는 말로 그

사이에 낚을 달고 낚시를 꼽는다. ‘낙수’와 연결된 줄은 ‘원줄’이라고 하고, 이러한 낚시를 담은 통을 ‘학꼬, 오징어통, 오징어낙수통, 어구통’ 또는 ‘자기통’이라고 한다. 이 중 ‘자기통’은 자기의 것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낚시는 그 발전 과정에 따라 부분 명칭이 달라지고, 사용되는 도구도 다른데 다음의 도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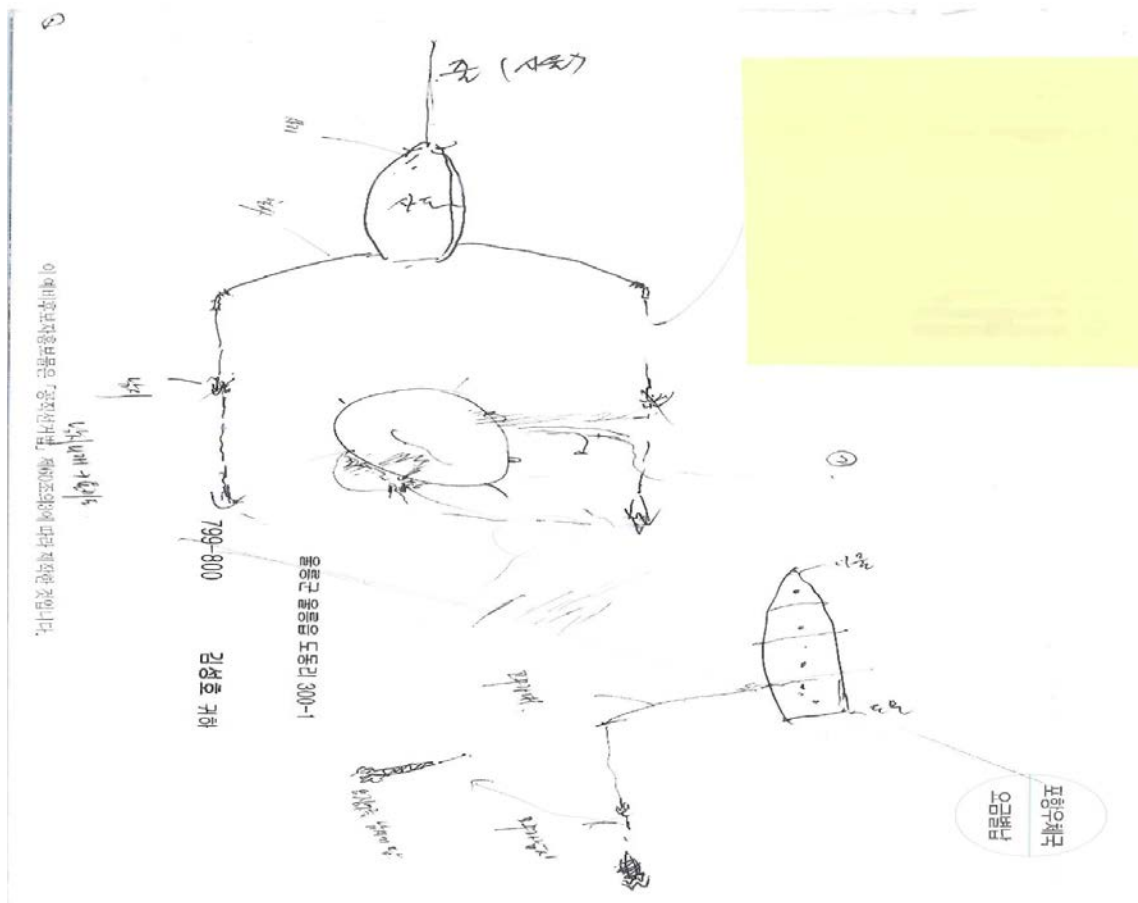
- ⇒ 즉 맞으면은 {낙수를} 이래 줄줄 매가 낙수를 여 쳐가지고 바다 가가지고 해가 빠지면은 낙수를 여가 이래 돌리면은 그 낙수에서 시거리가. 시거리 불. 불이 난다고. 불. 여 낙수를 이래 하면은 낙수 이 거서 불이 난다고. 실컷 불이 나니까 오징어가 미까를 달려들고 달려들고 그래가 잡는 기야.
- ⇒ 지금도 이것을 인제 어떤 경우에 지금은 쓰나면 지금은 낚시꾼들이나 어부들이 한치 낚시에서 사용합니다. {한치낚시} 할 때 이것으로 합니다. 현재는 한치. 올릉도는 조기라 그러죠. 조기. 조기낚시로 사용.
- ⇒ {채낚기는} 원래는 학명상으로 채낚기가 과거에는 일본조라 그랬어요. 일본조.
- ⇒ 예. 그렇죠. 낚시를 가지고 그 당시에 인자 낚시가 인제 저희들이 사용하는 게 지금 자동 조상기도 {로라낚시라고} 그렇게 명칭을 씁니다만은 {로라낚시가} 있었고 그것도 사람이 손으로 돌리는 {로라낚시} 있었고 그 담에 왜 산잔꾸라꾸 또 있어요.

1) 사도

‘사도’는 처음 오징어를 잡을 때 사용한 낚시를 말한다. 사도는 원줄에 두 개의 낚시와 사기단자를 달아 사용하는데, ‘사기단자’는 사도의 끝에 다는 사기로 된 둥근 모양의 찢돌을, ‘원줄’은 낚싯줄을 말한다. 지금은 철 모양의 단자를 이용하지만 예전에는 사기로 된 단자에 벨벳과 같은 천을 씌워 사용했다고 한다. ‘사도’의 사기단자를 씌우는 천을 ‘유단’이라고 했다. ‘사도’는 ‘사도, 전기사도, 마끼도래, 용끼도, 니끼도, 시울, 원줄, 목줄, 경침, 철사, 철사, 사기, 낚시’로 그 부분 명칭이 나타났다. 이 중 ‘용끼도’는 낚시를 4개를 단 것을, ‘니끼도’는 낚시를 2개를 단 것을 말한다.



[사진 49] 사도



[그림 3] 제보자가 그린 사도

- ⇒ 그게 인제 사도라는 것은 {사기단자들} 가지고.
- ⇒ 아니든 나무 전체로 된 게 있는데 요 자체를 인자 요 자체를 낚시가 이렇게 해서 뭐 요렇게 있으마 어? 이게 낚시면. 여기 둘러싼 {유단이라는} 천이 있어. 유단. 아시죠? 유단이라고.
- ⇒ 그러면 조 딱 그물. 낚. 낚시를 시울. 딱 카든 {사도를} 이래 요래 누가 되게 되어 있는데. 사기 {사돈데}. 딱 제끼가지고 요래 낚시를 딱 치고 손목만 약간 틀면 물은 저쪽 바다로 짹 빠집니다. 고라면 탁 요라면 오징어 회전을 해가지고 탁 뱃장이 떨어져요. 그래서 물을 하나도 안 묻히요. 그래 오징어는 인제 도마 위에 칠해놔는데 앞에 저 자기 뭐 잡는 걸 손수로. 그때는 전부다 전 손으로 인자.
- ⇒ {갱심}. 낚시 뭐 도구들. / 요기에다가. 요기에다가 이제 여 갱심 그라는 심을 고 여기서 매는 거예요. {갱심을} 매는 거예요.

2) 고꾸라

‘고꾸라’는 이 지역에서 오징어를 잡는데 사용한 최초의 낚시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 ‘고꾸라’는 그 모양이 굽어져있는데 ‘고꾸라지다’라는 말에 연유한 어휘라고 한다. ‘고꾸라’는 ‘원줄, 낚, 낚시바, 선채, 대나무, 고꾸랏대’로 구성되는데 지금은 오징어 낚시에 사용하지 않지만 한치낚시에는 가끔 사용하기도 한다고 했다. 오징어 낚시 도구는 ‘사도 ⇒ 고꾸라 ⇒ 산자꾸 ⇒ 날라리 ⇒ 조상기’로 발전하였다.

4) 로라

오징어 낚시 중 하나로 물린 오징어를 끌어올릴 때 사용하는 도구를 ‘로라’라고 한다. 낚시에 로라가 달려 있다는 말에서 ‘로라낚시, 로라’라는 말이 나왔다. 오징어를 잡을 때는 특별한 미끼를 사용하지 않고 불을 밝혀 그 불빛을 따라 오징어가 몰려들면 이때 조상기를 움직여 잡는데 이 조상기에 달려있는 로라를 가리키는 말이다. 지금은 과거의 형태에 자동화를 시켜 ‘자동조상기’를 사용한다. 즉 과거에는 일일이 사람의 손으로 로라를 돌려 오징어를 잡았는데 지금은 자동화가 된 것이다.

이 로라와 함께 낚시를 움직이는 것은 ‘물레’인데 물레의 모양에 따라 ‘사각물레’, ‘팔각물레’가 있다. ‘사각물레’보다는 둥근 모양에 가까운 ‘팔각물레’가 더 근래에 나온 것인데 돌리기가 더 쉽다고 한다. 이 ‘로라낚시’ 끝에는 오징어와 비슷한 모양의 ‘낚시아늘’을 단다. 즉, ‘로라’는 줄을 당겨 끌어올릴 때 사용하는, 낚시를 쉽게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 ⇒ 예. 인제 {로라는} 첨에는 그 어~ 이 이렇게 사각으로 돼서. 사각으로 돼서 여기다 구멍이 요렇게 뚫어져 있는데. 이거를 여기에다 인자 또 인자 손잡이가 있고. 낚시는 이렇게 감기는 거죠?
- ⇒ 예. 그렇죠. 낚시를 가지고 그 당시에 인자 낚시가 인제 저희들이 사용하는 게 지금 자동 조상기도 {로라낚시라고} 그렇게 명칭을 씁니다만은 {로라낚시가} 있었고 그것도 사람이 손으로 돌리는 {로라낚시} 있었고 그 답에 왜 산자꾸라꾸 또 있어요.
- ⇒ 인제 또 이거 연구를 한 게 각을 많이 주면서 쉽게 돌릴 수 있다. 이래서 인제 팔각. 팔각으로 나왔죠. 그 그 답 팔각. {팔각물레}. 팔각은 팔각물레.

5) 산자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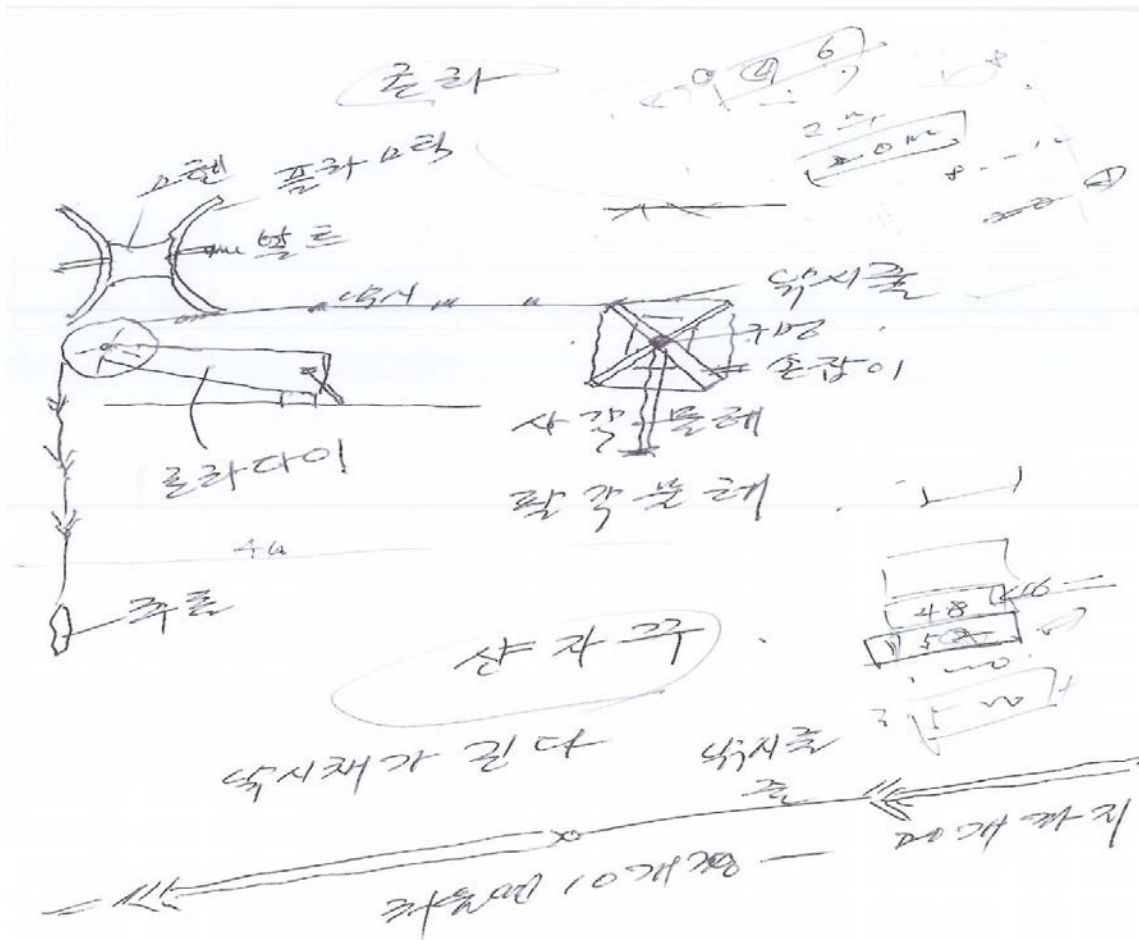
‘산자꾸’는 사도 다음에 더 발전된 형태로 나온 오징어 잡이 낚시로, 기존의 도구보다 바늘이 더 많이 달려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산자꾸, 산자꼬’로 불리는데 ‘낚시채, 낚시줄, 줄’로 구성된다.



[사진 50] 로라



[사진 51] 낚시



[그림 5] 제보자가 그린 로라와 산자꾸

- ⇒ 그래서 인제 산작꾸, 로라 이렇게 오다가. 또 인자 이렇게 와서 그 답에는 또~ 내가 경험한 데, 거는 뭐 날라리 이런 거는 빼버리고. {날라리라는} 거는 이 원리가 다 똑같은데 이 산작꾸라는 낱시를 여기에다 메워서 쓰는 걸 {날라리라} 그래. 날라리.
- ⇒ 예. 그렇죠. 낱시를 가지고 그 당시에 인자 낱시가 인제 저희들이 사용하는 게 지금 자동 조상기도 로라낱시라고 그렇게 명칭을 씁니다만은 로라낱시가 있었고 그것도 사람이 손으로 돌리는 로라낱시 있었고 그 답에 왜 {산작꾸라꾸} 또 있어요.

6) 날나리

‘날라리’는 낚시채가 긴 산자꾸를 낚시에 매어 사용하는 도구의 일종으로, 그 움직이는 형상이나 그 화려한 색채가 ‘날라리’와 같다는 의미이다.

- ⇒ 그래서 이제 산작꾸, 로라 이렇게 오다가. 또 인자 이렇게 와서 그 답에는 또~ 내가 경험한 데. 거는 뭐 날라리 이런 거는 빼버리고. {날라리라는} 거는 이 원리가 다 똑같은데 이 산작꾸라는 낱시를 여기에다 매워서 쓰는 걸 {날라리라} 그래. 날라리.

7) 조상기

‘조상기’는 ‘자동조상기’를 말하는 것으로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도구이다. 오징어를 낚아 감아 올릴 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만든 기계를 가리킨다. 이를 ‘채낚기’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는 기계의 자동화를 말하는 명칭이라기보다는 ‘낚아서 채다’는 방법에서 나온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의 형태인 ‘조상기’에 자동화를 시켜 ‘자동조상기’를 만든 것인데 일일이 사람의 손으로 로라를 돌려 오징어를 잡았던 것을 자동화시킨 것이다.

- ⇒ 감을 때는 날라리라 그런다. 쉽게 말하자면 이게 낚시가 조금 달라도 모양은 달라도 날라리 부분. 그 답에 생긴 게 자동. {자동조상기}.
- ⇒ {채낚기}는 원래는 학명상으로 채낚기가 과거에는 일본조라 그랬어요. 일본조.

어부가 사용하는 도구를 착용 도구, 채낚 도구, 기타 도구에 따라 나누어 보면 다음의 <표 12>와 같다.

<표 12> 어로 도구의 종류와 명칭

구분		어휘 항목	
의복 및 기타		갑빠, 설피, 설매, 털모자, 밀짚모자, 항구(=밥통, 밥뎨또)	
어로 도구	보조도구	간고, 도마(=새때기, 역새풀), 와사등, 휘발유등(=석유등), 호야불, 풍기미, 간수등, 학꼬(=자기통, 오징어통, 오징어낚수통, 어구통), 경심, 패철	
	채낚도구	꼬꾸라, 고꾸라 (꼬꾸라치기)	원줄, 낚, 낚시바, 선채, 대나무 (* 현재는 한치 낚시에 사용)
		사도 (사도치기)	사도, 전기사도, 마끼도래, 용끼도(4개), 니끼도(2개), 시울, 원줄, 목줄, 경침, 철사, 사기, 낚시
		돔보	사기, 낚, 원줄, 유단천, 낚시바늘
		로라	로라다이, 쏫돌, 낚시줄, 손잡이, 사각물레, 팔각물레, 낚시
		산자꾸, 산자꼬	낚시채, 낚시줄, 줄
		조상기	-
		기타	조상기, 탕기대, 로라낚시, 이늘, 미늘, 편지마리, 이짚대, 일본조(=채낚기, 니뿐조), 거일제낚시(=오징어낚시)
	발전 과정	고꾸라 ➡ 사도 ➡ 돔보 ➡ 로라 ➡ 산자꾸 ➡ 날나리 ➡ (자동)조상기	

5.4. 덕걸이 도구

5.4.1. 덕

1) 덕, 덕장, 오징어덕장

오징어를 너는 장소를 ‘덕장’ 또는 ‘오징어덕장’이라고 한다. 이 덕은 세로로 세워진 나무 기둥과 가로로 세워진 나무 기둥이 중심을 이루는데 세로로 세워진 기둥은 힘을 받는 기능을 하고 가로로 세워진 기둥은 오징어를 너는 기능을 한다. 이 중 힘을 받는 기능을 하는 것을 ‘덕대, 기둥’이라고 하고 오징어를 너는 기능을 하는 것을 ‘덕’이라고 한다.³¹⁾ 과거에는 나무 덕을 세웠지만 요즘은 보관이 편리하고 가벼운 철로 된 덕을 세운 후 이 위에 ‘증꼬지’를 놓아 사용하고 있었다.³²⁾ 오징어는 겨울철에 바깥 바람이 통하는 곳에서 말리고 있었다.



[사진 52] 덕

- ⇒ 그 탱기 치고 뭐 {덕장} 올리가 할복해가 꼬창가리 끼가 {덕대에서} 또 낱낱이 아래 피아가 또 아까 거 발 탱기. 탱기 치고 또 어느 정도 기다렸다는 또 물이 빠지고 마리면은 귀 디배고 발 띠고 발 하나하나 이래 붙었는 거 다 띠야 돼. 하. 하나. 열 개. 오징어 다리 열 개거든.
- ⇒ 예. {오징어덕장에}.
- ⇒ 해야 되제. {덕덕} 인자. 이거 저 차에 거 리어카에 실어야 되제. {덕장에} 올리야 되제. 패아 널. 패아야 되제. 그 담에 탱기쳐야 되제. 그 담에 귀 디배야 되제. 발 띠야 되제. 귀 추야 되제.
- ⇒ 어 {덕대}.

31) 2011년의 조사한 황태 덕장과 달리 이곳에서는 덕의 위치의 따라 ‘상덕, 하덕’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32) 2011년에 조사한 명태의 경우는 ‘상덕, 중덕, 하덕’의 덕이 있었다. 덕대에 있는 가장 위쪽 위치에 있는 덕은 ‘상덕’이라고 하고, ‘덕대에 있는 중간 위치에 있는 덕은 ‘중덕’, 가장 아랫 부분에 있는 덕은 ‘하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덕은 삼단으로 많이 만들었는데 오징어는 일단의 덕으로만 이루어졌다.

2) 오징엇대, 이깃대, 꼬쟁, 꼬창, 꼬창가리, 탱깃대, 탱기

오징어를 끼우는 대나무로 된 얇고 가는 나무를 ‘오징엇대’라고 한다. ‘오징엇대’는 그 명칭의 쓰임에 따라 ‘꼬쟁, 꼬창, 꼬창가리’라고도 하고, ‘탱깃대, 탱기’라고도 하는데 이들 중 ‘이깃대’를 가장 폭넓게 사용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보통 20마리를 꿰는 하나의 꼬지가 두 개 합쳐진 것을 ‘증꼬지’로, 오징어를 끼우는 굵고 큰 꼬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덕대에 널기 전에 끼우는 나뭇대는 ‘큰꼬지’로 나타났다. 오징어의 발통에 끼우는 ‘오징엇대, 이깃대’를 잘 끼워야 이 대로 인해 발 부분이 오그라들지 않고 몸이 바로 설 수 있다고 한다.



[사진 53] 이깃대



[사진 54] 탱깃대

- ⇒ 탱기 치고 덕대 올리가 할복해가 {꼬창가리} 끼아가 덕대에서 날날이 피아가 또 아까 발 {탱기} 치고 또 어느 정도 기다렸다가 물이 빠지고 마르면 발 띠고 발 다 띠어야 돼. 발 열 개 뒀는 거.
- ⇒ {오징어대}, 꼬쟁, 꼬창, {꼬창}.
- ⇒ 줄이 아이고 {이깃대}, 꼬재이, 꼬재이, {꼬재이} 딱 끼가. / {이깃대라} 그 저 대나무다. 이깃대가. / 우리가 요즘 오징어를 건조과정에 있어서도 백이면 백 사람 열이면 열 사람 다 꼬지 가오란 소리는 안 한다고. 그러면 오징어꼬지라야 맞겠지만은 통상 지금도 어판장 같은 데 가면 ‘야 {이깃대} 가지고 오라’ 그래. 이깃대. 이까를 끼는 대나무를 가지고 오라. 그래 이깃대 가지고 오너라. 오너라.
- ⇒ 바지게, 바소구리. 바소구리를 지게에 얹히는 걸 바지게. 거다가 이까를 그때는 인자 증꼬지라 이랬죠. {증꼬지라} 카는 거는 두 꼬지씩입니다.
- ⇒ 그래서 인자 아줌마들은 인자 이 다라이. 다라이에다가 에~ 이고 가고. 담아서 이고 가고. 증꼬지를 인제 두 꼬지 담은 걸 증꼬지라 그래. 작은꼬지에다 이까 담아가 집에 가서 인자 {큰꼬지} 하는 거죠. 분리 작업.
- ⇒ {탱기}, {탱깃대거든}. 요게. 요걸 요렇게 칩니다. 요렇게. 요렇게 치는 이유는 왜 그러냐.

3) 불통, 불건조장, 건조장

오징어를 건조하는 곳을 가리키는 말로 ‘불통, 불건조장, 건조장’이 나타났다. 일반적인

로는 해풍을 맞으며 건조시키지만 비가 오거나 날씨가 좋지 못하면 이곳에서 건조를 시키고 있었다. 그래서 집마다 건조장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이 중 ‘불통’은 오징어를 불로 건조하는 곳을 가리키는 말이다.

- ⇒ 그래가 인자 요새는 인자 기상에 따라가 오늘이나 내일 비가 온다. 비가 올 거 같다. 이라든 저녁에 함부래 안자 조금 전에 나가가 내가 {건조장에} 열자 안 그럼디까. 저녁 날씨가 시원찮으니까 하마 돌리뿌른 잇어뿌는 기라.
- ⇒ 불. 불. 불. {불통}. 온도를 올려줘가. 바람.

3) 바지계, 리아카

오징어를 덕장으로 운반하는 도구 또는 싣고 옮기는 데 필요한 운반 도구로 ‘바지계’와 ‘리아카’가 나타나고 있었다. 요즘은 차로 운반하고 있었지만 과거에는 지계에 싣어 옮겼다고 한다. 이러한 ‘바지계’에서 손수레인 ‘리아카’로 변천하였다.

- ⇒ 고 담에 할복 다음엔 뭐 꼬챙이 이깃대에 끼어가지고 세척을 해서 고 담에 인자 옛날걸으면 인자 이 요즘에는 차로가 운반하지만 전에는 지계. {바지계라고} 있어. 바지계.

덕걸이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도구를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표 13>과 같다.

〈표 13〉 덕 관련 명칭		
구분		어휘 항목
덕장	덕 명칭	덕, 덕대
	덕장 도구	오징엇대, 이깃대, 꼬쟁, 꼬창, 꼬창가리, 탱깃대, 탱기
	건조 도구	불통, 불건조장, 건조장
	운반 도구	물지계, 리아카

어업 관련 도구 명칭을 모두 정리하여 나타내면 다음의 <표 14>와 같다.

〈표 14〉 어업 관련 도구 명칭		
구분		어휘 항목
배	잡는 어종에 따라	오징어배, 콩치배, 명태배
	사용하는 도구에 따라	그물배, 낚싯배
	재료에 따라	목선, 간꼬, 떼배, 뗏목, 뗏마 / 기젯배, 철선
	특성에 따라	풍선, 머구릿배, 잠수선, 텍택이, 발동기, 동력선, 무동력선, 작은배
	부분 명칭	배밑(배빨파리, 배발), 도다리, 바람풍, 꼬대기(이물, 묘시), 선수,

구분		어휘 항목		
		선미(도모, 원도모, 오른도모), 한 장, 땃, 물풍, 돛풍, 풍기미, 모야, 설상, 땃줄말때기, 묘시, 도모, 치구멍, 고무찌, 가라, 용골, 부자리상, 치장술, 치, 오른도모꼬티, 원도모꼬티, 큰풍, 적은풍, 아도줄, 땃줄		
	장소 명칭	선장집, 땃칸, 선채, 본채, 이깨수칸		
	노 명칭	놀손, 노파깨비, 놀딱개비, 노쌌, 노잎, 놀잎, 노우데, 놀쫓, 노직이		
낙시	착용 도구		도마(새때기, 억새풀), 갑빠	
	채 집 도구	낙수바리	꼬꾸라, 고꾸라 (꼬꾸라치기)	원줄, 납, 낙시바, 선채, 대나무 (* 현재는 한치 낙시로 사용)
			사도 (사도치기)	사도, 전기사도, 마끼도래, 용끼도(4개), 니끼도(2개), 시울, 원줄, 목줄, 경침, 철사, 사기, 낙시
			돔보	사기, 납, 원줄, 유단천, 낙시바늘
			로라	로라다이, 쫓돌, 낙시줄, 손잡이, 사각물레, 팔각물레, 낙시
			산자꾸, 산자꼬	낙시채, 낙시줄, 줄
			조상기	-
			기타	조상기, 탕기대, 로라낙시, 이늘, 미늘, 편지마리, 이깃대, 일본조(=채낙기, 니쁜조), 거일제낙시(=오징어낙시)
			사도 ➡ 고꾸라 ➡ 돔보 ➡ 로라 ➡ 산자꾸 ➡ 날나리 ➡ (자동)조상기	
	기타 도구		패철,설피, 털모자, 밀짚모자, 항구(밥통, 밥뺨또), 설피, 털모자, 밀짚모자, 항구(밥통, 밥뺨또), 간고, , 와사등, 휘발유등(=석유등), 호야불, 풍기미, 간수등, 학꼬(=자기통, 오징어통, 오징어낙수통, 어구통), 경심	
덕	부분 명칭	덕, 덕대		
	고정 도구	오징엇대, 이깃대, 꼬쟁, 꼬창, 꼬창가리, 탕깃대, 탕기		
	착용 도구	긴장화		
	운반 도구	바지계, 리아카		
	보관 도구	불건조장, 건조장		
	행위	땡기 치러 간다, 땡기 친다, 오늘 작업 되겠다, 통배 탔다/만선 했다, 깃 뽑았다		

6. 오징어의 명칭

어촌에서 잡히는 어획물은 어종 또는 크기, 상태, 특징, 잡는 방법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구분에 따라 오징어를 ‘크기에 따른 명칭, 상태에 따른 명칭, 암수에 따른 명칭, 잡힌 시기에 따른 명칭, 기타 명칭’으로 구분하였다. 그래서 ‘오징어’라 함은 이들을 통칭하는 상위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오징어는 ‘이까, 수루매, 오징어, 피둥어꼴뚜기’로 나타나고 있었다.



[사진 55] 이까

- ⇒ {수루매는} 일본말이고 {수매고}. 수. 수 수매고.
- ⇒ 예. 같은 종류라도 생긴 거 다 같드라다. {조기하고} 오징어. / 조기가 육지서 {한치라} 한다.
- ⇒ 큰 거는 큰 거라. 적은 거는 적은 거라. 잔. 잔 기라 그라고 굵은 {굵은 기라} 그라고. 잔오징어 {굵은오징어}.
- ⇒ {갑오징어는} 고기 자체가 틀리잖아. 종류가 틀리잖아. / 종자가 종류가.
- ⇒ 그래 {꼭띠기} 맞다. / {뿔띠기}. 뿔띠기. / {꼴뚜기} 아이가. 꼴뚜기.

6.1. 울릉도에서 사용되는 오징어의 명칭

오징어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까’로 주로 말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오징어’와 ‘수루매, 수매, 피둥어꼴뚜기’라는 말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이까’는 주로 생오징어를, ‘수루매’는 말린 오징어로 구분해 말하기도 했었다. 어촌에서는 오징어의 그 잡는 시기에 따라 ‘낮오징어, 겨울오징어’로 나누어지기도 하고, 어획 도구에 따라 ‘선망오징어’로 나누어지기도 했다. 또 상태에 따라 ‘아사히찌, 요이찌’로, 또 오징어의 크기에 따라 ‘초등오징어, 한직기, 앵치’로 나누어지기도 한다. 이처럼 오징어는 다양한 명칭으로 분화되어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 중 크기에 따른 명칭인 ‘대자, 중자, 소자’는 오징어 외에 다른 어류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1.1. 크기에 따른 명칭

1) 앵치, 초등오징어, 초물, 굽은오징어, 한직기, 한물, 도직기

사월 또는 오월에 가장 먼저 나는 오징어를 가리키는 것으로 ‘앵치, 초물, 초등’이라고도 한다. 이들은 ‘초-’를 통해 처음이라는 의미를, ‘앵-’을 통해서 크기가 적음을 나타낸다. 또 이때의 시기가 한창 벚꽃이 필 무렵이라는 점으로 인해 ‘사꾸라지기’라고 하기도 한다. 오징어가 한창 많이 나는 철에 잡히는 오징어를 가리키는 말로 ‘한직기’ 또는 ‘한물’로 나타내기도 했고, 가을에 나는 몸에 살이 많은 오징어를 ‘굽은오징어’로, 섬 주변에서 잡히는 오징어를 ‘도직기’라고 했다. 이 중 ‘도직기’는 겨울에 잡히는 오징어를 가리키는 말로도 나타났다. 그래서 계절에 따른 명칭으로 ‘도직기’ 대신 ‘겨울오징어’라고도 했다. 이외에도 크기로 구분하기도 했는데 ‘큰기, 적은기, 대, 중, 소’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명칭은 오징어에만 한정되어 쓰이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어류에 두루 많이 쓰이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 ⇒ 겨울에. 인제 섬 안에. 섬도자. 예를 들어서요. 도직기. 섬 안에 바짝 붙었는 걸 도직기라. 보통. {한직기라} 키는 거는 오징어 인제 한참 마이 날 때 한직기.
- ⇒ 굽은오징어 뭐 그냥 그때는 통상 날 때니까 뭐 그 보통 보면 이러거든. 많이 날 때 보면 {한직기다} 이래. {한물이다} 이러거든. 시월달에 오징어 뭐 울릉도는 한직기가 시월달 아이가 이래 샀는데 한직기.
- ⇒ 예. 침 나는 걸 {초등} 아입니까. 처음이 {초물} 뭐 초등. 침 나는 거 이기 여름에 나다가 울릉 오징어는 적어도 시월쯤. 시월 초부터. 가가 그것도 인자 십일월 초까지. 시월 말까지. 인자 구월 시월 말쯤 되면 시월 십일월쯤 중쯤 되겠다.
- ⇒ {도직기라} 하면 마 그냥 {겨울오징어로} 그립니다.
- ⇒ 그래서 다시 나면 늘 그래도 적게 나다가 인제 시월한 시월달쯤 돼가 나면 {굽은오징어} 나는 거라. 굽은오징어 나면 거기 인자 십일월 중순 안 가고 거기 떨어져버려요.
- ⇒ 아주 저 작은 거 요런 거는 아 저 {앵치} 올라왔다 이래. 앵치.

6.1.2. 상태에 따른 명칭

오징어는 흔히 그 상태에 따라 ‘아사히찌, 요이찌, 먹통’으로 명칭이 달리 나타난다. 이 지역에서는 일반적인 명칭 외에도 ‘살오징어, 먹통, 피둥어골뚜기, 대포알, 갑오징어’가 나타나고 있었다.

1) 아사히찌(붉은오징어), 요이찌(흰오징어)

아침에 잡은 오징어를 가리키는 말로,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놀란 상태 그대로 즉 붉은 색을 띠는 오징어를 ‘아사히찌’라고 한다. 한편, 저녁에 잡은 오징어를 가리키는 말로, 주로 흰 색을 띠는 오징어를 ‘요이찌’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요이찌’는 ‘아사이찌’의 절반 가격으로 매입된다고 한다. 그래서 어부들은 오징어를 잡는 시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는 오징어 색깔도 판매에서 중요함을 말하는 것이다.

- ⇒ 못 잡고 있다가 {아사이찌} 좀 쪼매 잡아가 올라고. 해가 중천에 났는데 올라고 양카 빠니까네 모아가 빨라니까네 모아가 들어 붙었는데 짜아가 담을 시간도 없이 정신없거든요.
- ⇒ 오늘 늦가온 저 배가 이야기 하는데. {요이찌} 못 잡고 있다가 아사이찌 좀 쪼매 잡아가 올라고. 해가 중천에 났는데 올라고 양카 빠니까네 모아가 빨라니까네 모아가 들어 붙었는데 짜아가 담을 시간도 없이 정신없거든요.

2) 살오징어, 먹통, 피둥어골뚜기, 대포, 대포알, 갑오징어

오징어는 색깔 외에도 그 상태에 따라 ‘살오징어, 먹통, 피둥어골뚜기, 대포, 대포알, 갑오징어’로 나타나기도 했다. 살이 연하고 많아 먹을 부분이 많은 오징어는 ‘살오징어’로, 살이 두껍고 먹물을 지닌 오징어는 ‘먹통’으로, 대포알과 비슷하게 생긴 오징어는 ‘대포알’ 또는 ‘대포’로 나타났다. 이 중 ‘먹통’은 먹물이 많다는 의미에서 나온 말이다. ‘갑오징어’는 크고 굵고 살이 단단한 오징어를 가리키는 말인데 안에 든 뼈를 ‘오독뼈’라고 하며 이를 굵어서 베힌 부분에 약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한편, ‘피둥어골뚜기’는 오징어를 달리 나타낸 말인데 골뚜기가 피둥피둥하게 살 찢 모습에서 나온 말이다. 이 중 ‘살오징어’는 울릉도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오징어이다.

- ⇒ 한치. 한치. 대. 대포. {대포알} 카는 거도 있고. 대포알 카는 기 그기 또 인자 조기라 그러는데. {대포알} 카는 거 이거는 별거이~ 이만해요. 똑 대포알같이 생겼어. 그것도 인자 귀가 크고 고기가 굉장히 커요. 이것도 이만큼한 게. 그것도 인자 한치 비스듬하게 붉은색으로 마이 띠면서. 굵. 굵쥬?
- ⇒ 오징어는 울릉도에서 잡히는 거 인제 거의 {살오징어}. 연하고 뭐 그럴것쥬. 그 오징어 중에서는 살오징어 쥬로 쳐주쥬. 울릉도에 나는 건 거의 살오징어.
- ⇒ 울릉도에서 잡히는 거 살오징어인데. 그 담에 {먹통} 카는 기. 그것도 맹 오징어과니까. 먹통은 좀 살이 두껍고. 먹~ 먹을 그물을 마이 검쥬. 그래서 먹통.
- ⇒ {한치}. 그래 한치를 여기서는 {조기라} 그래. 조기. 그것도 일종의 오징어지. 오징어고 가끔씩 {갑오징어} 큰~ 거. 그런 거는 가끔씩 잡히고. 잡히고. 뭐 그 외에는 인자 쓰는 용어로는 우리가 겨울에는 동삼지기. 동삼이니까 뭐. 초등에나 초등바리. 초등바리. 그 담에 가을에 나는 거는 추석 쇠고 나는 거는 가을바리. 그렇게 분류. 그래 그렇게 분류하고. 가장 맛이 있을 철에는 이제 지금 잡는 오징어가 가장 맛이 있다.
- ⇒ 오징어는 이거는, 우리가 오징어를 이기 인자 이 원래는 이걸 {피둥어골뚜기라}. 피둥어골뚜기라 그러지 싶은데.

6.1.3. 시기에 따른 명칭

1) 낮오징어, 낮이까, 노직기(도직기), 한직기

낮에 잡히는 오징어를 가리키는 것으로 ‘낮오징어’가 나타났다. 이러한 ‘낮오징어’는 다른 말로 ‘낮이까’라고도 하는데 주로 수면에서 40~50m에서 잡히는 것을 말한다. 이 외에

‘도직기’는 섬 주변에서 잡는 오징어라는 의미를 지니지만 겨울에 잡는 오징어를 가리키기도 한다. 오징어가 한창 많이 나는 철에 잡히는 오징어를 ‘한직기’라고 하는데 이도 가을부터 겨울에 나는 오징어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도(島), 한(한창)+‘직기’의 구성으로 나타났다.

- ⇒ {도직기라} 하면 마 그냥 {겨울오징어로} 그래합니다.
- ⇒ {노직기} 카는 기 아마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일본말인지 모르겠네요.
- ⇒ 그렇지요. 그래 저 대밭에 쪽으로 내려가면은 {낫오징어}. 낫오징어를 잡는데 거는 뭐 사오십 메다까지 뜨는 것도 있어요. 떠가지고 벌~거이. 그때는 조상기 내랴다 하면은 엄청시리 와요. 보아이 마.

2) 겨울오징어, 동삼지기

겨울에 잡히는 오징어를 가리키는 말로 ‘겨울오징어’라고 한다. 겨울에 잡히는 오징어를 ‘동삼지기’라고도 한다. 이러한 ‘겨울오징어’를 잡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을 ‘동삼지기’라고 한다.

- ⇒ 예. {겨울오징어는} 항시 그렇습니다. 낫오징어라고 저 낫에도 무거든예. 그러니까 인자 그래. 도직기라 하면 마 그냥 겨울오징어로 그래합니다.
- ⇒ 한치. 그래 한치를 여기서는 조기라 그래. 조기. 그것도 일종의 오징어지. 오징어고 가끔씩 갑오징어 큰~ 거. 그런 거는 가끔씩 잡히고. 잡히고. 뭐 그 외에는 인자 쓰는 용어로는 우리가 겨울에는 {동삼지기}. 동삼이니까 뭐. 초등에나 초등바리. 초등바리. 그 담에 가을에 나는 거는 추석 쇠고 나는 거는 가을바리. 그렇게 분류. 그래 그렇게 분류하고. 가장 맛이 있을 철에는 이제 지금 잡는 오징어가 가장 맛이 있다.

6.1.4. 암수에 따른 명칭

1) 숫조기, 알조기

오징어를 조기라고도 하는데 이때 수컷을 가리키는 말로 ‘숫조기’가, 암컷을 가리키는 말로 ‘알조기’가 나타났다. ‘조기’는 오징어 중 주로 ‘한치’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 중 ‘알조기’는 몸에 알을 지니고 있다는 말이다.

- ⇒ 한치. 우리 올릉도 말로 조. {조기라} 카기도 해요. 한치를.
- ⇒ {숫조기이가} 인자 크고 알조기는 째니다. 숫조기는 커요.
- ⇒ 숫조기이가 인자 크고 {알조기는} 째니다. 숫조기는 커요. 이만큼 커요. 사오십센치.

6.1.5. 기타 명칭

1) 선망오징어

선망 즉 그물로 잡은 오징어를 ‘선망오징어’라고 한다. 이처럼 오징어는 그 어로 도구

에 따라 명칭이 분화되기도 했는데 이는 2011년에 조사한 명태의 명칭 ‘낙수태, 그물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 ⇒ 그래 {선망오징어는} 입찰 보는데 울릉도매로 안 그러고 이 패찰이 하얀 거로까 다 있는데 책상 이런 거 놔두고 입찰 거는 한 두 상자가 아니고 수 백 가구.

2) 저장오징어

당일 잡았지만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한 오징어를 ‘저장오징어’라고 한다. 주로 음력 10월에 잡히는 살이 두꺼운 오징어를 보통 사용하는데 이를 가리킨다. 그래서 봄에 잡히는 살이 얇은 ‘초등, 초물, 초등오징어’는 ‘저장오징어’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한다.

- ⇒ 고기는 인자 그 시기가 시월달. 양력 시월달 해서 십이월까지 고기가 젤 많이 날 때 인자 그 {저장오징어가} 있고 그 담에 바로 잡아서 바로. 에~ {저장오징어는} 보통 한 음력 시월달. 구월 말에서 시월달에 저장해서 매년 간 인자 몇 달 간 어장을 해가지고 에~ 이 숙성을 오징어 말하면 숙성을 시켜서 이제 위판을 하고 판매를 하죠.

3) 피데기, 조기, 한치

작고 부드러운 오징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한치, 조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를 잡는 행위는 ‘조기바리, 한치바리’로 나타났다. 한편, 반건조된 오징어를 가리키는 것으로는 ‘피데기’가 나타났다. 이 외에도 ‘잘다, 분이 핀다, 씨 자빠졌다’라는 표현을 통해 오징어의 상태를 나타내기도 했다.

- ⇒ 옛날에 간꼬글은 거 집집마다 없고 여유가 있는 집이라야 인자 저 이 뗏목이 있거든. 이걸 가지고 다른 거는 몰라도 {한치같은} 거 요 밖에 요게서 오십 메다 백 메다 저쪽 까맣게 바다에 띄워놓은 거 있지예. 저 정도보다 한 절반만 나가도 저기 한치 카는 기 잡힙니다. 한치도 잡고.
- ⇒ 저. 좀 전에 뭐 시월달 십월달 나는 거는 저장오징어 오랫동안 요즘 나오는 거는 저장오징어가 안 됩니다. 저장오징어는 살이 두껍고 그래야 오래 저장되는데 지금 나는 거는 전부 다 {피데기}. 반건조로 해가지고 빨리 파는 거.

6.1.6. 오징어 묶고 세는 단위

이러한 오징어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단위명사가 사용되었는데 ‘축, 두름, 바리, 짹’이 나타났다. 백 두름, 백 축은 ‘바리’로, 20마리씩 축을 지은 오징어를 다시 묶어 정리하는 단위는 ‘짹’으로, 스무 마리를 묶어놓은 것을 가리키는 단위로는 ‘두름’과 ‘축’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는 ‘두름’보다는 ‘축’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한편, ‘짹’은 일반적으로 그 크기에 따라 오징어의 숫자가 달라졌는데, 대자는 60~70마리를, 중자는 80~90마리를, 소자는 110~120마리를 짹으로 묶어 짓는다.

- ⇒ 백 멧 축 꼬지. 아까 십 한 {바리면} 이천 마리 아닌교. 꼬지거든. 한 꼬지 꼬쟁이 하나에 스무 마리씩 찌는데 백 멧 십 꼬재. 그럼 백 멧 십 축이라. 아까 백 꼬지가 뭐라.
- ⇒ 그런 방법으로 지었는 전부 거다가 보내주는 기라. 나는 불안해가 거는 거다가 우에 그레 열 짹스 스무 짹스 뭇 믿고 보내는교.
- ⇒ 예 그 이까빠리 잡았다 이라고 뭇 바리 반 잡았다. 바리 반 잡았다 카는 기 결국은 백오십 {축} 잡았다 카는 기라.

어촌에서 사용하는 오징어 명칭을 장소, 시기, 암수, 크기, 상태에 따라 나누어 보면 다음의 <표 15>와 같다.

<표 15> 오징어의 명칭

구분		어휘 항목
오 징 어 명 칭	이름	이까, 수루매, 오징어
	시기	낮오징어(40~50m), 동삼지기, 낮이까(=낮오징어), 겨울오징어, 노직기(=도직기), 한직기
	어획 도구	선망오징어
	크기	초등오징어, 한직기, 도직기, 앵치 초등오징어(=초물) < 굵은오징어 < 한직기(=한물) < 도직기 < 동삼오징어
	사용 용도	저장오징어
	상태	아사히찌(붉은오징어), 요이찌(흰오징어) 살오징어, 떡통, 피통어골뚜기, 대포(=대포알), 갑오징어
	암수	숫조기, 알조기
	기타	피데기, 조기(=한치)

이러한 오징어에 사용된 단위명사를 정리해서 나타내면 다음의 <표 16>과 같다.

<표 16> 오징어 관련 단위 명사

구분	어휘 항목
단위명사	두름(20마리), 축(20마리), 바리(100축), 꼬지(대자 20마리, 중자 30마리 한 상자), 짹(크기에 따라 대자는 60~70마리, 중자는 80~90마리, 소자는 110~120마리)

7. 어로 행위

7.1. 어로 활동

7.1.1. 오징어 잡이

울릉도 어부들의 일상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어로도구 손질, 오징어 잡이, 오징어 건조’로 볼 수 있다. 오징어 잡이를 하기 전에는 낚시 도구를 챙기고 정리해야 하는데 이는 주로 부녀자와 어부들이 담당한다. 오후가 되면 부녀자들과 집안 식구들이 함께 정리해 놓은 낚시 도구를 통에 담아 놓고 이를 어부들은 어선에 싣는다. 이후 오징어 잡이를 위해 어부들은 낚시를 확고통에 담은 후 해가 지면 집광등을 켜고 이를 바다에 던진다. 야광성의 성질을 지닌 오징어가 불을 보고 달려들면 낚싯대를 당겨 오징어를 배에 싣고 육지로 옮긴다. 이렇게 잡은 대부분의 오징어는 건조를 하는 덕장으로 가져가기 전에 먼저 어판장에서 활복을 한 후 이깃대에 끼운다. 이를 손수레에 실은 후 덕대에 걸어 말리는데 사람의 손이 적어도 20~30번은 가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과정을 울릉도의 어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1) 오징어바리, 이까바리, 이까빠리, 한치바리, 조기바리

오징어를 잡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에는 ‘오징어바리’가 나타났다. 이는 다른 말로 ‘이까바리, 이까빠리’라고도 한다. 이 외에도 ‘한치바리, 조기바리’도 나타났는데 이는 오징어의 한 종류이지만 오징어를 포괄해서 나타내는 말로도 사용되고 있었다.

- ⇒ 요거 인자 조금 있으면 {한치바리} 해요. 그러면 그거는 그물로가 들면 그물로가. 막 이래 떠요.
- ⇒ 뭐 {이까바리}. 하이튼 있어. / 예. 오늘 오징어 열매 잡았노. 그러믄 백축 잡았다 이래 얘기하는 게 아이고. {이까빠리나} 잡았더라. 한 바리 잡았더라 이 말이거든.
- ⇒ 그래 여는 {오징어바리} 맞지. 오징어바리.

2) 초등바리, 가을바리, 동삼바리

‘초등바리’는 가장 먼저 나오는 오징어, 즉 ‘초물’을 잡는 행위를 말한다. 한편 오징어의 경우는 그 잡는 시기에 또는 잡는 계절에 따라서도 어휘가 분화되어 나타났는데 가을에 오징어를 잡는 행위는 ‘가을바리’로, 겨울에 오징어를 잡는 행위는 ‘동삼바리’로 나타났다. 이러한 잡는 시기에 따라 ‘도직기, 겨울오징어, 살오징어, 동삼오징어’로 오징어의 명칭도 달라졌다.

- ⇒ 한치. 그래 한치를 여기서는 조기라 그래. 조기. 그것도 일종의 오징어지. 오징어고 가끔씩 갑오징어 큰~ 거. 그런 거는 가끔씩 잡히고. 잡히고. 뭐 그 외에는 인자 쓰는 용어로는 우리가 겨울

에는 {동삼지기}. 동삼이니까 뭐. 초등에나 {초등바리}. 초등바리. 그 담에 가을에 나는 거는 추석 쇠고 나는 거는 {가을바리}. 그렇게 분류. 그래 그렇게 분류하고. 가장 맛이 있을 철에는 이제 지금 잡는 오징어가 가장 맛이 있다.

- ⇒ 그거 인자 겨울에 도직기 카는 긴데 도직기. 동삼바리. 이기 인자 도직기 카데요. 주로 {동삼오징어} 도직기 카데. 보통 도직기 인자 뭐 다 됐다 이래 샀고. 지금도 도직기 다 됐다 이래 샅습니다. 그게 {동삼바리}. 겨울로 친다.

3) 낚치기, 낚바리, 샛별치기, 별치기, 밤치기, 조모순이, 달치기, 해치기

낮에 오징어를 잡는 행위는 ‘낚치기, 낚바리’로, 밤에 오징어를 잡는 행위는 ‘샛별치기, 별치기, 밤치기, 조모순이, 달치기’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 중 ‘밤치기’는 달이 뜨는 11시나 12시에 오징어를 잡는 행위를 가리켰다. 또 해가 떠 오르기 전에는 ‘해치기’로, 밤에 오징어를 잡는 행위는 ‘샛별치기, 별치기, 달치기’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명칭을 통해 작업 행위와 하루 표현이 관계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어로 행위를 하루 표현과 관련지어 나타내면 ‘해치기 ➡ 식전, 새벽 ➡ 동이 튼다, 아침, 아침나절 ➡ 점심, 한낮, 한나절, 낚치기, 낚바리 ➡ 참때 ➡ 초저녁 ➡ 저녁, 어둠사리 낚다, 저녁나절 ➡ 밤 ➡ 밤중, 달치기 ➡ 별치기, 샛별치기’로 볼 수 있다. 또 ‘해치기’와 같이 작업 행위와 관련시킨 어휘로 ‘샛별치기, 별치기’가 나타났는데 새벽에 샛별 또는 별을 보면서 작업을 한다는 의미이다.



[사진 56] 밤치기

- ⇒ 그래 오징어 잡는 배도 뭐 {샛별치기라}. 새벽에 뭐 {별치기}.
- ⇒ {밤치기}는 밤에는 통상 잡는 기기 때문에.
- ⇒ 예. 낚오징어. 예. 저~ {낚바리라} 안 하고 순 낚빠리. {낚치기} 오징어 주로 많이 이래 얘기한다. / 낮에 잡는다고.
- ⇒ 인자 달도 예를 들어가 뭐 음력으로 이십일 달은 초저녁 아홉시 돼가 뜨면 이십칠 팔일은 열한 시나 열두 시 돼가 뜨지 않습니까. 이래 뜨도 {달치기라고} 고래 뜰 때 한 사십 분 잡힐 때가 있고 이래 뜰 때가 있어.
- ⇒ 예. 낚오징어. 예. 저~ {낚바리라} 안 하고 순 {낚빠리}. {낚치기} 오징어 주로 많이 이래 얘기한다. / 낮에 잡는다고.

4) 떼지바리, 그물바리

어부는 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는 도구에 따라 그 행위도 ‘떼지바리, 그물바리’로 표현하기도 했다. 오징어를 잡는 도구 중 하나인 ‘산자꾸’인 경우에는 그 행위, 즉 ‘던져서 잡는’ 것에 연유해 ‘떼지바리’로 나타났다. 오징어는 그물로 잡지는 않지만 쫄치와 같은 경우는 그물로 잡는데 이러한 행위는 ‘그물바리’로 표현하고 있었다.

⇒ 네. 그걸로 가지고 오징어를 잡았었고. 또 산자꾸를 가지고 거 {떼지바리라고} 하는 게 있어.

5) 원양(바리), 당일바리, 갓바리

어부들은 그 거리에 따라 ‘원양바리, 당일바리, 갓바리’로 구분되었는데, ‘원양바리’는 먼 바다에서 작업하는 것을, ‘당일바리’는 5~6시간의 거리에서 작업하는 것을, ‘갓바리’는 1시간 거리에서 작업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어휘들은 오징어 외에 다른 고기를 잡는 행위를 포괄해 가리키기도 한다.

⇒ 원양 그러는 거는 한번 나가면은 인제 최하라도 보름 한달. 이렇게 오는 인제 갔다 오는 걸 원양이라 하고. 요기에서 이제 작업을 다섯 시간을 나가든 여섯 시간을 나가든 고 하는 건 {당일바리로} 나가요. {당일바리라고}.

⇒ 멀리 가면 뭐 {원양 간다} 그러지.

⇒ 요요 한 시간 요렇게 나가는 거는 {갓바리} 나간다 이라지.

6) 중상바리, 무중바리, 공동바리

배 안의 경비로 사용하는 것을 ‘공동바리’라고 하는데 이는 선원 공동이 사용하는 물품 또는 선원이 먹는 술을 사거나 하는 경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거의 유사한 말로 ‘무중바리’가 있었는데 이도 배 안에서 사용하는 모든 경비를 공동으로 지출한다는 의미로 나타났다. 한편, 나에게 큰 손실이 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 ‘중상바리’가 나타났는데 이는 오늘 작업을 가지 못했는데 다른 배들은 오징어를 많이 잡았을 경우 이를 ‘중상바리’라고 표현하고 있었다.

⇒ 경비를 제외하고 공동. 그래 무중이라는 건 {공동바리라고}. 인자 다음은 경비를 떼고 일 억일 때 선주가 사. 사십팔백. 사천팔백만 원을 일단 뱃삿으로 가져가고 남은 인자 오천이백만 원을 가지고

⇒ 이게 인자 {무중바리라는} 건데. 무중바리. 경비를 공동으로 지급을 하고 지불을 하고 인자 이렇게 부합으로 나눈다는 거. 그걸 무중바리라고.

⇒ 그 안 가면 {중상바리라}.

7) 지따묵기(사륙제(째), 삼칠제(째), 고부고부), 배짖까리, 선장짖까리, 선원짖까리, 반짖까리, 부아끼, 부합

자기가 잡은 고기는 자기가 가주고 가고 대신 배 안에서 사용한 경비는 공동으로 내는

것을 가리키는 말을 ‘지따묵기’라고 하는데 이는 선주와 선원이 잡은 오징어를 10을 기준으로 나누는 방법에 따라 ‘사륙제, 삼칠제, 고부고부’로 나타났다. 이 중 ‘4:6’으로 나누는 경우는 선원이 6을 선장이 4를 가지는 것을 말하고 이를 ‘사륙제’로 표현했고, ‘3:7’로 나누는 경우는 선원이 7을 선장이 3을 가지는 것을 말하고 ‘삼칠제’로 표현했다. 또 선원들이 그 날 일한 것에 배가 가져가야 할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을 선장과 선원이 동일하게 나누어 가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고부고부’라고 한다.

한편, 선원이 가져가는 부합을 ‘선원짓까리’로, 선장이 가져가는 부합을 ‘선장짓까리’로, 배가 가주고 가는 부합, 즉 배에 들어가는 기름, 부대 비용은 ‘뱃짓까리’라고 한다. 이처럼 배를 타고 나가 일한 금액, 즉 배당금을 받는 것을 가리키는 말을 ‘부합, 부압, 부아끼, 부하계’라고도 한다. 이는 선원이 급여 외에 품삯을 더 받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 ⇒ 그래 이 과정은 이거 과거에 내가 개개인이 할 때는 자기 꺼니까 자기 꺼니까 자기 나름대로 다 해결을 하는 거고 요즘은 인제 요때는 {지따묵기} 해가지고 지따묵기 이래가.
- ⇒ 그러면 선주가 네 마리를 갖고 가고 잡는 사람이 여섯 마리를 갖고 가는 걸 {사륙째라} 그러지요. 세 마리 일곱 마리이라든 삼칠째. 그 용어 속에 똑같은 때는 고부고부 하는 말을 쓴다는 거.
- ⇒ 그러면 선주가 네 마리를 갖고 가고 잡는 사람이 여섯 마리를 갖고 가는 걸 사륙째라 그러지요. 세 마리 일곱 마리이라든 {삼칠째}. 그 용어 속에 똑같은 때는 고부고부 하는 말을 쓴다는 거.
- ⇒ 선가를 뭐 여덟 마리다 아니면 열 마리면 열 마리면 스무 마리 열 마리면 {고부고부}. 뭐 사육째. 이런 식으로 개인이 자. 자기 잡은 건 자기가 선가를 주고 갖고 가는 겁니다.
- ⇒ 그렇죠. {부하계라는} 것도 한 마디로 인제 좀 더 갖고 가는 걸 뭐라 그래야. 뭐 보너스랄까? 그죠? 수고 많이 하니까 이런 뭐.
- ⇒ 짓가리. {뱃짓가리}. 뱃짓가리는 건 배가 갖고 가는 거고. 뭐 {선원짓가리}. 뭐 {선장짓가리} 뭐 맞아. {짓가리라는} 말을 많이 써.

어로 행위와 관련된 말을 정리해서 나타내면 다음의 <표 17>과 같다.

<표 17> 오징어 관련 어로 행위

구분		어휘 항목
어로 행위	상위 명칭	오징어바리, 이까바리, 이까빠리, 한치바리(=조기바리)
	계절	초등바리, 가을바리, 동삼바리
	시기	낮치기, 낮바리, 셋별치기, 별치기, 밤치기, 조모순이, 달치기, 해치기
	도구	편지바리
	거리	원양(바리), 당일바리(5~6시간 거리), 갯바리(1시간 거리)
	배	중상바리, 무중바리
	배당금	지따묵기(사육제, 삼칠제, 고부고부), 배짓까리, 선장짓까리, 선원짓까리, 반짓까리, 부아끼(=부합, 부압, 부하계) (* 일반적으로 선주 8마리, 선원 12마리 가짐)

7.1.2. 덕걸이 행위

오징어를 덕장에 걸어 말리고 건조해 상품을 만드는 일을 ‘덕장 한다’라고 한다. 이러한 덕장의 일을 과정대로 나타내면 ‘할복 ➡ 이깃대 끼우기 ➡ 리아카로 덕장에 실어주기 ➡ 세척 ➡ 지게(바지게, 바소고리)에 이까 신기 ➡ 20마리씩 나누기 ➡ 증꼬지 20마리씩 나누기 ➡ 탱기 치기 ➡ 배 띠기 ➡ 발 띠기 ➡ 귀 추기 ➡ 말리기 ➡ 귀 뒤배기 ➡ 귀 넓히기 ➡ 발뒷굽치 훑기 ➡ 말리기 ➡ 축 지기 ➡ 짹 짓기 ➡ 상품 출하’로 볼 수 있다. 이 중 특징적인 어휘인 몇 어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할복

오징어 배를 갈라 창자와 몸통을 분리하는 행위이다. 건조를 하기 위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행위로 어판장에서 이루어진다. 이 과정이 끝나면 오징어를 ‘증꼬지’ 또는 ‘이깃대’에 끼운 후 덕장으로 가져간다. 이를 제보자는 ‘꼬틀바리 끼야 되제’로 표현하기도 했다.

- ⇒ 과정이 열일곱 번 손이 가야 돼. 과정이 열일곱 번. 할복 내라가 {할복부터} 그 담에 꼬틀바리 끼야 되제. 실어가 올려. 덕장에 올려야 돼. 귀 디배고 발 띠고 귀 추고 또 저저저 짹. 짹. 짹 찌우고 다리고 뭐뭐 야튼 이 과정이 열 한 몇 번.

2) 이깃대 끼우기, 오징어 배에 끼다

오징어 배에 이깃대를 끼우는 것을 ‘이깃대 끼우기, 오징어 배에 끼다’라고 표현한다. 이때 끼는 이깃대를 ‘증꼬지’라고도 하는데 ‘증-’은 두 배, 즉 이 꼬지에 40마리의 오징어가 끼어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 후 ‘리아카’나 ‘바지게’를 통해 오징어를 덕장으로 실어 나른다.

- ⇒ 할복 하고 나서 인자 거서 {오징어 배에 끼이가지고} 인자 그냥 차로가 실어가 덕장에 얹쥬.
- ⇒ 우리가 요즘 오징어를 건조과정에 있어서도 백이면 백 사람 열이면 열 사람 다 꼬지 가오란 소리는 안 한다고. 그러면 오징어꼬지라야 맞겠지만은 통상 지금도 어판장 같은 데 가면 ‘야 {이깃대} 가지고 오라’ 그래. 이깃대. {이까를 끼는} 대나무를 가지고 오라. 그래 이깃대 가지고 오너라. 오너라.

3) 리아카로 덕장에 실어주기, 리어카에 싣다

어판장에서 산 오징어를 덕장에 실어 나르는 것을 ‘리아카로 덕장에 실어주기, 리어카에 싣다’라고 한다. 오징어를 끼운 ‘증꼬지’를 여러 개 실은 후 이를 20마리씩 먼저 나눈 후 덕장에 올리고 탱기를 치는 작업을 한다.

- ⇒ 해야 되제. 덕덕. 인자. 이거 저 차에 거 {리어카에 실어야} 되제. 덕장에 올리야 되제. 패야 널. 패아야 되제. 그 담에 탱기 쳐야 되제. 그 담에 귀 디배야 되제. 발 띠야 되제. 귀 추야 되제.

4) 덕장에 었다, 덕장에 올리다

탱깃대를 끼운 낱알의 오징어를 덕장에 있는 덕대에 올려 놓는 행위를 ‘덕장에 었다, 덕장에 올리다’라고 한다. 이때부터 오징어를 건조하는 과정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 ⇒ 할복 하고 나서 인자 거서 오징어 배에 끼이가지고 인자 그냥 차로가 실어가 {덕장에 었쥌}.
- ⇒ 해야 되제. 덕덕. 인자. 이거 저 차에 거 리어카에 실어야 되제. {덕장에 올리야} 되제. 패아 널. 패아야 되제. 그 담에 탕기 쳐야 되제. 그 담에 귀 디배야 되제. 발 띠야 되제. 귀 추야 되제.

5) 탕기 치다

오징어에 이쥬대를 끼우는 것을 ‘탕기 치다’라고 한다. ‘탕기’는 오징어 발에 끼우는 나뭇대를 가리킨다. 요즘은 대나무로 된 것 대신 플라스틱을 이용해 사용하기도 한다.

- ⇒ 해야 되제. 덕덕. 인자. 이거 저 차에 거 리어카에 실어야 되제. 덕장에 올리야 되제. 패아 널. 패아야 되제. 그 담에 {탕기 쳐야} 되제. 그 담에 귀 디배야 되제. 발 띠야 되제. 귀 추야 되제.

6) 귀 넓히다, 귀탕이 넓히다, 귀 디배다, 귀 제끼다, 귀 추다, 귀 피다

오징어의 귀 부분은 말리는 과정에서 손이 여러 차례 가는데 이러한 점은 ‘귀 넓히다, 귀탕이 넓히다, 귀 디배다, 귀 제끼다, 귀 추다, 귀 피다’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먼저 말리는 중 오그라든 오징어의 귀 부분을 반대로 뒤집는 것은 ‘귀 디배다’로, 말리는 중 오그라든 오징어의 귀 부분을 위로 세워 뒤집는 것은 ‘귀 제끼다’로, 또 이 과정 중 오그라든 오징어의 귀 부분을 세우는 것은 ‘귀 추다’로, 말리는 중 오그라든 오징어의 귀 부분을 펴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은 ‘귀 피다’로 나타났다. ‘귀 피다’는 오그라든 오징어의 귀 부분을 넓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다른 말로 ‘귀 넓히다’라고 하기도 한다. 한편, 말린 오징어를 바닥에 두고 오그라든 오징어의 귀 부분을 펴기 전에 하는 행위를 ‘귀탕이 넓히다’라고 한다.

- ⇒ 즉 말하지만 요만한 꼬쟁이에 사십 마리 끼가가 집에 가서는 요걸 인제 분리를 스무 마리씩 분리해가 꼬쟁이 다는 거쥌. 고래가 탕기 치고 발 띠고 귀 뒤피고 배 디비고 귀 추고 고 담에 꼬챙이 빼가지고 인자 {귀탕이 넓혀가} 훑고 그래가 인자 말라가지고 축을 지아요.
- ⇒ 과정이 열 일곱 번 손이 가야 돼. 과정이 열 일곱 번. 할복 내라가 할복부터 그 담에 꼬들바리 끼야 되제. 실어가 올려. 덕장에 올려야 돼. {귀 디배고} 발 띠고 귀 추고 또 저저저 작. 짹. 짹 찌우고 다리고 뭐뭐 야튼 이 과정이 열 한 몇 번.
- ⇒ 배가 이까를 끼놓으면 이렇잖아요. 그럼 이거 히떡 디비놔야 여도 마를 거 아니에요. 그 담에 인자 요랬는 걸 요랬는 걸 갖다가 인자 배 디끼고 난 후에는 배 디끼면서 발 꺼정 다 띠요. 그 담에 이걸 요래 재끼가지고 귀를 인자 짹~ 피야쥌. {귀를 제끼는} 거쥌. 귀를 땡기놔야. 귀가 딱 붙어있잖아요. 그래서 귀를 추고.
- ⇒ 예. 요걸 인자 넘갔다가. 또 좀 더 마리면 어떻게 하나면 {귀 추다} 해가 요렇게 합니다.
- ⇒ 귀. {귀 피야야} 되제. 자 그 담에 또 또 덜어가지고 건조장에 또 살짝 돌리아 되잖아. 그러든 우에 되노. 그 담에 훑어야 되잖아.

⇒ 배 띠고. 배 디끼고 귀 추고 고 담에 인자 어느 정도 말랐는 상태에서 떼가지고 고 담에 인자 {귀도 넓히고} 배도 넓히고 인자 훑는 거요. 훑어가지고 말라가 축을. 지는 거요.

7) 배 뒤피다, 배 디끼다

오징어의 몸통 부분이 오그라진 것을 다시 등쪽으로 뒤집는 것이다. 오징어의 몸을 편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작업인데 이 작업은 수시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배 뒤피다’와 ‘배 디끼다’가 함께 나타나고 있었다.

⇒ 땡. 탱기 치고. 탱기 치고 고 담에 {배 뒤피고}. {배 디끼고}. 고 담에 어 귀 추고.

8) 발 띠다

말리는 과정에서 오징어의 10개의 발이 뭉쳐지는데 이때 오징어의 발을 하나하나 떼는 행위이다. 오징어의 발은 오징어의 상품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 과정도 중요하다고 한다.

⇒ 귀 디밴다. 네. 그렇지요. 그 담에 또 요렇게 되면 요기요 발이 이래 되면 금방 붙어가 두 개 시 개 붙어가 있는 기라. 요렇게 하는 걸 {발 띠다}.

9) 훑다, 패다(피다)

‘훑다’는 어느 정도 마른 오징어의 몸을 편편하게 피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 지역에서는 ‘패다, 피다’가 모두 나타나고 있었다. 어느 정도 마른 오징어의 몸이 다시 한번 틀을 잡을 수 있도록, 또 잘 마를 수 있도록 피는 것을 말한다.

⇒ 귀추는 거. 예. 요런 거지. 요렇게 요런 거. 요럴 때가 있고 그 담에 인자 어느 정도 이기 마르면 가지고 들어가서 인자 빼가지고 인자 그걸 {훑는다} 이랍니다. 다시 훑어가지고 인자 다시 말루턴지 피데기는 훑어가 고대로 하고 요렇게 하는 거죠.

⇒ 해야 되제. 덕덕. 인자. 이거 저 차에 거 리어카에 실어야 되제. 덕장에 올리야 되제. 패아 널. {패아야} 되제. 그 담에 탱기 쳐야 되제. 그 담에 귀 디배야 되제. 발 띠야 되제. 귀 추야 되제.

10) 축 짓다, 자개다

완성된 오징어는 상품으로 출하되기 전에 이를 차곡차곡 정리해 쌓는 것을 ‘축 짓기, 재개다’라고 표현한다. 오징어를 20마리씩 묶어 내는 것을 ‘축 짓다’라고 한다.

⇒ {자개야} 되제. / {자개는} 거 그거도 빼. 빼뿌고. 마마. 그래 마.

⇒ 그니까 빼야 되제. 훑어야 되제. 그럼 널어야 되제. 나중에 마마마 불에 영는 그거 빼뿌고. 그럼 다 말루면은 인자 다리는 거 그거도 빼뿌고 {축 지아야} 되제. 축.

11) 짹 짓다, 짹 찌우다

오징어를 ‘대, 중, 소’에 따라 60마리에서 120마리씩 묶는 것을 가리킨다. 이 지역에서는 ‘소’자는 110~120마리를, ‘중’자는 80~90마리를, ‘대’자는 60~70마리를 짹을 지어 사용하고 있었다.

- ⇒ 그거는 날 좋으면 이삼일 만에 말릴 때도 있고 사오일 걸릴 때도 있고. 뭐 모다 놓고 일을 안 하고 안 하고 나놔다가 인자 그 우선 급한대로 말라가 자꾸 창고 안에 여놔다가 인자 다른 오징어에 좀 덜 난다든지 덜 나면 비싸거든에. 뭐든지 마이 나오면 싸잖습니까. 또 쌀 때는 인자 또 샅다가 비쌀 때는 고 안에 꺼 손질하는 거죠. 축도 짓고 {짹도 짓고}.
- ⇒ 과정이 열일곱 번 손이 가야 돼. 과정이 열일곱 번. 할복 내려가 할복부터 그 담에 꼬들바리 끼야 되제. 실어가 올려. 덕장에 올려야 돼. 귀 디배고 발 띠고 귀 추고 또 저저저 짹. 짹. {짹 찌우고} 다리고 뭐뭐 야튼 이 과정이 열 한 몇 번.

오징어 손질 과정과 관련된 말을 정리해서 나타내면 다음의 <표 18>과 같다.

<표 18> 오징어 손질 과정

세척	할복	이깃대 끼우기	이깃대에 끼운 오징어	이깃대 리아카에 심기
				
귀 디배기	귀 추기	탱기 치기	훅기	발 띠기
				

덕걸이 행위를 표현하는 말을 과정과 행위에 따라 나누어 보면 다음의 <표 19>와 같다.

<표 19> 덕걸이 행위

구분		어휘 항목
덕걸이 행위	명칭	덕장 한다
	과정	할복 ➡ 이깃대 끼우기 ➡ 리아카로 덕장에 실어주기 ➡ 세척 ➡ 지게(바지게, 바소고리)에 이깃대 심기 ➡ 20마리씩 나누기 ➡ 증꼬지 20마리씩 나누기 ➡ 탱기 치기 ➡ 배 띠기 ➡ 발 띠기 ➡ 귀 추기 ➡ 말리기 ➡ 귀 뒤배기 ➡ 귀 넓히기 ➡ 발땃굽치 훅기 ➡ 말리기 ➡ 축 지기 ➡ 짹 짓기

8. 음식

8.1. 음식 재료와 음식명

8.1.1. 재료

1) 귀태기(귀때기, 귀) 몸통(몸띠, 몸), 발, 다리, 종지(종지기, 긴다리), 짧은다리, 창대기, 흰창대기(흰창자, 흰창), 누런창대기(똥창, 누런기, 누른창, 간, 난유기, 오징어간), 눈까리(눈) 입(조디), 똥, 먹통

오징어는 그 부분에 따라 명칭이 분화되어 나타났는데 이 중 먼저 오징어의 창자를 가리키는 말로 ‘창대기, 창자, 창’이 나타났다. 오징어의 창자는 그 색에 따라 ‘흰창대기’와 ‘누런창대기’로 구분되어 나타났는데 이 중 오징어의 창자 중 흰 색을 띠고 있는 것은 ‘흰창자’, ‘흰창대기’, ‘흰창’으로, 누런색을 띠고 있는 창자는 ‘누런창대기, 똥창, 누런기, 누른창, 간, 난유기, 오징어간’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기름을 짜내는 데 사용하는 ‘누런창대기’는 ‘오징어애’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했다. 한편 창자 옆에 똥의 색을 띠고 있는 것은 ‘똥창’으로 나타났고, 오징어의 먹물을 담고 있는 부분은 ‘먹창, 먹물, 먹통’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오징어의 다리를 가리키는 말로는 ‘종지기’와 ‘종지’로, 입은 ‘조디, 입’으로, 몸은 ‘몸통, 몸띠, 몸’으로, 귀는 ‘귀태기, 귀때기, 귀’로 나타났다. 한편 오징어 발을 사람의 손에 비유하여 ‘손띠기’라고도 표현하기도 했다.

- ⇒ 예. 토속음식 그거 마이. 도동 가면 마이~ 해무요. 그 {흰창지} 지저 주고 {누런창} 지저 주고. 맛이 있어요. / 오징어 {흰창자는} 내장탕을 하고 인자 누런 게 사실은 그게 인자 {간유구거든 요}.
- ⇒ {창대기도} 묵고 뭐 똥도 묵고.
- ⇒ 내장이고 그 누런창은 앤데 그게 {어간유라고} 해가 오징어 거 기름 짜고 하는 거 그 누런창에서 다 짭니다. 누런창에서 짜가 그게 어데 들어가나 이라에 화장품 원료글은 데 다 들어간다 하더라고.
- ⇒ 오징어~ 이제 그게 창대기국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인제 그~ 그 오징어를 이렇게 배를 따다 보면은 이제 거기 {똥창이라고} 또 들었어요.
- ⇒ 울릉도 꺼는 다른 오징어 가면은 긴다리에 보면은 이 종지에 에 문어를. 문어글이 {종지기라} 하는데. {종지기가} 다 붙어 있는 기라야 점. 신선도를 유지하는데 여기 보면 다른 데도 오징어를 보면 이 다리에 종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 ⇒ {오독뼈}. 그거 이름이 오독뼈라 이라데. 갑오징어 속에 있는 뼈를 속을 보면 꺾디기는 단단하고 속도 굵으면 굵합니다. 그래 해보면. 그걸 옛날에 약이 없을 때는 그걸 애들 손 비켰다던지 다치게. 다쳤다던지 하면 그런 걸로가 이래 가루를 뿌리가 이래 치료를 하더라.
- ⇒ {오징어애}. 그거가 했는데 정말 괜찮습니다. 우리는 거기 아주 좋습니다.
- ⇒ {손띠기} 하고 {꼬랑대기} 하고 이제.
- ⇒ {빨판} 끝에 그 까칠까칠한 거.
- ⇒ {먹창} 먹창. / {먹통을} 짹 요래 있어. 까만 거 먹통.

〈표 20〉 오징어와 오징어 부분 명칭

구분	명칭	제보자의 말
 요이찌  아사이찌		<p>옛날에는 그냥 가왔죠. 그래가 아사이찌 요이찌 이기 일본말인데 다마같은 야까 일본말 쓰고 이런데 왜 오징어가 쥔 첨에 나오면예. 빨강습니다. 봤지예. 오징어 잡는 전부 빨간 거 전부 새복에 잡았는 기라. 그래 아사이찌라. 새복에 잡았다고. 요이찌는 첨에는 빨강는데 이미 다 상해가 빨가이 됐는 기라. 이견 요이찌라 이리는데 인제 그때는 그래가 가오면 초저녁에 잡은 기 많으면 은 허연 기 많았고 빨간 기 많으면은 새복날에 많이 잡혔는데. 요즘은예 표가 안 납니다. 잡던 족족 그 담불이라 이러죠. 후다 열고 그 안에 차곡차곡 상자처럼 재는 기라. 그래 신선도도 항시 돼뿌이까.</p>
 누런창대기	누런창, 똥창, 오징어똥, 오징어애, 어간유	<p>오징어 속에 보면 누런창 있고 흰창 있습니다. 그 봤습니까? 그거는 똥고 하면예. 사람으로 말하면 간이라. 누런 내장 간이고. 흰창. 요기는 인자 밑에 쪽으는 그 누런창. 누런창이 간이라 하고 요기 까맣게 붙었는 게 떡통이라 합니다. 까맣게 붙었는 게 있지예. 똥 떡통도 흰창에서 누런창 끝 있는 데까지.</p> <p>누런창 알지요? 오징어 애. 그거가 했는데 정말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기 아주 좋습니다. 흰창은 창자죠. 내장이고 그 누런창은 엔데 그게 어간유라고 해가 오징어 거 기름 짜고 하는 거 그 누런창에서 다 짜니다. 누런창에서 짜가 그게 어데 들어가나 이라예 화장품 원료글은 데 다 들어간다 하더라꼬. 오징어~ 이제 그게 창대기국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인제 그~ 그 오징어를 이렇게 배를 따다 보면은 이제 그기 똥창이라고 또 들었어요. 거 갈색. 그게 인제 따지면은 오징어똥이에요. 그게. 똥인데 그 똥은 똥대로 또 집집마 다 저장을 해놔요. 예. 저장을 해노으면은 그거를 똥 하느냐. 이제 된장같은 거 이런 거 조금 넣고 뚜껑 이렇게 푹배기 같은 데다가 인제 개를 터뜨려요. 똥을. 이렇게 딱 터뜨리면은 된장처럼 색깔이 딱 터지면서 똥은데 거기다가 인제 된장같은 거 좀 넣고 인제 똥 고춧가루 양념, 갖은 양념 이런 거 넣어서 막 이렇게 달달달달 볶아요. 볶아서 시래기 같은 거 있죠.</p>
 흰창대기	흰창, 흰창지, 창자, 내장	<p>거다 기름 짜고 안 합니까. 하고 흰창은예. 고걸 그냥 흰창만 해가지고 이래 호박 잎사구라든지 이런 거 넣고 거 이러 거 국 끓이고 이래가 많이 합니다. 이래가 콩나물 같은 거 넣고 오징어 내장탕 내주세요~ 이라면은 고걸 가 국 끓여줍니다. 예. 토속음식 그거 마이. 도동 가면 마이~ 해무요. 그 흰창지 지저 주고 누런창 지저 주고. 맛이 있어요. 오징어 나면 버릴 게 없어요.</p>
 몸통  오징어눈  오징어발  종지	몸통, 몸티, 몸발, 긴다리, 짧은다리 (이까)눈까리, 귀때기, 귀, 흰창대기, 누런창대기	<p>몸통이라 안그리고 몸티. 우리가 흔히 하는 회할 때 그 발을 빼부고 몸티하고 귀하고 하라 이라거든.</p> <p>그래 인자 오징어도 귀로 치면 인자 오징어는 어떤 우리의 어민들이 어떤 낚을 인제 즐기냐면 오징어를 사시미로 즐길 때 가장 맛있는 부위가 겁니다. 귀. 귀때기라 그러죠. 그 담에 삶았을 때 가장 맛있는 게 겁니다. 이 귀 부분. 그래서 귀 몸티. 흰창대기. 누런창대기. 이까눈까리 이 다리 사이에 이게 이상하게 이견 입이 다리 사이에 쥔 중앙에 있어요. 근데 이견 인제 문어는 여덟 다리데 요건 인제 열. 다리가 열 개 갖고 있잖아요. 그 중에 긴다리가 두 개 있잖아요. 긴 다리가 두 개 있는데. 과거에는 서울 사람들 여덟. 오징어다리가 여덟 개 짜리뻬에 못 먹는다는 게. 긴 거 두 개는 다 빼먹어버리니까. 가장 쉬운 거 긴 거니까 이렇게 덕저리 해놓은 거 지나가면서 그거 해서 먹어버리니까. 그래서 긴다리 짧은다리 눈까리 그 담에 속에 들은 이뻬을. 입을 갖다가 조디. 이 이렇게들 인자 해부를 하자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p>

음식이 되기 전의 재료로 오징어의 대부분이 사용되었는데 이를 울릉도 주민들은 ‘오징어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라는 말로 나타냈다.

음식과 관련된 말을 정리해서 나타내면 다음의 <표 21>과 같다.

<표 21> 음식 재료명

구분	어휘 항목
음식 재료	오징어
오징어 부분 명칭	귀태기(=귀때기, 귀), 몸통(=몸띠, 몸), 물총다리, 종지(종지기, 긴다리), 짧은다리, 발, 빨판 창대기(흰창대기=흰창자=흰창 / 누런창대기=똥창=누런기=누른창=간=난유기=오징어간) 눈까리(=눈), 입(=조디), 똥, 먹통

8.1.2. 음식명

일반적으로 오징어를 이용한 음식은 우리에게 익숙한 서민음식이다. 이로 인해 음식명은 새로운 어휘가 많지 않았는데 특색있는 어휘를 소개하는 것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1) 내장탕, 오징어내장탕, 이까내장탕, 누런창찌개, 누런창스래기찌개

울릉도에서는 육지와 달리 오징어를 이용해 찌개와 탕을 주로 해먹었는데 이 중 ‘내장탕’은 오징어 내장을 넣어 끓여서 만든 탕을 말한다. ‘내장탕’은 다른 말로 ‘오징어내장탕, 이까내장탕’이라고도 했다. 이러한 내장탕은 주로 콩나물과 무를 넣어 끓이는데 맑은 국물이 특징이다. 한편 맑은 탕 외에도 누런창을 넣어 된장과 같이 국물이 거의 없게 끓인 찌개가 있었는데 이를 ‘누런창찌개, 누런창스래기찌개’로 말했다. 이 찌개는 시래기를 넣어 짜짜하게 끓인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찌개나 탕을 통털어 ‘오징어탕’이라고 한다.

- ⇒ 여기서 누런창. {누런창찌개라} 그란다.
- ⇒ 오징어불고기도 해묵고 {오징어탕도} 있어요. 창자 가지고 조린. 그것도 있어요.
- ⇒ 예. {누런창스래기찌개}. 아마 그렇게 쓸 겁니다.
- ⇒ 오징어 흰창자는 {내장탕을} 하고 인자 누런 게 사실은 그게 인자 간유구거든요. / 어데 내장탕 잡숫고. 내장탕 내가 한 번 잡사보라 안 됐는교. {내장탕을} 먹고. 강계장 저녁 먹으러 갈래. 내장탕.
- ⇒ 홍합밥글은 거는 요즘 홍합이 비싸가 몇 개 여주지도 안 합니다. 그렇고 {오징어내장탕은예}. 정말 구수한 냄새가 나는 정돈데 그 한번 잡좌 보시고 아이고 우리 취향에는 거 안 맞습디다. 우리 입맛에는 별로더라 이런 사람도 때로 있겠지만 일단 한번 잡좌보세요. 필히 잡좌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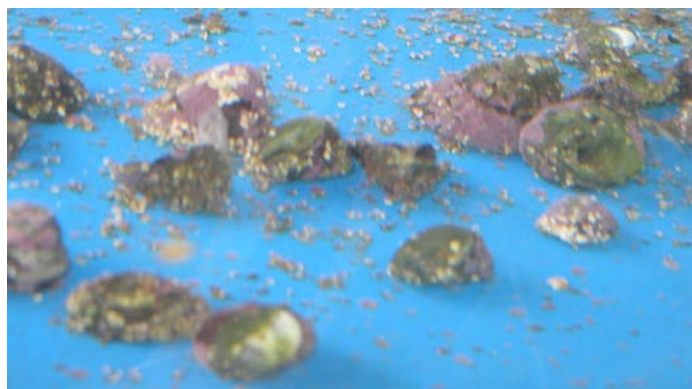
2) 오징어순대, 오삼불고기, 오징어회, 쌈장

원래 이 지역의 음식의 아니지만 순대와 비슷한 형태로 ‘오징어순대’라는 음식이 있었다. 이는 덜 말린 오징어 속에 내장을 제거한 후 고기를 넣어 찌서 먹는 음식이라고 한다. 오징어로 만든 순대를 ‘오징어로가 순대’로 표현했는데 이 외에도 ‘오삼불고기, 오징어회’가 나타났다. 한편 오징어는 ‘오징어간, 어간’을 이용해 ‘쌈장’과 ‘젓갈’을 만들어 먹기도 했는데 예전부터 울릉도에서 많이 먹었던 토속음식이라고 한다.

- ⇒ 그 이 외에는 이제 {오징어로가 순대} 그건 아무데나도 안 있습니까. / 아니요. {순대글은} 거 이런 거는 다 옛날부터 했어요.
- ⇒ 불고기는 {오삼불고기} 이런 거는 인제 한. 한 이십년 전쯤.
- ⇒ {오징어불고기도} 해묵고 오징어탕도 있어요. 창자 가지고 조린. 그것도 있어요.
- ⇒ 왜냐면 너무 크니까. {오징어회} 다른 데는 몰라도 오징어회 하면예. 굵은 거만 있을 때 가면 칼로 그냥 이래 안 썰고 이래 다시 오징어를 이래 포를 뜬니다.

3) 따개비밥, 따개비칼국수, 따개비죽

오징어 외에 이 지역에서 많이 나는 것 중 하나로 바위에 딱 붙어 삿갓 모양을 지닌 조개가 있다. 이를 ‘따개비’라고도 하고 ‘딱개비, 따개비’라고도 하는데 과거에는 천대받던 조개류였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오징어와 함께 이 지역 토속 음식의 재료로 많이 사용된다고 한다. 따개비를 넣어 끓인 죽을 ‘따개비죽’이라고 한다. 이 외에도 ‘따개비밥, 따개비칼국수’가 있었다.



[사진 57] 따개비, 따개비

- ⇒ 그거는 늦게. 그거는 늦게 인제 혼합밥이 인제 이렇게 인기가 있고 하니까 자꾸 그런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따개비는} 원래 밥을 해먹은 게 아니고 저거는 죽을 끓여먹었어.
- ⇒ 따개비밥. {따개비죽} 있고. 그렇죠.
- ⇒ 그럼 거의 무용지물이었어.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오륙년. 오륙년 전부터 이 {따개비칼국수가}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음식화를 하면서 이 대중화가 되더라고.
- ⇒ 음. {따개비밥}. 고거는 인제 간장 넣고 왜 보통 떡배기에 인제 이렇게 개인에 요렇게 해서 내는 집도 있는 반면에 인제 큰술에 한꺼번에 해서 인제 인원수가 많을 때는 대접에 해서 양념 같은 간장 양념같은 거 이렇게 없어서 비벼서 먹는 거고. / {따개비밥}. 따개비죽 있고. 그렇죠.




4) 콩치젓, 오징어젓갈, 누른창대기젓

음식은 ‘젓갈’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는데 동해안의 지역에서 많이 나는 어종을 중심으로 이러한 명칭이 세분화되어 나타났다. 이 지역의 경우 젓갈은 ‘콩치젓’과 ‘오징어젓’을 주로 담고 있었다. 울릉도에서는 오징어 외에도 콩치도 많이 나는데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콩치로 젓갈을 담근다고 한다. 이들 중 콩치젓은 ‘콩치젓(갈)’으로, 오징어로 담근 젓을 ‘오징어젓갈, 누른창대기젓’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이 중 ‘누른창대기젓’은 오징어의 누런창을 가주고 만든 젓을 말한다. 오징어의 경우 흰창자는 국의 재료로, 누런창은 국의 재료뿐만 아니라 젓갈의 재료로도 사용하고 있었다.

- ⇒ 오징어는 다른 거는 뭐 {젓갈}. 젓갈하고 아니면 뭐 건조풍이고.
- ⇒ {콩치젓갈이죠}. 그러이 김. 울릉도에는 김장젓갈 전부 다 콩치젓갈입니다. {멸치젓과} 젓갈은 아주 연하다더랄까 이런데. 깊은 맛이 없는데 콩치젓은 굉장히 깊은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울릉도에서는 전부다 콩치젓갈을 하고 에~ 여기서도 콩치젓갈을 육지에서 찾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콩치젓갈을.
- ⇒ 그 {콩치젓갈로} 버물러 가지고 반찬으로 사용하고. 그 담에 인제 도박. 도박이라는 거 그것도 종류가 많겠지만 인제 도박을 가지고 범벅 그 가루글은 거로 이래 식사 대용으로 먹었던 기억들. / 콩치젓갈이죠. 그러이 김. 울릉도에는 김장젓갈 전부 다 콩치젓갈입니다. 멸치젓과 젓갈은 아주 연하다더랄까 이런데. 깊은 맛이 없는데 {콩치젓은} 굉장히 깊은 맛이 있습니다.

오징어와 및 울릉도 토속 음식을 정리해서 나타내면 다음의 <표 22>와 같다.

<표 22> 울릉도 토속 음식

구분	명칭	제보자의 말
 <p>홍합밥</p>	홍합밥	근데 그때는 홍합밥 을 이렇게 먹는 스푼같은 거가 먹는 게 아니고 막 물속. 선원들이 물 속에 따서 이거 뭐 홍합 을 놓고 그때 홍합 양을 많이 넣지. 혼할 때니까. 쌀이 더 귀할 때니까. 넣고 막 가마솥에 가져가서 막 하든 인제 양념을 저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른들이 저저 지금 진간장 우리는 거 소유라 그러는데. 거다가 양념 한 거를 가지고 손바닥에다가 이래 밥을 밥을 식해 식해가면서 손에다가 이래 발라가지고 뜨거운 거를 이러면 참기름 고소한 게 안으로 이래 배가, 그래서 이래 주먹밥 으로 먹어.
 <p>딱깨비밥</p>	딱깨비밥	저 딱깨비 는 여기서 그렇게 죽을 끓여서 별미로 먹었는데. 언젠가부터. 딱깨비밥 은 생긴 게 얼마 안 됐어. 지금 울릉도 그거마저 고갈이 돼서 전부 육지에서 갖고 온다고.
 <p>오징어창대기국</p>	(오징어)내장탕, 오징어창대기국	오징어 흰창자 는 내장탕 을 하고 인자 누런 게 사실은 그게 인자 간유구거든요. 이래 호박 잎사귀라든지 이런 거 넣고 거 이러 거 국 끓이고 이래가 많이 합니다. 이래가 콩나물같은 거 넣고 오징어 내장탕 내주세요~ 이러면은 고걸 가 국 끓여줍니다.

33) 이 외에도 울릉도에서 주로 나는 것으로 다음의 것들이 있었다.

구분	명칭	제보자의 말
 오징어창대기젓	오징어창대기젓	예. 이 짜작하이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싹장도 만들고. 오징어창대기젓.
 누런창쓰래기찌개	오징어창대기탕, 누런창찌개, 누런창쓰래기찌개	간유구 라 그러지. 안에 전부 기름이라고. 어~ 기름인데 울릉도 사람들은 저것을 인제 그 누런 부분을 오징어 간 이죠. 간. 그걸 인제 먹통만 제거하고 그걸 소금에 절여 놔다가 절여 놔다가 겨울에 무청글은 거 인제 쓰레기 넣고 저걸 달여서 넣으면 엄청 맛있어요. 누런 걸 떠뜨려가지고 이래 다리든 기름 기름. 기름이라고. 거기에다가 인제 쓰레기같은 거 푹푹 울귀 놔다가 넣고 쓰레기가 물경물경할 정도까지 끓여가지고 여기 사람들 별미로 엄청 먹는다고. 여기서 누런창. 누런창찌개 라 그란다. 누런창쓰래기찌개 . 아마 그렇게 쓸 겁니다.
 도박무침	도박무침, 도박범벅	아래 말한 도박범벅 같은 거. 대항밥같은 거. 등개. 방앗간에서 나오는 뭐 등개. 등개떡같은 거.
 숫대항, 암대항, 대항밥	숫대항, 암대항, 대항밥	어. 인제 숫대항 이란 것은 인자 줄기가 줄기가 가늘고. 잎이 인자 넓지가 않고 잎이 좁으면서 가는 거. 가는. 가늘고 암대항 은 잎이 넓죠. 줄기 가지수가 적으면서 잎이 넓은 거 그걸 인자 암대항이라 해서. 인제 암대항이 맛있다. 숫대항이 맛있다는 것은 똑같은 맛인데 암대항 자체는 잎이 넓기 때문에 아마 그걸 싹으로도 싸기도 좋고 하니까 그것이 좋다는 사람이 있고 숫대항은 그냥 이래 무침을 해서 먹었을 때 좋다는. 아마 그런 뜻에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대항밥 같은 거.
 명이나물김치	뽕매이, 매이(맹이, 명이) ³³⁾ , 송곳매이, 산마늘 / 뽕이범벅, 명이조림	뽕매이 라 카는 거는 매이 가 올라오면 송곳매이매로. 송곳매로 요래 빼쪽 하게 올라옵니다. 고거를 울릉도 말로 송곳은 올라온다고 송곳매이 라고도 하고 뽕처럼 올라오니까 뽕매이라고도 카고 요기 인자 잎이 피면 잎매이라. 요렇게 올라오는 마늘종매이 올라오듯이 요래 올라와가 잎이 피며 잎 넓이가 요 정도 광은 되고 길이는 짧쭈하게 요렇게 되는데. 아이 여기는 뽕. 뽕이로가 저~ 음식을 만들어가 먹는 거는 극히 드물고 뽕이범벅 이라고 해가지고 혹시 인자 고 가루글은 거 떡 찌듯이 찌가 묵는 거 극히 드물고. 그거도 처음에 한두 번은 맛이 괜찮은데요. 옛날에 없을 때 그거 자주 먹으면 나중에 밀리는 기라. 그래 되고 지금도 이거 갖다 간장에 재려가 전부 육지로가 명이조림 캐가 이거 파는 거 있죠? 그래가 고기 종류, 육류랑 같이. 같이 곁들여가 먹으면 맛이 더 낫다고. 명 이 왜 명 이고 하 면 울릉도 사람들이 그때 봄에 한창 보릿고개 뭐 아무것도 먹을 거 없을 때 그 명 이로가 명을 잇아가 나갔다. 이래가 명이라. 그게 인자 산마늘 인데. 그래가 요즘은 그래가 먹는 사람 별로 있습니까. 전부.

‘뽕 부지깨이. 생 거 절이는 거 이런 거. 그 답에 귀해가 없어 그렇지 **곰대쓸이** 카는 기 있습니다. 육지에 가면 곰취 캐싸지요. 그거 하고 유사한데 그거하고 잎이 틀래더라. **곰대쓸이** 카는 긴데. **곰대쓸이** 카는 긴데 육지에 곰취하고 같다 이라는데 나는 육지에 곰취 나오는 거하고 보이 이래 좀 틀리더라고. 자체가. 고거도 그렇게 재리놓고 이라든 재리가 상 거를 싹. 생 거를 갖고 싹 싸먹어도 되고 산에서 나는 거는 울릉도 풀은 전부다 약초라고 이라는데 육지에 분들 관광 오잖아요. 가면 저 **돼지풀**이라고 울릉도 나오는 기 있습니다. 풀이 이래 한테 내 거 한일여관할 때 돼지풀을 한 보따리씩 뜯어가 오는 기라. 이거 와이러노 이거 다 버리라고. 여 울릉도서 **돼지풀**이라고. 다 못 묵는 기라고 버리라고 버리고 갔는데 육지 물어보니 그거 묵는단다.’

오징어 관련 음식을 표현하는 말을 김치, 젓갈, 국·탕류에 따라 제시하면 다음의 <표 23>과 같다.

<표 23> 오징어 관련 음식명³⁴⁾

구분		어휘 항목
음식	국, 탕류	내장탕, 오징어내장탕, 이까내장탕, 누런창찌개, 누런창스래기찌개
	김치	동김치
	젓갈	머르치젓갈, 창란젓갈, 창대기, 명란, 아감지젓, 꿀뚜기젓(갈), 새우젓갈 오징어젓갈, 누른창대기젓
	기타	오징어순대, 오삼불고기, 오징어회, 쌈장

34) ‘동김치, 명란’과 같은 음식은 오징어와 관련이 없지만 음식이라는 범주에서 정리하고자 함께 제시하였다.

9. 민속

9.1. 제의³⁵⁾

9.1.1. 고사 및 속설

1) 배고사, 동제, 초매식, 해신제, 당제, 어판장제

배의 안녕을 빌기 위해 지내는 제사를 ‘배고사’라 한다. 이러한 고사의 종류에는 대표적으로 ‘동제, 해신제’가 있다. 이 외에도 1월 1일에 수협에서 지내는 제로 새해 처음 위판을 하는 것을 기념하고 만사형통을 기원하는 제를 ‘초매식’이라고 한다. 이 날은 올 한 해의 순조로운 위판뿐만 아니라 풍어를 기념하는 제를 지내기도 한다. 한편, ‘동제’는 정월보름에 동네에서 지내는 제를, ‘해신제’는 3월 3일날 지내는 제를 말한다. 이때 두 번의 제를 지내는데 ‘어판장제’는 어판장에서 지내는 제로 바다의 안녕을 빌기 위해 지내는 제이고, ‘당제’는 해신을 모셔놓은 당에서 지내는 제를 말한다. 이러한 ‘해신제’를 지내는 장소이자 바다의 안녕을 빌기 위해 만든 공간을 ‘해신당’이라고 한다.

- ⇒ {배고사요}? / 거 우야다 보면 방향이 달리 가가지고 몬 잡는데 다 같이 여기서 잡아도 다 많이 잡는데 내리만 못 잡을 때도 안 있는 기라. 이럴 때는 뭘하면 {고사라도} 지낼 때 안 있습니까.
- ⇒ {시매제}. 시매. 풍어. 기원제로 바깥가지고 타이틀 바깥 그래 해봤어요.
- ⇒ 이 구월에서. 금년에는 어쨌든간 일월달에 고기 낚는데 우리가 {초매식} 때 고기가 없어가지고 생물이 없어. 일월일일 초매식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 이것도 내가 조합장 들어왔을 땐 초매식이라 카는 건 일본시대 때 하는 거든요. 그래서 이걸 {초매라} 하는 건. 첨 이제 경매를 시작한다는 건데 그래서 내가 이걸 갖다가 앞으로 초매를 갖다 쓰질 말자.
- ⇒ 해신제. 그 담 정월 보름날 동네에서 {동제} 지내고 그거밖에 없어.
- ⇒ 음력으로 삼월삼짇날. 울릉도에 여기 우리 동네에 해신제를 지내요. 해신제를 지내는데 해신제당이 두 군데가 있어. 해신당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그 당제를 지내고 오면은 유일하게 여 어판장 여기에서 일 년 어민들 뭘 풍어와 안전을 위해가지고 그 {어판장제} 저희들이 지내요.
- ⇒ 고사는 지역에서 지내는 아까 얘기했쥬. 삼월삼짇날. 그거는 인자 그 동네서 삼월삼짇날 {해신제} 모시거든.

9.1.2. 노래

울릉도에서 어부들이 배 안에서 작업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로 두 가지를 들을 수 있었다. 먼저 노를 저으면서 부르는 ‘아서라/어서라’라는 노래가 있었고, 오징어 잡이 도구인 ‘고꾸라’와 ‘사도’를 사용할 때 부르는 ‘꼬꾸리치기, 사도치기 힘참 바쁘다’라는 노래가 있었

35) 기초 어휘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간단하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자 한다.

다. 이 중 ‘아서라, 어서라’는 배의 노를 밀어줄 때 사용되는 구호로, ‘아서라’를 한 후 ‘어서라’로 다시 당겨 나아가고 있었다.

- ⇒ 이 사람들은 요 둘이 한장에하고 이물에 사람들은 힘대로 젖어만 주면 되고. 도모에 있는 사람 방향 조절하기를 이래 땡기기가. 어서주고 {아서라 어서라} 하는 거는. 물로 감아가 앞을 땡기면 배가 오른쪽으로 간다. 밀면 왼쪽으로 간다. 이런 방향에서 그 조정은 요게 선장이 다 하는 거지. {어서라는 인제. 당기다. 어서라는 어서라는 밀어라 아이가}.
- ⇒ 예. 요게 아주 날카로우니까. 그래서 요걸 사도라 그래. 사도. 사도 뭐 이래서 {고꾸라치기 사도 치기} 하는 말이 요거는 사도치기고 사도. 사도. 사도치기라고 사도치기. 인제 잡는다는 말을 사도로 잡는다는 거를 사도치기. 인자 고꾸라 하는 거는. 요 낚시가 어떻게 생겼나면 내가 이게.

어촌 관련 민속 표현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24>와 같다.

<표 24> 어촌 관련 민속

구분		어휘 항목
민속, 제의	고사	뱃고사, 동제(정월보름), 초매식(=초매, 새해 처음 위판하는 날), 해신제(삼월삼짇날, 당제/어판장제) 선화신당, 해신당
	노래	뱃노래(아서라/어서라) ‘꼬꾸리치기, 사도치기 힘참 바쁘다’라는 노래가 전해짐

‘오징어 잡이에서 덕장까지’의 조사 내용을 정리해서 나타내면 다음의 <표 25>와 같다.

<표 25> 오징어 잡이에서 덕장까지 조사 내용

구분	종류
행위자	선장(=센쪼), 막내이(=막내), 기관장(=기관쪼), 간판장, 아부라사시(=납박조수), 기관부, 본선원(=미나라이, 일반선원), 화장(=영양사(장난삼아)), 영자, 남방(=남박), 보싱(=보신), 조기장, 한장, 오끼야
행위자 행위	오징어바리(=이까바리(빠리), 초등바리, 가을바리, 동삼바리, 낫치기(=낫바리), 셋벌치기(=밤치기), 조모순이, 달치기, 해치기, 편지바리), 한치바리(=조기바리), 원양(바리), 당일바리(5~6시간 거리), 갯바리(1시간 거리), 중상바리 지따묵기(사륙제, 삼칠제, 고부고부), 무중바리, 배짖까리, 선장짖까리, 선원짖까리, 반짖까리, 부아끼(=부합) 명태바리(춘태바리), 콩치바리
배	목선, 통통배, 작은배, 기겟배(=철선), 냉동선, 잠수선, 밭동기(=동력선), 떼배(=뗏목), 간꼬, 무동력선, 풍선, 에프알피 야끼다마, 택택이(=착택이, 땡기작가) 배밀(배빨파리, 배발), 도다리, 바람풍, 꼬대기(=이물, 묘시), 선수, 선미(=도모, 윈도모, 오른도모), 한장, 땃, 물풍(=뚫풍), 놀쭈, 노직이, 풍기미, 땃간, 모야, 설상, 땃줄말때기, 묘시, 도모, 치구멍, 고무찌, 가라=용골, 부자리상, 치장술, 치, 놀손, 노파깨비(=놀딱개비, 노쌌), 노잎(=놀잎), 노우데, 오른도모꼬티, 윈도모꼬티, 풍, 큰풍, 적은풍, 아도줄, 땃줄 시라

구분		종류	
방법	과거 ~ 최근 30년 전까지	-	
	그 후	물품 놓기 ➡ 조류와 물품 맞추기 ➡ 채반 펼치기 ➡ 추 맞추기 ➡ 자동조상기 ➡ 선원 오징어 담기 ➡ 냉장실 보관 ➡ 조업 종류 ➡ 하역 ➡ 수업 위판 ➡ 상자 비우기	
조류		셋물 만물 이숫물, 마발물 들물, 새발물, 셋물 이숫물 가다, 들물 했다, 셋물 가다	
의복 및 기타		갑빠, 설피, 털모자, 밀짚모자, 항구(밥통, 밥뺨또)	
도구	보조도구	간고, 도마(새때기 익새풀), 와사등, 휘발유등(=석유등), 호야불, 풍기미, 간수등, 학꼬(=자기통, 오징어통, 오징어낙수통, 어구통), 경심	
	덕장도구	오징어대(=이깎대, 꼬쟁, 꼬창, 꼬창가리, 탱깃대, 탱기), 리아카	
	채낚도구	꼬꾸라, 고꾸라 (꼬꾸라치기)	원줄, 낚, 낚시바, 선채, 대나무 (* 현재는 한치 낚시로 사용)
		사도 (사도치기)	사도, 전기사도, 마끼도래, 용끼도(4개), 니끼도(2개), 시울, 원줄, 목줄, 경침, 철사, 사기, 낚시
		돔보	사기, 낚, 원줄, 유단천, 낚시바늘
		로라	로라다이, 촛돌, 낚시줄, 손잡이, 사각물레, 팔각물레, 낚시
		산자꾸, 산자꼬	낚시채, 낚시줄, 줄
		조상기	-
		기타	조상기, 탱기대, 로라낚시, 이늘, 미늘, 편지마리, 이깎대, 일본조(=채낚기, 니뿐조), 거일제낚시(=오징어낚시)
	발전 과정	고꾸라 ➡ 사도 ➡ 돔보 ➡ 로라 ➡ 산자꾸 ➡ 날나리 ➡ (자동)조상기	
행위		탱기치러 간다, 탱기 친다, 오늘 작업되겠다, 통배 탔다/만선 했다, 갯 꼽았다	
오징어명칭	종류	이까, 수루매, 낮오징어(40~50m), 살오징어, 먹통, 조기(=한치), 솟조기/알조기, 대포(=대포알, 조기), 피통어골뚜기(=이까, 오징어), 갑오징어, 동삼지기, 낮이까(=낮오징어), 저장오징어, 피데기, 겨울오징어, 선망오징어, 노직기, 한직기	
	부분명	덕걸이, 귀태기(=귀매기, 귀), 몸통(=몸띠, 몸), 발, 빨판, 물총, 다리, 종지(=종지기, 긴다리), 짧은다리, 창대기(=흰창대기, 흰창자, 흰창), 누런창대기(=똥창, 누런기, 누른창, 간, 난유기), 오징어간, 눈까리(=눈), 입(=조디), 똥, 먹통	
	크기	초등오징어, 한직기, 도직기, 앵치 초등오징어(=초물) < 굵은오징어 < 한직기(=한물) < 도직기 < 동삼오징어	
	상태	아사히찌(붉은오징어), 요이찌(흰오징어)	
	기타	할복 ➡ 이깎대 끼우기 ➡ 리아카로 덕장에 실어주기 ➡ 세척 ➡ 지게(바지게, 바소고리)에 이까 싣기 ➡ 20마리씩 나누기 ➡ 중꼬지 20마리씩 나누기 ➡ 탱기 치기 ➡ 배 띄기 ➡ 발 띄기 ➡ 귀 추기 ➡ 말리기 ➡ 귀 뒤배기 ➡ 귀 넓히기 ➡ 발땀굽치 훑기 ➡ 말리기 ➡ 축 지기 ➡ 짹 짓기 (* 선주 8마리, 선원 12마리 가짐)	
음식		오징어(=내장탕, 오징어내장탕, 이까내장탕), 누런창찌개, 오징어순대, 오삼불고기, 오징어회, 쌈장, 누런창스래기찌개, 오징어간(=어간)	
상태		잘다, 분이 핀다, 씨 자빠졌다	
장소 및 시기		낮(130m이하) 저녁(120~130m) 저녁 ~ 밤[불 켜 후](60~80m) 6월~2월 / 9월~1월, 초매식(1월 1일) 조무시기(새벽에뜨는별), 셋별, 북두칠성, 셋별치기, 조모순이, 달치기, 해치기	
단위명사		1꼬지(대자 20마리, 중자 30마리 한 상자), 축(20마리), 짹(크기에 따라 60~120마리), 바리(100축)	

구분	종류
민속	‘꼬꾸리치기, 사도치기 힘참 바쁘다’라는 노래 전함 초매식(일월 일일), 해신당, 선화신당, 해신제(삼월삼진날), 동제(정월보름)
관용 표현	동지 팔죽 먹으면 오징어 환갑이다(끝물이다) 도직기, 초등오징어 오래 보관 못한다 동지가 오징어 환갑이다 오징어 텃다 오늘은 셋날이다 내일 오징어 적게 난다 셋바람 불면 오징어 적게 난다 오징어는 버릴 게 없다

제 3 부

연 구 결 과

제 5 장 마 무 리

제 5 장 마무리

지금까지 동해안 지역인 울릉도 지역의 민족생활어 조사의 일환으로 어촌 생활과 관련한 어휘를 살펴보았다. 울릉도 지역에서는 크게 두 주제로 나누어 조사하는데 하나는 오징어 잡이와 관련된 생활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잡아온 오징어를 상품으로 만드는 덕장에서 사용하는 어업 생활어이다. 두 주제로 나누었지만 사실 이는 하나의 큰 주제인 ‘어업 생활어’에 속한다. 즉 ‘오징어 잡이에서 덕장까지’의 각 단계별로 사용되는 생활어를 그 조사 대상으로 한다. 조사를 위해 이를 대표할 수 있는 직업인 ‘어부’와 ‘덕걸이(오징어 거는사람)’를 그 대상으로 했다. 본 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제보자는 몇 대에 걸쳐 그 지역에서 생활한 사람 또는 울릉도에서 40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모두 어촌 생활을 40~80년 이상 하였다. 이러한 제보자의 배경으로 인해 생동감 있는 생활어를 현장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조사를 위해 우선 문헌에 나타난 어촌 생활어의 개념을 통해 이 지역의 어촌 생활어 개념을 살펴본 후, 오징어 잡이와 덕걸이를 직접 하는 울릉군 울릉읍, 서면, 북면 지역의 제보자를 통해 장소, 도구, 어획물의 종류, 어로 생활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12일 간 제보자들과 함께 어촌에서 생활하면서, 어로 생활의 방법과 그에 해당하는 어휘의 명칭도 조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어휘의 명칭뿐만 아니라 관용표현도 자연스럽게 채록할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어로 생활과 관련된 행위와 금기 사항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오징어의 좋은 맛과 상태에 관한 표현으로 ‘동지 팔죽 먹으면 오징어 환갑이다(끝물이다), 도직기, 초등오징어 오래 보관 못한다, 동지가 오징어 환갑이다, 오징어가 텃다, 오징어는 초저녁에 잡으면 맛이 없다(상했다), 오징어 잡을 때 곱새기 만나면 허탕이다’가 나타났다. 또 어업 행위와 관련된 표현으로는 ‘오늘은 셋날이다 내일 오징어 적게 난다, 셋바람 불면 오징어 적게 난다, 조금 보러 간다, 통배 탔다, 깃 꽃았다’와 같은 표현이 나타났다. 이 외에도 어류의 맛과 상태에 관한 표현으로 ‘제사에는 ‘치’자 달린 고기 못 올린다, 여름 문어는 개가 쥐도 안 먹었다, 방어는 가을방어여야 한다, 불가사리가 깔고 있으면 탄 고기가 못 온다, 물애(물애) 저녁 묵나, 고기도 잘 생긴 것이 맛이 더 있다, 쿡 먹으러 왔다(심장 먹으러 왔다)’가 나타났다. 한편 ‘비 오는 날 뱃놈은 있는 집 개보다 못하다,

그 갑, 갑바 입고 또 장화 신고 설치니까 부잣집 개보다 모하다'를 통해 어부의 처량한 신세를 표현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오징어 또는 고기 잡이와 관련된 비유적 표현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울릉도 지역의 어부들의 지혜와 감각적인 언어 사용의 면을 엿볼 수 있었다.

2) '어민' 또는 '뱃사람'은 어로 활동을 하는 직업으로 이는 '명태잡이, 쫄치잡이, 오징어잡이' 등을, 또 '선장'과 '영자, 막내이, 화장, 남바, 보신'을 모두 포괄하는 상위 범주이다. 한편 덕장에서 행위자를 나타내는 표현에는 '오징어거는사람'만이 나타났는데 이는 어부가 이러한 일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행위자는 이처럼 무엇을 잡느냐와 그 사람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에 따라 명칭이 분화되어 나타났다.

3) 바다를 가리키는 명칭은 거리에 따라 또 깊이에 따라 분화되어 나타났다. 우리는 흔히 가까운 바다를 '근해'라고 한다. 이 지역에서 나는 오징어인 '도직기'가 나는 바다를 이 지역에서는 바로 앞에 있는 바다라는 의미에서 '앞바다', '이쪽바다'를, 또 해안가에 위치한다는 의미에서 '잘', '가새'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한편 이와 반대되는 의미로 해안과의 거리가 먼 바다를 그 의미 그대로 '먼바다', '저바다'로 표현하기도 했다.

4) 오징어가 많이 잡히는 시기를 제보자들은 '한직기'라고 했다. 이 '한직기'는 가을과 겨울 사이를 가리키는데 그래서 이를 잡는 행위를 '겨울바리, 동삼지기' 또는 '가실바리, 가을바리'라는 말로 나타내고 있었다. 또 오징어가 처음 잡히는 시기를 '초등바리, 사꾸라지기'라고 했다. 이러한 표현을 살펴보면 '사꾸라지기'를 제외한 나머지 표현은 모두 오징어를 나타내는 표현인 '초등, 초물, 한직기, 도직기'에서 나온 말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제보자들은 '도직기, 초등오징어 오래 보관 못한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는 이때 나오는 오징어의 상태가 좋지 못함을 말한다. 옛날부터 동지가 지나면 오징어가 늙어 맛이 없다는 의미로 '동지 팔죽 먹으면 오징어 환갑이다(끝물이다), 동지가 오징어 환갑이다'가 쓰이고 있었는데 이러한 말로 인해 '동지바리'라는 말도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제보자들은 오징어를 잡기에 좋은 날을 '바다가 잔잔할 때, 셋바람이 안 부는 날'이라고 표현했다. 한편 '조무시기, 조모순이, 셋별치기, 달치기, 해치기'는 오징어 잡이를 하는 때에 따라 나타난 말인데 모두 오징어를 잡는 시간과 관련된 행위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래서 '조무시기, 조모순이, 셋별'을 통해서는 작업 시기가 새벽임을, '달, 해'을 통해서는 밤임을 의미하고 있었다.

5) 어판장에서 덕장으로 가져온 오징어를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몇 달의 시간과 여러 과정이 들어간다. 이 중 가장 처음의 과정에 속하는 '할복'과 '세척', '이깎대 끼우기', '바지계에 싣기'는 모두 '어판장', '축강'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씻은 오징어는 운반 과정

을 거쳐 ‘덕장’으로 가는데 이 후의 모든 과정은 여기에서 이루어진다. ‘덕장’이라는 말은 ‘덕’이 있는 장소라는 의미를, ‘어판장’과 ‘축항’이라는 말은 고기를 사고 파는 곳 또는 항구를 가리키는 말이다. 오징어를 말르는 과정은 주로 12월 중순에서 3월 초에 이루어진다.

6) 어촌의 대표적인 운송 수단은 ‘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는 어촌 생활의 변화와 같이 변천되어 왔는데 그 결과 다양한 종류와 모양의 배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계배의 등장으로 풍선의 모습을 찾기 어려운데 이러한 점에 초점을 두어 풍선의 명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풍선은 그 부분에 따라 사용되는 나무가 다양했다. 먼저, 이 지역에서는 배는 ‘수기나무’ 또는 ‘삼나무’로 만들었는데 이는 ‘뜰삼’이 좋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중 ‘노’는 그 형태에 따라 ‘조선놀’과 ‘일본놀’로 구분되는데 ‘일본놀’은 ‘조선놀’과 달리 가늘고 긴 것이 특징이다. 풍선을 이 지역에서는 ‘돛단배’, ‘목선’, ‘간꼬’라고 한다. 상부구조가 없고 돛대가 두 개가 설치된 나무로 만들어진 소형 선박을 말한다. 이처럼 돛을 단 배를 작다는 의미에서 ‘작은배’라고 하고, 바람으로 간다는 의미에서 ‘풍선, 무동력선’이라고 한다. 또 나무로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목선’으로 말해지고 있었다. 이러한 돛배는 근해에서 하는 소규모 어로 활동에 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배들은 그 길이에 따른 명칭, 또는 돛대에 따른 명칭은 따로 존재하지 않았고 재료와 그 특징에 따라 분화되어 나타났다. 이 외에도 ‘택택이, 착택이, 통통배’와 같은 명칭이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엔진의 소리를 통해 배의 명칭이 분화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엔진을 통해 배를 나타내는 ‘야끼다마, 땡기작가’라는 명칭도 나타났다.

이러한 배의 부분은 그 위치에 따라 가리키는 말이 달랐다. 먼저, 배 앞 부분을 가리키는 말에는 ‘묘시’와 ‘이물’, ‘선수’가 있었고, 반대로 배 뒷부분을 가리키는 말에는 ‘고물’과 ‘후미’, ‘선미’가 있었다. 이러한 명칭은 순우리말로 부르기도 했는데 그래서 ‘묘시’ 대신 ‘배앞’을, ‘도모’ 대신에 ‘배뒤’를 말하기도 했다. 한편 배 위 갑판을 가리키는 말에는 ‘한장’이, 배 밑 바닥을 가리키는 말에는 ‘배빨다리, 배발’이 나타나고 있었다. 또 배는 배 가운데 밑바닥의 넓은 나무 부분을 ‘가라, 용골’로, 배 밑 좌우 가장자리에서 판을 댄 널판을 가리키는 말은 ‘삼’으로, 이러한 ‘삼’ 중 배의 양 옆쪽에 위치한 삼은 ‘옆삼’으로 말하고 있었다. 또 배 옆부분을 ‘선채, 본채’라고도 한다. 한편 ‘도모’는 그 위치에 따라 왼쪽에 있는 것은 ‘원도모’로 오른쪽에 있는 것은 ‘오른도모’라고 한다. 한편 도모의 오른쪽 합판은 ‘오목까지’로, 도모의 왼쪽 합판은 ‘도로까지’라고 한다. 이 외에도 배의 각 구역을 ‘부자리상, 꼬대기, 모야, 설상’으로 말하는데 이러한 배의 모양과 놓여진 형태에 따라 분화되어 나타났다. 또 돛대를 세우는 도모의 양쪽에 있는 것으로 돛대를 세우는 받침대 역할을 하는 것을 ‘활가지’라고 한다. 용충줄이 달려있는 기둥은 ‘용충’으로, 돛풍은 ‘도풍’, ‘풍’이라고 한다.

‘돛’은 다시 그 크기에 따라 ‘큰돛’과 ‘적은돛’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둘을 합쳐 두 개의 돛이라는 의미에서 ‘양호돛’이라고 했다. ‘돛대’도 이러한 돛의 크기에 따라 ‘큰돛대’와 ‘적

은뿔대'으로 구분되었고 '풍' 역시도 '큰풍'과 '적은풍'으로 구분되었다. 이 외에도 '노' 또는 '놀'이 결합된 배의 부분 명칭이 많았는데 '놀손, 놀, 놀쫓, 노직이, 노썸, 노잎, 노우데, 노 딱개비, 노파개비'가 있었다. 이들은 모두 노의 모습과 그 기능을 암수의 역할에 비유한 것이다. 이 외에도 배의 방향을 잡는 키의 자루, 즉 손잡이를 '창손, 창술'로, 키를 조정하는 창손의 나무 부분을 '창손대'라고 한다. 또 배를 조정하는 키를 '치'라고 했다.

배 안의 여러 개의 공간으로 구분되어지는데 이 공간들은 각자 그 기능과 성격을 지닌다. 먼저, 선장이 머무르는 공간을 '선장집'으로, 기관장이 머무르는 공간은 '기관실'로, 선원들이 자거나 쉬는 공간은 '배칸'이라고 한다. 이 외에도 땀을 두는 공간은 '땀칸'으로, 고기를 넣고 보관하는 공간으로 '이깨수칸'이 있다. 한편 풍선의 경우 오래 사용을 하면 배의 판자가 벌어져 물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물집'으로, 이를 나무나 천으로 막기 위해 덧대는 것은 '뱃밥'으로 나타났다.

7) 바다에 나가기 위해서 어부들은 옷을 잘 챙겨 입었는데 이 지역에서는 지형적인 특성으로 특별한 옷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대신해 '도마'라는 것이 나타났는데 이는 '사태기'와 같은 싸리나무를 이용해 만든 것으로 비나 눈이 오면 그 위에 걸치는 것이다. '도마'는 '간꼬' 위에도 걸쳐두는데 이는 배 안에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최근 옷 위에 덧입는 것으로 방수용으로 된 것을 '갑바'라고 하는데 이러한 '갑바'는 '갑빠'로도 나타나고 있었다.

8) 예전에 울릉도에서 명태가 많이 날 때에는 그물을 쳐 놓고 고기 떼가 지나가면서 걸리도록 한 그물을 사용하기도 하고, 주낙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물바리'라는 말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꽁치바리'에만 이 그물이 사용되고 있었다.

한편, 낚시와 같은 말을 이 지역에서는 '낙수, 낚수'라고 했다. 이 중 이 지역에서는 '낙수'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낙싯대'는 낚시를 쫓는 대나무대를 가리키는 말로, 낚수를 연결하는 줄을 '원줄'로 나타났다. 지금은 철 모양의 단자를 이용하지만 예전에는 사기로 된 단자에 벨벳과 같은 천을 씌워 사용한 '사도'를 오징어 낚시에 사용했다고 한다. '사도'는 '사도, 전기사도, 마끼도래, 용끼도, 니끼도, 시울, 원줄, 목줄, 경침, 철사, 철사, 사기, 낚시'로, '고꾸라'는 '원줄, 낚, 낚시발, 선채, 대나무'로 그 부분 명칭이 나타났다. 이 중 '용끼도'는 낚시를 4개를 단 것을, '니끼도'는 낚시를 2개를 단 것을 말한다. 오징어 낚시 도구는 가장 먼저 나온 '사도'를 중심으로 '사도 ➡ 고꾸라 ➡ 산자꾸 ➡ 날라리 ➡ 조상기'로 발전하였다.

9) 오징어를 너는 장소를 '덕장'이라고 한다. 이 덕은 세로로 세워진 나무 기둥과 가로로 세워진 나무 기둥이 중심을 이루는데 세로로 세워진 기둥은 힘을 받는 기능을 하고 가로로 세워진 기둥은 오징어를 너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요즘은 철로 만들어진 덕 위에

‘증꼬지’를 놓아 오징어를 말리고 있었다. 이러한 ‘꼬지’는 ‘오징엇대, 이깃대, 꼬쟁, 꼬창, 꼬창가리, 탱깃대, 탱기’로도 나타났는데 오징어의 귀 밑에 꽂는 것은 ‘이깃대, 꼬쟁, 꼬창, 꼬창가리’로, 발 사이에 꽂는 것은 ‘탱깃대, 탱기’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 외에도 ‘바지개, 리아카, 긴장화’가 사용되었고 비가 올 때 오징어를 말리는 공간은 ‘불통, 불건조장, 건조장’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도구 사용으로 인해 ‘땡기 치러 간다, 땡기 친다, 오늘 작업 되 겠다’와 같은 표현도 찾아볼 수 있었다.

10) 오징어는 이 지역에서 ‘이까, 수루매’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오징어는 어종 또는 크기, 상태, 특징, 잡는 시기, 사용 용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었다. 어촌에서는 오징어를 언제 잡느냐에 따라 ‘동삼오징어, 겨울오징어, 여름오징어, 낮오징어’로 나누어지기도 하고, 어획도구에 따라 ‘선망오징어’로 나누어지기도 했다. 또 상태에 따라 ‘떡통, 피둥어골뚜기, 요이찌, 아사이찌’로, 또 암수에 따라 ‘숫조기, 알조기’로, 그 특징에 따라 ‘대포, 살오징어, 저장오징어, 한직기, 도직기’로 나누어지기도 한다. 이처럼 오징어는 다양한 명칭으로 분화되어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 중 크기에 따른 명칭 ‘대, 중, 소’가 나타나기도 했는데 이는 오징어 외에 다른 어류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또 오징어는 그 상태에 따라 일반적으로 ‘피데기, 건오징어’로 명칭이 달리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지역에서는 이러한 일반적인 명칭 외에도 ‘조기, 노직기’라는 것이 사용되기도 했다.

또 배 안에서 사용하는 부대비용, 즉 선중으로 사용하는 것을 ‘무중바리, 공동바리’라고 한다. 이 중 선장이 가져가는 것은 ‘선장짓까리’로, 선원이 가져가는 것은 ‘선원짓까리’로, 배의 비용으로 배가 가져가는 것은 ‘뱃짓까리’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 외에도 ‘삼칠제, 사륙제, 고부고부’와 같은 그 배당의 비율을 나타내는 표현도 살펴볼 수 있었다. 한편, 울릉도에서는 덕장에서도 어촌과 동일하게 오징어의 명칭이 나타났다.

11) 울릉도 어부들의 일상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어로도구 손질, 오징어 잡이, 오징어 건조’로 볼 수 있다. 고기잡이를 하기 전에는 낚시를 정리해야 하는데 이는 주로 어부들이 담당한다. 부녀자들과 집안 식구들이 함께 잡아온 오징어를 정리하고 이를 손질한 후 손수레로 실어 덕장으로 가져놓는 일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울릉도의 어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오징어를 잡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에는 ‘오징어바리’가 나타났다. 이는 다른 말로 ‘이까바리, 이까빠리’라고도 한다. 이 외에도 ‘한치바리, 조기바리’도 나타났는데 이는 오징어의 한 종류이지만 오징어를 포괄해서 나타내는 말로도 사용되고 있었다. 낮에 오징어를 잡는 행위는 ‘낮치기, 낮바리’로, 밤에 오징어를 잡는 행위는 ‘셋별치기, 별치기, 밤치기, 조모순이, 달치기’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 중 ‘밤치기’는 달이 뜨는 11시나 12시에 오징어를 잡는 행위를 가리켰다. 또 해가 떠 오르기 전에는 ‘해치기’로, 밤에 오징어를 잡는 행위는 ‘셋별

치기, 별치기, 달치기'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어로 행위를 하루 표현과 관련지어 나타내면 '해치기 ➡ 식전, 새벽 ➡ 동이 뜬다, 아침, 아침나절 ➡ 점심, 한낮, 한나절, 낮치기, 낮바리 ➡ 참때 ➡ 초저녁 ➡ 저녁, 어둠사리 낚다, 저녁나절 ➡ 밤 ➡ 밤중, 달치기 ➡ 별치기, 셋별치기'로 볼 수 있다.

오징어를 덕장에 걸어 말려 상품으로 만드는 일을 '덕장 한다'라고 한다. 이러한 덕장의 일을 과정대로 나타내면 '오징어를 덕장에 걸어 말리고 건조해 상품을 만드는 일을 '덕장 한다'라고 한다. 이러한 덕장의 일을 과정대로 나타내면 '할복 ➡ 이깃대 끼우기 ➡ 리아카로 덕장에 실어주기 ➡ 세척 ➡ 지게(바지게, 바소고리)에 이까 신기 ➡ 20마리씩 나누기 ➡ 증꼬지 20마리씩 나누기 ➡ 탕기 치기 ➡ 배 띄기 ➡ 발 띄기 ➡ 귀 추기 ➡ 말리기 ➡ 귀 뒤배기 ➡ 귀 넓히기 ➡ 발뚫굽치 훑기 ➡ 말리기 ➡ 축 지기 ➡ 짹 짓기 ➡ 상품 출하'로 볼 수 있다. 이 중 '짹 짓다, 짹 찌우다'는 오징어를 '대, 중, 소'에 따라 60에서 120마리씩 묶는 것을 가리킨다. 이 지역에서는 '소'자는 110~120마리를, '중'자는 80~90마리를, '대'자는 60~70마리를 짹을 지어 사용하고 있었다.

12) 일반적으로 오징어를 이용한 음식은 우리에게 익숙한 서민음식이다. 우선 오징어는 그 부분에 따라 명칭이 분화되어 나타났는데 '귀태기(귀때기, 귀), 몸통(몸띠, 몸), 발, 다리, 종지(종지기, 긴다리), 짧은다리, 창대기, 흰창대기(흰창자, 흰창), 누런창대기(똥창, 누런기, 누른창, 간, 난유기, 오징어간), 눈까리(눈), 입(조디), 똥, 먹통'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두 음식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음식 재료로 오징어의 대부분이 사용되고 있었는데 이를 울릉도 주민들은 '오징어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라는 말로 나타내었다. 음식명에도 새로운 어휘를 찾아 볼 수 있었는데 특색있는 음식명으로 '내장탕, 오징어내장탕, 이까내장탕, 오징어탕', '누런창찌개, 누런창스래기찌개'로 나타났다. 오징어 외에 이 지역에서 많이 나는 것 중 하나로 바위에 딱 붙어 삿갓 모양을 지닌 조개 '따개비, 딱개비'가 있었는데 '따개비죽'과 '따개비밥, 따개비칼국수'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 외에도 '명이절임, 명이김치, 도박범벅, 감자밥'도 나타났다.

13) 배의 안녕을 빌기 위해 지내는 제사를 '고사, 뱃고사'라 한다. 이러한 고사의 종류에는 대표적으로 '동제, 해신제'가 있다. 이 외에도 1월 1일에 수협에서 지내는 제로 새해 처음 위판을 하는 것을 기념하고 만사형통을 기원하는 '초매식, 초매'가 있었다. 이 날은 올 한해의 순조로운 위판뿐만 아니라 풍어를 기념하는 제를 지내기도 한다. 한편, '동제'는 정월보름에 동네에서 지내는 제를, '해신제'는 3월 3일날 어판장에서 지내는 제를 말하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바다의 안녕을 빌기 위해 해신에게 지내는 제였는데, 해신을 모셔놓은 당으로 바다의 안녕을 빌기 위해 만든 공간을 '해신당'이라고 했다.

한편, '뱃노래'로는 노를 저으면서 부르는 '아서라/어서라'라는 노래와 오징어 잡이 도구

인 ‘고꾸라’와 ‘사도’를 사용할 때 부르는 ‘꼬꾸리치기, 사도치기 힘참 바쁘다’라는 노래가 있었다.

울릉도 지역의 ‘오징어 잡이에서 덕장까지’의 통해, 본 조사는 다음과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이제까지 어촌 생활어는 그 중요성에 비해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수산업 쪽에서 연구된 배의 명칭과 어류의 명칭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이번 조사는 이러한 기능적인 측면만이 아닌 다양한 각도에서 조사했고 이러한 조사로 인해 어촌 생활어와 관련한 다양한 어휘와 관용표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본 조사 대상인 ‘오징어 잡이에서 덕장까지’는 오징어를 잡기 위한 준비단계인 낚시 손질부터 이를 다시 덕장에서 상품을 만드는 각 단계별로 사용되는 생활어를 채록할 수 있었다.

2) 모든 조사가 제보자의 구술발화로 진행되어 그 지역의 미세하고 다양한 방언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울릉도 지역을 세분화하여 구분하였는데 이를 통해 울릉읍, 서면, 북면 지역 해안의 방언형을 함께 살펴볼 수 있었다. 이처럼 방언이 반영된 전문용어를 다수 고찰함으로써 인해 앞으로의 방언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그 동안의 연구가 민속학적으로만 치우쳐 있었는데 이번 조사를 통해 어촌 생활어라는 개념을 명확히 할 수 있었다. 어업과 어부의 개념과 어촌의 배경에 대해 살펴본 후 환경, 어획물, 어획 도구, 행위에 관한 어휘를 조사함으로써 울릉도 지역의 어촌생활어 어휘망을 구축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실질적인 어휘 조사는 우리 민족과 역사를 같이 한 ‘어촌’에 대한 생활어를 알아볼 수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소멸 위기의 어촌 생활어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가질 것이다.

4) 조사된 어휘의 『표준국어대사전』 등재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표준국어대사전』의 설명을 점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뜻풀이를 보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조사 결과물을 조사 어휘, 음성 자료, 사진 자료, 동영상 자료로 정리하여, 전자사전 형식의 『민족 생활어사전』 편찬의 자료로 구축하였다.

그러나 ‘오징어 잡이에서 덕장까지’에 대한 조사는 분명한 한계점을 지닌다. 지금까지의 조사와 연구에 대한 반성은 다음과 같다.

1) 방언에서 유래한 전문 용어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어휘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앞으로는 체계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방언이 반영된 전문 용어의 어원과 변화 과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2) 어촌 관련 생활어 역시 다른 다양한 직업에서는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의 조사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어휘 분류와 뜻풀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울릉도 지역의 다수의 제보자를 선정했지만 지역적 한계와 제보자의 한계로 인해 이 어휘들이 특정 개인어가 아닌 생활어라는 점에서 보면 아쉬운 점이 남는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느 특정 지역에 국한된 조사가 아닌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제보자를 고려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주제 설정으로 인해 여성 제보자가 없다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에 대한 부분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한 개인의 생활어, 한 직업의 생활어, 한 지역의 생활어의 한계를 뛰어 넘어 민족생활어로서 자리를 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2004), 동해 오징어 30년,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
- 국립수산과학원(2006), 울릉도의 해양과 수산,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
- 김지숙(2009), 어업 생활어와 장인의 말, 글누림.
- 김지숙(2011), 2011년 민족생활어 조사-명태 잡이에서 덕장까지-, 국립국어원.
- 강정희·김지숙 외(2012), 2012년 민족생활어 조사-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국립국어원.
- 남경란(2003), ‘울릉군 방언 연구-어휘를 중심으로’, 울릉도, 동해안 지역의 방언과 구비문학연구, 영남대 출판부.
- 남경란(2005), ‘어촌 경제생활과 관련한 어휘 연구-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울릉도, 동해안 어촌지역의 생활문화연구, 경인문화사.
-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1999), 한국민속종합 조사보고서, 국립문화재연구소.
- 민족문화연구소(1998), 울릉도·독도의 종합적 연구,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 박기성(1996), 울릉도, 대원사.
- 박성중, 전해숙(2009), 한국 방언 사전, 태학사.
- 박종갑(1998), 울릉도 지역 방언에 대한 실태 조사1, 한민족어문학 33.
- 박종갑(1999), 울릉도 지역 방언에 대한 실태 조사2, 한민족어문학 34.
- 박창원(2006), 방언 영남6, 우리마당터.
- 서원섭(1982), 울릉도 민요와 가사, 형설출판사.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1977), 한국동해의 해양환경과 어업자원, 동양문화인쇄주식회사.
- 여영택(1982), 울릉도의 전설 민요, 정음사.
-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2005), 울릉도, 독도의 종합적 연구.
- 영남대 출판부(2003), 울릉도, 독도, 동해안 주민의 생활구조와 그 변천 발전, 영남대 출판부.
- 울릉군(1989), 울릉군지. 학원인쇄사.
- 윤서석(1999), 우리나라 식생활 문화의 역사.
- 이원식(1991), 한국의 배, 대원사.
- 정석호(2007), 경북 동남부 방언사전 -영천, 포항, 경주-, 글누림.

주강현(2009), 울릉도 개척사에 관한 연구: 개척사 관련 기초 자료 수집.

최동주(1999), '울릉도말의 어미-북면 천부리의 말을 중심으로', 언어의 역사, 성백인교수
정년퇴임기념논문집, 태학사.

최명옥, 김주승(2007), 경주지역어 텍스트, 역락.

최학근(1990), 한국방언사전, 명문당.

한영균(1984), '강원, 경북 울릉, 제주방언의 현지조사과정과 반성', 방언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부 록

02 울릉도 오징어 잡이에서 덕장까지 조사어휘(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음량명	발음 정보	품사	뜻풀이	유래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어업	기타	관용표현(금기)					원표제어 표준어	배를 처음 지었을 때 어저는 안 태 운다		관	배를 처음 짓고 하는 의식을 진수식이라고 하는데 이때 배에 어저는 태운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부정을 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갈리는 사람들은 혹시 그런기 옛날에는 그 랬는지 몰라도 지금은 그러는 위 기제. {배 를 처음 지었을 때 어저는 안 태운다(진수) 하는데 이때 배에 어저는 태운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부정을 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 안 태운다. 그때 뭐 되지 잘고 장지 하고 그랬는데 그래 했을 때 처음에 할 때는 어저 를 안 태웁니다. 음 가.		박봉식(울릉도)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어업	기타	관용표현(금기)						배에다가 어저 한 사랑 실지 마라		관	뱃사랑이 금기시하는 일 중의 하나이다. 배 다를 갈 때 어저를 배에 실으면 그 뱃 사랑은 실지 마라. 재수가 없다는 말이다. 즉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 호망을 듣다는 의미이다.	그때 뭐 그런 부경시키는 부받은 무면 {배 에다가 어저 한 사랑은 실지 마라}. 그 다를 갈 때 어저를 배에 실으면 그 뱃 사랑은 실지 마라. 재수가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뭐 안 태워줄 수도 없고 뭐 그래서 고기가 안 잡히는지 나도 안 잡히더라고. 이 어촌 계층이고부터는.		강영길(울릉도)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어업	기타	관용표현(금기)						새복에 어저가 지 나가면 작업 안 나간다		관	뱃사랑이 금기시하는 일 중의 하나이다. 배 다를 갈 때 어저를 배에 실으면 그 뱃 사랑은 실지 마라. 재수가 없다는 말이다. 그 날 하루 재수가 없다는 말이다.	그 뱃 사랑을 들고 갈 때 {새복에 얹어 어저가 지나가버리니까 작업을 안 가버리더라고}.		강영길(울릉도)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어업	기타	관용표현(공지)						출당까지 없는 게 장사란		관	장치는 장는 것은 횡인데 파는 것은 설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주인 없는 개를 파는 것과 유사하다는 말이다.	그때 이 사람들이 밤 세도록 잠여와 가지고 외서 판다가 없잖아. 이 사람들 그냥 좌요. 그 여 앉아가 파는 사람. {출당까지 없는 게 장사라}. 지금까지 형태는 그래 왔다고. 개 를~ 졸도 없이 그냥 팔리가 판다 카는 게 아니면 뭐 그런 어떤 임진도 안 들어고 개가 갈거리에 있는 걸 판다. 이런 뜻이겠조.		김성호(울릉도)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어업	기타	관용표현(바람)						바다 쪽에서 횡하 게 일 때 흑새가 터진다		관	바다가 환해지면 흑새바람이 온다는 말이 다. 각자기 어둡은 바다가 환하면 큰 바람이 오니 조심하라는 말이다.	미신같은 거는 뭐 다른 거는 없고 예 바다에 서 일어나는 거는 예를 들어가지고 바다 조 개 시커먼 구름이 위에도. {바다 쪽에서도 약 한뼘 정도는 환하게 일 때는 바람이 흑새 가 터진다}. / 바다 밑에. 이. 예를 들어 갯 장했다가 바다 밑에 갑작스러 팍 들리면서 흑 터지면서 어는 광장이 텅만 말이예요. {이 환하게 터졌을 때 새까만 구름이 우도 많이 었을 때는 흑새가 터진다}. 그때는 뽕 린 창칼 재바를 해가 들어오는 거요.		김성호(울릉도)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어업	기타	관용표현(바람)						셋날 불면 작업 되겠다		관	배가 바다로 가기 전에 어부들은 매일 새벽 하루 청기를 부는데 이때 북쪽에서 오는 바 람이 셋바람이 불면 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바다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두렵 는 바람이 셋바람인데 그래서 이 지역에선 오래도 경수, 영덕, 추동진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셋바람이 불면 비가 와 배가 전복될 수 있다는 말이 다.	다른 건 쓰는 거 없어요. 아 아 아가 셋날 부 는. 오를 뭐 이 작업 되겠다 이런 말은 쓰 고. 그런데 셋바람이 셋바람이라는 거는 북동 이 아니라 북서나 북쪽에서 오는 바람을 인제 셋바 람이라고 거의 많이 하는데 {셋날 불면은 이제 작업이 되겠다} 아이 오늘 쉬지 하고 그런 용어는 많이 썼었. 썼었지. 다른 특별 한 거는 없어.		김형수(울릉도)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어업	기타	관용표현(바람)						셋바람 불 때는 오징어가 작게 난다		관	셋바람이 불면 날씨가 추워 오징어가 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는 '셋바람이 불면 작 게 난다'는 말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셋바 람은 작게 난다는 말이다.	셋바람이 부는 바람이 셋바람이라 기 때문에 {셋바람 불 때는 오징어가 작게 난다} 이입니다. 거 인제 갈바람. 셋바람은 뽕 잡고. 북쪽에서 부는 거 중 잡잖아요.		박봉식(울릉도)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02월 18일 오징어 잡이에서 덕장까지 조사어후(김지숙)

영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상세분류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용어명칭	발음 정보	품사	뜻풀이	유래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영도 영도번호	영도 영도명칭	영도 영도명칭
어업	기타	관용표현(바람)					셋바람 불면 고기가 나다가도 안 잡힌다	관	관	셋바람이 불면 고기가 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는 셋바람이 불면 잡음을 하지 않는다는 말과 관련지어 볼 수 있는 말이다.	주로 인자 보편은 셋바람은 고기, {셋바람}이다. 이는 셋바람이 불면 잡음을 하지 않는 고기가 나다가도 셋바람은 고기가 안 잡히는다는 말과 관련지어 볼 수 있는 말이다.		김영희(울릉도)			0	
어업	기타	관용표현(바람)					셋바람 불면 고기가 안 잡힌다	관	관	셋바람이 불면 고기가 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는 셋바람이 불면 잡음을 하지 않는다는 말과 관련지어 볼 수 있는 말이다.			김영희(울릉도)			0	
어업	기타	관용표현(바람)					속사공 죽으면 바람이 세게 부는다고 한다	관	관	속사공이라는 사람이 죽은 날이 되면 바람이 세게 부는다는 말이다. 울릉도에서 예전부터 전해오는 말이다.	그 당에 울릉도 지형적으로 여 {속사공} 죽은 날이 세게 부는다는 말이다. 이런 말이. 그때는 꼭 바람이 세게 불던데}. 이래가.		박봉식(울릉도)			0	
어업	기타	관용표현(사람)					{백룡} 가난한 집 개보다도 더 못하다	관	관	비가 오는 날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선원의 지팡이를 나타낸 표현이다. 비가 오면 개도 개집에 들어가지만 배 위의 선원은 배를 더 못한다.	부조짐 개가 아니고 {가난한 집 개}보다도 더 못하다.		김영희(울릉도)			0	
어업	기타	관용표현(사람)					바닷가에 있는 새알 과부 많다	관	관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이 종횡사고로 많이 내려, 다 불러들라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한 개 전혀 없었니까. 그래 인자 {바닷가에 있는 사람} 옛날에 과부 많다는 얘기가 그려서 나오는 애입니다.	지금에도 내일 어쨌든 이 무진독에 서 자 뚝 뜰 이상 배 전부 어디까지 피란 오 내려, 다 불러들라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한 개 전혀 없었니까. 그래 인자 {바닷가에 있는 사람} 옛날에 과부 많다는 얘기가 그려서 나오는 애입니다.		박봉식(울릉도)			0	
어업	기타	관용표현(사람)					배 타는 사람들이 배 오면 부조짐 개보다 모하다	관	관	비가 오는 날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선원의 지팡이를 나타낸 표현이다. 비가 오면 개도 개집에 들어가지만 배 위의 선원은 배를 더 못한다.	배 타는 사람들이 배 오면 전부 부조짐 개보다 모하다.		박봉식(울릉도)			0	
어업	기타	관용표현(사람)					셋을 비 오면 부조짐 개보다 더 못하다	관	관	비가 오는 날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선원의 지팡이를 나타낸 표현이다. 비가 오면 개도 개집에 들어가지만 배 위의 선원은 배를 더 못한다.	셋을 비 오면 부조짐 개보다 더 못하다.		김영희(울릉도)			0	
어업	기타	관용표현(사람)					총각 새침하게 먼	관	관	것 결혼한 남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즉 결혼한 남자가 되지 않아 이제 총각을 만났다는 말이다.	총, 총각 새침하게 먼했다) 키는 거는 인자, 뭐 근근이 장개 간 지가 얼마 안 된다 이렇 이지요 뭐.		박봉식(울릉도)			0	
어업	기타	관용표현(사람)					멍이로가 망을 얻어가 나갔다	관	관	먹을 것이 없었던 울릉도의 겨울 멍이라는 나물로 명을 이어 나갔다는 의미이다. 이 멍은 "멍이"라는 나물의 아원을 묘여주는 말이 아니라, 멍이라는 게 오죽은 그렇게 먹는 사람 별로 있습니까?	멍이 왜 멍이고 하던 울릉도 사람들이 그때 봄에 한창 포락고개 뭐 아무것도 먹을 거 없 나물로 명을 얻어 나갔다는 의미이다. 이 멍은 "멍이"라고 명을 잊아가 나갔다). 멍이라는 나물의 아원을 묘여주는 말이 아니라, 멍이라는 게 오죽은 그렇게 먹는 사람 별로 있습니까?		박봉식(울릉도)			0	

02월 18일 오징어 잡이에서 덕장까지 조사어후(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용어명	발음 정보	품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영보1	출전영보2	영단어 정보	표준어 비고
어업	기타					초창		명	처음을 가리키는 말. '초창, 중창, 종창'에서 나온 말이다.	영미 {초창에} 남니다. 초창에 나면 청이거든, 처음 초지 아님니까, 몇 시간 한두 시간 안 가가지고 그냥 배멀미 했뿌려.		복불식(울릉도)		0	0
어업	기타					헛개비물		명	실재론은 물이 난 것이 아닌데 물이 보인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	헛불, {헛개비물이} 산애 막 보인단 말이요. 산애 막 구부는 거요. 그럴 때는 이 바새가 마이 나빠진다. 독 그러그 나른은 마상 당히 날씨가 이상일숙 나빠지고, 그럴 때는 빨리 들어와야 돼.		김정호(울릉도)		0	
어업	기타					헛배		명	실재론은 배가 아니고 쓰레기 더미인데 배처럼 보이는 것을 가리키는 말. 이 헛배를 피우다 보면 시교가 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예매에, 그게 항채를 있는 거요. 그래서 거기들 선장이 판단해가 아~ 저게 {헛배다}, 아니다 판단하고, 그래 지고 나오부런은 우리~하이 그 저 막 풀라스틱 같은 기 벗조까, 리 같은 기 흰기 오물이 막 죽.		김성호(울릉도)		0	
어업	기타					헛불		명	실재론은 물이 난 것이 아닌데 물이 보인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	산애 {헛불이} 막 나는 거예요. 헛불이 두글 두글 구르곤 항편없어요. 그림 이게 하나들 새알린 막 이기 막 하나들셋 퍼지나가는 거예요. / {헛개}, 헛불 헛불.		임성호(울릉도)		0	
어업	기타					호세비		명	허수아비를 가리키는 말. 다른 말로 '호세비'라고도 한다.	{호세비네} 호세비, 그래 뭐 같은 거 짐승 같은 거 내러와, 세도 내려오고 평도 오~오 도록 만드는 거. / 뽕태기에 세워놓은 {호세비} 아니냐, 하세비. / 색들은 거 말하는.		장원도, 장익진 영기학(울릉도)		0	
어업	도구	기타도구	깎는도구			깎개		명	간벌이를 깎는 도구. '깎다'에서 연유한 말이다.	{깎개는} 갠내이 깎는 거고, 지렁대는 폭죽 부시는 거 지리대.		영기학(울릉도)		0	
어업	도구	독줄이도구	가는도구	덕		덕대		명	오징어를 말리는 나뭇대.	어 {덕대}, 사전의 '덕'과 의미가 유사함.		영기학(울릉도)		0	
어업	도구	부조도구	깎는도구	대		꼬쟁		명	오징어를 끼우는 대나무 대를 가리키는 말. 다른 말로 '꼬쟁, 꼬창, 꼬창가리'라고도 한다.	{꼬쟁}, {꼬창}, {꼬창}. 오징어대. {꼬쟁}, {꼬창}, {꼬창}.		김세운(울릉도)		0	0
어업	도구	부조도구	깎는도구	대		꼬지		명	오징어 스무마리를 가리키는 단위.	민체 때씨는 스무, 스무마리 그러이 우라는 한 {꼬지라} 그러쵸. 꼬지에 켜를 때는 한 꼬지고, 또 강원도에 가면 그걸 한 두들이이라 그래요.		경영길(울릉도)		0	0
어업	도구	부조도구	깎는도구	대		꼬창가리		명	오징어를 끼우는 대나무 대를 가리키는 말. 다른 말로 '꼬창, 꼬창, 꼬창가리'라고도 한다.	헛기 치고 덕대 올리가 활복해가 {꼬창가리} 깨아가 덕대에서 날본이 피아가 또 아까 발 열기가 치고 또 어느 정도 기다렸다가 물이 빠지고 마르면 발 띄고 밟 다 따이어 돼. 발 열 개 얹는 거.		김세운(울릉도)		0	0
어업	도구	부조도구	깎는도구	대		오징어대		명	오징어를 끼우는 대나무 대를 가리키는 말. 다른 말로 '꼬창, 꼬창, 꼬창가리'라고도 한다. 주로 '꼬창, 꼬창가리'를 많이 사용했다.	{오징어대}, {꼬창, 꼬창, 꼬창, 꼬창}.		김세운(울릉도)		0	0

02 율령도 오징어 잡이서 덕장까지 조사어휘(김지숙)

원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음성	발음	종사 장르	뜻풀이	유래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원단 종교	종교	표준어	표준어		
어업	도구	보조도구	개는도구	대			이갸대	명			오징어를 끼우는 대나무 대를 가리키는 말.	줄이 어이고 {이갸대}, 꼬재이, 꼬재이, 꼬재이, 꼬재이, / {이갸대라} 그 저 대나무다. 이갸대가, / 우리가 오징어줄을 건조과정 에 있어서도 백이면 백 사람 열이면 열 사람이 꼬지 가오라 소리는 안 한대고. 그러면 다 꼬지 가오라 소리는 안 한대고. 그러면 오징어줄이 꼬지라야 맞겠지만은 홍성 지금도 어 판장 같은 데 가면 '야 {이갸대} 가지고 오 라' 그래. 이갸대. 이갸를 끼는 대나무를 가 지고 오라. 그래 이갸대 가지고 오나라. 오 나라.	잉기락, 정익선, 강영길(울릉도)		0	0					
어업	도구	보조도구	개는도구	대			중꼬지	명			하나의 꼬지가 두 개 합쳐진 것을 가리키는 말.	바지개, 바스구리, 바스구리를 지게에 얹하 는 걸 바지개. 거다가 이갸를 그때는 인자 중꼬지라 이갸조. {중꼬지라} 끼는 거는 두 꼬지 섞입니다.		김성호(울릉도)		0	0				
어업	도구	보조도구	개는도구	대			큰꼬지	명			오징어를 끼우는 굵고 큰 꼬지를 가리키는 말. 덕분에 넣기 전에 하는 작업이다.	그래서 인자 애줄마들은 인자 이 다라이. 다 라이예다가 예~ 이고 가고. 당아서 이고 가 고. 중꼬지를 인제 두 꼬지 담은 걸 중꼬지 라. 그래. 작은꼬지예다 이갸 담아가 집에 가 서 인자 {큰꼬지} 하는 거요. 문란 작업.		김성호(울릉도)			0				
어업	도구	보조도구	개는도구	대			탱기	명			오징어의 발통에 끼우는 대를 가리키는 말. 이 대로 인해 발 부분이 오그라들지 않고 뭉 개지 않아도 될 수 있다고 한다.	{탱기}, 탱기대거든. 오게. 오걸 오렇게 잡 는다. 오렇게. 오렇게 치는 이유는 왜 그러 냐.		박봉식(울릉도)		0	0				
어업	도구	보조도구	개는도구	대			탱기대	명			오징어의 발통에 끼우는 대를 가리키는 말. 이 대로 인해 발 부분이 오그라들지 않고 뭉 개지 않아도 될 수 있다고 한다.	{탱기대거든}. 오게. 오걸 오렇게 잡는다. 오렇게. 오렇게 치는 이유는 왜 그러냐.		박봉식(울릉도)			0	0			
어업	도구	보조도구	나침반				패칠	명			나침반을 가리키는 말.	그때는 {패칠도} 없었어. 그 밖에 거게서 바 늘 기다렸다가. 인자 강원도로 건너가고 그 랬습니다. 그런데 그 때 작업 패칠도 없고 바늘도 없고. 바늘 보고, 바늘 보고 다녔어요.		김성호(울릉도)			0	0	0		
어업	도구	보조도구	배는도구	그물			그물망	명			그물로 된 망으로 주로 고기를 잡을 때 사용 하는 도구.	{그물망} 치는 거 아인교? 이래?		강원도(울릉도)			0	0			
어업	도구	보조도구	배는도구	그물	종류		투망	명			그물의 종류 중 하나로 던져서 잡는 그물 중 하나.	나 저거. 저거 투. {투망인데} 그자. 투망 치 는 거.		강원도(울릉도)				0			
어업	도구	보조도구	다마				황관다마	명			오징어 오징어배에서 사용하는 황관등의 다 마.	좋은 편진들이 많이 나와있는데 과거에는 펜트를 걸고 이래서, 친구 다마 자체도 우리 네가 지금 {황관다마를} 쓰듯이 이 오징어 나 르는 게 즉라이트라는 이 법은 전들은 늦게 나 온 것이고.		강영길(울릉도)				0			
어업	도구	보조도구	도시락통				밥통	명			밥통을 가리키는 말. 주로 군인들이 사용하 는 밥통을 사용한다.	항구. {밥통}. 항구. 인자. 밥벤또. 밥벤또 이 라고. 항구. 그게 오동나무로서 인자 막 짜 가지고 밥통을 만들었는 거를. 밥벤또 이러 는데. 그 당에 또 인제 줄 지나가는 항구가 나왔어요. 첩로 만든 강첩로 만든 항구.		김성호(울릉도)				0	0		

02 울릉도 오징어 잡이에서 덕장까지 조사어휘(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음성	발음	종류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어업	도구	보조도구	도시락통				원표제어	명	벤도	명	발통을 가리키는 말. 주로 군인들이 사용하던 발통을 사용한다.	이렇게 해서 {벤도들} 만들어서 그 당에 착고. 오징어 낚시 하는 학교 고기 있고. 그걸 있다가 가지고 땀길 때도 있고 배에 보들 때도 있고.	김성호(울릉도)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어업	도구	보조도구	도시락통				원표제어	명	항구	명	발통을 가리키는 말. 주로 군인들이 사용하던 발통을 사용한다.	{항구} 발통, 항구, 인자, 반베도, 반베도이 가지고, 항구, 그게 오동나무로서 인자, 딱 파 가지고 발통을 만들었는데. 반베도 이리는데. 그 당에 또 인제 좀 지나가는 항구가 나왔어요. 쥔도 만든 쥔제도 만든 항구.	김성호(울릉도)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어업	도구	보조도구	통				원표제어	명	간수통	명	예전에 배 안에서 처음 사용하던 초롱불을 가리키는 말.	{항구} 발통, 항구, 인자, 반베도, 반베도이렇게 {간수통} 이런 통을 가지고. 인자 초. 요즘 말하면 초롱불 한 가지요. 이런 걸 빼가지고 오징어를 잡았는데. 요~ 요기서 바로 앞에 한. 지금 말하면 한. 변방 이십십 반씩 요래 나가요. 그 노 젓고 나가기 때문에	김성호(울릉도)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어업	도구	보조도구	통				원표제어	명	석유통	명	최근까지 배 안에서 석유를 넣어 사용하던 통을 가리키는 말. '호야불-취발유통-석유통' 등-전기통'으로 발전하였다.	없었죠. 간고 전기 기계가 원동기를 돌려줘야 다마가 있었니까. 그때는 취발유통 {석유통} 이런 기 있었.	박봉식(울릉도)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어업	도구	보조도구	통				원표제어	명	외사통	명	석탄 가스를 도관에 흐르게 하여 불을 켜는 통.	때는 간고 고 당에 뭐 {외사통}. 뭐 취발유통. 이렇게 간수를 이런 통을 가지고. 인자 초. 요즘 말하면 초롱불 한 가지요. 이런 걸 빼가지고 오징어를 잡았는데. 요~ 요기서 바로 앞에 한. 지금 말하면 한. 변방 이십십 반씩 요래 나가요. 그 노 젓고 나가기 때문에	김성호(울릉도)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어업	도구	보조도구	통				원표제어	명	집어통	명	오징어를 모으기 위해 사용하는 밝은 불을 가리키는 말. 아간에 불고기를 잡을 때에, 그 아광성이라고 그런. 밤에 불 밝혀서 쫓아다.	그래 인제 오징어는 인제 그 저 저 그릴 보	강영길(울릉도)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어업	도구	보조도구	통				원표제어	명	호야불	명	예전에 배 안에서 처음 사용하던 남포등을 가리키는 말. '호야불-취발유통-석유통' 등-전기통'으로 발전하였다.	그 중에는 인자 옛날에 지금 흑시 농촌 같은 데 기보며 {호야불이라고} 해가 이래 이래 있지요?	박봉식(울릉도)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어업	도구	보조도구	통				원표제어	명	취발유통	명	배 안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 재료를 취발유통으로 사용하는.	없었죠. 간고 전기 기계가 원동기를 돌려줘야 다마가 있었니까. 그때는 {취발유통} 석유통 이런 기 있었고. / 때는 간고 고 당에 뭐. 외사통. 뭐 {취발유통}. 이렇게 간수통 이런 통을 가지고. 인자 초. 요즘 말하면 초롱불 한 가지요. 이런 걸 빼가지고 오징어를 잡았는데. 요~ 요기서 바로 앞에 한. 지금 말하면 한. 변방 이십십 반씩 요래 나가요. 그 노 젓고 나가기 때문에.	박봉식, 김성호(울릉도)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어업	도구	보조도구	통				원표제어	명	가게	명	막개비와 같은 조개류를 때는 도구.	이 {가게}. 가게가, 가게가 때지.	임기학(울릉도)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02 울릉도 오징어 잡이에서 덕장까지 조사어휘(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음량명	발음정보	음성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첨단 정보 사전	첨단 정보 음성 특성	표준어 비고
어업	도구	보조도구	물라				로라다이		명	로라를 놓는 곳을 가리키는 말.	배 요렇게 생겼. 정면을 이래 바로 보면 그 면 이래 이래 해서 여기다가 인자 나무로 는 인자 저저 {로라다이라고} 있어요. 오래 돼서 어떻게 그러야 되지?		강영길(울릉도)			0	
어업	도구	보조도구	미끼				미끼	미끼	명	미끼를 달리 부르는 말.	아 {미끼}. / {미끼}.		임기학, 경역선 (울릉도)			0	0
어업	도구	보조도구	미끼				미끼	미끼	명	미끼를 달리 부르는 말.	미끼 {미끼는}. 미끼는 오징어 내지 배~정 선상. 선선상 선선상을 띄서 하던 더 졸 들어요.		강영길(울릉도)			0	0
어업	도구	보조도구	불통				불통		명	오징어를 건조하는 곳을 가리키는 말. '건조 장, 불건조장, 불통'이라고 한다. 불로 건조 한다는 의미이다.			김세은(울릉도)			0	
어업	도구	보조도구	바지개				바지개		명	오징어를 활발한 다음 먹장으로 실어 나르 는 도구. 바지개에서 손수레로 변형하였다.	고 담에 활복 다음엔 뭐 고침이 이렛다에 끼 여가지고 세척을 해서 고 담에 인자 옛날 '오면 인자 이 오중에는 차로가 온반하지만 '집에는 지게. {바지개라고} 있어. 바지개.		김성호(울릉도)			0	0
어업	도구	보조도구	이동도구	나무			수레		명	배를 옮기고 내릴 때 배가 상하지 않도록 맨 나무. 다른 말로 물다라고 하기도 한다.	배를 옮린다 했죠. 오게 {수레라고} 배가 오 기 가라가 안 불고 요 우에다가 요 두 개만 스키 티듯이 막 올라오면 오거든 가지고 요 것만 걸거져. 오 서지를 못해. 칠로 해가. 수 레라고도 하고 물다라고도 하는데. 고기 어 디서 불나 하면 오게서부터 오기에 요 선. 요기 하는 게 요기서부터.		박봉식(울릉도)			0	0
어업	도구	보조도구	이동도구	나무			시라		명	배를 옮기고 내리는데 사용하는 통나무.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 선수를 바란 척야 되 거든. 배가 이래 안 하면 항선을 해뿌장아 요. {시라} 카는 거 넣는데 배를 옮기는 사 라. 이 뱃자리에서 시라를 인자 보가지고 이 기 옮겨면은 또 이기 아기 다 되면은 이쪽 에 빠가지고 또 이쪽 공구고. 그렇게 시라를 그때 당시에 간고 시라가 한 다섯 개 정도 아섯 개 정도 이렇게 필요했어요. 배 한 척 올라는데 나무 통치 이만한 거.		김성호(울릉도)			0	
어업	도구	보조도구	착용도구	도마			도마		명	배 위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한 도구. 지 금의 우의, 갈바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 허 리 위까지 조가짐을 잇는 길대로 만든 것을 라고 간고 위에 이를 걸쳐놓아 바닷물에 젖 지 않도록 한 것이다.	거다가 거다가 여닐에 어른을 쓰는 자 갈바 하고 그 저 {도마}. 그 새타기 여여가지고 로 등재됨.		강영길(울릉도)			0	
어업	도구	보조도구	착용도구	도마	재료		새타기		명	도마의 재료가 되는 나무. 예전에 '갈바기 나오기 전에 배 안에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고 돛이 물에 젖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함' 라고 되어 있다.	거다가 거다가 여닐에 어른을 쓰는 자 갈바 하고 그 저 {도마}. 그 {새타기} 여여가지고.		강영길(울릉도)			0	

02월 18일 오징어 잡이에서 덕장까지 조사어후(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상세분류	원표제어 표준어	용어명	뜻풀이	유래	기타정보	출전영보1	출전영보2	영단어 장르	영단어 종류	표준어 비고
어형	도구	형용사	부교대구-배	부교대구-배	부교대구-배	기계	엔진을 달린 부르는 말. 그래서 엔진을 장착한 배를 "기계배"라고 했다.	아이, 아이조, 아까다마는 {기계}가 인지 그 후자가 그 한 기고. 엔진은 기계가 속도가 빠른 것을 갖다가 엔진이라 하고, 속도 높은 것 인자 저 그리라 하지. 기계라 하지.		영기학(올론도)		영단어 장르	영단어 종류	표준어 비고
어형	도구	형용사	부교대구-배	부교대구-배	부교대구-배	기관별	기관실, 기관장이 있는 곳이다. 이러한 공간은 '고관-총간-극관-기관실-선정실'의 방향으로 위치한다.	{기관황}		영기학(올론도)	0	영단어 장르	영단어 종류	표준어 비고
어형	도구	형용사	부교대구-배	부교대구-배	부교대구-배	괴대기	배 앞 부분을 가리키는 말.	사람도 있고 이물이라는 데도 있고 또는 괴거. 괴거에는 괴거 선박을 놓고 말하면 앞에 이렇게 편 {괴대기} 끝에 인제 이렇게 올랐을 부분을 갖다가 위에 보면 깨면 찢히고 하느 것 묘시라 하거든. 묘시, 아 묘시라 하느 데 올라는 그걸 {괴대기라} 그러다고. 그러다 그래서 거위가 일뿐입니다. 배 용어가 왜냐면 우리가 뭐 면 앞쪽 보고 괴대기라는 거에. 고거는 인제 아래 배. 배에 인제 그 우에 아래 붙착한 걸 내부라고 하는데 거 {내부} 예) 있어 보놓고 뜯져가주고 아래 오잖아. 의미 모겠어. 알고, 하는 게 있고.		영기학(올론도)		영단어 장르	영단어 종류	표준어 비고
어형	도구	형용사	부교대구-배	부교대구-배	부교대구-배	내부	배 위에 넣은 나무로 된 부분. 이 내부 부분의 이 배 주변에 둘러싸여 있다.		이래 붙착한 걸 내부라고 하는데 거 {내부} 예) 있어 보놓고 뜯져가주고 아래 오잖아. 의미 모겠어. 알고, 하는 게 있고.	김형수(올론도)	0	영단어 장르	영단어 종류	표준어 비고
어형	도구	형용사	부교대구-배	부교대구-배	부교대구-배	노	물을 해쳐 배를 나아가게 하는 기구. 목진실을 바다로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다. 엔진이 달린 배에서도 엔진이 이성이 있을 때 사용했다. '노'보다 '놀'의 형태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같은 의미로 '놀까지'가 사용되기도 했다.	예. {노}, 첫날에 이런 노를 짓고 다니는 기이라. 이런 노를 아까 그 간코 카는데 세 개씩. 아 조, 저 우에.		박봉식(올론도)	0	영단어 장르	영단어 종류	표준어 비고
어형	도구	형용사	부교대구-배	부교대구-배	부교대구-배	노우대	노잉을 제외한 나머지 노의 부분을 가리키는 말.	어, 워이라 캐는 거는 쥔 거 요기서 자까지 가 못하고, 요게서 요까지는 {노우대}; 그 앞부분은 붙잡히고 저거는 꺾머기가 오래 있어. 붙손이고. 이거는 노우대. 노우대.		박봉식(올론도)	0	영단어 장르	영단어 종류	표준어 비고
어형	도구	형용사	부교대구-배	부교대구-배	부교대구-배	노뎡	'노'의 뎡은 부분을 가리키는 말. 노를 재울 때 뎡속에 잠기는 노의 끝부분 부분으로 이 뎡이 뎡속 에 들어가 배가 나아간다.	오거는 {노뎡}. 뎡만 가란주는 거 저런 거 아니고, 오거는 인제 오거는 붙손이고 요거는 거 인자 오거는 뎡지 뎡. 오거는 저항인 이기 저 뎡속에 붙는 건데 얹하고 조, 조래 뎡에 부분은 요 볼막개바가 붙어 있는 부분이 {볼뎡}.		박봉식(올론도)	0	영단어 장르	영단어 종류	표준어 비고
어형	도구	형용사	부교대구-배	부교대구-배	부교대구-배	노지기	노를 뜻는 곳을 가리키는 말.	{노지기}, 노지기라고 있어요. 요기 짚는 걸 요걸 노지기라 한다.		김재호(올론도)	0	영단어 장르	영단어 종류	표준어 비고
어형	도구	형용사	부교대구-배	부교대구-배	부교대구-배	놀	물을 해쳐 배를 나아가게 하는 기구. 목진실을 바다로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다. 엔진이 달린 배에서도 엔진이 이성이 있을 때 사용했다. '노'보다 '놀'의 형태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같은 의미로 '놀까지'가 사용되기도 했다.	어서라라는 이름이 {놀이} 같아서 여기 이 대가 있으면 노를 이쪽을 아까, 붙손 캐는 게 있소. 이래가 사정없이 밀어 푸는 기. 밀어 푸는 기. 같은 의미로 '놀까지'라. 밀어뿌면 배가.		박봉식(올론도)	0	영단어 장르	영단어 종류	표준어 비고

02 울릉도 오징어 잡이에서 덕장까지 조사어휘(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음량표	음성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영단 정보 사전	영단 정보 영역	표준어 어휘 특징
어업	도구	원승도구배	부편명칭	구역		도모통		명	배 앞 부분.	저거는 도모. {도모통인데}.		박봉식(울릉도)			0	
어업	도구	원승도구배	부편명칭	통		도통		명	통째로 가리키는 말.	노 해가지고 {도통} 달고 없어.		전학영(울릉도)	0	0		
어업	도구	원승도구배	부편명칭	기계		동끼		명	배에 짐을 들어올리고 하는 기계.	배 올리는 {동끼}. 기계 아임니까. 동끼. 동끼라 카는 건 아무도 배에도 이래 장 들어올리는 건 동끼. 우리는 땀겨 올리는 동끼. 배를 저 끌어가 저 운반 안 있습니까.		박봉식(울릉도)		0		
어업	도구	원승도구배	부편명칭	통		뿔대		명	통을 세우는 대를 가리키는 말.	맞는데 그 인자 여. 여기 타는 사람이야 {뿔대통}. 여기 쪼고 통을 올리는 사람이야. 주 알하자면 요즘 말하면 기판장 탁이라. 이 기계.		김성호(울릉도)	0	0	0	
어업	도구	원승도구배	부편명칭	노		막개비		명	뿔줄을 두는 곳인 노막개비를 달리 가리키는 말.	뿔. 노막개비. 막. {막개비}.		김성호(울릉도)		0		
어업	도구	원승도구배	부편명칭	호		뿔죽알때기		명	뿔에 달린 줄.	{뿔죽알때기}.		김성호(울릉도)		0		
어업	도구	원승도구배	부편명칭	구멍		뿔죽칸		명	뿔을 올려 놓는 공간을 가리키는 말.	배 뿔칸. 뿔칸이라 {뿔죽칸이라고}. 뿔을 인자 올려놓는 칸이라 이거라.		김성호(울릉도)		0		
어업	도구	원승도구배	부편명칭	구멍		뿔칸		명	뿔을 올려 놓는 공간을 가리키는 말.	배 {뿔칸}. 뿔칸이라 뿔죽칸이라고. 뿔을 인자 올려놓는 칸이라 이거라.		김성호(울릉도)		0		
어업	도구	원승도구배	부편명칭	기계		마끼도		명		{마끼도}.		김성호(울릉도)		0		
어업	도구	원승도구배	부편명칭	통		마뚜라		명		고 속에 또 속에 안 보이는 게 거기 인자 우 리 앞에는 수막이라고 있는데 {마착라라고}. 양쪽 또 꼭지 요래 돼가 고기 맞가지고 막 버티주는 것도 있고 고래 해가 고 우에 모래 또 갖다 끌어부거든.		박봉식(울릉도)		0		
어업	도구	원승도구배	부편명칭	정진		모다		명	전기모터를 가리키는 말.	그 {모다라} 하지 뭐. / 그 {모다}.		정인석, 임기학(울릉도)		0		
어업	도구	원승도구배	부편명칭	구멍		모매		명	모매를 달리 가리키는 말.	인자 {모매라} 카는 거는 배 그 전체 전체에 다나 그 중간 중간에 버티주도록 하는 것이 쪽하고 지쪽하고 쪽 있는데. / 여는 양가에 이래 나온 거를 모야. 모야라 하잖아. 모매. 그래 뭐 {모야나} {모애나}. 마		박봉식, 김세은(울릉도)		0		
어업	도구	원승도구배	부편명칭	구멍		모시		명	배 앞을 가리키는 말. 그물에 다는 끈을 넣는 배 칸을 가리키는 말이다.	모거를 {모~시}.		김성호(울릉도)		0		

02 율령도 오징어 잡이에서 덕장까지 조사어휘(김지숙)

원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상세분류3	원표제어	음역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원단 종교 상지	원단 종교 음역	표준어 이식 특징
어업	도구	원승도구배	원승도구배	원승도구배	원승도구배	원승도구배		배	배 뒷부분이 바람에 의해 돌아가지 않도록 함.	고 담에 거, 고 담에, 선미 쪽에, 고건 선수 쪽이고, 선미 쪽에, 뒤면은 어떤 게 있는지, 선미 바람풍구란 게 있어, {바람풍구라는} 게 있어, 바람풍구, 고건 뒀가 하면은 바람 풍구 이 쉽게 떨어던 이 큰 여 뒀진들 그 지 뒀어 거~ 바람으로 풍력으로 갈 수 있고 뒀 해졌는 거지랑 그걸 양쪽에 해가지고 뒀 아노요, 그러면은 배가 인제 뒀쪽이 바람에 파도에 이제 많이 안 돌아 다니게 하는 바람 풍구라는 게 이거.		김홍식(율령도)			0	
어업	도구	원승도구배	원승도구배	원승도구배	원승도구배	원승도구배		배	배를 다 올리지 않고 반만 올린 상태를 가리키는 말. 바람이 전 복에 다는 중을 말한다.	그런 요거는 고정을 해놓고 요 인자 요거를 개 하는데 바람이 심하게 불 때는 요까지 안 올라가고 요인장 {언풍한} 다는 대가 있어 요. 반만 올라가도 바람이 제기 때문에 되거는, 그래 반만 올라가고 뒀가지고 요거까 뒀졌다 뒀었다 하는 때도 있고.		박봉식(율령도)			0	
어업	도구	원승도구배	원승도구배	원승도구배	원승도구배	원승도구배		배	배의 엔진을 단 것을 가리키는 말.	{발동기}, / 예, {발동진데}, / 예, {발동기라} 그래요, 발동기.		이경우, 임기학, 강영철(율령도)			0	0
어업	도구	원승도구배	배발달이	배발달이	배발달이	배발달이		배발달이, 배	배의 발 부분을 가리키는 말.	그런 나무가 있으면은 이 사람을 탁 타면은 사람은 하거는 {배발달이} 딱 붙어가지고, 발달이랑, 발에, 배 밑에, / {배발달이} 이쪽에 이쪽에 뒀조, 이래 이 두 개가 붙는데 그래서 인자 시라를 뒀으면은 이쪽 뒀고 올라오는 거죠, 자갈을, 여기서 강어 올라면은, 올라가지고, / 예, {배발이라조}, 뒀.		김성호(율령도)			0	
어업	도구	원승도구배	배칸	배칸	배칸	배칸		배	배에서 자리를 잡고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곳.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때 이 자동조상기가 칸을 가리키는 말, 다른 말로 "뱃자리라고 생각하면, {배칸} 뱃자리, 뱃자리 일지를 쓴 하는 거라.			박봉식(율령도)			0	
어업	도구	원승도구배	뱃자리	뱃자리	뱃자리	뱃자리		배	선원이 배에서 자리를 잡고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공간을 가리키는 말, 다른 말로 '배칸' 이라고도 한다. 예전에는 선원이 많이 필요했기만 자동조상기가 생기면서 선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게 되어 선원이 뱃자리를 잃게 되었다.	그런, 그런 사람들은 이때 이 자동조상기가, 그런 사람들은 이때 이 자동조상기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 배칸 {뱃자리}, 뱃자리 일지를 쓴 하는 거라.		박봉식(율령도)	0	0		
어업	도구	원승도구배	보간다이	보간다이	보간다이	보간다이		배	뒀같은 그거라, {보간다이이라}, 그거는 오른 쪽 왼쪽쪽, / 오, 오른 보간다이, 왼쪽 보간다이.			임기학, 이경우(율령도)			0	
어업	도구	원승도구배	본체	본체	본체	본체		관	배 전체를 가리키는 말. 선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이 기에 오를게 해서 오를게 지금 현재 끝는 기 있어요, 요거는 선체 {본체고}, 오서 끝는 게 있어, 오를 뭐라 하나면 풍기미.	표준적인 의미만 등재됨. 의미 보완이 필요함.	김성호(율령도)			0	0

02 울릉도 오징어 잡이에서 덕장까지 조사어휘(김지숙)

원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영표제어 표준어	음성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영단 상징	영단 정보	표준어 비교
어업	도구	원승도구배	부본명칭				형	선체의 외배 놓여진 나무를 가리키는 말.	밑배는 {부자리상}, 이 밑배 밑은 인자 연 불 이 밑에서 붙는 것은 부자리상.		김성호(울릉도)		0		표준어 비교
어업	도구	원승도구배	부본명칭				명	상있대. 배질을 할 때 쓰는 긴 막대로 배를 눌 때나 외줄 때, 또는 물이 많은 곳에서 배 를 밀어 나갈 때 쓴다.	{선대}, 선대.		임기학(울릉도)		0		표준어 비교
어업	도구	원승도구배	부본명칭				명	배 좌우편을 가리키는 말. 선미와 같은 의미 이다.	여기 한창에 있고 도모 선창 여타는데 인제 이 도모를 보고 타요. 이. 이기 인자 선수고 이물이라 그러조. 이. 이기 이물. 인자 이물 이라는 거 선수를 바라고. 이거 {선미}를 바 라는데 도모라고. 도모. 여기서 한창 이런 데.		김성호(울릉도)		0		표준어 비교
어업	도구	원승도구배	부본명칭				명	배 앞. 이물을 가리키는 말. 그물에 다는 것 을 부는 배 칸을 가리키는 말이다.	여기 한창에 있고 도모 선창 여타는데 인제 이 도모를 보고 타요. 이. 이기 인자 {선수 고} 이물이라 그러조. 이. 이기 이물. 인자 이물이라는 거 선수를 바라고. 이거 선미를 바라는데 도모라고. 도모. 여기서 한창 이런 데.		김성호(울릉도)		0		표준어 비교
어업	도구	원승도구배	부본명칭				명	선창이 머무르는 공간. 선창이 거주하는 공간 을 비유적으로 가리키는 말이다. 배내고 단칸-중간칸-편칸-기관실-선창실-방풍으 로 위치한다.	아니요. {선창집에} 기보라 카든 동 기관실 이. 노여주면 기관실에 기보라 카든 동 그런 수 리 안 잡겠는고. 여 그 뭐 딱 사들.		강원도(울릉도)		0		표준어 비교
어업	도구	원승도구배	부본명칭				명	배 자체를 가리키는 말.	그거 {선창지}. 선채.		박봉식(울릉도)		0		표준어 비교
어업	도구	원승도구배	부본명칭				명	선창의 세로로 길게 놓여진 판자를 가리키는 말.	{선창}. 선상. 밑배. 옆배 붙이는 거. 수기가 판자를 옆배 붙이는 거.		김성호(울릉도)		0		표준어 비교
어업	도구	원승도구배	부본명칭				명	마우라를 달리 부르는 말.	고 속에 또 노에 안 보이는 게 그거 인자 우 리 밑로는 {수만포라고} 있는데 마우라라고 왕쪽 또 꼭자 오래 돼가 고기 못가지고 막 바타주는 것도 있고 고래 해가 그 우에 모에 로 갖다 걸어뿌거든.		박봉식(울릉도)		0		표준어 비교
어업	도구	원승도구배	부본명칭				명	아도줄	아도줄. 아도. {아도줄} 조절하는 거. / 아 도. {아디줄}. /우리가 잘 모리는데 오거는 네. {아도줄이라고} 이리더라고. 그래 땀깁 다. 뽀다. 바람에 세게 오는데 막 거머잡고 있으면 바람을 너무 많이 안 아부면은 배가 넘어지잖아.		김세운, 박봉식 (울릉도)		0		표준어 비교
어업	도구	원승도구배	부본명칭				명	배를 고정하거나 그물을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 고부진 각고리 만 안의 것으로 그물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 다.	여 전부터 {양개} 자리잖아. 그러니까네. 고 각이 붙영하고. 구경하고 붙영하고 가까운 데요. 포매난 배 타고.		김세운(울릉도)		0		표준어 비교

02 울릉도 오징어 잡이에서 덕장까지 조사어휘(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상세분류1	원표제어 표준어	음성	뜻풀이	유래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형태 상징	표준어 비고
어업	도구	원승도구배	부분도구배	부분도구배	아까다마	명	일본에서 나온 연진의 종류 중 하나. 아래, '부도' 연진이 달린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 '부' 소리가 크게 났다고 한다. '부기' 등으로 발음. 고속 야노고 역행, 텅텅탕 소리가 아. 연진의 종류에는 양수기 엔진, 디젤엔진, 아까다마엔진이 있었다.	{아까다마}, 옛날 하이라, 아까다마 텅텅탕 소리가 아. 고속 야노고 역행, 텅텅탕 소리가 아. 연진을 말한다. 그 당시 배에 장착하는 주. / {아까다마}, 아까다마.		임기학, 권혁웅 (울릉도)	0		
						명	작은돌과 큰돌을 모두 세운 것을 가리키는 말. {양호돌시라} 그래.	두 개를 다 세운 연 {양호돌}이라. 아래, /{2011}에서는 작은돌을 가리키는 말로 나타났다.	김성호(울릉도)	0			
어업	도구	원승도구배	부분도구배	부분도구배	오라이맛대기	명	배를 운행하고 영총을 지시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 버스에서 안내장이 지시하는 '오라이'에서 유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오라이맛대기}, 오라이맛대기, / 어 {오라이맛대기}, 어 오라이맛대기. 줄음		정익선, 임기학 (울릉도)	0		
						명	도도의 오른쪽 합판을 가리키는 말.	배제에 해 갈 때 {오모까지} 가자. 도모까지도 가자 아래 한다고. 일본 사람 말이니 그래 말한다.	정익선(울릉도)	0			
어업	도구	원승도구배	부분도구배	부분도구배	영굴	명	가리를 달린 가리키는 말. 선박 바닥의 중앙을 만지는 길고 큰 재목으로 이물에서 고를 때 잡채, 선체를 만지는 기능을 한다.	{영굴} 보고 가라, 영굴.		김세문(울릉도)	0	0	
						명	돛대의 맨 위쪽인 영총에 매어진 줄, 사공이 바깥의 방향을 보고 이 줄을 잡고 돛대를 조종한다.	{영진줄} 아도줄 이거.	박봉식(울릉도)	0			
어업	도구	원승도구배	부분도구배	부분도구배	이물	명	배 앞을 가리키는 말.	한장, 한장, 요도 또 맨 한가지고 요쪽에는 {이물}에는, 왼쪽에를 잡는 기라. 오기는, 노가, 전박 오른쪽에 두 가락 있고 앞쪽에 거는 왼쪽에서 잡는 기라.		박봉식(울릉도)	0	0	
						명	배 앞 부분에 있는 위치인 중은 나무로 구멍을 달고, 배 앞을 가리키는 말, 위치에 따라 이물모매, 한장모매, 도모통으로 나뉜다.	한 장 있는 건, 가운데 있는 건 한장모매. 이물모매에 있는 {이물모매}, 도모매 있는 건 도모통.	박봉식(울릉도)	0			
어업	도구	원승도구배	부분도구배	부분도구배	영분줄	명	일본에서 온 노를 가리키는 말. 노는 크게 주전노와 영분노로 구분되는데 이때 노가, 배고 평평하게 생긴 것을 영분줄이라 한다. 한장은 많이 들지만 더 빨리 갈 수 있다고 한다.	{영분줄}		김학웅(울릉도)	0		
						명	독선에는 두 개의 돌을 다는데 앞에 다는 작은 돌, 뒷부분에 있는 돌을 큰 돌이라 한다. 앞뒤를 위치한다.	그래가 오거로가 조종하고, 요 {작은돌} 요 {작은돌}은 그날 보내는 기라. 작은돌이 많은 영총을 안 받거든. 그래 오리 놓았다가 땀났다기, 앞, 뒷부분이, / 그 이물에 인해 이물칸에도 {작은돌}, 아주 상분지 일, 우리가 옛날 영항칸인데 본다던지 하면 풍선이 뚫어 몇 개 안 됩니다.	박봉식(울릉도)	0			

02 율령도 오징어 잡이에서 덕장까지 조사어휘(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음성	발음 정보	형태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형태 정보	형태 정보 상지	형태 정보 음성 특성
어업	도구	원승도구배		부분명칭:다마				오징어를 잡는 조성에 필요한 도구로 전구속 다마를 가리키는 말.	명			좋은 연전들이 많이 나와있는 데 과거에는 펠트를 깔고 아래서, {전구다마} 자체도 우렁이가 지름 향광다마를 쓰듯이 이 오징어 낚는 캐조라이트라는 이 낚는 전등은 늦게 나온 것이고.		강영철(율령도)		0		
									명		배 안에서 화정이 밥을 하는 공간을 가리키는 말. 두목의 의미하는정자에서 나온 말. {영주지리라는} 올라도 그거는 어렸은 배는 이다.		박봉식(율령도)		0			
									명		조선에서 만든 노를 가리키는 말. 일본노에 비해 줄고 기쁠다. 흰은 작게 들지만 속도가 느린 단점이 있다.	{조선불이지}.		정익선, 임기학(율령도)		0		
어업	도구	원승도구배		부분명칭:노				배 밑 바닥이 상하지 않도록 가라 밑에 얹은 것이. 이 부분이 상하면 다시 수선을 해야한다.	명		오전데 오게 가라. 요만한 게 있으면 요기서 배가 오를~게 오를~게 나가 요렇게 올라가는 가라. 오거는 인자 뛰고 하던 다들 오기 인자 밑에 뛰어서 본 그림이라. 오게 요런 방법으로 돼가 있어. 왜 그러냐 하던 오게 오렇게 돼가 있으면 오게 가라라. 가라 밑에 또 오렇게 별책한 나무로가 {줄대라}. 그해가 그해가 인자 그거는 상하면 고건 또 배고. 또 세로 해부면 되고.		박봉식(율령도)	의미 보편. 이 필요함.	0	0		
									명		{치}. 오거는 치. 치고 노는 또 따를 틀림니다. 노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어서 어서 또 이런. 이런 이 기 인자 노거거든요.		김성호(율령도)		0			
									명		치구멍인데 인제 오거는 갈라졌지. 약간. 잘라지던 오거는 지를 인자 오러면 요렇게 깨조. 이 종 우에서로 이렇게 올라와야 어~어 구멍을 파가 딱 이걸 {치장손}. 치장손이라 함조. 이 키를 이래 막 붙여 있으면 여 구멍을 통하여지고 예? 여다가 이래 나오면은 키를 둘러거든. 그러면 이기 아래 돌아가.		김성호(율령도)		0			
어업	도구	원승도구배		부분명칭:키				키를 꿰는 구멍을 가리키는 말.	명			모야 치는 거는 줄 걸어가 모야 걸이라 카는 기고 요기 인자 모에라 카는 인데 오거 부는 것으로 찢는 거는 모에고 오거는 이름이 또 모종인데 오거만 돼가 있는 기 하고 날아가 요한 거 보다 배 넣습니다. 이렇게 넣는데 오기에 치 아까 키 안 있는고. 노 지를 때는 이기게 키로가 하지만은 도물을 달 때는 이 지라고 이거 키를 박아가 하는 가라. 금 가만 양아가 키를 모에가 키 손잡이가. 오게 있어 개 오걸 양쪽을 넘긴다. 양쪽을 또 넘긴다 하면 배 방향이 달라지거든. 오거는 다름 거보다 조금 넓. 배 넓어야 돼. 이거 치구멍인데} 도모종이셔도. 이거 전체가. / 도모에 안 하고 그런 도모종. 모에라 카는 거는 주로 대충 정사각형 나무 비슷한 데다가 양쪽 배저팍고 오래 하는 기고 도모종은 정사각형이 아니고 두께는 모에 두께보다 약 비슷함 데다가 넓이는 배도 넓지. 그래 거게 이 함 데다가 되는 구멍이 들어가거든. 노 지 {치구멍도} 거 따름아가 그래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가라.		박봉식(율령도)		0		

02 율령도 오징어 잡이에서 덕장까지 조사어휘(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음성 정보	뜻풀이	유래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형태 정보	형태 정보2	표준어 비고
어업	도구	원충도구·배		상태				형	형체가 같으면서도 날뻐한다.	오징어 오게 가라, 요만한 게 있으면 오기서 배가 요렇게 오게 오게~게 내가 요렇게 올라 가는 거라, 오가는 오고 뭐고 하면 다들 오기 먼저 밑에 뒤에서 본 그림이라, 오게 요런 모양으로 돼가 있어, 왜 그러냐 하면 오게 요렇게 돼가 있으면 오게 가라라, 가라라 밑에 또 요렇게 {뿔죽한} 나무로가 붙더라.		박봉식(율령도)			0	
어업	도구	원충도구·배		상태				명	목선의 나무와 나무 사이가 벌어져 물이 새는데, 이때 '뱃방'으로 응급처치하는 곳을 가리키는 말, 이때 '뱃방'은 응급처치를 한다.	{물집}, 물집이라 그래요, 그러면 물이 새는 수가 많지만은 아프잖아는 전혀 총통을 아 안 한 다음에는 아프잖아는 거의 그런 위험성은 없잖아, 근데 목선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언제 나무와 나무 사이에 그걸 아~일 상용어로 뱃방이라 이라는단.		강영길(율령도)			0	
어업	도구	원충도구·배		상태				형	가늘어 뻗죽하다.	늘개는 거 이래 손질할 때 이래 해야 모양새도 나고 오기 안 그러는 그냥 요래 뻗는 거는 요렇게 {쭈뼌하게} 요렇게 뻗니다, 그렇게 모양도 없잖아요, 이렇게 뻗죽.		박봉식(율령도)			0	
어업	도구	원충도구·배		재료				명	썩지 않는 나무로 주로 목선의 재료가 되는 나무를 가리키는 말.	{가시목}, 나무 남기 처린 나무로가 하기 때문에 가시목 키는 그게 그런 썩지도 안 하고.		진학웅(율령도)			0	
어업	도구	원충도구·배		재료				명	배를 만들 때 재료가 되는 나무.	그래 이 나무가 전부다 노티나무 {기목나무}야, 그래서 나무가 꼭 떨어지니까 바닷가에 축 처지는 거야, 그러니까 전복이 저쪽에 다 올라와요, 솔솔 다 올라와요, 그래 우리가 어릴 때 바닷줄 안 있어요, 가~를고 가면은, 완불 쥘 해가 햇불 해가지고 해바리, 해바리라 하죠.		김성호(율령도)			0	
어업	도구	원충도구·배		재료				명	뿔죽 쳐 배를 만들 때 뿔이 잘 들어가는 것, 뿔을 가리키는 말, 뿔에 의해 나무가 깨지지는 않는 것도 포함한다.	{뿔발도}, 잘 받는단 말이다, 대 뿔 치면은 뿔발도 잘 받아준다, 안 깨지고 사선에 등재된 '뿔발'은 다른 의미와, 임기학(율령도).					0	
어업	도구	원충도구·배		재료				명	썩지 않는 나무로 주로 목선의 재료가 되는 나무 중 하나를 가리키는 말.	예, {삼나무대} 그 수기목을 부산 영도에 가면에 꼭재가, 우리는 거 장기목재 카터 가져갔는데 우리도 그래 배를 그래가 지었어.		박봉식(율령도)			0	0
어업	도구	원충도구·배		재료				명	썩지 않는 나무로 주로 목선의 재료가 되는 나무 중 하나를 가리키는 말, 삼나무를 가리킨다.	{수기}, 일본서 가왔잖아, / {수기가} 삼나무입니다.		견학웅, 박봉식(율령도)			0	
어업	도구	원충도구·배		종류				명	오징어잡이에서 처음 사용한 목선을 가리키는 말.	{간꼬가}, 아니고 저거다, 도피 저 무슨 / 그래 {간꼬} 아이가,		임기학, 경익신(율령도)		0	0	

02월 18일 토요일 오징어잡이에서 덕장까지 조사어후회(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상세분류	원표제어 표준어	용어발	발음 정보	품사 정보	뜻풀이	유래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영단어 정보 사전· 영성· 등	표준어 비고
어원	도구	일용도구-배	종량			마구리배	명	명	나무로 만든 배 · 나우배 · 목조진.	<p>근대 뒤 이 짓. 짓거리나 이런 걸 하는 걸 장수선도 {마구리배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인 게 전하고 정하는 그 부합에 따라서 주 는 거고 옛날에는 요즘은 뭐 프로수로 계산하 리키는 말. 마구리들을 태워주는 일을 주로 하는 배이다.</p>		강영길(울릉도)	0	0	
어원	도구	일용도구-배	종량			목진	명	명	나무로 만든 배 · 나우배 · 목조진.	<p>지금은 거의가 배. 예프알피가 주종을 이루 고 있지만 옛날에는 칠선 아니던 {목진이었 어}. 칠선 아니던 목진이였는데 그 당시 에 저동이 항구에 범돌선이 배 착수가 약 한 큰 배들이 사십 몇 척 있었어. 그랬잖 은데 배들 르 배가 다 있어야지고 여 작은배를만 생존을 하게 됐는 거예요.</p>		강형숙(울릉도)	0	0	
어원	도구	일용도구-배	종량			발동선	명	명	기렛배를 달린 부르는 말.	<p>아 이 선배님이 계장님이 하시던 그~ 배는 근해. 근해 채취기로서. 이 어진 규모는 다 학 이성구원 모험 중심관 정도 어 이런 그 해초잡이를 하시는 배기 때문에 그런 목선 이 필요함.</p>		강영길(울릉도)	0		
어원	도구	일용도구-배	종량			예프알피	명	명	나무가 아닌 예프알피라는 재질로 만든 배 요즘 사용되는 배를 가리킨다.	<p>예프. {예프알피} 아이라 기계 자체로만.</p>		임기혁(울릉도)	0	0	
어원	도구	일용도구-배	종량			예프알피선	명	명	나무가 아닌 예프알피라는 재질로 만든 배 요즘 사용되는 배를 가리킨다.	<p>자연적으로 아선들도 인자 거 우리가 일본 쪽에 참 부럽게 생각했던 지 우리도 저런 배 한 바 타볼 수 있을까 했는 {예프알피선들} 요즘 우리나라 지금 전부다 예프알피잖아 요.</p>		강영길(울릉도)	0	0	
어원	도구	일용도구-배	종량			인락선	명	명	'용지와 성을 오가며 수송을 주로 담당하는 배.	<p>{인락선}. 예. / {인락선} 대는.</p>		임기혁(울릉도)	0	0	
어원	도구	일용도구-배	종량			오징어배	명	명	오징어를 주로 잡는 배.	<p>그 {오징어배}. / {오징어배라고} 하지 뭐.</p>		이경웅, 정익선 (울릉도)	0	0	
어원	도구	일용도구-배	종량			장수기	명	명	장수부족 머구리들이 타고 다니는 배를 가 리키는 말.	<p>{장수기}. / {장수기} 하잖아. 여기 일월달 부터 한다고.</p>		임기혁, 정익선 (울릉도)	0	0	
어원	도구	일용도구-배	종량			장수선	명	명	장수물해서 작업하는 배를 가리키는 말.	<p>그래서 잠깐 한 이년 쉬었다가, 쉬었다가 내 가 인자 그 당부터 {장수선들} 타게 됐조. 선장으로. 선포 선장으로 인자. 그래서 심혈 년 종사를 하다가 아~ 또 그걸 하다가 불의 의 사고로 이 다리를 다쳐가지고.</p>		강영길(울릉도)	0	0	

02 울릉도 오징어 잡이에서 덕장까지 조사어휘(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원표제어 표준어	음성 정보	발음 정보	뜻풀이	유래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영단 정보 사전	영단 정보 영성 특성	영단 정보 영성 특성
어업	도구	원충도구배	원충도구배	종류		첩선	명		복선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첩로 만든 배를 가리키는 말.	지금은 거의가 예, 예프랑피가 주종을 이루고 있지만 옛날에는 첩선 아니면 목선이었어. {첩선} 아니면 목선이었는데 그 당시 배 자통이 항구에 남동선이 배 척수가 막힌 배들이 사십 쫓 쫓 있었어. 그것였는데 전부 큰 배가 다 없어지고 여 작은배들만 생존을 하게 됐는 거예요.		김형수(울릉도)		0	0	
어업	도구	원충도구배	원충도구배	종류		책락이	명	책락이	목선에 엔진을 단 배. 그 소리가 '책락'난다.는 말에서 연유한 것이다.	그래서 옛날 엔진도 엔진자까, 책락이 뭐 뭐 이런 식으로, 뭐 {책락이} 하더라. 기계 소리가 책락이 난다 해서 그런 건지.		김영길(울릉도)		0		
어업	도구	원충도구배	원충도구배	종류		통통배	명		목선을 달리 이르는 말로 물 위에서 통통 울렁 울렁하는 배.	여기 인자 오징어를 판점에서 전부다 훔쳐가면 이기 다 떠나라와 물 쏘으면 배수로 떠간 자루에 다 담겨요. 그러면 {통통배}가 되고 저기 한 일 마일 정도 고집고 나갑니다. 가서 터뜨려버려요.		김성호(울릉도)		0	0	
어업	도구	원충도구배	원충도구배	종류		첩선	명		첩선의 다른 말. 그러나 거의 사용하지는 않는다.	{첩선}. 그래 그걸 타고 잡았고 그 밑에 기껏배 해가 잡고. 아주 옛날에 그때 뭐 기껏배 기계가 있다.		진학영(울릉도)		0	0	
어업	도구	원충도구배	원충도구배			어선	명		고기를 잡는 배를 모두 가리키는 말.	{어선}.		이경우(울릉도)		0	0	
어업	도구	착용도구모자	착용도구모자			털모자	명		배에서 쓰는 모자, 방한용으로 사용한 것의 {털모자} 쓰고. 여름에는 뭐 밀짚 모자 같은 거. 뚫을 인제 오징어 물을 안 맛기 때문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밀짚모자 마이 썼지.	모자는 뭐 자기 취향 맞춰가지고 겨울에는 {털모자} 쓰고. 여름에는 뭐 밀짚 모자 같은 거. 뚫을 인제 오징어 물을 안 맛기 때문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밀짚모자 마이 썼지.		김성호(울릉도)		0	0	
어업	도구	착용도구신발	착용도구신발			장화	명		배 안에서 신는 신발. 목이 길게 올라오는 신으로 가족이나 고무로 만드는데 배 안에서 뺏 모습과 유사하다고 주로 신는다.	자, 위에 바꿔놓고 인자 뭐 찰가 온 다닐 때는 바스 타고 다니고 때문에 항상 장화를 오징어 살 때도 {장화들} 신고 가야 되거든. 눈물 때도 또 장화가 필요하고 하니까.		박봉식(울릉도)		0	0	
어업	도구	착용도구옷	착용도구옷			갑배	명	갑배	옷 위에 덧 입는 것으로 방수용으로 된 것을 가리키는 말.	{갑배} 입고 또 이래 장갑을 얹. 없지 싶으다. 갑배 입고 이래가 밤 새가 지 시작하고. 인자 밤에 배가 고프면 밤에 밤 새가 가라. 그래 갑배 입고 그래 오징어 잡고 그래 찜/웁은 뭐 주로 인자 {갑배}. 예. 갑배. 아~ 아~ 그러니까 광복 천 끝은 메다가 그 코팅을 입혔는 거지.		임기학(울릉도)		0	0	
어업	도구	착용도구부시	착용도구부시	단위명사		자리	명		부시에 다는 바늘의 수를 세는 단위. 25개짜, 17개짜를 말. {스물다섯 자리씨} 이렇게 세요. 한 부시에만 열영글자라고 한다. 주로 산자구를 이야기할 때 많이 나타났다.	부시에 다는 바늘의 수를 세는 단위. 25개짜, 17개짜를 말. {스물다섯 자리씨} 이렇게 세요. 한 부시에만 열영글자라고 한다. 주로 산자구를 이야기할 때 많이 나타났다.		김형수(울릉도)		0		

02 울릉도 오징어 잡이에서 덕장까지 조사어휘(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원표제어 표준어	음의말	발음 정보	음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출처 정보	비고
어업	도구	채집도구	부시	부분명칭			'경심'	경심	명	'부시에 사용되는 줄을 가리키는 말. 주로 원줄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다.'	{경심}, 부시 뒤 도구를 / 오기메다가, 오기메다가 이제 어 경심 그라는 성을 고 여가다. 메는 거예요. {경심을} 메는 거예요.		김성호, 김형수 (울릉도)		0	어사전 기록 토막임
어업	도구	채집도구	부시	부분명칭			'부시바늘'	부시바늘	명	'부시에 꿰에 다는 바늘을 가리키는 말. '바늘, 바늘, 이빨'이 모두 나타냈다.'	오징어 부시는 바늘이 얇아요. {부시바늘이} 얇기 때문에 걸려만 오지 내려갈 땐 그냥 뚱거져요. 그 풀리가 인제 그래서 오기로 부들을 잡고 이걸 채고 흔들다가 오 부들을 잡아서 풀러서 오 부시 편 밑에 끝을 내서 이렇게 가꾸로, 가꾸로 세우면 오징어가 떨어지죠./ 이걸 {부시바늘이라고} 합니다.		강영길(울릉도)		0	
어업	도구	채집도구	부시	부분명칭			'부시이빨'	부시이빨	명	'부시에 꿰에 다는 바늘을 가리키는 말. '바늘, 바늘, 이빨'이 모두 나타냈다.'	'바'에, 그런 얘기는 막 {부시이빨만} 달려있어요.		김형수(울릉도)		0	
어업	도구	채집도구	부시	부분명칭			'부시나'	부시나	명	'부시나 그물에 달아 바닷물에 가리얌도록'하는 도구.	그러면 오기메다가 이렇게 줄을 연결시켜 주어야 되는데, 그러면 저울식으로 가는데 요 {부시나} 포괄적인 의미만 등재됨. 의미 보완 필요함.		강영길(울릉도)		0	0
어업	도구	채집도구	부시	부분명칭			'물줄'	물줄	명	물줄류에 의해 떠나러가지 얇도록 고정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풍선모양의 도구. 다른 말로 '시양카'라고도 한다. 바다에 조임을 하러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다.	첫째 인제 물줄을 놓고 {물줄이} 뭐냐면, 시양카라 그러죠. 시양카라 개 물줄인데 인제 소류에 의해서 팔라 떠나려 밀려가지 마라고 이렇게 낙하선처럼 생긴 물줄. 물줄을 놓게 되요. 물줄은 이런 뒤 동해안 어디가도 다 그렇고. 시양카라는 거는 그럴 어데 나와 있을 겁니다.		강영길(울릉도)		0	
어업	도구	채집도구	부시	부분명칭			'사각물레'	사각물레	명	부시를 끌어올리는 도구 중 사각으로 생긴 것을 가리키는 말.	물레, 물레 돌리는 인제 그 물레도 인제 그 옛날에는 인자 사, 물레 요런 것도 옛날에는 {사각물레}.		강영길(울릉도)		0	
어업	도구	채집도구	부시	부분명칭			'사기단자'	사기단자	명	사도의 꿰에 다는 사기로 된 둥근 모양의 것들. 지금은 쥔 모양의 단자를 이용하지만 예전에는 사기로 된 단자를 사용했다고 한다.	그게 인제 사도라는 것은 {사기단자들} 가 되고.		강영길(울릉도)		0	
어업	도구	채집도구	부시	부분명칭			'시울'	시울	명	사도에 다는 사기단자와 부시바늘을 연결하는 줄을 가리키는 말. 시울을 사용한 다용어라는 것이 경청이다. 원줄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한다. 특별한 나이를 줄은 되지 않은 것. 원 줄라라는 부시도구가 나온 후부터는 경침을 사용했다.	이거 인자 사들니다. 사도, 이거 해안 사기노가 되었어요. 오렇게 되었어. 사기도가 되어 있는데. 오거는 인자 이 줄, 줄인데. 줄이거를 갖다가 이걸 시, {시울이라} 캐요. 시울, 시울이라고 하고 요런 인자 사도.		강영길(울릉도)		0	
어업	도구	채집도구	부시	부분명칭			'원줄'	원줄	명	부시대 꿰에서 부시를 직접 다는 곳까지의 부시줄. 부시줄을 따낼 때 원줄을 말기라고도 한다. 부시대 꿰에서 부시를 직접 다는 곳까지의 부시줄을 말한다.	이게 원, {원줄이라고}. 오 부분이 사기때요. 오게 사기, 사기 아니죠? 사기라고 할랑가, 사기.		강영길(울릉도)		0	0

02월 18일 오징어 잡이에서 덕장까지 조사어후(김지숙)

영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정보	품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영단 정보	영단 뜻풀이	표준어 대분류	표준어 중분류	표준어 소분류
어업	도구	채집도구\낚시		부분명칭			무단		명	사도의 사기단자를 씌우는 천. 지금의 낚시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아니든 나무 전체로 된 게 있는데 요 자체를 낚시 요 자체를 낚시가 이렇게 해서 뭐 요렇게 있오? 어? 이게 낚시인. 여기 둘러싼(사전에 종이의 의미로 등재됨. 유단이라는) 천이 있어. 유단. 아시죠? 유단이라고.					0	어업	도구	채집도구\낚시
어업	도구	채집도구\낚시		부분명칭			추돌		명	낚시 끝에 다는 작은 추 모양의 돌. 이 돌로 인해 물살에서도 낚시가 고정될 수 있다.	낚시를 낚시 아까 예기했던 로라냥시 산작꾸 (추돌) 경성 그라는 배에 당배까지 다 싣고 가요. 선주 측에서, 싣고 와가지고 배에 사무장이 있어요.		김형수(울릉도)			0	어업	도구	채집도구\낚시
어업	도구	채집도구\낚시		부분명칭			별각\물레		명	물레의 종류 중 하나로 그 모양이 팔각형인 것을 가리키는 말.	인제 또 이거 연구를 한 게 각을 많이 주면 서 쉽게 돌릴 수 있다. 그래서 인제 팔각, 팔각으로 나왔죠. 그 그 당 팔각. {팔각물레}. 팔각은 팔각물레.		김영길(울릉도)			0	어업	도구	채집도구\낚시
어업	도구	채집도구\낚시		종류			거인낚시		명	예전에 오징어를 잡을 때 사용했던 낚시의 종류.	그때는 낚시가~ 이거 할 땐 낚시가. 그~ 이 후에 낚는가. 옛날에 오징어 낚시도 {거인낚시라고}.		김영길(울릉도)			0	어업	도구	채집도구\낚시
어업	도구	채집도구\낚시		종류			고꾸라		명	오징어를 잡는데 사용하는 낚시의 하나. 그 모양이 굵어져 '고꾸라지다'라는 말에 연유한다. '사도-고꾸라-산작꾸-날라리'라는 식으로 행가지고 낚시를 용어화가 된 게 있고 그것어요. 어쨌 게. 그래서 인자 그거를 내려가지고 인제 시물도가. 시물이란 그 자체가 원본말이라.	요게 {고꾸라입니다}. {고꾸라}. / 예. 그래서 그걸 인자 뛰어가지고 이렇게 다누 꼬장이를 걸쳐가지고 앞에 놓아요. 앞에 걸치면은 이 오징어가 인제 여기서 뭍 사도로 인자 {고꾸라}. 인자 상고꾸라도 쓰고 아 사도를 낚시도 낚시. 그 모양이 굵어져 '고꾸라지다'라는 말에 연유한다. '사도-고꾸라-산작꾸-날라리'라는 식으로 행가지고 낚시를 용어화가 된 게 있고 그것어요. 어쨌 게. 그래서 인자 그거를 내려가지고 인제 시물도가. 시물이란 그 자체가 원본말이라.		김영길, 김성호(울릉도)			0	어업	도구	채집도구\낚시
어업	도구	채집도구\낚시		종류			고꾸라낚시		명	고꾸라로 하는 낚시를 가리키는 말.	고꾸라대. 요거는 {고꾸라낚시}.		김성호(울릉도)			0	어업	도구	채집도구\낚시
어업	도구	채집도구\낚시		종류			고꾸라대		명	고꾸라낚시에서 사람이 잡는 부분을 가리키는 말.	예. 요고서 인자 여기서 잡는 거를 {고꾸라대} 합니다. 고꾸라. 고꾸라대.		김성호(울릉도)			0	어업	도구	채집도구\낚시
어업	도구	채집도구\낚시		종류			날라리		명	산작꾸를 낚시에 매어 사용하는 낚시의 일종. 움직이는 형상이 '날라리'와 같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인제 산작꾸. 로라 이렇게 오다가. 또 인자 이렇게 와서 그 당에는 또~ 내가 경성 그라는 배에 당배까지 다 싣고. {날라리라는} 거는 이 원리가 다 똑같은 있음. 예. 이. 산작꾸라는 낚시를 여기에만 매워서 싣는 걸 {날라리} 그래. 날라리.		김영길(울릉도)			0	어업	도구	채집도구\낚시
어업	도구	채집도구\낚시		종류			니\본조		명	일본조를 달리 부르는 말.	일본조라고. 그러기도 하고 왜 아는 게 없는 거지 모르겠는데 {니\본조} 했는데 이미 니\본조. 일본말 이니까 아마 일본조가 맞는 말 인지 그런 모티브겠습니다. 그곳이 지금 제주 기라고고 부르고 있죠. 제남기라는 거.		김영길(울릉도)			0	어업	도구	채집도구\낚시

02 울릉도 오징어 잡이에서 덕장까지 조사어휘(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음성정보	형태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형태 정보	표준어 비고
어업	도구	채집도구·부시	종류					물보		고기가 걸린 부시를 끌어올릴 때 사용하는 도구. 그래서 '로라'는 오징어를 끌어올릴 때 사용하는 도구를 오징어부시를 함께 관용 수 있도록 하는 문인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본다. 모두 고기가 상하지 않고 잘 건들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거 아귀 다음에, 아귀 다음에 나왔는가? 하이트 거릴때 부시라고, 요즘은 음파 이용 게 나오는데 이 더마도 크고 저 그런 게 있고 이게 인제 사, 사도, 도꾸란데 또 돌보라는 게 있어. {돌보}.		강영길(울릉도)		0	
								로라		고기가 걸린 부시를 끌어올릴 때 사용하는 도구. 그래서 '로라'는 오징어를 끌어올릴 때 사용하는 도구를 오징어부시를 함께 관용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본다. 모두 고기가 상하지 않고 잘 건들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에. 인제 {로라} 침에는 그 아~ 이 이렇게 사각으로 되서, 사각으로 돼서 어기다 구멍이 오렇게 뚫어져 있는데, 이거를 어기에 다 인자 또 인자 손잡이가 있고, 부시는 이렇게 감기는 거죠?		강영길(울릉도)		0	0
어업	도구	채집도구·부시	종류					로라부시		로라를 이용해 오징어를 낚는 것을 가리키는 말.	예. 그렇죠. 부시를 가지고 그 당시에 인자 부시가 인제 저희들이 사용하는 게 지금 자동 조상기도 {로라부시라고} 그렇게 명칭을 썼지만은 {로라부시가} 있었고 그것도 사람이 손으로 돌리는 {로라부시} 있었고 그 당에 왜 신장꾸라꾸 또 있어요.		강영수(울릉도)		0	
								명태부시		명태를 낚는데 사용하는 부시를 가리키는 말. 물고기를 잡는 기구의 하나로 긴 부시줄에 여러 개의 부시를 달아 물속에 늘어뜨려 고기를 잡는 주낙이 사용되기도 한다. 부시는 그 대상에 따라 문어부시, 명태부시, 오징어부시로 구분되었다.	자가 강원도 가서 상 때 저희 집에 그~ 명태 배리를 하게 되면 그 {명태부시들} 이렇게 배리다가 이래 짝어서 인제 워 미끼를 끼애 가지고 도래를 덩어서 이런 인자 대표전에 다, 자기네들 인자 당골로 가는 대표 집에 가갖고 그거를 이렇게 썰어두는 곳이 있어요.		강영길(울릉도)		0	
어업	도구	채집도구·부시	종류					사도		처음 오징어를 잡을 때 사용한 부시. 원줄에 두 개의 부시와 사기단자를 달아 사용한다.	그러면 조 막 그물, 낚, 부시를 시를 막 카든 {사도들} 이래 오래 누가 되게 되어 있는데, 사기 {사도마}. 막 제까가지고 요래 부시를 막 지고 손목한 약간 틀만 돌은 자복 바다로 꼭 배리니다. 그러면 탁 오라면 오징어 회전을 해가지고 탁 뱃창이 열려져요. 그래서 물을 하나도 안 물어요. 그래 오징어는 인제 도마 위에 찢어놓는데 위에 저 자기 뱃창는 걸 손수로. 그때는 전부다 전 손으로 인자.		강영호(울릉도)		0	
								신자꾸		사도 다음에 더 발전된 형태로 나온 오징어잡이 부시.	예. 그렇죠. 부시를 가지고 그 당시에 인자 부시가 인제 저희들이 사용하는 게 지금 자동 조상기도 로라부시라고 그렇게 명칭을 썼지만은 로라부시가 있었고 그것도 사람이 손으로 돌리는 로라부시 있었고 그 당에 왜 {신장꾸라꾸} 또 있어요.		강영수(울릉도)		0	
어업	도구	채집도구·부시	종류					일본조		채취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일본에서 만들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	채취기는 원래는 학명상으로 채취기가 과거에는 {일본조라} 그랬어요. 일본조.		강영길(울릉도)		0	
								자동조양기		오징어를 낚아 잡아 올릴 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만능 기계.	강을 때는 날리라고 그러다. 쉽게 말하자면 이게 부시가 조금 달라도 모양은 달라도 불러지는 만능 기계. 그 당에 생긴 게 자동. {자동조상기}.		강영길(울릉도)		0	

02 울릉도 오징어 잡이에서 덕장까지 조사어휘(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음영	발음 정보	분류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 정보 1	출전 정보 2	명사 정보	비고
어업	도구	채집도구	낙시	종류			조기낙시	명			'항치낙시'와 같은 말. 이 지역에서는 '조기'를 '한치'라고 한다.	지금도 이것을 인해 어떤 경우에 지금은 쓰지 않지만 지금은 낙시꾼들이나 어부들이 한치 낙시에서 사용한다. 한치낙시 할 때 이것으로 합니다. 현재는 한치, 올릉도는 조기라 그러죠. 조기. {조기낙시로} 사용.		강영길(올릉도)	0	표준어	
							채낙기	명		책에서 낙는다는 의미를 지닌 오징어 잡는 기계에는 일본조라 그랬어요. 일본조.		강영길(올릉도)	0	표준어			
							한치낙시	명	오징어의 종류인 한치를 잡는 일을 가리키는 말. 이 지역에서는 '조기'를 '한치'라고 한다.	지금도 이것을 인해 어떤 경우에 지금은 쓰지 않지만 지금은 낙시꾼들이나 어부들이 한치 낙시에서 사용한다. {한치낙시} 할 때 이것으로 합니다. 현재는 한치, 올릉도는 조기라 그러죠. 조기. 조기낙시로 사용.	강영길(올릉도)	0	표준어				
어업	도구	채집도구	낙시	종류			낙수	명		'낙시'를 달리 가리키는 말.	죽 맞으려면 {낙수} 아래 줄줄 매가 낙수를 쳐 가지고 바다 가 가지고 해가 빠지면은 낙수를 여가 아래 돌리면서 그 낙수에서 시가리가, 시가리 불, 불이 난다고. 불, 어방언으로 등재됨.		임기학(올릉도)	0	표준어		
							니까도	명	낙시배늘을 두 개 단 낙시를 가리키는 말. 사도를, 사도취기를 하는데, 가- 올릉도는 낙시배늘을 두 개 단는 사용. 네 개 여섯 개 이상 다는 사용도 있고 그랬어요. 여섯 개, 그러서 인자 그개를 내려 가지고 인쇄 시물로가, 시물이라 그러죠. 그 줄을, 시물. 거의 다 이 게 용어 자체가 일본말이라.	예, 그래서 그럴 인자 묶어 가지고 이렇게 나무 고정이를 걸쳐 가지고 옆에 놓아요. 옆에 걸치면은 이 오징어가 인해 여기서 똑 사도, 인자, 상고꾸라도 쓰고 어방언이라 그러죠. 사도취기를 하는데, 가- 올릉도는 낙시배늘을 두 개 단 낙시를 가리키는 말. 니까도 {니까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낙시를 묶어 두 개 단는 사용. 네 개 여섯 개 이상 다는 사용도 있고 그랬어요. 여섯 개, 그러서 인자 그개를 내려 가지고 인쇄 시물로가, 시물이라 그러죠. 그 줄을, 시물. 거의 다 이 게 용어 자체가 일본말이라.	강성호(올릉도)	0	표준어				
							미까	명	{미까}를 달리 부르는 말.	{미까} 없어. / {미까는} 없고.	미까는 등재됨.	임기학, 건학원(올릉도)	0	표준어			
어업	도구	채집도구	낙시				시가리	명		낙시를 할 때 정기는 인해 낙시에서 불뿔이 나면 시가리를 놓아, 이 불빛으로 인해, 오징어가 낙시를 놓는다고 한다.	죽 맞으려면 낙수를 아래 줄줄 매가 낙수를 쳐 가지고 바다 가 가지고 해가 빠지면은 낙수를 여가 아래 돌리면서 그 낙수에서 {시가리}가, 시가리 불, 불이 난다고. 불, 어방언으로 등재됨.		임기학, 건학원(올릉도)	0	표준어		

02 울릉도 오징어 잡이에서 덕장까지 조사어휘(김지숙)

영 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원표제어 표준어	음성 및	발음 정보	통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 정보1	출전 정보2	영 단 어 정보	영 단 어 정보	영 단 어 정보
어업	도구	채집도구	부시				시양카	명		물풍구와 같은 말.	바다에 나가가지고 조망을 할 때 배에 {시양카라고} 있어오. 물풍구라는 거. 그걸~ 인제 막 놔두면 그거는 물 조류에 따라가 배를 큰 배를 끌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 이게 지파엑스가 있잖아요. 지금은 지파엑스고 옛날에는 노란구라는 노란구라는 전장바를 썼었어오.		김형수(울릉도)		0		
어업	도구	채집도구	부시				어구통	명		부시를 담은 통을 가리키는 말.	에. 부시 담은 어구. {어구통이죠}. 학교. 학교고 이 오동나무로써 채가지고 이래 편하게 채가지팔창 한 세 칸 정도 만들어. 그래서 부시를 거 전부다 오를 저쪽에 오다가 경성 터졌다던가 이럴 때 다시 그 채비를 보관하는 장소요.		김성호(울릉도)		0		
어업	도구	채집도구	부시				용개도	명		사도에 부시바늘을 네 개 단 것을 가리키는 말. 몇 개를 다느냐에 따라 '용개도, 니개도'로 불려진다.	용. 용. {용개도는} 인자 부시를 이 어둡나 하먼은.		김성호(울릉도)		0		
어업	도구	채집도구	부시				자채	명			{자채하는} 거 하고. {자채하는} 거 하고 그거 한 가지네.		정익선(울릉도)		0		
어업	도구	채집도구	부시				전기사도	명		사기사도에서 좀더 발전된 형태의 사도로 여기 어 우에 하다가도 여기 인제 나중에는 전기로 운행이 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 배터리 사도로가 해가 서기로가 만들었는데. 전기가 들어가야 아람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하는데 거보다도 몇 년 발전돼가 뭐 했냐면 광성인 오징어 장이에 더 효과적인 것이다. {전기사도} 카는 거 나왔는 기야		박봉식(울릉도)		0			
어업	도구	채집도구	부시				조상기	명		오징어를 낚아 잡아 올릴 때 자동적으로 이리 돌아지는 만든 기계.	그러면 거서 좌우. 백 한 이상심메다 줄을 몇가지고 자동으로 막 움직이게하면 {조상기} 지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김성호(울릉도)		0		
어업	도구	채집도구	부시				주낙	명		긴 낚시줄에 여러 개의 낚시를 달아 물속에 늘어뜨려 고기를 잡는 도구. 물고기를 잡는 기구의 하나로 긴 낚시줄에 여러 개의 낚시줄을 달아 물속에 늘어뜨려 고기를 잡는다.	양태바리 비슷하네. 그자. {주낙}.		임기학(울릉도)		0	0	
어업	도구	채집도구	통				이깨수	명		오징어를 담아 배 안에서 보관하는 곳. 주로 산 고기를 보관하는 곳을 가리킨다.	{이깨수} 카는 건 뭐고 하먼 활어. 활어 카는 건 실았는 오징어. 왜 하는데 이깨수 실 바닷물이 배 옆에 구멍이 이래 떨어졌습다.		박봉식(울릉도)		0		
어업	어획물	고등	종류				얹새고디	명		수라 종 하나로 삼았을 때 그 맛이 맵고 얹새한 것을 가리키는 말. 이 지역에서 매우 유명한 요리로 '얹새'라고 한다.	{얹새고디네} 안에 드가서 사는 기는 뭐냐 이기라. 이물이 뭐냐 이기라. / 무슨 {얹새고디라}. 고 목으면 램. 램독해.		임기학, 권혁영(울릉도)		0		
어업	어획물	기타류	장각류		부분양정		달구지	명		개의 다리 부분을 가리키는 말.	영덕대대대. 그거 인자 포함이나 구룡포나 같은 데 가이 나는 구룡포서 그거 사가 오고 설타라. 내 스구 따름에 전에 잘 때 구룡포가 개 입항로 오는데 한 {달구지} 떨어진 거 이런 거 안 있다.		박봉식(울릉도)		0	0	

02월 18일 토요일 오징어잡이에서 덕장까지 조사어후회(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용어명	발음정보	품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영단어 정보	표준어 정보	표준어 정보
어업	어획물	기타류	매개비				매개비		명	이 지역에서 많이 나는 것 중 하나로 바위에 딱 붙어 살 것 모양을 지닌 조개류의 하나. 원래 진대만인 조개부속인데 오징어와 함께 이 지역 토속 음식의 재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거는 볼게, 그거는 볼게 인제 훔잡바이 인제 이렇게 인기가 있고 하니까 자주 그런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따개비는} 원래 바를 해먹은 게 아니고 저거는 죽을 훔쳐먹었어.		강영길(울릉도)		0	0	0
어업	어획물	기타류	오징어	단위명사			꼬지		명	오징어를 세는 단위. 죽을 대신해 '꼬지'를 사용하기도 한다.	큰 단위는 인자 {백 꼬지}. 백 죽 안 있습니다. 그걸 한 바리라 이래요. 한 바리.		박봉식(울릉도)		0		
어업	어획물	기타류	오징어	단위명사			두름		명	스무 마리를 묶어놓은 것을 가리키는 말. 두름, 두물을 가리키는 말이다	인제 대짜는 스무, 스무 마리 그러이 우리는 한 꼬지라 그러죠. 꼬지에 왔을 때는 한 꼬지, 꼬지, 또 강원도에 가면 그걸 한 {두름이라} 유사하며, '짜'과는 차이를 보인다. 그러요.		강영길(울릉도)		0	0	0
어업	어획물	기타류	오징어	단위명사			바리		명	오징어를 세는 단위. 백 두름, 백 죽을 한 바리라고 한다.	백 몇 죽 꼬지. 아까 십 한 {바리만} 아천 마에 스무 마리씩, 꼬지거든. 한 꼬지 꼬장이 하나에 스무 마리씩 짜는데 백 몇 십 꼬재. 그럴 때 백 십 죽이라. 아까 백 꼬지가 뭐라.		박봉식(울릉도)		0		
어업	어획물	기타류	오징어	단위명사			짜		명	20마리씩 죽을 지은 오징어를 다시 묶어 잘라내는 단위. 보통 대자는 60~70마리를 죽을 짜는 80~90마리를, 소자는 110~120마리를 짜는 것이다.	그런 방법으로 지어는 전부 거다가 보내주는 거라. 나는 몰아해가. 가는 거다가, 양해. 그러 몰 짜씩 스무 짜씩 땀 밀고 보내는고.		박봉식(울릉도)		0		
어업	어획물	기타류	오징어	단위명사			죽		명	스무 마리를 묶어놓은 것을 가리키는 말. 두름보다 죽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에 그 이개빠리 잡았다 이라고 뭐 바리 바리 잡았다. 바리 바리 잡았다 카는 기 결국은 백 오섬{죽} 잡았다 카는 기라.		박봉식(울릉도)		0	0	0
어업	어획물	기타류	오징어	명칭			수루매		명	오징어를 말리 부르는 말.	이개, 이개라고 했고 침에는 이 뭐 {수루매}라고도) 마이 했고.		강영길(울릉도)		0	0	0
어업	어획물	기타류	오징어	명칭			오징어		명	오징어.	우리는 그냥 인제 이개라 그러지. 이개. {오징어}.		강영길(울릉도)		0	0	0
어업	어획물	기타류	오징어	명칭			이개		명	오징어를 말리 부르는 말.	너거 아버지 이개 열매 참. 그때는 오징어 카는 말은 최근에 수십년 전에 주로 {이개} 이개 열매 참도 한번 가봐라 이래하고, 이래할 때때 여기가 다 연변이랑.		박봉식(울릉도)		0	0	
어업	어획물	기타류	오징어	명칭			피동어꼴두기		명	오징어를 말리 부르는 말.	오징어는 이거는, 우리가 오징어를 이기 인제 이. 원래는 이걸 {피동어를두기라}. 피동어꼴두기라 그러시 싶든데.		강영길(울릉도)		0	0	

02 울릉도 오징어 잡이에서 덕장까지 조사어휘(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원표제어	음성	형태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형태	종교	표준어	표준어
어업	어획물	기타류	오징어	부분명칭	창자		명		누런창을 달리 부르는 말. 통의 색을 띠고 있다. 창자라고도 했었다는 의미이다.	{간유구라} 그라지. 안에 전부 기름이라고. 어~ 기름인데 울릉도 사람들은 저것을 인제 그 누런 부분을 오징어 간이라고. 그걸 인제 먹음만 제가하고 그걸 소금에 절여 찌다 게 찌어 찌다가 거름에 두장걸은 거 인제 쓰게 되. 넣고 저걸 달여서 넣으면 엄청 맛있어 요.		강영길(울릉도)	0	0			
어업	어획물	기타류	오징어	부분명칭	귀		명		오징어의 귀 부분을 가리키는 말.	{귀가} 굉장히 넓습니다. 처지고, 그 밑에 붙어 있고. 먹통이 좀 길면서 귀가 길고. 한 지. 조기라 그러죠. 조기.		김성호(울릉도)	0	0	0	0	
어업	어획물	기타류	오징어	부분명칭	귀때기		명		오징어의 귀 부분을 가리키는 말.	갯밥. {귀때기}. / {귀때기}.	동물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 건학음, 임기학(울릉도)		0	0	0	0	
어업	어획물	기타류	오징어	부분명칭	갯밥		명		오징어의 귀 부분을 가리키는 말.	{갯밥}, 귀때기. / 귀때기.	동물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 건학음, 임기학(울릉도)		0	0	0	0	
어업	어획물	기타류	오징어	부분명칭	꼬리때기		명		오징어의 꼬리 부분을 가리키는 말.	손따기 하고 {꼬리때기} 하고 이제.	동물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 정익선(울릉도)			0	0	0	
어업	어획물	기타류	오징어	부분명칭	누런창		명		누런 빛을 내는 오징어의 내장을 가리키는 말. 오징어는 흰창자와 누런창자로 나누어 창. 저~ 우에 와. 안. 그러나. 선동들이 잡힌다.	{누런창} 알지요? 폭포. 폭포. 이개 {누런창}. 저~ 우에 와. 안. 그러나. 선동들이 잡힌다.		박봉식(울릉도)	0	0			
어업	어획물	기타류	오징어	부분명칭	눈		명		오징어의 눈을 가리키는 말.	{눈}.	동물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 정익선(울릉도)			0	0	0	
어업	어획물	기타류	오징어	부분명칭	몸		명		오징어의 몸을 가리키는 말.	창대기도 육고 뭐 {몸도} 육고.	동물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 이경우(울릉도)			0			
어업	어획물	기타류	오징어	부분명칭	창자		명		누런창을 달리 부르는 말. 통의 색을 띠고 있다. 창자라고도 했었다는 의미이다.	오징어~ 이제 그게 창대기국이라고 하는데 어기서 인제 그~ 그 오징어를 이렇게 배를 따다 보면은 이제 그게 {창대기라고} 또 있었어요.		황집	0	0	0	0	
어업	어획물	기타류	오징어	부분명칭	먹물		명		오징어 먹창 안에 들어있는 것은 색의 물을 가리키는 말. 먹색과 같다는 의미이다.	먹물이면 먹창이면 먹기면 물로 꼭 싸두고 뭐. {먹물로} 싸는 거야. 먹물 싸가.	건학음(울릉도)		0				
어업	어획물	기타류	오징어	부분명칭	먹물		명		먹물을 달리 부르는 말.	{먹창} 먹창. / 먹물을 꼭 오래 있어. 까만 게 먹물.	건학음, 임기학(울릉도)			0			
어업	어획물	기타류	오징어	부분명칭	먹물		명		먹물을 달리 부르는 말.	오징어도 문~ 먹는 거 있어. {먹물이라고}. / 예. {먹물} 있어.	건학음, 임기학(울릉도)			0			

02 율동도 오징어 잡이에서 덕장까지 조사어휘(김지숙)

번호	단어	중립어	소립어	상세분류2	상세분류1	원표제어	음성	음성	뜻풀이	유형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어업	어획물	기타류	오징어	부분명칭	물	물	명	명	물통을 멀리 부르는 말.	{물}. 물통.		임기학(율동도)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어업	어획물	기타류	오징어	부분명칭	물	물	명	명	물 부분통을 가리키는 말.	오징어 꾸미기고. 요기 {물통}.		임기학(율동도)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어업	어획물	기타류	오징어	부분명칭	기타	물통	명	명	오징어의 입 부분에 있는 물이 나오는 곳을 가리키는 말.	{물통}. 물통. 물로 뿜어 쏘는 거. / 조디.	포괄적인 의미만 등재됨. 의미 보충이 필요함.	정상권, 임기학(율동도)	0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어업	어획물	기타류	오징어	부분명칭	발	발	명	명	오징어 발을 가리키는 말.	예. 고 {발}.	동물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함.	임기학(율동도)	0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어업	어획물	기타류	오징어	부분명칭	발	발판	명	명	오징어 다리 끝에 달린 둥근 모양의 부분. 이 부분을 이용해 물체에 붙을 수 있다.	{발판} 끝에 그 까칠까칠한 거.		박봉식(율동도)	0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어업	어획물	기타류	오징어	부분명칭	발	손뽀기	명	명	오징어 발을 가리키는 말.	{손뽀기} 하고 꼬랑대기 하고 이제.		정익선(율동도)	0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어업	어획물	기타류	오징어	부분명칭	창자	어간유	명	명	누린창을 멀리 부르는 말. 기름을 짜내는 데 사용한다는 의미이다.	내장이고 그 누린창은 엔대. 그대 {어간유}라고. 해가 오징어 거 기름 짜고 하는 거. 그 사전에서 '엔대, 대구, 상어 따위 물고'가 누린창에서 다 쪼뚝니다. 누린창에서 짜가 그거의 간장에서 뽑아낸 지방유는 그게 아예 들어가나. 이래에 화장품 원료들은 다 다 들어간다 하더라고.		박봉식(율동도)	0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어업	어획물	기타류	오징어	부분명칭	배	오독배	명	명	크고 굵고 살이 단단한 갑오징어 안에 든 배. 기름을 짜내는 데 사용하기도 했다.	{오독배}. 그거 이름이 오독배라 이러데. 갑오징어 속에 있는 배를 속을 부른 것디기는. 오독배라고 속도 굵으면 굵습니다. 그대 해보면. 그들 것들에 먹이 없을 때는 그들 배를 손 바꿨다든지 다지게. 다쳤다든지 하면 그들 낱토가 이래 가루를 뿌리가 이래 치료를 하더라고.		박봉식(율동도)	0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어업	어획물	기타류	오징어	부분명칭	창자	오징어배	명	명	오징어 창자를 가리키는 말. 흰창자보다는 누린창자를 가리키는 말도 사용되었다.	{오징어배}. 그거가 됐는데 정말 괜찮습니다. 우리는 거기 아주 좋습니다.		박봉식(율동도)	0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어업	어획물	기타류	오징어	부분명칭	다리	창지기	명	명	오징어의 다리를 가리키는 말. 다른 말로 창지라고도 한다.	율동도 짜는 다른 오징어 가면은 간다리에 보이는 이 창지에 배 들어올. 돈어글이 {창지기}라. 하는데. {창지기}가 다 붙어 있는 거라야 장. 신선도를 유지하는데 여기 보면 다른 데도 오징어를 보면 이 다리에 창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김성호(율동도)	0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어업	어획물	기타류	오징어	부분명칭	창대기	창대기	명	명	창자를 멀리 부르는 말. '창자'보다는 창대기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창대기}도 묵고 뭐 용도 묵고.		이경우(율동도)	0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어업	어획물	기타류	오징어	부분명칭	창자	창자	명	명	오징어 창자를 가리키는 말. 흰창자와 누린창자를 통칭해 가리키는 말도 사용되었다.	예에. 명대. 창. {창자로} 만든 거. / 배 {창지} 이거. / 좋다. 졸다는 말이 있어. {창지}창지는 등재되지 않음. {창지}창지는 내가 먹통이.		강원도, 건학원(율동도)	0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02 울릉도 오징어 잡이에서 덕장까지 조사어휘(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음성	형태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형태	종교	표준어	비고
어업	어획물	기타류	오징어	종류	상태		죽은오징어	명		가물에 나는 물에 삶이 많은 오징어를 가리키는 말.	그래서 다시 나와 늘 그래도 적게 나다가 언제 시월한 시월달쯤 묘가 나온 (죽은오징어) 나는 거라. 굵은오징어 나온 그거 인자 싱싱할 중순만 가고 그거 떨어버려요.		박봉식(울릉도)		명	종교	표준어	비고
어업	어획물	기타류	오징어	종류	시기		낚오징어	명		낚에 잡히는 오징어를 가리키는 말.	그렇지요. 그래 저 대반에 쪽으로 내려가면 은 {낚오징어}. 낚오징어를 잡는데 가는 뭐 시오심대까지 도는 것도 있었어요. 때가지 그 뿔~거야. 그때는 조성이 나쁘다 하먼은 명칭시라 와요. 보아야 마.		김성호(울릉도)		명	종교	표준어	비고
어업	어획물	기타류	오징어	종류	시기		노작기	명		오징어 종류 중 하나로 도작기를 달리 부른 {노작기} 카는 기 아마 모르겠어요. 이게 아 마 일반말인지 모르겠네요.			박봉식(울릉도)		명	종교	표준어	비고
어업	어획물	기타류	오징어	종류	크기		대자	명		큰 크기의 오징어를 가리키는 말.	{대자} 소, 소자, 대자 종자 소자, 대자 종자 대자02와 관련지어 볼 수 있음.		임기학(울릉도)		명	종교	표준어	비고
어업	어획물	기타류	오징어	종류	특징		대포알	명		대포알과 비슷하게 생긴 오징어를 가리키는 말.	한치, 한치, 대, 대포, {대포알} 카는 거도 있고, 대포알 카는 기 그기 또 인자 조기라 그러는데, {대포알} 카는 거 이거는 별거야 ~ 이만해요. 톱 대포알같이 생겼어. 그것도 인자, 커가, 크고 크기가 굉장히 커요. 이거는 이만큰한 게, 그것도 인자 한치 비스듬하게 휘는척으로 마이 따면서, 굵, 굵조?		김성호(울릉도)		명	종교	표준어	비고
어업	어획물	기타류	오징어	종류	시기		도작기	명		가물에 잡히는 오징어를 가리키는 말. 다른 말로 '거울 오징어'라고도 한다. '박봉식은 {도작기}는 청 주에서 잡는 오징어라는 의미입니다.	{도작기}라 하면 마 그냥 거울오징어로 그		박봉식(울릉도)		명	종교	표준어	비고
어업	어획물	기타류	오징어	종류	시기		동상오징어	명		가물에 잡히는 '도작기'를 달리 부르는 말. {동상오징어}에 시기에 오징어를 잡는 행위를 '동상바리'라고 한다.	그거 인자 거울에 도작기 카는 건대 도작기, 동상바리, 이거 인자 도작기 카네요. 주도 {동상오징어}에 도작기 카데, 보통 도작기 인자 뭐 다 왔다 이래 살고, 지금도 도작기 다 왔다 이래 삽습니다. 그제 동상바리, 거 둘로 친다.		박봉식(울릉도)		명	종교	표준어	비고
어업	어획물	기타류	오징어	종류	특징		먹물	명		삶이 두껍고 먹물을 많이 지닌 오징어를 가리키는 말. 먹물이 없다는 의미에서 '먹물'이라고 불려진다.	울릉도에서 잡히는 거 삽오징어, 그 당에 {먹물} 카는 기, 그것도 멍 오징어과니까, '먹물은 중 삶이 두껍고, 먹~ 먹물 그물들 마 이 잡조, 그래서 먹물.		김성호(울릉도)		명	종교	표준어	비고
어업	어획물	기타류	오징어	종류	상태		물오징어	명		삶이 얇고 물이 많아 휘발 또는 휘거리로 사에 과거에는 '박열'을 켜가지고 그 친구 다 용되는 오징어. 박봉식은 금방 잡아온 물이 마에 인제 {물오징어}를 잡으면 오징어가 있는 상태의 오징어를 가리킨다고 말하기도 한다.	인제 물을 쓰니까 물을 쓰면 그 친구다가 마, 열에 의해서 물에 의해서 파손이 돼요.		김영길(울릉도)		명	종교	표준어	비고

02월 18일 토요일 오징어잡이에서 덕장까지 조사어후회(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상세분류	원표제어 표준어	용어명	발음 정보	품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문단 정보	문단 정보	표준 어사전 출처
어업	어획물	기타류	오징어	종류	크기	잔오징어		명	오징어와 비슷한 어종으로 오징어 중에서 작은 것을 가리키는 말.	큰 것은 큰 가리, 작은 것은 작은 가리, 잔, 잔 가리, 그리고 작은 것은 작은 가리, {잔 오징어} 같은 오징어.		전병홍(울릉도)		0		표준어사전
어업	어획물	기타류	오징어	종류	성태	저장오징어		명	당일 잡았지만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한 오징어, 주로 삶아 두꺼운 오징어가 나는 용례가 있는데, 예~ {저장오징어는} 보통 한 달, 한 달, 구월 말에서 시월달에 저장해서 매달 10월에 잡는 오징어가 저장오징어로 사용될 수 있다.	고기는 먼저 그 시기가 시월달, 양력 시월달에서 십이월까지 고기가 훨씬 많이 날 때 인자, 그 저장오징어가 있고 그 달에 바로 잡아서 바로, 예~ {저장오징어는} 보통 한 달, 한 달, 구월 말에서 시월달에 저장해서 매달 10월에 잡는 오징어가 저장오징어로 사용될 수 있다.		김정호(울릉도)		0		표준어사전
어업	어획물	기타류	오징어	종류		조기		명	오징어 중 한치를 달리 부르는 말.	'한치, 우리 울릉도 말로 조. {조기라} 커기도 해요. 한치를.'		김정호(울릉도)		0		표준어사전
어업	어획물	기타류	오징어	종류	크기	중자		명	중간 크기의 오징어를 가리키는 말.	대자 소, 소자, 대자 {중자} 소자, 대자 중자 소자.		임기학(울릉도)		0		표준어사전
어업	어획물	기타류	오징어	종류	크기	중치		명	중간 크기의 오징어를 가리키는 말.	오징어 큰 가 있고 대가 있고 중, {중자} 있고 소가 있지.	중치이과 관련지어 볼 수 있음.	임기학(울릉도)		0	0	표준어사전
어업	어획물	기타류	오징어	종류	시기	초등		명	'초등오징어'를 가리키는 말.	자랑한 오징어, 요런 게 나는 초등, 잘 나는 오징어, 초등, {초등}. 잘 나는 기거는 초등 오징어가 주로 오월 말에서 육월 초에 낚인다.		박봉식(울릉도)		0		표준어사전
어업	어획물	기타류	오징어	종류	시기	초등오징어		명	사월 또는 오월에 가장 먼저 나는 오징어를 가리키는 말. 다른 말로 초등, 초등이라고도 한다. 초등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런 거 없고 봄에는 양 나니까, 양, 어, 초등오징어가 여름오징어가 아니고 {초등오징어}. 초등, 잘, 잘 나는 기거는 어를, 잘 나 나중애 이제 어를 잡고도 해가오, 내년 한 오월말쯤에 해가 바다에 가가 이래, 보면, 활어배라든지 대구나 서둘이나 애, 대든지 가가 이래, 보면 활어 있는 데 가보면, 오징어 자란한 거 요 할, 활어만한 거애, 저 보세요, 저렇게 많습디다. 그러개 인자.		박봉식(울릉도)		0		표준어사전
어업	어획물	기타류	오징어	종류	시기	초등		명	'초등오징어'를 가리키는 말.	예, 청 나는 걸 초등어임니까, 초등이 {초등} 뭐 초등, 잘 나는 거 이기 예쁜애 나다, 가 물은 오징어는 적어도 시월중, 시월 두두, 다, 가가, 그러도 인자, 십이월 초까지, 시월, 양까지, 인자, 구월, 시월 말쯤 되면, 시월십일, 월중 중쯤 되겠다.		박봉식(울릉도)		0		표준어사전

02 율동도 오징어 잡이에서 덕장까지 조사어휘(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용량명	발음 정보	품사	뜻풀이	유래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영단 정보 사전	영단 정보 국문 음성	표준어 비고 비고 비고
어업	어획물	기타류	오징어	종류	시기			한울	명		한직기를 달리 부르는 말. 이와 유사한 말로 '조물'이 있다.	죽은오징어 뭐 그냥 그때는 풍성 날 때니까 한직기다 이래. {한울이다} 이러거든. 시월 한창 수확되거나 쏠아져 나올 때야 '박봉식(올풍도)'에 오징어 뭐 올풍도는 한직기가 시월달 관련지를 수 있음. 아기가 이래났는데 한직기.				0	0	
어업	어획물	기타류	오징어	종류	시기			한직기	명		오징어가 한창 많이 나는월에 잡히는 오징어. 어를 가리키는 말.	겨울에, 인제 성 안에, 성도자, 예를 들어서 '오. 도직기. 성 안에 바둑 놓았는데 한직기. 단. 포동. {한직기라} 카는 가는 오징어 인제 한창 많이 볼 때 한직기.	김성호(올풍도)			0		
어업	어획물	기타류	오징어	종류				한치	명		작고 부드러운 오징어를 가리키는 말.	옛날에 간꼬같은 거 짐집마다 없고 어유가 있는 집이라야 인자 저 이 씨족이 있거든. 이걸 가지고 다른 거는 몰라도 {한치같은} 거 요 밖에 오게서 오신메다 뵈메다 자 똑까 말게 바다에 띄워놓은 거 있잖아. 저 정도밖에 한 절반만 나가도 자기 한치 카는 거 잡습니다. 한치도 잡고.	박봉식(올풍도)			0	0	
어업	어획물	기타류	오징어					상풍	명		오징어 손질과 건조를 통해 완성된 모습.	아까, 그 정도. 그러니까 나머지 완전 건조 할라. 그러던 아이 {상풍} 안들라면 아이 어 뭐. 한 칠할 번 더 가야 땀.	김세윤(올풍도)			0	0	
어업	어획물	기타류	진복	상태				오도동하다	형		살이 썬 모양이 부은 듯하다.	복 그래. 그래서 양식진복은 살이 {오동동하하이} 그렇지만 여기는 살이 굉장히 얇으면서 여기는 주로 인자 이 보. 포신용으로 여기 인자 상계랑 쪽에. 오래 꼬우면은 진앙이 나고 인자 그쪽요. 이 양식진복같은 거는 이 항 물러져두고 그렇지만.	김성호(올풍도)			0	0	
어업	어획물	기타류	진복	종류				양식진복	명		진복 중 양식으로 재배한 것을 가리키는 말.	복 그래. 그래서 양식진복은 살이 오동동하하이 그렇지만 여기는 살이 굉장히 얇으면서 여기는 주로 인자 이 보. 포신용으로 여기 인자 상계랑 쪽에. 오래 꼬우면은 진앙이 나고 인자 그쪽요. 이 {양식진복같은} 거는 이 항 물러져두고 그렇지만.	김성호(올풍도)			0		
어업	어획물	기타류	진복	종류				율동도진복	명		율동도에서만 나는 진복. 자연산으로 다들 꼬아 먹되다 살아 아물고 크기가 크다. 주로 꼬아 먹는 곳에 쓴다.	가기에 대해서는 나는 뭐 그거 하이튼 올풍도진복이다 이라는데 {올풍도진복이} 굉장히 아물어요. 인자 먹먹하지. 좀 다른 거 양식 같은 거 무르지만 굉장히 아물습니다. 아물고 그래서 인자 고런 물결이 세기 때문에 이 진복이 자체적으로 자기 그 포충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하다 보니까 살이 굉장히 얇아요. 온통 많이 하면 살이 저.	김성호(올풍도)			0		
어업	어획물	기타류	해삼	종류				나무해삼	명		나무처럼 물이 딱딱한 해삼을 가리키는 말. 지렁이보다 살아 아물고 크기가 크다. 주로 해삼은 색을 띠며 중화요리에 사용된다. 해삼이 인제 총해삼보다 인하다. 좀 인하조. 총해삼은 좀 아물. 아물고.	고 약간 덜 붉으면서 굉장히 물이 딱딱하면 서리 삶이 좀 더 나은 걸 {나무해삼}. 크기도 크고 총해삼도 인자 이 총해삼. 맨줄은 그거라면서 인제 색깔이 인제 총해삼이라. 총해삼이 인제 총해삼보다 인하다. 좀 인하조. 총해삼은 좀 아물. 아물고.	김성호(올풍도)			0		

02월 18일 토요일 오징어잡이에서 덕장까지 조사어후회(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소분류	상세분류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용어발	발음정보	품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영단어 정보	영단어 정보	표준어 비고
어업	어획물	추경도구(산발)						설피		명	{물결에서 거둬들여 놓아, 물에 뜨게 함}을 나타내는 말. 동근 채반 모양을 지니고 있다.	대나무로 가리고 {설피를} 만들어, 그대 인자 그걸 신고, 신고 다니고.		경성호(울릉도)		0	0	0
어업	어획물	해조류	대항	종류				숙대항	숙대항	명	대항 중 수컷을 가리키는 말. 암이 짝과 짝을 이루는 데 사용한다. 그래서 주로 쌍을 짝하는 데 사용한다.	어. 인제 {숙대항이란} 것은 인자 출기가 줄기가 가늘고, 암이 인자 넓지가 얇고 암이 줄으면서 가는 거. 가는 거늘고 암대항은 암이 넓조, 출기 수가 적으면서 암이 넓은 거 그걸 인자 암대항이라 해서, 인제 '암대항'이 맞았다.		경성호(울릉도)		0		
어업	어획물	해조류	대항	종류				암대항	암대항	명	대항 중 암컷을 가리키는 말. 암이 굵고 넓어, 자라는 암이 넓기 때문에 아마 그걸 {대항} 자체는 암이 넓기 때문에 아마 그걸 씌우든 써기도 좋고 하니까 그것이 좋다는 사람이 있고 숙대항은 그날 이레 딱지를 해서 먹었을 때 좋다는. 아마 그런 뜻에서 이게 좋단 자체가 좋다. / 예. 여 {암대항이} 있고 숙대항이 있습니다.			경성호(울릉도)		0		
어업	어획물	해조류	대항	종류				대항	대항	명	물결에서인 나는 바닷물, 암수에 따라 '암대항'과 '숙대항'으로 나누어진다.	다른 지역에서는 저 {대항과} 비슷한 게 제 주도나 가면 그대라 그대, 갈매, 갈매라고 그러는 데 갈매와 대항이 다른 거는 다른 거는 저는 이 대항은 식용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 제주도 갈매는 거의 이 거를 '범배'로 많이 쓰죠.		경성호(울릉도)		0	0	0
어업	어획물	해조류	미역	종류				미역조		명	물결도 지역의 별에서 재배되는 나물의 일종.	옛날에 과거에는 산채가 뭐 일손도 많고 하나지만, 지금 현재 농촌에 전부 채은 사람 떠나고 농가에 나이 많은 할머니 인자 노인들만 사는데, 농사는 {미역조같은} 거, 부지런이 같은 거 많이 짓는단 말이라.		경성호(울릉도)		0		
어업	어획물	해조류	미역	종류				지네발미역		명	절벽 위 바위에서 자라는 미역으로 미역발, 미역의 모양이 지네의 발과 유사한 미역. 발아 {지네발미역이} 있고 그냥 미역이 있는데, 지네발미역은 불기만 이렇게 크고 있어. 아요. 그냥 이렇게.			경성호(울릉도)		0		
어업	어획물	해조류	상태					깨무리하다		형	연하게 같다.	{깨무리하다} 때.		영기호(울릉도)		0	0	
어업	어획물	해조류	상태					남쪽남쪽하다		형	그 모양새가 크고 넓다.	도박은 그거는 {남쪽남쪽하야} 전부 남쪽한데.		경성호(울릉도)		0	0	
어업	어획물	해조류	상태					노르리하다		형	은은하게 노랗다.	농. 농. {노르리하다} 거, 노를 색 / 마자반이나 물이나 색깔은 비슷해. 똑갈래.		경성호, 정익선(울릉도)		0	0	0
어업	어획물	해조류	상태					불국하다		형	질게 불다.	예. 대항이라고 있어 {불국한} 거 있어.		영기호(울릉도)		0	0	0
어업	어획물	해조류	상태					불그리하다		형	은은하게 불다.	{불그리하다}.		경성호(울릉도)		0	0	

02 율령도 오징어 잡이에서 덕장까지 조사어휘(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음량명	발음장르	음성 장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영단 정보 사전	영단 정보 속성 특성	표준어 이식 특성
어업	어획물	해조류	상태					붉으므리하다	형	형	은은하게 붉다.	그게 인해 색깔이가, 색이 인자 보를 가셔 마 같은 거 {붉으므리한} 거 색깔이 하마 나 가, 보다가, 뒤에 이제 시기가 하는 시기가 보여가면 전부 녹아뿌고 색, 색이 변해뿌고.		건축용(율령도)		0	0	
어업	어획물	해조류	종류					을	명	명	말을 율령도에서 이르는 말.	{을}, 을 캐는 기 바랑 속에서 이래 올란오 는 긴데 그거는 오래 끈이 이따리가 반쪽반 쪽하고 마지반 캐는 거 좀 굵고.		건축용(율령도)		0	0	0
어업	어획물	해조류	전초					꼴피	명	명	전초를 말린 부르는 말. 다른 제모자는 전초 를도 사람들이 옛날에 부를 때 꼴, 꼴피라 호로 만든 음식은 '우무가서리'라고 했다.	전초를 가지고, 그 바다에 있을 때 부르는 전초, 율령도서도 사왕들이 옛날에 부를 때 꼴, 꼴피라 호로 만든 음식은 '우무가서리'라고 했다.		강영길(율령도)		0		
어업	음식	기타						새알구	명	명	새들이 주로 꼬아먹는 알구.	복면에 가면은 이게 여기가 공망이 있잖아 요. 공망바위가 있는데, 요 앞쪽에 뽕이란 마름이 있어. 뽕이. 이 마름에 얹에 여게 우 리가 어릴 때 여게 이 수영해가지고 여 올란 가서 {새알구도} 따먹고 그랬거든요. 그		김성호(율령도)				
어업	음식	기타류	강자					강자밥	명	명	반보다는 강자를 많이 넣어 찐 밥. 예전에 일이 율령도의 항은 시점에 많이 해먹은 밥이다. 그래서 지금도 어른들은 강자밥을 먹기 싫 어했다.	반보다는 강자를 많이 넣어 찐 밥. 예전에 일이 그날 부르면 심은데, 그거를 삶아가 쥬 율령도의 항은 시점에 많이 해먹은 밥이다. 그래서 지금도 어른들은 강자밥을 먹기 싫 {강자밥같은} 데 사가 쥬 싸가 먹고 그거 어 주잖아요.		박봉식(율령도)		0	0	
어업	음식	기타류	고동					뽕새하다	형	형	그 맛이 뽕고 알새하다.	{뽕새하다}.		건축용(율령도)		0	0	
어업	음식	기타류	강치					동강치	명	명	거울에 담긴 강치를 가리키는 말.	그런 거하고 그것도 그 하는 게 아니고 저녁 에 아개 매기했죠. {동강치} 담기가 삭카린 담가 두면서 쥬~가 쥬배 안 있습니까. 이 것 가 거울에 걸썰하고 하는 거 그런 거예. 우리 눈에 현합니다.		박봉식(율령도)		0	0	
어업	음식	기타류	나물					생거절이는거	명	명	나물을 간장에 절이는 것을 가리키는 말.	뽕 부지께이, {생거절이는거} 이런 거.		박봉식(율령도)		0		
어업	음식	기타류	대황					대황밥	명	명	대황을 넣어 찐 밥. 예전 먹고 살기 힘들 때 밥의 양을 얹게 하기 위해 무우와 대황을 넣 어 쥬 먹던 밥이다.	근데 강태를 지는 제주도에서 먹어본 건 없 어. 율령도서는 이 대황을 과거에 어려울 때 는 {대황밥도} 해먹고 저 모진하 해너서 대황밥 해서 {대황밥도} 해먹고 또 대황 자 거를 인제 쥬어.		강영길(율령도)		0		
어업	음식	기타류	도박					도박범박	명	명	도박을 말기루와 쥬어 찐 음식. 예전 먹고 살기 힘들 때 밥을 대신해 먹던 음식이다.	아개 말한 {도박범박} 같은 거. 대황밥 같은 거. 등개. 방앗간에서 나오는 뽕 등개. 등개 떡같은 거.		강영길(율령도)		0		
어업	음식	기타류	등겨					등개떡	명	명	방앗간에서 나온 보리나 벼의 가루를 쥬 만아개 든 음식. 예전 먹고 살기 힘들 때 밥을 대신하 해 먹던 음식이다.	아개 말한 도박범박 같은 거. 대황밥 같은 거. 등개. 방앗간에서 나오는 뽕 등개. {등 개떡같은} 거.		강영길(율령도)		0		

02 울릉도 오징어 잡이에서 덕장까지 조사어휘(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음성	발음 정보	음의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형태	종교	표준어
어업	음식	기타류	따개비				명	명		{따개비}를 넣어 끓인 죽, 이 외에도 {따개비밥}, {따개비칼국수}가 있다.	{따개비밥}, {따개비죽} 있고, 그밖에도 {따개비칼국수}가 있다.		강영길(울릉도)		명	종교	표준어
어업	음식	기타류	따개비				명			{따개비}로 만든 칼국수.	그럼 거의 무용지물이었어, 근데, 이게 지금 재가 팔기로는 한 오백년, 오백년 전부터 이 {따개비칼국수}가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음식화를 하면서 이 대중화가 되었다고...		강영길(울릉도)	0			
어업	음식	기타류	따개비				명			{따개비}를 넣어 한 밥.	음, {따개비밥}, 고기는 인제 간장 넣고 왜 보통 독배기에 인제 이렇게 개인에 요렇게 해서 내는 정도 있는 반면에 인제 큰술에 한 개비에 해서 인제 인해서가 많을 때는 대장 배 해서 양념 같은 간장양념 같은 거 이렇게 있어서 비해서 먹는 거고, / {따개비밥}, {따개비죽} 있고, 그밖도.		방정, 강영길(울릉도)	0	0		
어업	음식	기타류	명어				명			명어 나뭇잎을 밑거름에 올려 만든 음식, 예고} 해가지고 속시 인자 고 기루를은 거 딱 찢고 삶기 한을 때 밥을 대신해 먹던 음식이다.	아이 여기는 명, 명어로가 자~ 음식을 만들 어가 먹는 거는 극히 드물고 {명어벌떡}이라 {명어}가 해가지고 속시 인자 고 기루를은 거 딱 찢고 삶기 한을 때 밥을 대신해 먹던 음식에 한 두 번은 많이 먹었는데요, 옛날에 있을 때 그거 자주 먹으면 나중에 밀리는 거		박봉식(울릉도)	0			
어업	음식	기타류	명어				명			명어나뭇잎을 간장에 절여 만든 음식, 지금은 물릉도의 대표적인 토속반찬이 되었다.	그래 되고 지금도 이거잖아 간장에 재려가 전부 육지로가 {명어조림} 재가 이거 파는 거 있잖아? 그래가 고기 종류, 육류랑 같이, 같이 겹들어가 먹으면 맛이 더 낫다고.		박봉식(울릉도)	0			
어업	음식	기타류	생선				명	가추		다래이라고 부르는 고기는 맛이 없는데 이 {가추}하고 사시미하고 맛 그 비늘이, / 사시미라 카이, / 옛날에는 {가추} 해먹다.		견학용, 정성권(울릉도)		0			
어업	음식	기타류	오징어		상태		형			물이 거의 없이 볶았다.	예, 이 {짜작한이}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찜장도 만들고.		강영길(울릉도)	0			
어업	음식	기타류	오징어				명			오징어 내장을 넣어 끓여서 만든 함, 내장양념, / 어는 주로 콩나물과 무를 넣어 만든 국물이 특	오징어 환장자는 {내장양념} 하고 인자 누린 게 사실은 그개 인자 간유구거든요, / 어데 내장양 찜주고, 내장양 내가 한 번 검사 보라 안 찜지고, {내장양념} 먹고, 강게장 찜이.		강영길, 박봉식(울릉도)	0			
어업	음식	기타류	오징어				명			오징어의 누린장과 시래기를 넣어 끓여	오징어의 누린장에 넣어 끓여 끓인 찜개, {누린장스래기찌개}, 아마 그걸개 쓸 겁니다.		강영길(울릉도)	0	0		
어업	음식	기타류	오징어				명			누린장을 넣어 국물이 거의 없게 끓인 찜개.	누린장을 넣어 국물이 거의 없게 끓인 찜개, 여기에 시래기를 넣으면 {누린장스래기찌개} 그린다.		강영길(울릉도)	0	0		
어업	음식	기타류	오징어				명			오징어와 불고기를 넣어 만든 음식, 최근	오징어와 불고기는 {오삼불고기} 이런 거는 인제 한, 20년 전부터 주로 먹는 음식이다.		박봉식(울릉도)	0			

02 율령도 오징어 잡이에서 덕장까지 조사어휘(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음성 정보	뜻풀이	종류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영단 정보 사전	영단 정보 영역 특성	표준어 비고		
어업	음식	가타류	오징어					명	오징어 내장에 무와 콩나물을 넣어 만든 음식. 를 가리키는 말. 맑은 양과 탁한 양이 있다.		총합법들은 가는 오줌 총합이 비싸기 몇 개 아주지도 안 합니다. 그렇고 {오징어나장을 [은데]}. 정말 구수한 냄새가 나는 정돈데 그 [한번] 장사 보시고 아이고 우리 최항에는 거 [이] 맞습니다. 우리 외마에는 별로더라 이런 사람도 때로 양재지만 일단 한번 장사보세 요. 팔히 장사보세요.		박봉식(울릉도)		0				
어업	음식	가타류	오징어					관	오징어로 만든 순대를 가리키는 말. 예전부 터 울릉도에서 많이 먹었던 음식이다.		그 이 외에는 이제 {오징어로가 순대} 그런 아무데나도 안 있습니다. / 아니요. {순대들 은} 거 이런 거는 다 옛날부터 했어요.		박봉식(울릉도)		0				
어업	음식	가타류	오징어					명	오징어에 불고기 양념을 해서 만든 음식.		{오징어불고기도} 해 먹고 오징어탕도 있어 요. 찜자 가지고 조리. 그것도 있어요.		임기학(울릉도)		0				
어업	음식	가타류	오징어					명	이끼내장탕, 오징어나장탕'을 달리 부르는 말.		오징어불고기도 해먹고 {오징어탕도} 있어 요. 찜자 가지고 조리. 그것도 있어요.	사전에 '오징어탕'은 '토막을 찢 오징 어'에 달걀 퐁 것을 섞워 맑은장국에 끓인 음식'으로 이곳의 음식과는 제 로와 방법이 다름.		임기학(울릉도)	0	0			
어업	음식	가타류	오징어					명	오징어를 썰어 생으로 먹는 음식.		왜냐면 너무 크니까. {오징어회} 다른 데는 불라도 오징어회 하얀데. 굵은 거만 있을 때 가면 썰로 그냥 아래 안 썰고 아래 다시 오 징어를 아래 포를 뜹니다.		박봉식(울릉도)		0				
어업	음식	가타류	오징어					명	오징어나장탕을 가리키는 말.		밥 찜수려 가시도. {이끼내장탕} 찜사췌어 요?		박봉식(울릉도)	0	0				
어업	음식	가타류	오징어					명	멸조류를 가리키는 말. 아침저녁으로 밀물 과 썰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때를 말한 다.		오징어~ 이제 그제 {창대기국이라고} 하는 데 여기서 이제 그~ 그 오징어를 이렇게 배 를 따다 보면은 이제 그기 똥창이라고 또 있어요.		황정	0					
어업	음식	가타류	옥수수					명	옥수수를 기루로 만들어 만든 떡. 예전에 먹 고 살기 힘든 시절에 많이 먹었다고 한다.		타먹고. 그거 뭐 강냉이 {옥수수가루떡이 라} 해가지고 주고 점심시간에 우유같은 거 했는데.		강영길(울릉도)		0				
어업	음식	가타류	조					명	먹고 살기 힘든 시절 썰 대신 찰썰을 많이 넣어 만든 밥.		찰썰하고 그 재주도 보리 알아죽잖아. 그래 그거를 기억에 좀 보내주고 해가지고 그나 마 우리도 그나마 그래도 그 {찰썰밥도} 그 게 보리썰에 넣어서 무~ 보면 그것도 고 이라고. 지금 생각에 지금 먹고 싶을 때 있는데.		강영길(울릉도)		0	0		0	
어업	음식	가타류	천초					명	천초를 달여서 만든 독을 가리키는 말.		거 인자 {우무} 카는 거 해가 목는데 우무가 시리도 우무 해가 목고 천초도 우무 해가 목 고.		강학웅(울릉도)		0	0		0	

02 울릉도 오징어 잡이에서 덕장까지 조사어휘(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음성	발음	종교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종교	종교	표준어	
어업	음식	가티류	호박				호박엿	명	갈바	명	호박을 오래 끓여서 만든 국.	극대 호박 찹쌀로 전 호박입니다. 그걸 하면 {호박면박에} 얹고 엿에로 싸여지칠 안 합니다. 그런 거 때문에 엿길 하고 엿이 거칠게 하고 팔아야 되느냐.		박봉식(울릉도)			0	0	
어업	음식	가티류	호박				호박엿	명		명	울릉도에서 유명한 엿으로 호박을 넣어 만든 {호박엿} 먹지.		사전에 '청동호박'을 고아서 만든 엿과는 의미상 차이가 있음.	박봉식(울릉도)			0	0	
어업	음식	가티류	홍합				홍합반	명		명	홍합을 넣어 반을 한 후 찹기름과 양념을 넣어 먹는 음식. 처음 홍합반은 주먹밥 형식의 반골에 찹쌀 보시고 아이고 우리 취향에는 거 안 먹습니다. 우리 입맛에는 멜로더라 이런 사람도 따로 있었지만 일단 한 번 찹쌀보세오. 필히 찹쌀보세오.	{홍합반골은} 거는 요즘 홍합이 비싸가 몇개 어주지도 안 합니다. 그렇고 오징어나조개 어주지도 안 합니다. 그렇고 오징어나조개 반골은, 정말 구수한 반골이 나는 정돈데 그 반골 찹쌀 보시고 아이고 우리 취향에는 거 안 먹습니다. 우리 입맛에는 멜로더라 이런 사람도 따로 있었지만 일단 한 번 찹쌀보세오. 필히 찹쌀보세오.		박봉식(울릉도)		0	0		
어업	음식	가티류	홍합				홍합불고기	명		명	홍합을 불고기 양념을 해서 만든 음식.	보통 우리 그냥 {홍합불고기라고} 그러죠.		김형수(울릉도)			0		
어업	음식	생선	기타				회거리	명		명	회의 재료가 될 수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	되죠. 그래 인자 주로 여기 나가는 거는 공치 회. {회거리로} 나가고 그 당에 거울에 인자 거울칠 되면은 찹갈 담을 때 되면 찹갈류로.		김성호(울릉도)			0	0	
어업	음식	열매					볼루	명		명	정바 꿀에 나는 꿀은 빛의 열매. 이 지역에 사는 이 열매를 가지고 술로 이용하거나 생으로 먹기도 하였다.	지게 인자 과일같은 거 여 울릉도 마구막 {볼루} 캐는 거 이런 거 있는데 그 당 동박 꿀 같은 거 자~썩 남방고티기라 캐거든. 그 런 것도 아시죠?		박봉식(울릉도)			0	0	
어업	음식	재료	곰취				곰대솔이	명	곰대솔이	명	곰취'를 울릉도에서 이르는 말. 주로 말려서 반찬으로 이용한다.	그 당에 귀해가 없어 그렇지 {곰대솔이} 캐는 기 있습니다. 육지에 가면 곰취 캐싸지오. 그거 하고 유사한데 그거하고 많이 틀려더라. / {곰대솔이} 캐는 건데.		박봉식(울릉도)			0	0	
어업	음식	재료	나물				돼지풀	명		명	울릉도에서 먹지 못하는 풀을 가리키는 말. 그러나 다른 지역 사람들은 이 풀을 먹는다.고 한다.	그거도 그렇게 재리놓고 이리은 재리가 상거를 쟁. 상 거를 갖고 참 썰먹어도 되고 신에서 나는 거는 울릉도 풀은 전부다 먹조라. 사전에 등재된 내용과 의미상 차이 있음.		박봉식(울릉도)			0	0	
어업	음식	재료	명이	상태			쨈줄하다	명		명	그 행태가 길고 폭이 좁다.	요렇게 올라오는 마늘종때이 올라오듯이 요래 올라와가 많이 피며 잎 넓이가 요 정도도 넓은 되고 길이는 {쨈줄하게} 요렇게 되는 데.		박봉식(울릉도)			0	0	

02 울릉도 오징어 잡이에서 덕장까지 조사어휘(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용량명	뜻풀이	원시 정보	발음 정보	음원명	음표제어 표준어	음원파일	발음 정보	음원 정보	음표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 정보 1	출전 정보 2	발음 정보	음원 정보	음표 정보	음원 정보	음원 파일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음원 정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2 울릉도 오징어 잡이에서 덕장까지 조사어휘(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음성	발음	형태	뜻	종류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형태	종류	발음	표제어			
어업	장소	바다	바람	상태				동		내차다	바람이 바다쪽, 즉 바깥쪽으로 불다.		갈바람이 이쪽에서는 틀이보고 어, 여는 또 바다를 {내저는} 거요.		김성호(울릉도)		0	0					
어업	장소	바다	바람	상태				동		틀이보다	바람이 육지쪽으로 불다.		갈바람이 이쪽에서는 {틀이보다} 어, 여는 또 바다를 내저는 거요.		김성호(울릉도)		0	0					
어업	장소	바다	바람	상태				동		맹기다	사이에서 부는 바람 중 방향이 어느 쪽과 더 세게 불다.		예를 들어가고 남서쪽에 약간 더 남쪽을 {맹기다} 서쪽을 조금 더 맹기다. 덩어, 이런 거를 갈다가 나뉠대로 불어가자고 인간이라는 거요.		김성호(울릉도)		0						
어업	장소	바다	바람	종류				명		갈바람	남서쪽에서 부는 바람, 주로 불에 많이 부는 바람이요.		남쪽에서는 뭐 {갈바람}. 불에는 주로 {갈바람이요}.		김성호(울릉도)		0	0					
어업	장소	바다	바람	종류				명		금새	급하게 부는 바람, 주로 서바람으로 많이 온다. 이 바람이 온 후에는 잔잔해진다.				김성호(울릉도)			0					
어업	장소	바다	바람	종류				명		금풍	급하게 부는 바람, 주로 서바람으로 많이 온다. 이 바람이 온 후에는 잔잔해진다.		{금풍이라고}. 남서풍이라 그러기도 하고.		김성호(울릉도)			0	0				
어업	장소	바다	바람	종류				명		남갈	남쪽에서 부는 바람.		{남갈은} 남쪽에서 부는 기지.		김성호(울릉도)		0	0					
어업	장소	바다	바람	종류				명	동남풍	남동풍	남동쪽에서 오는 바람.		남쪽에서? {남동풍인데}. 남동풍이라 하기도 하고 여 동남풍이라 하기도 하고.		김성호(울릉도)		0	0	0	0			
어업	장소	바다	바람	종류				명		남서풍	남서쪽에서 오는 바람.		아름, 여름에는, 여름에는. {남서풍이}. 뭐 이 서풍이 여름에는 아~ 북풍도, 자주 불고, 남서풍도 자주 불고 그렇죠.		김성호(울릉도)			0	0			0	
어업	장소	바다	바람	종류				명	넛바람	넛바람	기름에 많이 부는 바람으로 서풍을 가리키는 말.		{넛바람, {넛바람}.		김성호(울릉도)			0					
어업	장소	바다	바람	종류				명		넛갈	그때 배에서 오장은 남서풍 이려지만은 아, 그때 배에서 오장은 남서풍에서 불고 오는 게 아니잖아, 이게 갈바람이다 아, 그때 남서풍 아니니까, 이게 갈바람이다 아, 그즈고 서쪽으로 많이 불기만 {넛갈}. 남쪽에서 불기만 저진갈, 그 당에 또 동쪽으로 더 불기만 동세, 북쪽으로 불 때는 북세, 더 인제 완전 동쪽에서 북쪽으로 약간 불기만 뭐 저 인간들.				박봉식(울릉도)		0						

02 울릉도 오징어 잡이에서 덕장까지 조사어휘(김지숙)

번호	단어	종류	소분류1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음역	발음	종교	통사 장르	뜻풀이	유래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영단어 종교 사전	영단어 종교 사전	표준어 어휘 등록
어업	장소	바다	바람	종류			동갈		명		남동쪽에서 오는 바람.	동간, 남동 간에 부는 기는 {동갈이라}.		김성호(울릉도)			0	
어업	장소	바다	바람	종류			동새		명		동북쪽 사이에서 부는 바람을 가리키는 말.	동 어둠에 인자 동쪽에서 불은 것은 이기 인 자. {동새}. 인자 여가 동북간에서 부는 바 람을 동새.		김성호(울릉도)		0	0	0
어업	장소	바다	바람	종류			북동풍		명		북동쪽에서 부는 바람.	어름, 어름에는, 어름에는, 남서풍이가, 뭐 이 서풍이 어름에는 이~ {북동풍도}. 자주 불고, 남서풍도 자주 불고 그렇죠.		김성호(울릉도)			0	0
어업	장소	바다	바람	종류			북새		명		북동쪽에서 오는 바람, 바다에서 사고가 가 장 많이 나는 바람이다.	갈바람, 하늬바람, 뭐, 동새, {북새}, 이이 인자, 북새는, 북새는, 오쪽에서 이렇게 부는 기를, 동북 간 부는 바람을.		김성호(울릉도)			0	0
어업	장소	바다	바람	종류			북서풍		명		북서쪽에서 부는 바람.	가을엔 뭐 가을 되면 계절중이죠. 아까 말한 북풍이나 정풍 같은, {북서풍이나}, 주로 북 서풍이 많이 불죠. 지금도 여 보면 전부다 지금 현재 북서풍입니다. 여가.		김성호(울릉도)		0	0	0
어업	장소	바다	바람	종류			북청		명		북서쪽에서 부는 바람.	동새, 어는 인자 {북청}.		김성호(울릉도)			0	
어업	장소	바다	바람	종류			순풍		명		바람의 세기가 약하고 순조로운 바람.	에, {순풍}, 동남풍이 순풍.		김성호(울릉도)			0	0
어업	장소	바다	바람	종류			올진		명		동남간에 부는 바람 중 동쪽에 더 가까운 바 림.	{참진갈이}, 참진갈이 아마, 이쪽에, 마이 인 제, 남쪽으로 청정다 이 말이예요, 참진갈, 그 우리가 말하면은 해~ 이~ 나침반을 보 는고는 노아스니 또 노아스니 뭐 노에 서 오스니 이사자오스니 진다 그런 말을 인자 참진갈이니 약간에 하이튼 간에 인자 남동 풍인데 남쪽으로 더 청정오니 참진갈이다. 이렇게 이래 표현하고 고 표현하기 달렸어.		김성호(울릉도)			0	
어업	장소	바다	바람	종류			인간풍		명		동남쪽에서 부는 바람, 박경식은 '동쪽보다 는 북쪽으로 가까운 것'을 가리킨다고 했다.	{인간풍} 예 맞니다.		김성호(울릉도)			0	
어업	장소	바다	바람	종류			참진갈		명		남서풍, 서쪽보다는 남쪽으로 더 치진 것 을 가리킨다.	{참진갈이}, 참진갈이 아마, 이쪽에, 마이 인 제, 남쪽으로 청정다 이 말이예요, 참진갈, 그 우리가 말하면은 해~ 이~ 나침반을 보 는고는 노아스니 또 노아스니 뭐 노에 서 오스니 이사자오스니 진다 그런 말을 인자 참진갈이니 약간에 하이튼 간에 인자 남동 풍인데 남쪽으로 더 청정오니 참진갈이다. 이렇게 이래 표현하고 고 표현하기 달렸어.		김성호(울릉도)			0	
어업	장소	바다	바람	종류			청풍		명		서쪽에서 부는 바람을 가리키는 말.	서쪽에서는 {청풍이라고} 하나.		김성호(울릉도)			0	
어업	장소	바다	상태				만물 간다		관		남쪽과 동쪽 사이에서 흐르는 물을 가리키 는 말.	아, 그거는 저희들이 통상으로는 세를 그런 건 북쪽으로 가는 거를 세열이라 하고, 남쪽 으로 가는 물을, 남쪽으로 가는 물을 {만물 이라} 하고 그 땅에 저 동쪽으로 가는 물을, 그걸 동쪽으로 가는 물을 우리들이 두르기 는 거의 야 이스물 간다 이렇게 얘기를 마이 했었는데.		김형수(울릉도)			0	

02 울릉도 오징어 잡이에서 덕장까지 조사어휘(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음성파일	발음 정보	음사 정보	뜻풀이	유래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영단어 영문 표기	영단어 영문 뜻풀이	영단어 영문 뜻풀이	
어업	장소	바다	상태					영기 온다		관	큰 파도가 오는 것을 가리킨다.	아~ 이 항 {영기 큰 거 온다} 이렇게 부르는 지 뒤.		김형수(울릉도)		0			
어업	장소	바다	상태				북쪽과 동쪽 사이에서 흐르는 물을 가리키는 말.	썬물	관		북쪽과 동쪽 사이에서 흐르는 물을 가리키는 말.	아 그거는 저화들이 통상으로는 썬물 그런 쪽으로 가는 거를 {썬물이라} 하고 남 쪽으로 가는 물을, 남쪽으로 가는 물을 한물 이라 하고 그 당에 저 동쪽으로 가는 물을 그걸 동쪽으로 가는 물을 우리들이 부르는 거의 야 이스를 간다 이렇게 얘기를 마하 했었는대.		김형수(울릉도)	0				
어업	장소	바다	상태				깨끗하지 않고 더럽다.	썩었다	형			예. 옹돌에, 그 지금은 원래 바다가 아주 {썩점잖아예}. 인자 썩장소가 굉장근로. 파 도 여 한 두어번씩 썩뻘뻘 저런 게 다 내 오 는 기라. 한해 겨울 몇 차례씩 태워 없애고 하는 기라.		박봉식(울릉도)	0				
어업	장소	바다	시간				1월 1일 처음으로 어판장을 열기 시작하는 날. 대 풍아와 순조로운 위판을 기원하는 제.	시매제	명			{시매제}. 시매, 풍아, 기원제로 바가지고 타이를 바까 그래 해봤어요.		김성호(울릉도)	0				
어업	장소	바다	시간				시매제를 달리 부르는 말.	초매식	명			이 구월에서, 금년에는 어렸든간 일월달에 고기 낚는데 우리가 {초매식} 때 고기가 없 어가지고, 생물이 없어가, 일월일월 초매식 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아, 이것도 내 게 초합장 들어왔을 땐 초매식이라 카는 건 일월시대 때 하는 거등은. 그래서 이걸 초매 라 하는 건. 참 이제 경매를 시작한다는 건 데 그래서 내가 이를 갖다가 앞으로 초매를 갖다 쓰질 말자.		김성호(울릉도)	0				
어업	장소	바다	조류				고기가 많이 나는 시기 중 하나.	대조금	명			고기 인자 초조금, 초이래는 초조금이고 스 무사들은 {대조금이다}. 대조금 요건데 항 시 고기가 요때가 더 많이 납니다.		박봉식(울릉도)	0				
어업	장소	바다	조류				고기가 많이 나는 시기 중 하나.	조금	명			없조. 근데 여기는 {조금} 카는 말은 썬니 다. 조금이 있는데 서해 조금하고 봄에 서해 조금하고 이거 어떻게 다르나 하면 어긴 을 먹입니다. 음력으로 초이래 스무사를.		박봉식(울릉도)	0	0			
어업	장소	바다	조류				고기가 많이 나는 시기 중 하나.	초조금	명			고기 인자 {초조금}. 초이래는 초조금이고 스무사들은 대조금이다. 대조금 요건데 항 시 고기가 요때가 더 많이 납니다.		박봉식(울릉도)	0	0			
어업	장소	바다					가장 가에 위치한 바다를 가리키는 말.	뽕뽕가에	명			부들은 일월달 올 때 까지도 낚고 부들 부들 달 때, 원래 예년에는 예~ 동지달, 동지 달 때 먹으면 뒤 오징어 환갑이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기에 아 근해 이 나는 고기는 오동지 뽕 바닷가 {뽕뽕가에} 뽕뽕가에 가는 장는 고기를 끌고기.		김성호(울릉도)	0	0			
어업	장소	바다					바위를 달리 가리키는 말.	방구	명			여 여기는 {방구에} 용었는.		전학영(울릉도)		0			

02 울릉도 오징어 잡이에서 덕장까지 조사어휘(김지숙)

원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음성	발음	형태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어업	장소	바다						명	본토		물릉도 사람들이 육지를 가리키는 말.	예. 부모 어~ 사망 아니야. 저 사람, 본토 사람. 사망. {본토} 사망. 제주도 사람이야. 제주도.		임기학(울릉도)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어업	장소	바다						명	불간조장		오징어를 자연 건조가 아닌 인조 건조로 처리하는 공간.	예. 이 때의 여기 {불간조장} 앉았고, 전부터 앉았조 하고. 말라가지고, 그래가 있으면은 장사꾼들이 와가 사가 가고 그래야.		김성호(울릉도)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어업	장소	바다						명	어판장		어촌에서 고리를 팔아 판매하는 일을 하는 공간.	예. {어판장}.		김성호(울릉도)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어업	장소	바다						명	육지		본토를 달리 부르는 말.	본토, 본토라고 칭. 옛날 늙은 촌사람들도 육지라 이라고. {육지}.		김학웅(울릉도)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어업	장소	바다						명	잔불		들 사이에 개가 사는 곳을 가리키는 말.	아이 아이 아이고, 파도 치는 곳에서 돌새, 잔불 그~ {잔불에}. 잔불에서는, 자갈, 잔자갈, / 자갈, 자갈 밑에 드가는, 잔자갈.		임기학, 이경우(울릉도)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어업	장소	바다						명	잔자갈		꼭은 자갈이 남아있는 공간.	자갈, 자갈 밑에 드가는, / 자갈, {잔자갈}, / {잔자갈}.		김학웅, 임기학, 이경우(울릉도)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어업	장소	방위	별					명	조우시기별		세벽에 뜨는 새벽별을 가리키는 말. 다른 말로는 '조우시'라고도 한다. 이 별로 방향을 잡기도 하고 시간을 가능하기도 한다.	그, 별 이름 낄다가 조우시, 뭐 이 새벽에 뜨는 거 {조우시기별}. 이런 거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걸 다나면서 뭐 우리는 별 낄 거 잊혀 강 건너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걸 개 뭐 우리 어른들은.		김성호(울릉도)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어업	장소	방위						명	동북간		동북쪽 사이를 가리키는 말.	북쪽이 땅 에 셋바람. {동북간}.		김성호(울릉도)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어업	장소	방위						명	동쪽		동쪽.	{동쪽은} 거의 동쪽이라 하지.		김성호(울릉도)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어업	장소	방위						명	남쪽		남쪽.	그쪽은 {남쪽이라} 하지.		김성호(울릉도)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어업	장소	방위						명	북쪽		북쪽. 다른 말로 '새쪽'이라고 한다.	{북쪽은}, 북쪽은 그, 그때 당시 있었나, 하. 이튼 그저 에 북쪽 서쪽을 통틀어 가주고 새쪽이라고.		김성호(울릉도)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어업	장소	방위						명	새끼		새쪽을 달리 가리키는 말.	예, 새, {새끼} 새끼라 그러지, 인자, 바람을 인자 새끼이라 이러거든, 새끼, 새쪽에서 그 새, 북을 새쪽이라 그러거든, 남쪽으로 맞쪽이라 그러고.		강영길(울릉도)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어업	장소	방위						명	새쪽		새쪽을 달리 가리키는 말.	예, 새, {새쪽에서} 부는 거를, 새쪽이라 하지요, 새쪽, 북, 새쪽이 새쪽이지.		김성호(울릉도)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02월 18일 오징어 잡이에서 덕장까지 조사어후(김지숙)

범주	대표류	중분류	소분류	소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출원말	발음 정보	품사 정보	뜻풀이	유래	기타정보	출원정보1	출원정보2	출원 정보 사전	표준어 이식 유형
어업	장소	방위				셋날			명	셋바람을 달리 가리키는 말.	예. 세, 세끼 새까만 그라지. 인자, 바람을 인자 {셋날이라} 이러거든. 세끼, 세쪽에서 그래 북을 세쪽이라 그러거든. 남쪽으로 맞 쪽이라 그러고.		강영철(울릉도)		0	표준어 이식 유형
어업	장소	시간				물머지덕			명	여타를 통해 알린 때 풀이있는 상태로 마른 것.	예. {물머지덕} 뚝나 카거든. 물머지덕 뚝나 카면은 인자 물에 인자 깔 때 받을 뚝나 이 말이라.		김성호(울릉도)	0		
어업	장소	육지	덕장			건조장			명	오징어를 건조하는 곳을 가리키는 말. 비가 오거나 날씨가 좋지 못하면 이곳에서 건조 를 시킨다. 그래서 접마다 건조장을 모두 가 두고 있었다.	그래가 인자 요새는 인자 기상에 따라가 오 늘이내 내일 비가 온다. 비가 올 거 같다. 이 건은 저덕에 왕두래 인자 조금 전에 나가가 내가 {건조장에} 열자 안 그러디까. 저녁 날 씨가 시원찮으니까 하마 물리뿌는 잊어먹는 기라.		박봉식(울릉도)	0	0	
어업	장소	육지	덕장			덕장			명	오징어를 덕대에 너는 곳을 가리키는 말. 추 운 바람이 덕대에 너는 곳을 가리키는 말. 추 운 바람에 바람이 통하는 곳에 위치한다.	그 행기 치고 뚝 {덕장} 물리가 활복해가 고, 장가리 끼고 덕대에서 또 날이아 아래 피아 가 또 아까 거 발 열기. 행기 치고 또 어느 정도 기다렸다는 또 물이 빠지고 마린면은 귀 디배고 발 디고 발 하나하나 아래 붙었는 거다 따라 돼. 하. 허나. 열 게. 오징어 다리 열 게거든.		김세운(울릉도)	0	0	0
어업	장소	육지	덕장			오징어덕장			명	오징어를 건조하는 곳을 가리키는 말.	예. {오징어덕장예}.		박봉식(울릉도)	0	0	
어업	장소	육지	바위			축대바위			명	편복하게 나온 바위를 가리키는 말. 저중에 위치한 큰 바위로 울릉도에서는 유명한 바 위이다.	아 {축대바위라} 그러나.		이경옥(울릉도)	0		
어업	장소	육지	절벽			낭낭고티			명	절벽의 꼭대기 끝부분을 가리키는 말.	따라 가기는 가야 되는 너무 절벽 고티 저기가 너무가 이런 걸. 아이 그때는 너무 올라가, 꼭대기 나무로 말하면 아주 꼭대기에 사할 이 가면 가지가 막란칠 정도 되는 이런 자라 를 {낭낭고티}. 돌덩가 위아래 있는데 가지 뿌리절까봐 잡어 못 가겠다. 이런 것붙에는 몸중으로 두.		박봉식(울릉도)	0		
어업	장소	육지	절벽			낭낭고티기			명	절벽의 꼭대기 끝부분을 가리키는 말. '낭낭 고티'와 같은 말이다.	무은 인제 사할덜 오월덜 뚝 뚝두라 카는 오 월간 기 오랜 기 옥지도 있는데 그걸 워라, 헛터라, 버리수라 하던가, 적양단기 막 이런 고하고 비스듬하다 이런던가. 그래 빨강개에 아저 있어도 아저 {양양고티기예} 마 뚝두 가 뚝가이 개락으로 먹어가 있는데 걸이 나 가 못 가겠다.		박봉식(울릉도)	0		
어업	장소	육지	절벽			땡치			명	절벽을 달린 부르는 말.	절벽을 갖다 {땡치라} 이라지.		박봉식(울릉도)		0	

02월 18일 오징어 잡이에서 덕장까지 조사어후(김지숙)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상세분류	원표제어 표준어	용어명	발음 정보	조사	뜻풀이	유래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어업	행위	배양금				부양		명	배를 타고 나가 일한 금액, 즉 배양금을 받는데는 가리키는 말. 다른 말로 '부양이런고도' 한다. 폭삭 졸다 받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본선원, 이 사람들은 배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이제 내 배치장 같이 나와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오시랑들마다 이제 솜게 말하면 {부양이라는} 게 수당을 줄 더 주는 거예요. 오정아! 배양원을 가지고 선원이 이제 세 사람이야. 인과 세 사람, 세 사람이면 여기서 인자 선장 {부양을} 얻어나 주는 나 하는게 있었어요. 인자 선장이 부함을 받아, 손지 일을 많이 하니까.	김형수, 강영길 (울릉도)			0			
						부하게		명	부함, '부양'을 달리 표현한 말.	그렇죠. {부하게라는} 것도 한 마디로 이제 줄 더 갖고 가는 걸 뭐라 그래야, 뭐 모나스 할까? 그죠? 수고 많으니까 이런 뉘.	강영길(울릉도)			0			
						사륙째		명	선수와 선원이 잡은 오징어를 10을 기준으로 나누는 방법 중 하나, '4:6'의 경우를 지칭한다. 원이 6을 선장이 4를 가지게 된 것을 말한다.	그러면 선수가 내 머리를 갖고 가고 잡는 사람들이 여섯 머리를 갖고 가는 걸 {사륙째라} 그러지요. 세 마리 일곱 마리라면 {삼칠째}, 그 용어 속에 육갈을 때는 고구부하는 말을 쓴다는 거.	강영길(울릉도)			0			
						삼칠째		명	선수와 선원이 잡은 오징어를 10을 기준으로 나누는 방법 중 하나, '3:7'의 경우를 지칭한다. 원이 7을 선장이 3를 가지게 된 것을 말한다.	그러면 선수가 내 머리를 갖고 가고 잡는 사람들이 여섯 머리를 갖고 가는 걸 {사륙째라} 그러지요. 세 마리 일곱 마리라면 {삼칠째}, 그 용어 속에 육갈을 때는 고구부하는 말을 쓴다는 거.	강영길(울릉도)			0			
어업	행위	배양금				싱가		명	선장의 몫으로 주는 것.	'부함을 저따육기 해가지고 한 거는 인자 싱 무 머리 장았을 때 인자 {싱가라}. 그러죠. 사적에는 '배상'으로 동재름.	강영길(울릉도)			0			
어업	행위	배양금				저따육기		명	자기가 잡은 고기는 자기가 가져가고 하고 대신 배 안에서 사용한 경비는 공동으로 내는 것을 가리키는 말.	그래 이 과정은 아거 과거에 내가 개개인일 때는 자기 캐니까 자기 캐니까 자기 캐니까 다 해줄을 하는 거고 요즘은 이제 오매는 {저따육기} 해가지고 저따육기 이래가.	강영길(울릉도)			0			
어업	행위	배양				가을바리		명	가을에 오징어를 잡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	항치, 그래 항치를 여기서는 조끼란, 그래 조끼, 그것도 일종의 오징어지, 오징어고 거기 공식 관오징어 쿵~ 거, 그런 거는 가끔씩 잘 되고, 잘되고 뭐 그 외에는 인자 씌는 용어로는 우리가 가을에는 동상지가 동상이니깐 뭐, 초음이나 초음바리, 초음바리. 그냥 에 가을에 나는 거는 주적 조고 나는 거는 {가을바리}. 그렇게 분류, 그래 그렇게 분류하고, 가장 맛이 있을 쥔에는 이제 지금 잡는 오징어가 가장 맛이 있다.	강영길(울릉도)			0			
어업	행위	배양				갓바리		명	속지에서 가까운 곳에서 오징어를 잡는 행위, 바깥에서 갓바리를 낚는 행위를 포괄하여 가리키기도 한다.	요요 항시간 요렇게 나가는 거는 {갓바리} 나왔단 이래지.	강영수(울릉도)			0			
어업	행위	배양				간조하다		동	오징어를 말한다.	아까, 고 정도. 그러니까 나머지 원진 {간조할라} 그러면 아이 상콤 만들려면 아이 어워, 한 쯤 팔 번 더 가야 돼.	강영수(울릉도)			0		0	

02월 18일 토요일 오징어잡이에서 덕장까지 조사어후회(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용칭말	발음 정보	품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영단어 정보 사전	표준어 정보 사전
											예. 요게 아주 날카로우니까, 그래서 요걸 사도래, 그래, 사도, 사도 뭐 이래서 {고꾸라지} 사도치기 하는 말이 요가는 사도치고 사도, 사도, 사도치기라고 사도치기. 인제 잡는다는 말을 사도로 잡는다는 것을 사도치기. 인자 고꾸라 하는 거는, 오 누시가 어떻게 생겼냐면 내가 이게.					
어업	행위						오징어를 잡는 도구인 '고꾸라'를 가추고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	명					김영길(울릉도)		0	
											경비를 제외하고 공동, 그래 무중이라는 건 {공동바리라고}. 인자, 다들은 경비를 빼고 일일이 매 선주가 사, 사십팔백, 사천팔백만 권을 달은 것상으로 가져가고 남는 인자 오 전이백만원쯤 가지고.					
어업	행위					명	배 안의 경비로 사용하는 것. 선원이 먹는 술을 사거나 하는 경비로 사용한다.	명					김영길(울릉도)		0	
어업	행위					관	말리는 중 오그라는 오징어의 귀 부분을 넣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	관					김성호(울릉도)		0	
											과정이 얼얼한 편 손이 가야 돼, 과정이 얼얼한 편, 할복 내라가 할복부터 그 당에 꼬들바리 끼야 되제, 식어가 올려, 덕장에 올려야 돼 {귀 디베고} 발 디고 귀 충고 또 자지저지 작, 꼭, 꼭 제우고 다리고 뭐워에는 이 과정이 달한 뜻만.					
어업	행위					관	말리는 중 오그라는 오징어의 귀 부분을 넣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다.	관					김새운(울릉도)		0	
											배가 이따를 끼놓으면 이럴잖아요, 그럼 이거 하럭 디베보야 여도 마를 거 아니에요. 그 당에 인자, 요하는 걸 요하는 걸 강다가 인자 배 디끼고 난 후에는 배 디끼면서 발개장 다 띠요. 그 당에 아걸 요래 재끼가지고 귀를 인자 확~ 피마조. {귀를 제끼는} 거조. 귀를 땡기보야, 귀가 딱 붙어있잖아오, 그래서 귀를 충고.					
어업	행위					관	말리는 중 오그라는 오징어의 귀 부분을 넣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	관					백봉식(울릉도)		0	
어업	행위					관	말리는 중 오그라는 오징어의 귀 부분을 펴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	관					김새운(울릉도)		0	
어업	행위					관	말린 오징어를 바닥에 두고 오그라는 오징어의 귀 부분을 펴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	관					김성호(울릉도)		0	
							귀방이 놓히다									
어업	행위					명	자신이 가진 기본 자산을 가리키는 말.	명					김원도(울릉도)		0	

02 울릉도 오징어 잡이에서 덕장까지 조사어휘(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음성	형태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형태 정보 상지	형태 정보 음성	표준어 어휘 특징
어업	행위						낚바리	명		낚에 오징어를 잡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 다른 말로 '낚치기'라고도 한다.	예. 낚오징어, 예. 자~ {낚바리라} 안 하고 순 낚바리. {낚치기} 오징어 주두 많이 이래 배기한다. / 낚에 잡는다고.		박봉식, 김세운 (울릉도)		0		
어업	행위						낚치기	명		낚에 오징어를 잡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 다른 말로 '낚바리'라고도 한다.	예. 낚오징어, 예. 자~ 낚바리라 안 하고 순 낚바리. {낚치기} 오징어 주두 많이 이래 배기한다. / 낚에 잡는다고.		박봉식, 김세운 (울릉도)		0		
어업	행위						노질	명		노를 지어 배를 움직이는 일을 가리키는 말. 노들.	{노질} 하얀 팔 이르고 바람 불면 도풍물 어 노들.		임기학(울릉도)		0	0	
어업	행위						다리다	동		오징어를 짚을 지은 후 전체 모양새를 펴다.	배장이 올릴갑 번 손이 가야 돼. 과장이 올릴갑 번. 활복 내라가 활복부터 그 당에 고들바리 끼어 되제. 실어가 올러. 덕장에 올러야 돼. 귀 디베고 팔 펴고 귀 추고 또 자지 작, 짝, 짝 짜우고 {다리고} 뭐래 아른 아래장이 열 한 팔 번.	의미 확장이 필요함.	김세운(울릉도)		0	0	
어업	행위						달치기	명		달이 뜨는 11시나 12시에 오징어를 잡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	인자 영도 예를 들어가 뭐 음력으론 이십일 달은 초저녁 아홉시 때가 드는 이십칠 팔일은 월하서나 영두시 때가 또지 양삼니까. 이래 또도 {달치기라고} 고래 돌 때 한 시삼분정할 때가 있고 이래 돌 때가 있어.		박봉식(울릉도)		0		
어업	행위						당일바리	명		당일 나가지 않고 하루 안에 작업을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 다른 말로 '당일빠리'라고도 한다.	행안 그러는 거는 한 번 나가면은 이제 최하한도 보통 한달. 이렇게 오는 이제 갔다 오는 걸 편왕이라 하고. 오기에서 이제 작업을 다지시간을 나가는 여섯시간을 나가는 고하는 건 {당일빠리로} 나가요. {당일바리라 고}.		김정수(울릉도)		0		
어업	행위						덕장에 엮다	관		오징어를 덕장에 있는 덕대에 올려 놓는 행위를 말한다.	활복 하고 나서 인자 가서 오징어 배에 끼이가지고 인자 그냥 치로가 실어가 {덕장에 엮조}.		박봉식(울릉도)		0		
어업	행위						덕장에 올린다	관		오징어를 덕장에 있는 덕대에 올려 놓는 행위를 말한다.	배야 되제. 덕락, 인자, 이거 자 치에 거 리아카에 실어야 되제. {덕장에 올리아} 되제. 패야 낚. 패야야 되제. 그 당에 팔기 쳐야 되제. 그 당에 귀 디베야 되제. 팔 때야 되제. 귀 추야 되제.		김세운(울릉도)		0		
어업	행위						도구	명		배를 육지로 수리하러 가는 행위.	배 수리하러 가는 거기 {도꾸라} 그러지./아 배를 올리나. 아이가. / 아이 아이다. {도꾸라} 하는 거는 배 인제 도꾸잠이 조센 배야 올리는 걸 도꾸라 하거든.		강원도 임기학, 정익선(울릉도)		0		
어업	행위						동상바리	명		거울에 오징어를 잡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 즉 동상배 오징어를 잡는 것을 말한다.	그거 인자 거울에 도작기 카는 건데 도작기, 동상바리. 이거 인자 도작기 카대요. 주로 동상오징인데 도작기 카데. 보통 도작기 인자 뭐 다 봤다 이래 쓰고. 지금도 도작기 다 봤다 이래 쓰습니다. 그제 {동상바리}. 거울도 진다.		박봉식(울릉도)		0		

02 울릉도 오징어 잡이에서 덕장까지 조사어휘(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음의말	발음 정보	음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 정보 1	출전 정보 2	별도 정보 상지	별도 정보 중도	표준어 이식 특성			
어업	행위					동상지기			명	가물에 오징어를 잡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 죽 동상에 오징어를 잡는 것을 말한다.	한치. 그레 한치를 어기서는 조기라. 그레, 조기. 그것도 일종의 오징어지. 오징어고 가물식 갈오징어 큰~거. 그런 거는 가물씩 잡히고. 잡히고. 뭐 그 외에는 인자 스는 올아. 또는 우리가 겨울에는 {동상지기}. 동상이니가 뭐. 초등에나 초등바리. 초등바리. 그 당에 가물에 나는 거는 추석 쇠고 나는 거는 가을바리. 그렇게 부를. 그레 그렇게 부를하가올바리. 그렇게 부를. 그레 그렇게 부를하가. 가장 맛이 있을 때에는 이제 지금 잡는 오징어가 가장 맛이 있다.		강영길(울릉도)		0					
어업	행위					따대기			명	오징어가 때로 붙어 잡히는 것을 가리키는 말. 오징어가 많이 잡히는 경우를 말한다.	새벽에 낚 다 썰 때 {따대기} 낚는 거는 때로 막 붙는 거거든. 붙가 한 두 시간 잡았는데 막 안 잡고지 잡았을 수도 있는 거라. 내가 들어올 때까지는 없어가 안 잡았는데 그 배가 들어오고 난 뒤에 오징어가 낚다. 그 원앙을 어에 올라고.		박봉식(울릉도)		0					
어업	행위					면지바리			명	산자꾸를 던져 오징어를 잡는 행위. 던져서 산자꾸를 가지고 거 {면지바리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가리킨다.	내. 그걸로 가지고 오징어를 잡았었고. 또 산자꾸를 가지고 거 {면지바리라고} 하는 게 있어.		김형수(울릉도)		0					
어업	행위					리어키에 싣다			관	어반장에서 산 오징어를 덕장에 싣어 나르는 것을 말한다.	해야 되제. 덕덕. 인자. 이거 저 처에 거 {리어키에 싣어야} 되제. 덕장에 올리어 되제. 때야 낚. 때야야 되제. 그 당에 행기 처야 되제. 그 당에 귀 디배야 되제. 발 디야 되제. 귀 추야 되제.		김세운(울릉도)		0					
어업	행위					망태바리			명	망태를 잡는 행위.	우아다가 어 뭐 그지 {망태바리} 할 때 뭐 몇 마리 잡았지. 그 전 오새 잡는 배가 없으니까.		정익선(울릉도)		0					
어업	행위					무중바리			명	배 안에서 사용하는 모든 경비를 공동으로 지출한다는 의미.	이게 인자 {무중바리라는} 건데. 무중바리. 경비를 공동으로 지금을 하고 지를을 하고 인자 이렇게 부함으로 나눈다는 거. 그걸 무중바리라고.		강영길(울릉도)		0					
어업	행위					박스바리			명	박스 채로 이루어지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	생고기야. 생오징어 {박스바리라고} 불러하고 망찰 보는 데 그쪽으로. 중간에가 개하고 그들바리 해가 고기같은 장어 같은 거 중간에고. 영포리 거 조선 쪽 있는데 그쪽에는 이기 인자 생망오징어지.		박봉식(울릉도)		0					
어업	행위					반짓가리			명	선장이 받는 부함의 반을 주는 것을 가리키는 말. '한짓가리, 반짓가리'로 표현한다.	몇 직 낚가 누가 뭐 한직. 한직 반 가져가고. 우리 같으면 백포리에서 낚가지고 프로타이 지를 하면 간단함데. 그래서 또 낚는 또 반짓가리에서 부함계를 뭐 선장 또 뭐 한~반지 게가리에서 또 {반짓가리들} 잼니 하는데 우리는 그 계산을 양만 들어도 이해를.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강영길(울릉도)		0					

02 울릉도 오징어 잡이에서 덕장까지 조사어휘(김지숙)

번호	단어	종류	음역	원표제어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음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2 율령도 오징어 잡이에서 덕장까지 조사어휘(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음성	형태	뜻풀이	종류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형태	종류	원표제어
어업	행위						선원징가리	명	선원이 가져가는 부함을 가리키는 말.	선원	명		강영길(율령도)		0	종류	어업
어업	행위						선장징가리	명	선장이 가져가는 부함을 가리키는 말.	선장	명		강영길(율령도)		0	종류	어업
어업	행위						시물다	동	함을 들어 당기는 행위이다.	시물	동		건학영(율령도)		0	종류	어업
어업	행위						오징어 배에 끼다	관	이쑤새를 오징어 배에 끼우는 것이다.	이쑤새	관		박봉식(율령도)		0	종류	어업
어업	행위						오징어바리	명	오징어를 잡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 다른 말로 '이까바리, 이까빠리'라고도 한다.	오징어	명		건학영(율령도)		0	종류	어업
어업	행위						원양 간다	관	오징어를 잡으러 멀리 가는 것을 말한다.	원양	관		김형수(율령도)		0	종류	어업
어업	행위						위판 하다	관	오징어를 경매하기 위해 시장에 내놓는 것이다.	위판	관		박봉식(율령도)		0	종류	어업
어업	행위						이까바리	명	오징어를 잡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	이까	명		강영길, 박봉식(율령도)		0	종류	어업
어업	행위						자개다	동	자국차국 정리하다.	자개	동		박봉식, 김세은(율령도)		0	종류	어업
어업	행위						저울에 달다	관	오징어 무게에 따라 또 크기에 따라, 종, 소를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저울	관		박봉식(율령도)		0	종류	어업
어업	행위						중상바리	명	나에게 큰 손실이 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	중상	명		박봉식(율령도)		0	종류	어업
어업	행위						징가리	명	각자 받게 되는 배당금을 의미하는 말. 다른 말로 '부합, 부하'라고도 한다.	징가	명		강영길(율령도)		0	종류	어업

02 울릉도 오징어 잡이에서 덕장까지 조사어휘(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음성 정보	형태 정보	뜻풀이	유래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영단 정보 사전	영단 정보 영성 사전	표준어 어사전 특징어
어업	행위						오징어를 대, 중, 소에 따라 60에서 120마리를 한 덩어리로 낚는 것을 가리킨다. 이 지역에서는 수크리화대로 말라가, 자꾸 창고 안에 여럿다가는 110-120마리를, 중은 80-90마리를, 대인자 다른 오징어에 중 열 나다든지 열 나다.는 60-70마리를 짝을 지어 사용하고 있었다.	관			그거는 날 좋으면 이상일 만에 팔을 때도 있고 사오일 걸릴 때도 있고, 뭐 모두 놓고 일금 번, 할복 내라가 할복부터 그 당에 고들바리, 까야 되제, 실어야 올려, 덕장에 올려야 돼. 귀 디베고 발 디고 귀 추고 또 저저저 작, 작, {속 씨우고} 다리고 뉘워 아른 이 과정이 뉘워 뉘워.		박봉식(울릉도)			0	
								관		팩 찌다'와 같은 의미이다.		과정이 영일금 번 손이 가야 돼. 과정이 영일금 번, 할복 내라가 할복부터 그 당에 고들바리, 까야 되제, 실어야 올려, 덕장에 올려야 돼. 귀 디베고 발 디고 귀 추고 또 저저저 작, 작, {속 씨우고} 다리고 뉘워 아른 이 과정이 뉘워 뉘워.		김세운(울릉도)			0
어업	행위						오징어를 낚는 기계를 가리키는 말.	명			그래서 뭐 변화 개 전부 그거고, 아직까지는 이 이 이상의 어법 {채낚기로서} 발전은 없는 것뿐임. 자도 어촌계장을 하지만 아직 그런데 대해서는 들은 적도 없고.		강영길(울릉도)			0	
								관		배를 물고 바다로 가기 전, 바다에서 하늘의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옛날에는 전부 선장들이 하는 보고, 하는 것보다 보고 {천기를 보고} 기명을 가. 기명을 가 주고 구름이 어어서 어에 피면 불이 어게 된다 이래. 그래 그거 신. 그때는 우리만 인제 내가 배로 그때도 그런 거 신경을 쓰고 했으니까네 예전데 그래도 대개 맞아.		전학웅(울릉도)			0
어업	행위						초등오징어를 잡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 5-6월에 이루어진다.	명			초등 오징어는 인자 죽줄말에, 쉼 먼저 나는 거는 {초등바리} 초등바리, 초등바리, 초등오징어.		김성호(울릉도)			0	
								관		오징어를 20마리씩 묶어 내는 것을 말한다.		그니까 빼야 되제, 흘려야 되제, 그칠 뉘어야 되제, 나중에 마마마 붙에 영는 그거 빼사지에는 동산은 '줄이 영 귀씩으로 하고, 그릴 다 말루면은 인자 다리는 거 그거도 빼우고 {속 지어야} 되제, 속.		김세운(울릉도)			0
어업	행위						오징어에 이것대를 끼우는 것을 가리킨다.	관			해야 되제, 덕덕, 인자, 이거 저 처에 거 리아카에 실어야 되제. 덕장에 올리어 되제, '빠야' 날, {빠야야} 되제, 그 당에 {왕기 저야} 되제, 그 당에 귀 디베야 되제, 발 디야 되제, 귀 추야 되제.		김세운(울릉도)	0	0		
								동		오징어의 몸이 잘 마를 수 있도록 피는 것을 말한다.		해야 되제, 덕덕, 인자, 이거 저 처에 거 리아카에 실어야 되제. 덕장에 올리어 되제, '빠야' 날, {빠야야} 되제, 그 당에 왕기 저야} 되제, 그 당에 귀 디베야 되제, 발 디야 되제, 귀 추야 되제.		김세운(울릉도)			0
어업	행위						한지를 잡는 행위를 가리킨다.	명			모거 인자 조금 있으면 {한지바리를} 해오. 그러면 그거는 그물로가 들면 그물로가, 막 이래 댕.		김성호(울릉도)			0	

02 울릉도 오징어 잡이에서 덕장까지 조사어휘(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용칭명	발음 정보	음성 정보	뜻풀이	유래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별칭 정보	별칭 정보2	표준어 정보	표준어 정보2
어업	행위							활복	명	명	오징어 배를 갈라 창자와 분리하는 행위가 다. 간조를 하기 위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과장이 영일군 번 손이 가야 돼. 과장이 영 일군 번. 활복 내라가 {활복부터} 그 당에 고를바리 까야 되제. 실어가 올라. 덕장에 올라야 돼. 귀 디배고 밭 피고 귀 추고 또 저 저저 작. 짝. 짝 짜우고 다리고 뭐워 아른 이 과장이 열 한 열 번.		김세윤(울릉도)		0	0	0	
											해바리	명	명	진복이 햇빛의 불을 보고 욕지로 올라오는 것을 가리킨다.	아. 그래서 나무가 죽 열어지니까 바닷가에 속 잡지는 거야. 그러니까 진복이 저녁 되면 다 올라와요. 졸을 다 올라와요. 그래 우리 가 어릴 때 막일주 안 있어오. 가~ 졸고 가 면은. 죄물 죄 해가 햇불 해가지고 해바리. {해바리라} 하죠.		김성호(울릉도)		0
어업	행위							해지기	명	명	오징어를 아침에 해가 뜨기 시작할 쯤에 잡 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	그래 이 나무가 진복다. 느티나무 기록나무 야. 그래서 나무가 죽 열어지니까 바닷가에 속 잡지는 거야. 그러니까 진복이 저녁 되면 다 올라와요. 졸을 다 올라와요. 그래 우리 가 어릴 때 막일주 안 있어오. 가~ 졸고 가 면은. 죄물 죄 해가 햇불 해가지고 해바리. {해바리라} 하죠.		박봉식(울릉도)		0			
어업	행위							후리기	명	명	오징어를 잡기 위해 물에서 후려서 잡는 말.	그거는 여 {후리기} 하는데 여는 이런 거 안 한다. 이런 거.		정익선(울릉도)		0			
어업	행위							후리치	명	명	후리치기를 달리 부르는 말.	{후리치} 하는 거라.	사전에 '물고기를 따서 잡는 기구의 하나'로 등재됨.	정익선(울릉도)		0			
어업	행위							후리치기	명	명	오징어를 잡기 위해 물에서 후려서 잡는 행 위.	{후리치기} 하는 그물. 그래 맞다. 후리치가 하는 그물.		강원도(울릉도)		0			
어업	행위							출다	동	동	어느 정도 마른 오징어의 몸을 편편하게 펴 는 행위.	귀추는 거. 예. 요런 거지. 요렇게 요런 거. 요를 때가 있고 그 당에 인자 어느 정도 이 기 마드면 가지고 들어가서 인자 빼가지고 인자 그걸 {출다} 아랍니다. 다시 출어가 되고 인자 다시 말루린지 피데기는 출어가 고대로 하고 요렇게 하는 거죠.		박봉식(울릉도)		0	0	0	
											오징어건조하는 사람	명	명	오징어를 덕에 나는 사람. 덕장에서 행위자 를 나타내는 명칭은 이 외에 나타나는 사람 이 없다.		박봉식(울릉도)		0	
어업	행위자	덕갈이						기관장	명	명	배의 기관에서의 일을 담당하는 사람.	보신이라는 거는 인자 거 {기관장} 열하 는 거지./아~ 이기 선장 밑에는 {기관장이 란} 게 있었고 그 당에 그 본선원 그라는 게 있었어요.		김정호, 김형수 (울릉도)		0			
어업	행위자	아부						기관장	명	명	배에서 기관 기계를 다루는 사람을 가리키 는 말. 영태배에는 선장. 로리마개. 부항을 구성시켜 기관장은 없다고 한다. 목선의 정 장은 '사람'과 '낙사광'이. 기켓배의 경우는 '기관장'이 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기 그 당시에 남은 배에 인제 내 배를 갖 고 한 개 아니고 남의 배에 인자 기관장이랑 그렸어. 기관장. 영태배로 기관장. 그때는 선장을 선택. {기관장을} 기관장. 그 다음에 인제 기관장을 어떻게. 가만. 보신. 보신이 란 그랬거든. 인자.		강영길(울릉도)		0	0	0	
											기관장	명	명	기관장을 달리 부르는 말.		강영길(울릉도)		0	

02월 18일 토요일 오징어잡이에서 덕장까지 조사어후회(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 분류1	원표제어 표준어	출판명	발행 정보	통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월간 평균 점수	연간 평균 점수	표준 어휘 등록 유형
어업	행위자	어부					남박	남바	명	기관장을 보조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	부인을 더 주는 거지. 주고. 그 당에 기관장. 기관장 밑에 {남박이라고} 있었어.		김형수(울릉도)		0		표준 어휘 등록 유형
어업	행위자	어부					남방		명	기관장을 보조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	{다른 사람은 인제 그때는 선원들이 남아들 고 볼 때니까 그 당에 인자 기관장을 인자, 보조하는 인자 {남방이라} 그랬호. {남방}.		강영길(울릉도)		0		표준 어휘 등록 유형
어업	행위자	어부					막내		명	배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을 가리키는 말. ‘막내아’의 경우 밥을 지는 일을 하느니 , ‘화장’의 역할을 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젊 나이 어린애를 아 {막내야} 막내야 이별 가족관계와 관련된 내용인 등재됨		김형수(울릉도)		0		표준 어휘 등록 유형
어업	행위자	어부					막내아		명	막내를 달리 부르는 말.	뭐 동선 그렇게 큰 배들이 말하는 거지. 간 프는 그런 화장이나 그런 게 없었고, 그것도 그냥 뭐 뽕짝란에 타는 사람 뭐. {막내} 라고} 부르. 뭐 표현이 맞 맛을 거고.		김성호(울릉도)		0		표준 어휘 등록 유형
어업	행위자	어부					미나라아		명	일반 선원을 달리 부르는 말. 이와 같은 말 에 인자 선원을 뜻다가 {미나라아}. 미나라 아. 미나라아이란 그랬던가. 미나라아라고 했 었. 없었던.	그래 남방은 기관포에 속해. 기관포. 그 당 에 인자 선원을 뜻다가 {미나라아}. 미나라 아. 미나라아이란 그랬던가. 미나라아라고 했 었. 없었던.		강영길(울릉도)		0		표준 어휘 등록 유형
어업	행위자	어부					뱃사람		명	배를 부리기나 배에서 일을 하는 사람.	이 {뱃사람은} 비 오고 하든 그 바깥에 웅츠 리고 이래 있는 모습임.		강영길(울릉도)		0	0	표준 어휘 등록 유형
어업	행위자	어부					보신	보신	명	기관장을 달리 가리키는 말. 이름에 제일 앞 에 타는 사람이다.	지가 그 당시에 남은 배에 인제 내 배를 갖 고 한 게 아니고 남의 배에 인자 기관장이라 그했어. 기관포. 일반말로 기관포. 그때는 선장을 선포. 기관장을 기관포. 그 다음에 인제 기관장을 어덜게. 기관. {보신}, 보신 이라 그랬거든. 인자. / {보신이라는} 거는 인자 거 기관장을 말하는 거지.		강영길, 김성호 (울릉도)		0		표준 어휘 등록 유형
어업	행위자	어부					본선원		명	기관장, 기관장, 선장들을 제외한 어부를 부 르는 말. 배를 타고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일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아~ 이기 선장 밑에는 기관장이란 게 있었 고 그 당에 그 {본선원} 그라는 게 있었어 요.		김형수(울릉도)		0		표준 어휘 등록 유형
어업	행위자	어부					선원		명	어부를 달리 부르는 말. 배를 타고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아 그렇. 일반 {선원들이조}.		김형수(울릉도)		0	0	표준 어휘 등록 유형
어업	행위자	어부					선장		명	배에서 선원을 지휘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 이때 배의 주인은 배임재, 선주라고 한 다.	내가 직점 {선장이} 하는 치받아 보고 찬기 알. 찬기 보고 날이 나빠진다. 날이 좋다. 나쁘다 그런 거 판단해야.		건학웅(울릉도)		0	0	표준 어휘 등록 유형
어업	행위자	어부					선주		명	배 주인. =배임재	예. 그래서 요즘 인자 아개도 이야기하다가 다툼 대로 출러 들어왔는데. 그 뱃자리에서 과거에는 배를 출리고 자기. 그 마응에 그 출 뱃자리 만들어가지고. 그 인자 배가. 아침에 지고 오면은 {선주가} 있고 선원이 있고.		김성호(울릉도)		0	0	표준 어휘 등록 유형

02 울릉도 오징어 잡이에서 덕장까지 조사어휘(김지숙)

번호	대위자	중위자	소위자1	소위자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음성	발음	종류	뜻풀이	유래	기타정보	출전정보 1	출전정보2	형태	종류	원표제어
어업	행위자	어부						명	선장을 멀리 부르는 말.	명	선장을 멀리 부르는 말.	저가 그 당시에 남은 배에 인해 내 배를 갖 고 한 개 아니고 남의 배에 인자 기관장이라 그렸어. 기관조, 일본말로 기관조. 그때는 선장을 {선조} 기관장을 기관조. 그 다음에 인제 기관장을 어떻게. 가판, 보싱, 보싱이 라 그랬거든. 인자.	강영길(울릉도)		0	표준어		
어업	행위자	어부						명	기관장을 보조하는 남바, 남방 밑에 일을 하 는 막내를 가리키는 말.	명	기관장을 보조하는 남바, 남방 밑에 일을 하 는 막내를 가리키는 말.	남바이라고 있었는데 남바 밑에 이제 또 기 관실에 성영이 남동하고 기계가 연대가 되 기 때문에 남바 밑에 그걸 참 일본말인데 {아부라사시라} 그랬는데.	김형수(울릉도)		0	표준어		
어업	행위자	어부						명	배에서 밥을 하는 사람, 화장을 장난성이 부 르는 말이다.	명	배에서 밥을 하는 사람, 화장을 장난성이 부 르는 말이다.	아~ 취사부에 취사부에 화장이라고 있어요. 화장이라고 이름을 썼다가 그게 들어가 인 사선상의 의미와는 다른. 올때 {영양사라} 그랬어요. 예, 영양사.	김형수(울릉도)		0	표준어		
어업	행위자	어부						명	배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이를 가리키는 말. 배에서도 나이가 많은 이를 따로 대접을 해 준다. 나이의 많고 적음에 따라 영칭이 나누 어지기도 했는데 배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영자', 곧,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은 '막내'로 말해지고 있었다.	명	배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이를 가리키는 말. 배에서도 나이가 많은 이를 따로 대접을 해 준다. 나이의 많고 적음에 따라 영칭이 나누 어지기도 했는데 배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영자', 곧,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은 '막내'로 말해지고 있었다.				0	표준어		
어업	행위자	어부						명	배에서 가장 막내를 가리키는 말, 보통 처음 배를 타는 사람을 가리킨다.	명	배에서 가장 막내를 가리키는 말, 보통 처음 배를 타는 사람을 가리킨다.	아 오징어 많이 낀다 고기 많이 낀다 니 장 이라 가장 이러면 거기 인자 그 양쪽에 한 개, 주는 거 그거는 인자 견습생 비슷하지, 그런 사람을 그걸 부라고 안 하고 그 이거는 아마 일본말이지 싶어. {오끼야라} 이러 라고. 오끼야.	박봉식(울릉도)		0	표준어		
어업	행위자	어부						명	오른쪽 도모에 타는 선원을 가리키는 말.	명	오른쪽 도모에 타는 선원을 가리키는 말.	그러면 이기 아래 되는 거야, 인자 왼도모 {오른도모}.		박봉식(울릉도)		0	표준어	
어업	행위자	어부						명	왼쪽 도모를 달리 부르는 말.	명	왼쪽 도모를 달리 부르는 말.	그러니까 저 양쪽에서 선수 쪽으로 보다 선 미 쪽으로 뒤쪽으로 하니까 인제 뒤쪽에 오른쪽에 타는 사람은 그 왼도모 {오른도모 고티}, 왼쪽에 타는 사람은 왼도모고티 전 장은 옆에 타는 사람은 왼도모 이런 방법.		박봉식(울릉도)		0	표준어	
어업	행위자	어부						명	왼쪽 도모에 타는 선원을 가리키는 말.	명	왼쪽 도모에 타는 선원을 가리키는 말.	그러면 이기 아래 되는 거야, 인자 {왼도모} 오른도모.		박봉식(울릉도)		0	표준어	
어업	행위자	어부						명	오른도모를 달리 부르는 말.	명	오른도모를 달리 부르는 말.	그러니까 저 양쪽에서 선수 쪽으로 보다 선 미 쪽으로 뒤쪽으로 하니까 인제 뒤쪽에 오른쪽에 타는 사람은 그 왼도모, 오른도모 고티, 왼쪽에 타는 사람은 {왼도모고티} 전 장은 옆에 타는 사람은 왼도모 이런 방법.		박봉식(울릉도)		0	표준어	

02 울릉도 오징어 잡이에서 덕장까지 조사어휘(김지숙)

주 요 분 류	주 요 분 류 명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4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5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6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7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8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9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0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1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2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3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4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5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6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7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8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9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0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1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2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3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4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5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6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7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8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9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0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1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2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3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4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5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6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7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8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9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40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41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42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43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44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45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46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47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48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49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50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51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52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53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54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55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56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57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58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59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60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61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62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63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64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65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66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67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68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69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70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71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72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73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74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75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76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77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78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79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80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81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82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83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84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85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86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87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88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89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90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91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92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93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94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95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96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97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98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99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00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01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02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03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04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05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06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07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08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09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10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11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12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13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14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15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16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17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18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19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20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21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22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23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24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25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26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27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28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29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30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31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32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33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34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35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36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37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38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39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40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41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42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43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44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45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46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47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48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49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50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51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52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53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54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55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56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57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58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59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60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61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62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63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64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65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66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67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68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69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70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71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72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73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74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75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76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77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78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79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80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81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82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83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84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85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86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87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88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89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90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91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92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93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94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95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96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97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98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199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00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01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02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03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04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05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06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07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08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09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10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11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12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13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14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15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16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17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18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19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20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21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22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23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24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25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26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27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28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29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30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31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32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33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34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35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36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37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38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39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40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41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42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43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44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45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46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47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48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49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50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51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52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53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54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55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56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57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58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59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60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61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62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63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64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65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66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67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68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69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70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71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72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73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74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75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76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77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78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79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80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81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82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83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84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85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86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87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88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89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90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91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92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93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94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95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96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97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98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299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00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01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02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03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04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05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06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07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08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09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10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11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12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13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14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15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16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17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18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19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20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21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22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23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24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25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26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27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28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29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30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31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32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33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34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35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36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37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38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39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40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41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42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43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44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45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46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47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48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49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50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51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52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53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54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55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56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57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58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59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60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61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62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63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64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65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66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67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68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69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70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71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72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73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74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75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76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77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78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79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80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81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82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83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84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85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86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87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88	주 요 분 류 상 세 분 류 389	주 요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찾 아 보 기

ㄱ

가라	127
가새	110
가을바리	107, 114, 153
간꼬	119
간수등	136
간판	131
간판장	105
갑바(갑빠)	134
갑오징어	148, 149
갯바리	107, 155
강원도 강남옛 울릉도 호박옛	100
개락천지 빼갈이다	100
거품	111
건조장	144
겨울오징어	147, 150, 153
경칩	137
고꾸라	138
고꾸랏대	138
고무찌	127
공동바리	155
구무니	111
굵은오징어	148
귀 넓히다	158
귀 디매다	158
귀 제끼다	158
귀 추다	158
귀 피다	158
귀태기(귀때기, 귀)	161
귀탕이 눅히다	158
그물바리	107
그물바리	155

그물배	119, 121
근해바다	110
기갯배	119
기관선	119
기관실	120
기관장	105
기관조	105
깃 꽃았다	96
깜물	112
꼬대기	127
꼬쟁	144
꼬창	144
꼬창가리	144
꽁치젓	165

ㄴ

낙수	136
낙시	137
낙시바	138
낙시바늘	139
낙시배	119
낙시이늘	140
낙시줄	140
낙시채	140
날나리	141
남바다	111
남박	105
남쪽	111
납	138, 139
낫바리	154
낫오징어	147, 149
낫이까	149
낫치기	107, 114, 154

내장탕	163	당일바리	107, 155
넷물(내물)	113	당제	168
냉동선	119	대나무	138
너리다	113	대자	147
너린 바다걸다	113	대포	149
너울 있다	111	대포알	148, 149
너울(놀)	111	덕	143
너울	111	덕장	116, 143
너울성과도	111	덕장에 었다	158
너울파도	111	덕장에 올리다	158
노	130	덮어씌우다	111
노따깨비	130	도드레	129
노딱깨비	130	도마	133
노스쪽	111	도모	127
노십	130	도모까치	127
노썰	130	도모통	127
노우테	130	도직기	148, 153
노잎	130	도풍	128
노직기(도직기)	149	도풍배	119
노직이	130	돔보	139
놀	111, 130	동력선	119
놀구멍	130	동바다	111
놀손	130	동삼바리	107, 114, 153
놀잎	130	동삼지기	150
놀쫓	130	동새	111
높다	111	동제	168
누런창대기(똥창, 누런기, 누른창, 간, 난유기, 오징어간)	161	동지 지나면 오징어가 끝났다	101
누런창스래기찌개	163	동지가 오징어 환갑이다	101
누런창찌개	163	동짓 팔죽 먹으면 오징어 환갑이다	101
누른창대기젓	165	동태바리	107
눈까리(눈) 입(조디)	161	돛	129
니끼도	137	돛대	129
		두름	151
		들물 채다	113
		들물	113
		따개비밥	164
		따개비죽	164
		따개비칼국수	164
		땃죽칸	131
다리	161		
다이버	109		
달치기	107, 114, 154		

맞줄말때기	127
맞칸	
때리다	111
편지바리	107, 155
떼배	119, 120
멧마	119, 120
멧목	119, 120
똥	161

ㄹ

로라	140
로라냥시	140
리아카	145
리아카로 덕장에 실어주기	157
리어카에 싣다	157

ㅁ

마끼도래	137
마발물 간다	113
막내(이)	105
만물	113
만선 했다	96
맞쪽	111
맹물	112
맹물이다	112
머구리	107, 19
머구리배	119
먹통	148, 149, 161
먼바다	110
명이로가 명을 잇아가 나갔다	99
명태배	118, 121
모다	119, 127
모야(모애)	127
모야	128
모에	128
목선	119

목줄	137
몸통(몸띠, 몸)	161
묘시	127
무동력선	119
무중바리	155
문애 여름 잡으면 개도 안 먹는다	101
물레	140
물이 간다	113
물이 빨다	113
물이 빨었다	113
물항장	112
미나라이	105
밀짚모자	134
(문어는) 여름에 잡으면 개도 안 묵는다	101

ㅂ

바다 쪽에서 흰하게 일 때 왁새가 터진다	98
바닷가에 있는 사람 과부 많다	99
바닷물	112
바리	151
바지게	145
반짓까리	155
반풍	128
발 띠다	159
발	161
발동기(동력선)	119
발동기	119
밤치기	107, 114, 154
밥뻥또	135
밥통	135
배 뒤피다	159
배 디끼다	159
배 타는 사람들이 비 오면 부잣집 개보다	
모하다	99
배 한장	127
배	118
배고사	168
배뒤	127

배를 처음 지았을 때 여자는 안 태운다	100
배밑	127
배발	127
배빨따리	127
배안	127
배앞	127
배에다가 여자 한 사람 심지 마라	100
배임자	105
배짓까리	155
벧눔 비 오면 부잣집 개보다 더 모하다	99
벧눔	104
벧발	127
벧사람	104
벧자리	112
별치기	154
보건다이	127
보젠다이	127
보신	104, 105
보지기	107, 108
본선원	105
본채	131
부아끼	155
부압	156
부자리상	127
부합	155, 156
북바다	111
분이 편다	151
불가사리가 깔고 있으면 판 고기가 못 온다	96
불건조장	144
불통	144
(벧눔) 가난한 집 개보다도 더 모하다	99



사각물레	140
사구라지기	148
사기	137, 139
사도	137
사이스쪽	111

사태기	133
산자꼬	140, 155
살오징어	148, 149, 153
삼나무	118
새복에 여자가 지나가면 작업 안 나간다	100
새쪽	111
셋날 불면 작업 되겠나	97
셋바람 불면 고기가 안 잡힌다	97
셋바람 안 부는 날	115
셋별치기	107, 114, 154
서바다	111
서쪽	111
석유등	136
선	119
선망오징어	147, 150
선미	127
선수	127
선원	105
선원짓까리	155
선장	104, 105
선장집	131
선장짓까리	155
선주	105
선착장	112
선채	131, 136, 138
설매	134
설상	127
설피	134
센쪼	105
소다	113
소자	147
손사공 죽었는 날은 바람이 세게 분다	97, 99
수기나무	118
수레	127
수루매	147
숫조기	150
시매제	116
시부끼 들더나	111
시부끼	111

시울	137
심살	129
쌈장	164
썰물	113
씨 자빠졌다	151

○

아닷줄(아돏줄)	129
아부라사시	105
아사히찌(붉은오징어)	148
아사히찌	147
알조기	150
앞바다	110
앵치	147, 148
야끼다마	119
양호돏	128
앞우다	113
어구통	135, 137
어선	121
어판장	116
어판장제	168
에프알피	119
여름문애는 개도 안 묵는다	101
연락선	119
연빈에 시부끼 들다	98
연안	110
영양사	105
영자(어른)	105
영자	104
오끼야	105
오늘 조금이니까 가보자	97
오독빼	149
오른도모	104, 105
오모까치	127
오삼불고기	164
오야지	107, 108
오징어 배에 끼다	157
오징어	147

오징어가 텃다	101
오징어낙수통	135, 137
오징어내장탕	163
오징어덕장	143
오징어바리	153
오징어배	118, 119, 121
오징어순대	164
오징어젓갈	165
오징어통	135, 137
오징어회	164
오징엇대	144
올라가다	111
와사등	136
윈도모	104, 105
요끼와	131
요이찌(흰오징어)	147, 148
용골	127
용끼도	137
용천	128
용천대	128
용천줄	128
용총	129
우리나라노	130
우찌로도논 나무에 전복이 열린다	96
원양(바리)	155
원양바리	107
원줄	137, 138, 139
웨스쪽	111
유단	137
유단천	139
이까	147
이까내장탕	163
이까바리	153
이까빠리	153
이깻대 끼우기	157
이깻대	144
이깨스칸	131
이루꾸찌	112
이물	127

이바다	110
이스쪽	111
이숫물 간다	113
이숫물	113
이쪽바다	110
일반선원	105
일본노	118
일본놀	130

ㄸ

자개다	159
자기통	135, 137
자동조상기	140, 142
작은돛	128
작은배	119
작은풍	128
잘다	151
잠수선	119, 120
장화	134
잘	110
채래식머구리	109
저바다	110
저장오징어	151
저쪽바다	110
적은파도	111
적은풍	119
전기등	136
전기사도	137
제주사람	108
제주산	108
제주해녀	108
조금 보러 간다	97
조금 전 삼일 후 삼일 고기가 잘 잡힌다	97
조금	115
조금은 고기가 조금씩 난다	97
조기	151
조기바리	151, 153
조기장	105

조모순이	154
조모시기	114
조상기	142
조선노	118
조선놀	130
좁다	113
종지(종지기, 긴다리)	161
줄 때	127
줄	140
중상바리	155
중자	147
증꼬지	144
지따묵기(사륙제(째), 삼칠제(째), 고부고부)	155
집어등	136
짚우다	113
짹 짓다	160
짹 찌우다	160
짹	151
짚물	112
짧은다리	161
짹다	112

ㅈ

찬절 날 때 먹은 고기가 젤 맛이 좋다	102
창대기	161
창손	129
창송	129
채낚기	142
철사	137
철선	119
초등바리	107, 114, 153
초등오징어	147, 148
초매식	116, 168
초물	148, 153
총각 새침하게 면하다	99
축 짓다	159
축	151
축강	112

축강목	112
춘대바리	107
치	129
치구멍	127
치다	111
치장손	129
치장술	129

ㅋ

콩 먹으러 왔다	102
큰꼬지	144
큰돛	128
큰파도	111
큰풍	119, 128
키	129

ㅌ

택택이(착택이)	119
탱기 치다	158
탱기	144
탱깃대	144
털모자	134
통배 탕다	96
통통배	119

ㅍ

파도에 시부끼 들다	98
판장	116
팔각물레	140
패다(피다)	159
패철	135
평평하다	113
풍기미	127
풍선	119
피데기	151

피둥어골뛰기	147, 148, 149
--------	---------------

ㅎ

하다까	109
학꼬	135
학꼬	137
한장	105, 127
한물	148
한직기	147, 148, 149
한치	151
한치바리	151, 153
할복	157
항구	135
항구목	112
항목	112
해남	107, 109
해녀	107
해신제	168
해치기	114, 154
헛깨비불이 산에 보이면 날씨가 마이 나빠진다	98
헛불이 있으면 이삼일 내로 큰바람이 분다	98
호야불	136
홀당가지 없는 개장사라	102
화장	104, 105
활아지	128
훅다	159
휘발유등	136
흰창대기(흰창자, 흰창)	161
히바리	107, 108
힘살	129

■ 연구책임자: 강정희(한남대학교)

■ 연구원: 김지숙(영남대학교)

2012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2

발행인 민현식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방화 3동 827

전화 : 02-2669-9775 팩스 : 02-2669-9727

인쇄일 2012년 9월 26일

발행일 2012년 9월 28일

인쇄 크리홍보(주) (02-737-5377)
